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91

제1호(58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경제건설론설)

(문화건설론설)

(경험론설)

(조국통일문제)

(국제문제)

김 일 성

신 사

(1991년 1월 1일)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나는 희망찬 새해 1991년을 맞으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90년은 우리 인민이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한 긍지높은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졌으며 이것은 나라가 분렬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앞에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공세로써 반혁명적공세를 맞받아나갔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전체 근로자들을 새로운 대진군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온갖 장애와 도전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군군인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발전소건설과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확장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습니다. 가까운 기간에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성의 전투에 떨쳐나선 수도건설자들은 통일거리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지난 한해동안에 3만세대의 현대적인

울림집을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농촌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 떨쳐나선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지원자들은 짧은 기간에 2천리의 물길을 새로 건설하여 대동강과 례성강, 압록강과 대령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련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천지개벽을 이룩하였습니다. 2천리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발전과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의 엄혹한 정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는 힘있는 고무로 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위기》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는 때에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끄떡하지 않고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은 세계인민들속에서 경탄을 자아내고있으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함께 혁명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왔으며 1990년대의 첫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들,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

를 드립니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현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계속 높이 울릴 때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소동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주체사상의 견인력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입니다. 올해에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과 10월9일강철종합공장 건설, 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당앞에 결의한 건설목표를 어김없이 실현함으로써 당과 인민들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것입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정치생활과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업과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며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농업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제때에 보장하며 경공업공장들에 화학섬유와 여러가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며 특히 평양시에서 통일거리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당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해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당적지도와 행정경제적,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집단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기본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옳게 실현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관리에서 특히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생산규률을 강화하며 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경제적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온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을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동지적단결의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싸워이긴 영웅적인민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온 혁명적인민입니다. 전

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온 민족이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서 거족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력사적인 8.15범민족대회가 열리고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체육인, 예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통일축제를 벌린것은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커다란 경사였습니다. 대결과 분렬의 얼음장을 녹이며 뜨겁게 분출된 이러한 민족적단합의 기운은 민족내부에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여온 반공대결정책이 파산되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된것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오늘 우리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날을 더욱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분렬을 반세기이상 끌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평화적전제를 마련하는것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리념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무겁게 드리우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터진다면 조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될것입니다. 평화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북과 남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1988년에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것을 예견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에는 북남고위급회담을 마련하고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대결상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있으며 도리여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남고위급회담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평화》요, 《랭전종식》이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평화보장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도 취하려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류우선론》에만 매달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래왕이나 교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보다 긴절한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려는데 대해서는 타협할수 없습니다. 북남사이에 고향방문이나 경제교류를 실현하자고 하여도 우선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북침과 《남침》에 대한 위구심부터 풀어야 합니다. 전쟁이 현실적위험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교류만을 고집하는것은 사실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래왕과 교류 자체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채택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이 취한 립장은 그들에게 평화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됩니다.

불가침선언은 남조선당국자들자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한 문제인데 오늘에 와서 그것을 반대할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신뢰조성우선》이라는 새로운 전제조건을 들고나와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는데 대하여 도저히 리해할수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뢰조성우선》이라는것은 불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가침선언은 결코 신뢰조성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남조선당국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도전에 그것을 휴지장이라고 하고 우리를 믿을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들이 우리와 합의할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이며 도대체 회담을 한다는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거부하는것은 불가침을 외워온 그들의 말이 거짓이고 《남침위협》이라는것도 한갖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을뿐입니다.

남조선당국은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려고 할것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주저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도 중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도 우리의 진지한 평화노력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조국통일열망을 바로 보고 힘의 립장에 선 위험한 전쟁정

책을 포기하며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것이며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려지게 될것입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입니다.

조국통일방도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실천적으로는 북과 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보조를 같이할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대화의 첫 실마리도 풀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이 먼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는 오늘 북과 남은 하루빨리 조국통일방도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질화》되여있는 북과 남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고있으나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민족적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인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서로 다른것이 있다면 지난 40여년동안 존재하여온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인데 그것은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동질성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로 될것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습니다. 력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 《동질성》회복이라는 구실밑에 제도가 단일화되기전에는 두개 국가로 갈라져있을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것은 나라의 분렬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입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

탐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는것입니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어느측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며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까지 빚어내게 될것입니다.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과의 회담에는 성실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하는것은 그들의 사대근성과 분렬주의적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때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입니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실증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건설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입니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도로서 이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도 련방제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지만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조건에서라면 그전에라도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것을 반대하지 않을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리익을 침해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숙망을 실현하게 될것이며 통일민족의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실현될수 없는 《승공통일》을 꿈꾸거나 《적화통일》의 유령으로 인민들을 우롱할것이 아니라 《승공》과 《적화》도 북침과 《남침》도 다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으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이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수 없는 전민족적위업입니다. 《두개 조선》을 반대하고 진실로 조국통일을 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재야를 가리지 말고 다수와 소수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정견의 차이와 과거의 허물도 묻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각 당, 각 파의 정치세력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련대, 련합하여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며 신뢰를 두터이 하는것입니다. 당국자들사이에도 대화가 진행되고 각계층의 민간인들도 서로 만나 대화를 하자고 하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전도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담을 쌓고 앉아있는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조선의 여당인사들과도 만나고 야당과 재야 인사들과도 만날것이며 그 누구에게나 통일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있을것입니다.

당국사이의 회담이 결코 북남대화의 유일한 창구로 될수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고위급회담도 진척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민간인들사이의 대화마저 가로

막는것과 같은 협애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북을 적대시하는 《법》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우리와 만나 통일문제를 론의하였다고 하여 체포투옥한 각계 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모든 남조선인민들에게 북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대화할수 있는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온갖 분렬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올해를 완화와 평화의 해, 화해와 단합의 해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국제정세의 변화과정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반제자주적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랭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구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자주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있는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길로 되돌려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인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조》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고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정치체제와 경제제도를 고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계기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새로운 더 큰 침략의 길로 나가면서 파국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난관과 혼란을 조성하고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제국주의라는것을 현실은 보여주고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고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계속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제적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오늘 아세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근면하고 재능있는 아세아인민들이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해나간다면 아세아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력사가 전진하는 과정에 일시적인 좌절과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것은 어길수 없는 법칙입니다. 전진도상에 부닥친 난관에 굴복하여 원칙을 버리고 력사의 궤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패와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며 진리와 원칙을 고수하고 력사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반동 사이의 복잡한 투쟁과 혼란된 정세 속에서 21세기에로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당의 령도를 받들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희망의 년대이며 투쟁의 년대인 1990년대의 첫해를 창조와 건설의 위훈으로 빛내여온 우리 인민은 오늘 새로운 커다란 포부와 신심에 넘쳐 그 두번째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의 발걸음을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90년은 우리 인민이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한 긍지높은 승리의 한해였습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1페지)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졌으며 이것은 나라가 분렬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새로운 장애와 난관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굳게 뭉쳐 사소한 동요도 없이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견지하고 혁명적공세로 반혁명적공세를 맞받아나갔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새로운 《9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대중적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막대한 생산적예비가 동원되여 높은 수준에서 생산의 정상화가 실현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지난해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군 군인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발전소건설과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확장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가까운 기간에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성의 전투에 떨쳐나선 수도건설자들은 통일거리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지난 한해동안에 8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서해지구에 2천리관개물길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한것은 1990년대의 첫해를 장식한 위대한 승리로 되며 오늘만이 아니라 후손만대를 위하여 참으로 큰일을 해놓은것으로 된다. 대동강과 례성강, 압록강과 대령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련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2천리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자랑할만한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는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1990년대의 첫해에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특히 뜻깊은 사변들이 있

었다.

우리 인민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와 조선로동당창건 45돐기념행사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결속된 불패의 통일단결,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과 견인력을 높이 과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와 조선로동당창건 45돐기념행사 전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뇌수,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당과 수령을 한없이 신뢰하고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민족적 긍지로 여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과 반공화국소동이 전례없이 강화된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특기할 전진을 이룩한 비결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데 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변천하는 시대의 흐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혁명의 주체를 반석같이 꾸리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항일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내고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으며 모든 인군들속에서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고 진당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였다. 우리 당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예술을 떠나서 우리 인민이 국제적으로 조성된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비약의 한길을 걸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과시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여온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희망찬 1990년대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력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이미 쌓아올린 위력한 정치사상적기초와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대진군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림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위력을 더한층 강화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를 자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함으로써 1990년대를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장을 기록한 년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조국땅우에 지상락원을 건설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우리자

선이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부쟁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1990년대의 높은 목표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은 비상히 튼튼하게 다져질것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것이다.

1990년대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는데서 올해의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올해는 1990년대의 두번째 해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계획의 다섯번째 해이다.

우리는 올해의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1990년대에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현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5페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고 있는 영예로운 임무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위훈과 비약을 창조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고 파산을 면치 못하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건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날을 앞당겨올수 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올해에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에 우리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과 10월9일강철종합공장 건설, 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는데 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다 가장 값높은 보람찬 정치생활을 하고있으며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과 근심걱정이 없는 안정된 물질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정치생활과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업과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며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혁명을 힘

저히 관철하여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화학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 화학섬유와 원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며 특히 평양시에서 통일거리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당적지도와 행정경제적,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집단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열쇠가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당의 업적과 위대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음으로 하여 능히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 때만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갈수 있다. 당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의 중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이다. 혁명적당을 떠나서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따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휘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대중의 헌신성과 창조적열의를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당의 사명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나가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것만큼 당이 대중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대중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혁명과 건설의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정치적령도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

을 다그쳐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을 개척하여왔으며 오늘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여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반석같이 다지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동지적단결, 일심단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깊이 체득하고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투쟁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는 지도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지도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기풍이다. 우리 인민은 전후 빈터우에서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영웅적위훈과 비약을 창조하여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높이 떨쳐야 한다.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이다.

새해를 맞는 오늘 우리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날을 더욱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나라의 분렬을 반세기이상 끌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평화적전제를 마련하는것이다.

평화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북과 남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긴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거듭 제기하는 포괄적인 평화방안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화문제, 군사적대결상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외면하고있으며 줄곧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평화》요, 《랭전종식》이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평화보장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류우선론》에만 매달리고있다. 보다 긴절한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고 《교류우선론》을 들고나오는것은 사실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래왕과 교류자체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뢰조성우선》이라는것은 불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불가침선언은 결코 신뢰조성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남조선당국은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

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려고 할것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주저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도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도 힘의 립장에서 위험한 전쟁정책을 걷어치우고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른바 《제도통일》과 《승공통일》의 부당성에 대하여 밝히시고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이 우리 나라의 현 조건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라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명철한 교시는 남조선의 분렬주의자들의 잠꼬대같은 《제도통일》, 《승공통일》 책동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며 조국통일을 전체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가장 빨리 실현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힌 위대한 조국통일방안으로 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으로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조국통일방도의 이 대원칙을 구현할 때 40여년동안 지속되고있는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이룩하게 될것이며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통일민족으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안으로서 이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실현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리익을 침해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숙망을 실현하게 될것이며 세계앞에 통일민족의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것이다.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빠른 시일안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는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이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수 없는 전민족적위업이다. 《두개 조선》을 반대하고 진실로 조국통일을 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 각층의 인민들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며 신뢰를 두터이 하는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전도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는 정치인들이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남조선의 여당인사들과도 만나고 야당과 재야 인사들과도 만날것이며 그 누구에게나 통일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있다.

당국사이의 회담이 결코 북남대화의

유일한 창구로 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고위급회담도 진척시키며 하지 않으면서 민간인들사이의 대화마저 가로막는것과 같은 협애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북을 반대하는 《법》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우리 나라의 전반적정세는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더욱 억세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1990년대를 력사적인 조국통일의 년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인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 건설을 위한 길에서 힘찬 전진을 이룩하고있으나 국제무대에서는 의연히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예견치 않았던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인민들의 사회주의위업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계기로 하여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새로운 더 큰 침략의 길로 나가면서 파국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고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반제자주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을 철저히 짓부시며 인류의 휘황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이 대외정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지침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자주와 평화,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공화국정부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힘을 넣을것이다.

인류력사는 언제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전진하여왔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보다 큰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여있다.

당을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

윤 승 관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운명의 공동체로 굳게 결합되여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우리 사회에 고유한 자랑찬 모습이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을 자기들의 심장과 뇌수로 믿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것을 확고한 혁명적의지로 깊이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왔으며 인민들은 우리 당을 자기의 심장과 뇌수로 믿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왔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것은 혁명위업을 전진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운명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온 사회에 대한 령도적정치조직인 당과 당의 지반이며 혁명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이 얼마나 굳게 결합되여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면 승리하고 분렬되면 패하는것이 혁명이다. 당과 인민대중이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동체가 되여야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은 당이 인민대중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삼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며 인민대중은 당을 자기의 심장과 뇌수로 믿고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려는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지녀야 빛나게 실현된다.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의지는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불패성을 심장으로 체득하였을 때 지니게 된다. 지나온 공산주의운동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이 옳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믿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 인민대중은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혁명적의지를 지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당은 인민대중의 배척을 받게 되며 나중에는 그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다.

우리 당은 당건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당을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혁명적이고 대중적인 당으로 건설하며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이 당 건설과 활동에서 이러한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과 일심동체를 이룸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당과 함께 혁명의 길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전인미답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오는 과정에 우리 당의 불패성과 위대성을 확신하고 당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혁명적의지를 지니였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이 혁명적의지는 혁명위업이 전진하는데 따라 디욱 굳세여지는 의지이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악랄하고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변하지 않

울 절대적인 의지이다. 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그처럼 확고한것으로 되는것은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가 위대하고 풍모가 숭고하며 그 전도가 양양하기때문이다.

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의 확고성은 무엇보다도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관철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당을 믿고 따르려는 인민대중의 의지는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당의 위대성은 중요하게 당의 지도사상과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에 의하여 평가된다.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가장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관철하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만이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게 된다.

우리 당은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장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관철하여온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힌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힌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당의 위대성은 바로 주체사상의 위대성이며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언제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이 밝혀준 길을 따라 전진해옴으로써 우리 인민은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낼수 있었으며 전후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이 땅우에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고 근로인민대중이 그 당당한 주인으로 된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에도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들과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고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면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에서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값높은 정치생활과 행복한 물질생활, 건전한 문화생활을 참답게 향유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는 과정에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야말로 자기들의 운명개척의 길을 뚜렷이 밝힌 완성된 혁명사상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라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당을 믿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을 생명선으로 하고 그것을 구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투쟁과 생활 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간직한 혁명적의지이다.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의 확고성은 또한 우리 당이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당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되여야 인민대중은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게 된다.

사람이 어머니를 믿고 따르는것은 인간생활의 법칙이다. 그것은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아안으며 어머니의 보살핌속에서 성장하기때문이다.

개별적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육체적생명을 받아안고 성장하는것처럼 인민대중의 생명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주어지며 빛나게 된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관계는 령도하고 령도를 받는 관계인 동시에 생명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이다. 인민대중은 당이 자기들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을 주고 보살피는 참다운 어머니로 될 때 당을 믿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게 된다.

우리 당은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어머니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당활동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당이다.

어머니당의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극진히 보살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이다. 사람이 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었으며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정치적생명문제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있는 우리 당은 자식의 생명에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에 자그마한 흠집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고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식이 부모를 따르듯이 우리 당을 자기 생명의 모체로 여기면서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보살필뿐아니라 그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피고있다.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일자리걱정,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 배울 걱정, 치료받을 걱정, 세금걱정을 모르면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현실을 통하여 우리 당이야말로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한없는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맡기고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였다. 이것이 바로 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가장 확고한것으로 되게 한 근본요인의 하나이다.

당을 믿고 따르며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의 확고성은 다음으로 당의 위업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만 자신과 후대들의 휘황한 미래가 담보되게

된다는 드팀없는 신념에 기초한데 있다.

당을 믿고 따르려는 인민들의 혁명적의지는 당이 그들의 어제와 오늘의 운명뿐아니라 자신과 후대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이끌어줄수 있는 전도양양한 당이라는것을 인식하였을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된다.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고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당으로 전망성있게 건설되자면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당자체의 존망과 인민대중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우리 당은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옴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이끌어나갈 위대한 향도자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이 확립되였다. 그리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단결의 전통을 계승하여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일심단결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더없는 긍지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위업,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고 있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자신과 후대들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 당에 운명도 미래도 맡기고 당의 위업에 충실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였다.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이처럼 자신의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이야말로 위대한 사상과 령도로 인민대중의 운명도 미래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한데 기초하여 형성된 가장 굳센 의지로 되는것이다.

당의 위대성은 곧 당의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수령과 그 후계자의 위대성이며 당을 믿고 따르려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의지는 수령과 그 후계자를 믿고 따르려는 의지이다.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 인민대중의 운명은 전적으로 수령과 수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후계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령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당이 창건되며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당의 계승성이 보장되고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된다.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우리 당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당의 위업, 인민대중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긍지높은 인민이다. 세계에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들이 많지만 혁명의 개척자, 당의 창건자를 모시고 반세기 이상의 투쟁의 길을 걸어온 당과 인민은 없으며 수령의 위업을 계승할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 혁명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긍지높은 당과 인민은 더욱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누려본적 없고 그 어느 세대도 가질수 없었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삶과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나가고 있는것은 당과 국가의 수위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기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가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하지 않으며 그 어떤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휘지도 꺾이지도 않는 확고한것으로 되는 근본요인이 있으며 원천이 있다.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오늘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고있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으며 자기 두리에 인민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얼마나 높고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이 얼마나 공고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 하나의 생명으로 일심단결되여있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당과 인민이 운명을 같이하려는 혁명적의지는 당의 두리에 인민대중이 얼마나 튼튼히 결속되여있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을 최고뇌수로 하고 당을 중추로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여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한것이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태성의 할머니를 비롯한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들에 의하여 이어지고 더욱 굳게 다져진 가장 숭고한 통일단결이다.

얼마전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의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은 우리 당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당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 충성의 맹세가 담긴 편지를 올리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한량없는 사랑, 높은 기대가 집약된 귀중한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일심단결의 공고성을 보여주는 생동한 현실이며 당을 믿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뚜렷한 발현인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고있는것은 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려는 인민들의 혁명적의지는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 인민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자기들의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안고있으며 어머니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으며 당이 바라고 의도하는것이라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1980년대에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우고 세인을 경탄시켰으며 1990년대의 첫해인 지난해에 적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던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것은 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의 힘있는 시위로 된다.

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도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혁명적 립장과 원칙을 견결히 지켜나가고있는데서도 높이 발현되고있다.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당과 인민이 결합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온 우리 당의 력사는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 때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으며 당이 위대할 때 인민대중도 위력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확인해주고있다.

당을 믿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주체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믿고 따르려는 확고한 의지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자면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위대성 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이 지닌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그 풍모의 위대성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그들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적의지를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지도사상의 위대성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무비의 견인력과 전투력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당을 믿고 따르려는 의지를 확고히 지니자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쳐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을 믿고 따르려는 혁명적의지를 지니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우리 당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조직령도하여 이룩한 위대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 위업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령도밑에서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면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할수 있으며 자기들의 운명이 개척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이 당을 믿고 따르려는 혁명적의지를 지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권력에 의거하는 방법으로는 당이 인민대중의 신뢰를 얻을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이 당을 따르려는 의지를 지닐수 없다. 오직 모든 일군들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품격에 맞게 인민에 대한 주체적관점을 가지고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일해야 인민대중이 당을 믿고 따르려는 혁명적의지를 지니게 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우리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언제나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고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믿고 따르려는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지니고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

박 춘 근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올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었다.

주체의 혁명리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며 크나큰 행복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하며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건설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요구한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실천투쟁의 지침이다. 과학적인 혁명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앞길을 밝혀주며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는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준다. 혁명리론의 과학성과 진리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패를 좌우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리론은 다름아닌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과학적인 혁명리론,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을 말한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시대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자주시대이다. 지난날에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압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되여있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사회력사발전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지난날 거의나 미개척지로 되여있던 공산주의혁명리론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줄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들을 일반화하여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완성할수 있는 조건이 지어졌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에는 성공한 경험뿐아니라 실패한 교훈도 있으며 우수한 성과뿐아니라 결함도 있다. 이 모든 경험과 교훈은 그것을 분석총화하고 일반화하여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완성할수 있는 기초로 된다.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완성할데 대한 력사적과제는 우리 시대에 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리론은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입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인것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리론은 오늘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전력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되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의 세계관적기초를 이루고있는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원래 모든 혁명리론들은 다 일정한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인 체계인 세계관은 혁명리론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따라서 세계관적기초가 달라지면 혁명리론의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도 달라진다. 혁명리론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세계관의 과학성과 혁명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는 혁명리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모든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처리해나가는 혁명적인 세계관에 기초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를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명시하여주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근본리익을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있으며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처리해나가는 방법론을 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바로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리론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자주시대의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혁명리론을 전개하고 전략전술을 규정하는데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그 리론과 전략전술의 특징과 우월성, 완성정도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주체와 객관적조건의 호상작용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운동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서 고찰의 중심에 인민대중을 놓는가 아니면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을 놓는가에 의하여 혁명리론의 특징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서로 다

른 전략전술이 나온다.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는 주체의 혁명리론은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선행한 혁명리론들과는 달리 근로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전개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의 본질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혁명의 근원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되거나 구속되는데서 찾는다. 이와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 전진시키는 객관적조건은 저절로 조성되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에 의하여 마련된다고 명시해준다.

혁명리론이 혁명의 합법칙성을 체계화한 원리라면 전략전술은 그 원리를 혁명운동에 직접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를 밝힌 방법론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중심의 철학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중심의 완벽한 혁명의 원리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혁명대오를 편성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함께 창조적, 혁명적 능력의 준비정도에 맞게 혁명의 주타격방향을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인민대중의 준비정도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규정하고 인민대중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수 있게 준비된 때를 혁명의 결정적시기로 정하도록 한다.

이 모든것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자주시대의 혁명운동의 본성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리론이며 전략전술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운동의 일반적인 원리와 투쟁방침을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여기에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으며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되게 하였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8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장기적인 혁명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여러 단계의 간고한 혁명투쟁과 복잡한 건설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되자면 인민대중이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때로부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의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힌것으로 되여야 한다.

낡은 착취제도를 청산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으로 되지만 이 과업을 수행하는것만으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

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피지배계급을 해방하는것만을 혁명의 목적으로 보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면 혁명이 끝나는것으로 간주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로 계급적해방에 관한 리론을 밝히는데 머물렀던 선행시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력사적제한성을 극복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전로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청산하여야 할뿐아니라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해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였으며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리론이 독창적으로 체계화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이 새롭게 전면적으로 완성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신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이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아가자면 그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이 있어야 한다. 과학적인 혁명리론이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표와 방향, 수행방도를 정확히 알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할수도 없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도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을 밝히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가 첨예하게 제기한 이 중요한 문제들을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리론에는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거기에로 가는 합법칙적로정,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목표와 전략적로선으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투쟁방침과 구체적인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식화를 하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이라고 밝혀주었다.

이처럼 주체의 혁명리론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완벽한 해명을 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인류사상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인류사상사에서는 처음으로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제시되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본질과 그 완성의 합법칙성이 새롭게 뚜렷이 밝혀졌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예측과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시대, 자주시대가 제기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이 주어졌으며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투쟁은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들의 전투적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거대한 변혁적역할로 하여 우리 혁명은 류례없이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을 지침으로 한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전후 짧은 기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실현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자주적인 정권과 자립적민족경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다.

주체의 혁명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사회주의의 전인력이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세력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인민들의 신념을 꺾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 사회주의위업을 방해하고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은 오늘 절정에 달하고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에 매달리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이야 어느 길로 가든 관계없이 주체의 혁명리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지키면서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실천에서 철저히 구현된 결과 이 땅우에는 사람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였으며 그 우월성은 계속 높이 발양되고있다. 현실은 주체의 혁명리론이야말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이 리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것은 시대와 력사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부과한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며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리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인테리는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

박 관 오

오늘 우리 나라의 인테리들은 로동자, 농민과 함께 주체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대오속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보람찬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가고있다.

우리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으로,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인테리들의 사회적처지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명적인 역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또다시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인테리들이 사회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탁월한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인테리들에 대한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인테리는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매우 큽니다.

인테리는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입니다.》

인테리는 각이한 계급의 출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계층이다. 인테리는 그 어느 사회에서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계급에게 복무하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인테리의 많은 부분이 지배계급에게 복무하지만 선진적인 인테리들은 근로인민대중의 편에 서서 지배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여러 계급의 출신으로 이루어진 사회계층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고 전문지식과 기술로 이러저러한 계급에게 복무한다는것이 인테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지난 시기의 일반적인 리해라고 말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인테리를 단순히 이러저러한 계급에게 복무할수 있는 사회계층으로만 볼수 없다. 인테리는 로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의 담당자로서 혁명의 주체를 이룬다.

인테리가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으로 되는것은 그들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을 가지고 성실한 로동으로 살아나가는 사회계층이라는것과 관련된다.

혁명의 주체는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계급과 계층만이 될수 있다. 혁명의 주체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지는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당을 중추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형성된다.

인테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회계층이다. 인테리는 착취계급의 계급적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인테리는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고있기때문에 자연과 사회 발전법칙을 쉽게 리해하고 선진사상을 받아들이는데서 민감하며 낡고 반동적인것을 증오하고 새것을 지향하여 투쟁한다. 사회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르는

기준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인테리들이 낡고 반동적인것을 증오하고 새롭고 긍정적인것을 지향하여 투쟁한다는것은 곧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여 투쟁한다는것이다.

선진적인 인테리들은 온갖 낡고 부정적인것을 반대하며 새롭고 긍정적인것을 지향하여 투쟁한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인테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에게 복무하지만 그들의 대부분도 지배계급의 억압과 천대를 받으면서 고용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테리들이 생활처지에서는 비록 로동자, 농민보다 낫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은 자본가에게 얽매여 자주성을 침해당하고있다. 그런것만큼 그들은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있으며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 위하여 투쟁에 떨쳐나서게 된다.

원래 사람들이 혁명투쟁에 나서는것은 기아와 빈궁에 못이겨서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이 짓밟히는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 혁명투쟁이 있는 법이다. 혁명에 나설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무산자인가 유산자인가 하는데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다.

오늘의 로동계급은 지난날과 같은 무산계급이라고만 볼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이 무산계급이 아닌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로동계급도 선행고전가들이 잃을것이란 철쇄밖에 없다고 한 지난날의 무산계급과는 다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테리들도 로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는것만큼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려고 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는것은 자주적인간의 근본요구이다.

특히 식민지나라 인테리들은 가혹한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받기때문에 나라의 자주독립을 갈망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반제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혁명성을 가지게 된다. 이로부터 그들은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로동자, 농민과 함께 떨쳐나서게 된다.

인테리는 사회주의혁명에서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과 같이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며 사회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인류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이 혁명은 인테리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의 참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사회주의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몫 맡아나서게 된다. 이것은 인테리들이 로동자, 농민과 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사회계층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인테리는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사회계층일뿐아니라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실한 로동으로 살아나가는 사회계층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도 인테리는 로동자, 농민과 처지가 같다고 볼수 있다.

로동자, 농민은 생산의 각이한 분야에서 직접 육체로동을 한다면 인테리는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주로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언론출판을 비롯한 전문분야에서 정신로동을 한다. 육체로동이나 정신로동이나 그것은 다 인간의 사회생산활동의 두 형태라고 말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신로동을 하는 인테리들이 육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과 기술문화수준에서나 로동조건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다같이 자본가에게 고용되여 임금을 받고 살아나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자가 자본가에게 육체적로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면 인테리들은 정신적로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것만큼 인테리도 로동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의 계급적처지는 과거사회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오랜 인테리들에게 있어서 어느 계급에게 복무할것인가 하는 이중성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밑에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이 대대적으로 육성됨으로써 인테리의 구성에서 질적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들은 로동자, 농민과 함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담당자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테리의 이러한 사회계급적처지는 그들이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으로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테리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와 지향이 강하고 자기의 성실한 정신로동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의 주체로 된다.

인테리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인테리는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추동력이다.

인테리는 자주성에 대한 지향이 강하고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의 중요한 력량으로 된다. 인테리는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사상리론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하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인테리는 우선 혁명투쟁에서 로동자, 농민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 참가시키는 선도자적역할을 한다. 혁명투쟁의 력사는 주로 인테리들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각성되고 낡고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먼저 시작한것도 인테리였으며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킨것도 인테리였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농민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하는데서 청년학생을 비롯한 인테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테리들은 민족해방투쟁과 민주주의혁명에서 자신이 로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의 동력으로 참가하였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키워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인테리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앞길을 찾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대오의 앞장에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량심적인 인테리들이 서있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싸우는 청년학생들은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남조선청년학생들가운데는 중산층의 아들딸이 많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지 못한다는 조건은 없다. 인테리들이 근로인민대중의 편에서 싸울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사회계급적처지

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상은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이다. 자산계급출신 인테리라고 하여도 정의와 진리를 깨닫고 그에 공감할 때에는 낡고 반동적인것을 반대하고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지향하여 혁명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의 앞장에서 싸우는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

인테리는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에서도 계속 혁명의 기본동력으로 된다. 이들은 로동계급과 농민과 함께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며 전문지식과 기술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한다.

인테리는 또한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사회는 사람과 사회적재부,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다. 그런것만큼 사회의 발전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전, 사회적재부의 축적, 사회관계의 합리적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간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3대개조사업을 밀고나가는데서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테리는 정신로동으로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는 근로자이다. 인테리는 사회적재부를 략탈하고 탕진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의 기생충이나 사회발전과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반동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기술로 사회적재부를 마련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창조자이다. 사회와 력사 발전을 다그쳐나가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은 육체적로동과 정신로동을 포괄한다. 사회적부를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에서 정신로동을 하는 인테리가 매우 중요하다. 인테리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없으며 정신문화적재부는 물론이고 물질적재부도 늘일수 없다.

정신적재부의 창조에서 인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테리는 과학과 예술, 교육과 보건, 언론출판보도 부문의 담당자로서 정신적재부를 창조하고 인간개조사업에 크게 이바지한다.

인테리는 자연개조, 물질적재부창조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현대적생산은 높은 과학기술적 및 공업적 토대우에서 진행되고있다. 사회가 전진함에 따라 자연개조에서 정신적요인, 과학기술적요인의 작용이 커지는것은 사회생산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사회적생산에서 과학기술인테리들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오직 인테리의 창조적활동을 통해서만 자연과 사회발전 법칙과 세계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과학적으로 밝혀진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노는 인테리들의 역할은 사회의 그 어느 계층과 계급도 대신할수 없다.

인테리의 역할은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높아진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사회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며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인테리들이 늘어난다. 사회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인테리대렬이 늘어나는데 따라 인테리들의 역할이 높아지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인테리는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인테리는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체는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생명체이다. 여기에서 수령은 최고뇌수이고 당은 수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추를 이루고 있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령도적정치조직이다. 그러므

로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도 당의 령도를 받아야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인테리는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서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된다. 뿐만아니라 인테리가 가지고있는 과학기술지식도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서만 옳게 리용될수 있다. 인테리들은 아는것이 많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발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할수 있지만 그들의 정신로동의 결과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활동과 결합되여야 현실적인것으로 전환되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적발명과 문화지식도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활동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물질문화적재부로 전환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과학기술적발명이 실생활에서 은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인테리들이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이끌어준다.

인테리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서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인테리는 로동자, 농민과 함께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벌어지는 혁명투쟁에 참가하여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려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을 세우고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은 오랜 인테리들을 적극 교양개조하는 한편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를 대대적으로 키워내며 모든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우리 당은 인테리를 혁명의 첫 시기부터 기본력량의 하나로 보고 그들과의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일찍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인테리를 기본력량의 하나로 보시고 수많은 인테리들을 혁명의 길에 이끄시여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여 적극 교양개조하는 한편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을 실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당을 창건할 때에도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인테리를 우리 당의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당대렬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이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를 자기의 구성부분으로 하고있는것은 당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은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당은 인테리를 당의 구성부분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더욱 튼튼히 결합시켜나가고있으며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인테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가로 자라나고있으며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기본력량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테리들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은 우리 인테리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우리 인테리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인테리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이고 철저한 집행자이며 기술혁명수행의 직접적담당자이다. 문화분야에서 락후성을 없애고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인테리들이 할 일이 많다.

우리 인테리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인테리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인테리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인테리들이 로동계급의 편에 확고히 서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만약 인테리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 인테리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못할 때 그들속에서는 자기의 지식을 조국의 과학기술과 문학예술 발전에 바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는데 앞장서며 개인의 향락과 영달을 꿈꾸면서 조국을 배반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는것은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인테리들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고있는 인재이지만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보배로 되는것이 아니라 우환거리로 된다. 우리 인테리들은 정신로동을 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이기전에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고 혁명적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꾸준히 단련하여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야 한다.

인테리는 전문지식과 기술로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한다. 그런것만큼 인테리들이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인테리들은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며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은 또한 꾸준하고 정력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기의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은 특히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우리 인테리들이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사활적요구이며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인테리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보람찬 혁명의 길에서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모든 인테리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에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나가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테리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크다. 우리 당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현대적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재능을 소유한 인테리대부대를 크게 믿고있으며 이 기대한 력량이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면 어떤 어렵고 방대한 임무도 능히 수행할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

모든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로,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일군들의 중요한 투쟁기풍

김 춘 성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이 련이어 나서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기백있게 일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일해나감으로써 적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기풍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무들은 순간을 살아도 혁명적정열과 패기에 넘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어떤 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한다는것은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때에 수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투쟁기풍을 지니는것은 무엇보다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 숭고한 혁명위업을 실현하자면 오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장기성과 간고성, 복잡성을 띠고있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이 높은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투쟁기풍을 지닐것을 요구한다.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떠나서 공산주의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투쟁기풍을 지닐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지니고 일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승리적

으로 전진하게 된다.

이것은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헤치면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온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력사가 보여준 혁명의 진리이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투쟁기풍을 지니는것은 또한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집행해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모든 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전개되도록 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 빛나는 결실을 맺도록 하는것이 일군들의 기본임무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이러한 책임적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투쟁기풍은 일군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나 당과 혁명 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순탄한 환경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될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일군들은 침체와 답보를 모르며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끊임없이 실현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이러한 일군들은 례외없이 모든 사업에 투신하게 되며 사색을 해도 정열적으로 하고 일을 해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밀고나가게 된다.

참으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을 확립하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지난 기간 평양시건재공업총국 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패기있게 일하는 투쟁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일군들속에서 사상적로쇠현상을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였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패기와 정열로 들끓고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게 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은 혁명적정열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됨으로써 오늘 총국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되는 건재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승호리세멘트공장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일군들이 하행식방법으로 석회석을 채취하여 석회석 생산과 운반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수입석고가 긴장할 때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페설물을 리용하여 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총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패기와 정열에 넘쳐 제기된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련일 창조하고있다. 압연공정을 련속식으로 개조하여 수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강재생산을 늘일수 있게 한 평양강철공장과 멀리 함경북도 생기령에서 실어다 쓰던 수파점토를 공장가까운곳에서 생산하여 필요한 건재를 생산할수 있게 한 대성요업공장 등 총국안의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는 높은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건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총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전재생산에서 계속 혁신함으로써 수도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한것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또다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새로운 《9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년대들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온 빛나는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를 점령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이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을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복잡한 환경속에서 수행해나가고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새 전쟁도발책동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조국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적들의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고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일하는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안일과 해이, 침체와 답보는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사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금물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완강하게 투쟁할 때에는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맥을 출수 없지만 잠시라도 안일해이하면 혁명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줄수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책동에 대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패기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일군들의 투쟁기풍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발휘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며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의무로서가 아니라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5분열도식으로 바글바글 끓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질질 끄는것은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며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없는 표현이다. 일군들의 정열과 기백은 바로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해나가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전행정에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한본새로 일하는 사람,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고 그 어떤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혁명적정열과 청춘의 기백으로 당정책을 일관

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이 바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가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관철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일군들의 투쟁기풍은 또한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창발적으로 하는데서 발휘되여야 한다.

창발성을 발휘하여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일군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활동방식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수행될수 있는 쉬운 과업이란 없다.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하여 정열적으로 사색하고 아글타글 애쓰면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묘술, 정확한 대책과 방도를 세우고 실천활동을 벌려야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실천적경험이 보여준 엄연한 현실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혁명정신과 일본새대로 살며 일하도록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총국당위원회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론을 바로 세우고 진행한 조직정치사업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총국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시내 여러 도서관들과 교육문화기관들에 찾아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행된 신문, 잡지등 여러 출판물들을 보고 당시 총국산하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과 일군들 속에서 발휘된 긍정적모범이 소개된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130여건의 긍정자료를 수집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소개선전하였으며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영웅적으로 투쟁한 오랜 로동자들과 일군들과의 상봉모임도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총국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혁명정신과 일본새대로 살며 일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일군들의 투쟁기풍은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데서도 발휘되여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서 혁명적대담성을 가져야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일해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일이 제기되여도 주저하지 않고 기백있게 해제낄수 있다.

일군들이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일을 크게 설계하고 목표를 높이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투쟁하면 담벽도 밀고나갈수 있지만 겁부터 먹고 잡도리를 소극적으로 하면 열린 문으로도 못나가는 법이다. 투쟁목표가 높아야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해제낄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투쟁목표를 높이 세우고 패기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는것이 중요하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발휘하는 그 어떤 혁명성과 투쟁기풍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충성심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불타는 정열과 기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게 해나가게 되며 거기에서 참된 삶과 투쟁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사업에서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불태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신념으로 깊이 간직하는것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풍모를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혁명활동의 전력사적기간에 언제나 부닥치는 난국을 높은 혁명성과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시였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비상한 정력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령도하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시기 위하여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왕성한 사업의욕과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펼치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적극 따라배움으로써 식을줄 모르는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는것은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투쟁기풍을 지닐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임무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전행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끈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일군들이 혁명적 세계관과 수령관을 확고히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높은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고수하고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투쟁기풍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신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수양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그들의 사상의 표현이다. 나이에는 관계없이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정열이 식어지고 패기가 없어진다는것은 결국 사상정신적으로 로쇠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이 로쇠병에 걸리면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으며 일에서 아무런 창발성을 내지 않으면서 앉아공개게 된다. 그런 사람은 혁명에 쓸모없는 존재로 되고만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생리적으로 늙어도 정신적으로는 절대로 늙지 말아야 하며 정치적으로 도태되지 말아야 한다.

일군들이 사상적로쇠현상을 극복하자면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하여야 하며 특히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적조직관을 확고히 세우고 조직사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항일혁명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은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

김 화 종

우리 당은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높은 전투력과 령도력을 지닌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조선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은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며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함으로써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사회주의기치를 꿋꿋이 고수해나갈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력사적문헌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을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통일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발전시켜나가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에서 제시된 중요한 사상의 하나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이 당의 통일단결을 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으로 된다는 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고귀한 전통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된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21페지)

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혁명승리의 기본요인이다. 단결을 실현하지 못한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고 인민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한것도 단결의 힘이였고 그것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것도 단결의 힘이였다. 당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이 중대한 단결문제는 무엇을 초석으로 하여 해결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서 그 성과여부가 좌우되게 된다. 단결의 초석, 그것은 단결의 위업을 순결하게 이어주며 발전해나갈수 있게 하는 력사적뿌리로 되는 단결의 전통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은 문헌에 제시되여있는바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고귀한 전통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이 당의 통일단결을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던 시기에 형성된데 있다.

통일단결의 전통이 누구에 의하여 어떤 력사적시기에 형성되였는가 하는것은 그 지위를 규정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당의 혁명전통은 원래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등장하기 이전시기에 형성되여 전해내려오는 일련의 전통들, 도덕과 풍습 그리고 훌륭한 성과와 경험과 같은 재부들에는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이 없을뿐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풍부한 투쟁 경험과 업적, 투쟁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은 혁명승리를 담보하는 재부로는 될수 없다. 혁명전통은 오직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자라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참다운 길이 개척되여나가는 과정에서만 창조되며 그것은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단결의 전통은 혁명승리의 근본열쇠를 혁명대오의 단결에서 찾고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나가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이룩되게 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 최고뇌수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통일시키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수령의 이러한 지위와 역할로 하여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되여나가며 이 과정에 그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축적되여나간다. 그리하여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의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력사적재부, 만년초석으로 다져지게 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바로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시는 과정에 창조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나서기 시작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신 때부터였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의병운동, 독립군운동도 벌어지고 1920년대에 와서는 로동운동,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전개되였으나 그것은 모두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남기며 우여곡절을 겪고있었다. 특히 조선혁명의 《리론가》, 《지도자》로 자처하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서로 각산분리되여 《령도권》쟁탈을 위한 파벌싸움에만 몰두하던 나머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키우지 못하고 모처럼 시작한 초기공산주의운동을 말아먹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다.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옳바른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가는가 아니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는가 하는 이 준엄한 시기에 우리 혁명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문제는 통일단결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승리의 요인을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서 찾으시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는 탁월한 령도의 력사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시던 그 첫

시기에 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주체형의 혁명조직들을 결성하시여 조직사상적으로 단결되고 세련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마련하시는 한편 광범한 반일군중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꾸려나가시였다. 이 위대한 령도의 나날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도저히 혁명을 할수 없다는 주체의 신념을 뿌리깊이 심어준 나날이였으며 사대와 교조, 종파와 분렬로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는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악패를 가시고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투쟁의 나날이였다. 또한 그것은 계급적처지가 서로 다르고 주의주장도 각이하였지만 나라의 독립을 바라며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들모두에게 혁명가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끝까지 혁명의 길을 걸을수 있도록 따뜻이 보살펴준 숭고한 동지애로 수놓아진 력사의 나날이였다.

이 력사의 나날속에서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받들고 싸워나가야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체득하고 수령님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위대한 령도자로, 흩어진 우리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울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조선혁명의 진군길을 힘차게 개척해나갔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령도자의 출현과 동시에 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일심단결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단결의 중심이 가장 빛나게 해결되고 혁명대오의 참다운 단결의 원형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1928년에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창작보급되고 그후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진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과 항일혁명투사들이 쓴 혁명적구호문헌 《한별은 조선의 지도자 한별을 받들자》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인심단결을 실현하고 단결의 힘으로 험난한 조선혁명의 진로를 해쳐나간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를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단결의 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튼튼히 다져지고 조선혁명의 생명선으로 굳건히 뿌리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인민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최고령도기관으로 하는 당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하시고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반일대중단체들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여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해나가시였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해나가는 이 빛나는 령도에 의하여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당조직들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주의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통일단결과 함께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을 망라한 전민족적인 단결이 이룩되여나갔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혁명적인 당조직들과 광범한 인민들이 굳게 뭉쳐 이루어진 일심단결의 고귀한 전통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실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한 우리 당의 참다운 모습을 대를 이어 보존하고 계승해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은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력사적시기에 마련된것으로 하여 그것은 우리 당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전통으로 될수 있었다. 여기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이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라는 우리 당 사상리론의 과학

적근거와 정당성의 하나가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이 당의 통일단결을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 통일단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전통이라는데 있다.

통일단결은 무엇에 기초하여 이룩되였는가 하는데 따라서 그 공고성이 규제된다. 통일단결문제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적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문제인것만큼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지가 일치하고 동지의리적인 관계가 밀접해지는 속에서만 이룩될수 있다.

그러므로 단결의 전통이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초석으로 되자면 그것이 하나의 사상의지와 뜨거운 동지애에 기초하여 사회적집단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담고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이라야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그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작용할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은 바로 하나의 사상의지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과 도덕의리적단결을 실현한 고귀한 전통이다.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은 전인미답의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그것은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의지와 진정한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결합되지 않고서는 하루 한시각도 싸울수 없고 승리할수 없는 피어린 결사전의 련속이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방도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명시하였다.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로선, 전략전술은 그 정당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의 일치성, 행동의 통일성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로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항일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주체사상화가 빛나게 실현되였다.

그때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온갖 반혁명적 주의주장과 책동들을 짓부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수령님의 혁명로선을 목숨바쳐 관철하였다. 그리고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도처에 파견되여 적들의 감시가 뒤따르는 속에서도 광범한 군중을 주체의 혁명로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전투와 행군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무장투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대오는 그 형성의 첫 시기부터 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하나의 사상의지,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고 주체의 기치밑에 조국광복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 영웅적투쟁의 서사시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실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당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고귀한 업적과 경험으로 된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에서 승리

하자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사이에 진정한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하며 그것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할 때 공고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며 항일혁명대오의 도덕의리적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던 첫 시기부터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을 찾아내여 그들에게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할 귀중한 혁명동지로 굳게 믿어주시였다. 또한 자신보다 전사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생결단의 길도 서슴없이 걸으시였으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며 전사들에게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는 옥중생활에서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위험에 처한 혁명 조직들과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들의 백색테로를 헤치시며 걸으신 자욱에도 깃들어있었으며 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민생단》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 버림받게 된 전사들을 구원해주신데도, 희생된 전사를 추모해주기 위하여 쓰신 추도사에도, 고난의 행군길에서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한홉의 미시가루에도 깃들어있었다.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과 뜨거운 배려, 크나큰 믿음은 투사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사선과 혈로도 함께 헤치며 동지호상간에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나갈수 있게 한 단결의 원천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숭고한 동지적사랑을 받으며 혁명가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굳은 맹세 다지고 혁명전사의 의리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그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야 하는 때에도 서로 앞을 다투어가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보위하는 길에 나섰으며 동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발치는 탄우속도 뚫고나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 명령지시를 관철하는데서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일지라도 묵과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갔다. 이 고상한 동지적사랑의 힘이 하나로 뭉쳤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굴함없이 싸웠고 20성상의 간고한 길도 힘든줄을 모르고 억세게 걸어왔다.

이처럼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주체사상과 동지애에 기초하여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한 빛나는 모범이며 이것으로 하여 그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에 가서도 일심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여기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이 당의 통일단결을 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으로 된다는 우리 당 사상리론의 과학적근거와 그 정당성의 다른 하나가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으로 규정하심으로써 그 력사적지위가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의거해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고전적정식화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사상리론적공적이 더욱 빛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문헌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통일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 일군들과 청년당원들 속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며 항일혁명선렬들처럼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21~22페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제시하신 과업은 주체의 당건설원칙에 기초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계속 심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지도적지침이다.

당과 혁명의 전도는 단결의 계승에 있다. 통일단결이 순결하게 보존되고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단결의 기치밑에 개척된 혁명위업을 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서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정치조직인 당을 변질시키는데 화살을 돌리고있고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당대오에 끊임없이 들어오고있는 조건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당의 통일단결을 계승발전시켜나가지 못할 때에는 당의 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당은 원래의 면모를 잃고 이색적인 당으로 변질되게 되며 혁명투쟁에서 심한 곡절을 겪고 혁명의 기치를 끗끗이 고수할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문헌에서는 당의 통일단결을 반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를 우리 혁명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라고 밝히고 그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는 문헌에 제시된대로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 일군들과 청년당원들속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며 억세게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변함없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단결과 같은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로 되게 하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항일혁명의 나날에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개척해나갔던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힘차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의 주체는 오늘 만년초석우에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펼쳐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에 관한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90년대의 진군길에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할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

송 룡 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어떻게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활동과 당사업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로 나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문헌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주체의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우리 당 활동의 고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신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활동방식에 맞게 당적령도에 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한 탁월한 사상리론적공적으로 되며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준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철저히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실현해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건설, 당활동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실현하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야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25~26페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이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요구라는것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요구로부터 출현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것을 떠나서는 당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령도적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자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사람,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 능동적인 역할이 없이는 력사발전과 사회적진보,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지만 그들이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할 때에는 그 어떤 역할도 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될 때 힘있는 력량으로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은 당이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해나갈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은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묶어세우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교양자이며 조직자이다.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철저히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이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치방식에 맞게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해나갈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집권당으로서 권력을 쥐고있다. 그러나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관도 아니며 행정실무사업을 하는 행정경제기관도 아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권력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신뢰에 의거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며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설복하고 교양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해나간다. 만일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지 않고 권력에 의거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면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정치를 실시할수 없으며 그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없다. 집권당이 권력에 의거하는 관료식, 행정식 방법을 허용한다면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를 실시하는 기본방식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다. 당은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계속 강화하면서 당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해나가야 한다.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해나가야만 자기의 정치방식에 맞게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인민대

중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이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이 당사업의 기본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시종일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창건을 준비하는 첫시기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의 골간을 꾸리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도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켜 승리에로 이끄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창건과 더불어 집권당으로 활동하면서 일관하게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당앞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무거운 과업이 나설수록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 당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인민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었다. 또한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들의 힘을 적극 발동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들면서 천리마대고조로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은 사람, 인민대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힘을 옳게 발동하기만 하면 남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다 자체로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적극 발동시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오늘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우리 인민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도 바로 당을 강화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온데 있다.

만일 집권당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고수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을 소홀히 하며 당사업을 행정화하거나 령도적역할을 거세할 때에는 인민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와해되게 되며 투쟁 목표와 방향을 잃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여 결국 혁명과 건설은 물론 당도 망하게 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당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 사상과 리론은 실로 우리 당 사업의 실천적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에 의하여 확증된 고귀한 진리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을 당의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규정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는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당적령도에 관한 당건설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당사업리론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

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는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을 명실공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이렇듯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과학적인 사상리론이다.

이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로동계급의 당이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인 원칙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으며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며 혁명정세가 복잡할수록 로동계급의 전위조직인 당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문헌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27페지)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문헌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당사업을 벌려나가는것이다.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것이다. 그래야 당이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지위를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서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분에 맞게 사업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언제나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군중을 존경하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사람과의 사업에서 그들의 정치적생명문제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며 자식의 생명에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사랑과 믿음은 일군들의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모든 당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며 소박하고 겸손하며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살며 일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는것이다.

당적, 정치적 방법은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당이 령도적기능을 옳게 수행하려면 혁명적인 사업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일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일수 있으며 당정책적과업들을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대중이 당의 의도를 진심으로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발동될 때까지 정치사업을 꾸준하고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우리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교양하고 동원하며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자체수양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당적, 정치적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이 나타나게 되는것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착취사회의 사상잔재가 남아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일군들은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체계도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질서와 제도이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통일적인 규범과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진일적인 전투대오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내부사업체계,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더욱 철저히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다 사람과의 사업을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당적령도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각급 당위원회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바로하고 모든 일군들이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방향에 따라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관리를 해나감으로써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체계를 확고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에서 제시된 사상리론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

강 정 석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문제이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요인이다.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튼튼히 하여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가져올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통일체로,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강화발전시켰다.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 기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근본방도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결실이다.

당을 강화하고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0페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한다는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의 주체는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할 때 강화될수 있다.

당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며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이다. 당을 강화하여야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이룩할 때 강화되게 된다.

당을 강화하여 전당의 일심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이 인민대중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는 강력한 힘, 조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통일을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게 한다.

사물의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전일체로 통일시키는데서 핵자체가 가지고있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물의 유기적통일이 더욱 강화되는것과 같이 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인 당자체의 힘, 조직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집단의 통일은 높은 수준에서 확고히 보장되게 된다.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당의 강력한 힘, 그 조직력의 원천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일심단결이다.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될 때 단결된 힘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굳게 결합된 전일적인 조직체로 만들게 된다.

당은 또한 사회정치적집단의 중추로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제때에 종합하여 수령에게 집중시켜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조직사상적뉴대를 강화할수 있게 하며 수령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그에 맞는 옳은 행동방향을 제시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일치하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력한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중추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대중에게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그대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행동통일을 확고히 실현하게 한다.

대중에게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심어주고 그대로 움직이도록 조절통제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로서의 당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당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서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극복하고 그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력한 통일체로 되게 한다.

이와 같이 당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된 통일체로 만드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당을 강화하지 않으면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단합될수 없으며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자체도 사분오렬되여 결국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언제나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생명으로 굳게 결합된 통일체로 되게 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련계와 결합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련계는 결합의 전제이며 결합은 련계가 공고화된 상태이다. 련계가 없이는 결합이 이루어질수 없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통일체로,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되자면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실현되여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사이에 맺어지는 혈연적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련계이며 가장 긴밀하고 공고한 련계이다. 그것은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적관계이기때문이다.

당은 인민대중의 매 성원들에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호해주는 모체이다.

당과 수령은 인민대중의 매 성원들을 자기의 친혈육처럼 여기고 따뜻이 보살펴주며 인민대중의 매 성원들은 당과 수령을 자기의 친어버이로 높이 받들고 충성을 다한다. 당과 인민대중이 맺는 이러한 혈연적련계는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적복무,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진실하고 친근한 관계이다. 이것으로 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는 가장 밀접하고 공고한 련계로 된다.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여야 혁명의 주체가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대중이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참다운 혁명적의리와 동지적관계에 기초하여 단합된 가장 진실

하고 공고한 운명의 공동체로 될수 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시키는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력한 행동의 통일체로 되게 한다.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이끌어주는 령도적정치조직이다.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혁명의 주체가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한결같이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될수 있다.

당의 조직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피줄로 하여 이루어지는 당과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통일에 기초하고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이러한 사상의지적통일은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치하게 움직이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당은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치하게 움직이도록 하는것을 통하여 그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통일시킨다. 그러므로 당과 인민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합되여 그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여야 당이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력한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해나갈수 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력한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하게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여야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이러한 역할은 인민대중이 당과 일심동체가 될 때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동체를 이룬다는것은 곧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실현되고 튼튼히 다져지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혁명의 주체의 전반적인 행동의 통일을 강화할수 있다.

이처럼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수령, 당, 대중의 가장 공고한 통일체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데 기본을 두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세련된 조선로동당이 혁명대오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온갖 시련을 이겨낸 인민대중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다.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것은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혁명의 주체가 강화되고 그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주체가 선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다.

당과 인민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우리 혁명의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으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나가는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진척될수록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끝까지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11페지)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데서 언제나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당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체에서 당은 그 핵심력량이며 향도적력량인것만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부터 강화하여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당이 강할 때 인민대중이 강하고 당이 병들면 인민대중도 병든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 실현되게 된다. 당의 유일사상은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은 수령이다. 사상의 유일성,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여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우리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그것을 대를 이어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며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훼손시키려는 사소한 경향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당원들이 당조직을 자기의 생명의 모체로 귀중히 여기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당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적조직관을 튼튼히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며 운명을 같이하는 혼연일체가 되여야 혁명의 주체가 더욱 강화될수 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당의 인민적인 정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당은 인민대중을 위하고 인민대중은 당을 믿고 따를 때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대한 당의 헌신적

복무와 그들의 창조력에 대한 끝없는 신뢰로 일관되여있다.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인민대중이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며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나갈수 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이 굳게 뭉치게 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우에 군림하는 관료기관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에 맞게 대중에게 의거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들이 당의 품을 참다운 어머니품으로 느끼게 하는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여야 당과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다. 대중에게 의거하지 않고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주의적사업 방법과 작풍은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어긋나는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이며 그것은 불피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 당이 인민대중에게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방식과 사회주의정치의 본성에 맞는 위대한 혁명적사업방법이며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 방법과 작풍의 전형이다.

이 사업 방법과 작풍을 구현해나가는 것은 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할수 있게 하는 참다운 길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끌어줌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문제인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신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에 관한 사상을 새롭게 제시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전략전술적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혁명하는 당들이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올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파악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

채 형 식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장엄한 진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을 넣어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는 전전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더우기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감행되는 조건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자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우리 나라에 창설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마련해놓은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하여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공업생산물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전반적인민경제를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주체공업을 창설하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공업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당의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훌륭히 구현하여 우리의 민족공업을 튼튼한 자립적토대우에 올려세워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454페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부문구조와 원료기지, 튼튼한 기술적토대를 가진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마련하여 놓았다.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건설해놓은 주체공업은 여러차례의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80년대의 대건설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공업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주체공업은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

토대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다종다양한 공업제품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진 발전된 공업으로 전변되였다. 주체공업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 위력이 높이 발양됨에 따라 우리의 경제는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공업생산이 1970년—1979년사이에는 15.9%, 1978년—1984년사이에는 12.2%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공업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되며 우리나라에 마련된 주체공업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주체공업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된 오늘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무엇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우리 나라에 마련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선차적인 고리는 원료, 연료, 동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기본방향은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것이다.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원료, 연료, 동력을 보장할 때만이 원료채취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생산순환의 모든 고리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부문내부사이, 재생산고리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정확히 맞물릴수 있으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원료, 연료, 동력을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

주체공업은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필요한 물질적생산부문들을 튼튼히 갖추고있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 때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자연부원을 충분히 개발리용할수 있으며 급격히 늘어나는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전례없이 늘어나고있는 오늘 그것을 제때에 충족시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반드시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자체의 생산으로 원료, 연료, 동력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또한 전반적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오늘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며 현시기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빠른 속도로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는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지 않고서는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

미석울수 없다.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 빠른 길은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려면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자체의 튼튼한 기계공업토대에 의거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기계공업, 전자, 자동화 공업을 갖추고있는것은 주체공업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주체공업의 커다란 위력도 중요하게는 인민경제의 기술적기초로 되는 자체의 기계공업, 전자, 자동화 공업의 발전정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주체공업의 위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이 크게 은을 내게 되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장비들을 갱신하며 생산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는데 필요한 기계기술수단들을 자체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훨씬 높일수 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사업의 요구에 맞게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공업부문들의 생산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다그칠수 있으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높여 사회주의경제를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자면 그 기본령역인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직접 련관이 있는 경제부문들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은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천들과 신발, 가정용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하며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화학비료를 비롯한 기계설비들과 영농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농업생산을 적극 높일수 있게 한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면 건설의 기계화, 공업화수준을 높여 건설속도를 다그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살림집들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게 한다.

참으로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여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해나가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교통운수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이 부문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고 생산능력과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1~12폐지)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

법칙적요구이며 현시기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이다.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이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이 앞서나가야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을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하여놓았다 하더라도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없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다.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켜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활력있게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주체공업의 생산잠재력을 적극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고 유망한 지구들에 새 탄광, 광산을 개발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쳐 수송능력을 더욱 늘여나가야 한다. 특히 채취공업,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기술을 혁신하여 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앞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석탄, 쇠돌, 전력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나라의 동맥인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수송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이미 마련된 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요구하는 물동들을 지체없이 실어다주어야 한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공업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공업부문구조를 완비하고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는것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오늘 경제는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특히 공업분야에서는 최신과학기술을 리용하여 부문구조를 다면화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다.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을 이루는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생산공정들을 끊임없이 정비보강하여야 생산부문간, 기업소들사이의 합리적인 생산적련계와 균형을 보장하고 생산을 빨리 늘여나갈수 있으며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공업부문구조를 완비하고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하면서도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에 의거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것이다. 공업부문구조가 아무리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수입 원료와 연료를 리용한다면 그 위력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없다. 우리는 수입 원료와 연료를 쓰는 생산공정들을 국내의 원료, 연료를 쓰는 생산공정으로 정비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공업부문을 많이 창설하여 공업부문구조를 다면화하고 공업토대를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특히 공업부문에서는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균형을 바로 맞추며 약한 부문들을 제때에 보강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최대한으로 은을 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약한 고리들과 이빠진 부문들을 보충완비하는것이 중요하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본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낼수 있도록 부대설비와 보조설비들을 제때에 보충하여 기대들사이, 생산공정들사이 합리적인 생산적련계와 균형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

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오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주체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다.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망목표와 당면목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바로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행생산과 함께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토대를 하루빨리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비롯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도처에서 가치있는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창안하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높은 혁명성, 전투력을 발휘하는것이다.

높은 혁명성, 전투력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일군들은 언제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좋고 대주지 않아도 자체의 힘으로 해낸다는 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경제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계획을 현실성있게 바로세우고 로력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를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자기 단위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생산장성의 예비를 찾아내고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최소한의 지출로 높은 경제적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주체공업의 위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은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

차 춘 석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찬 투쟁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더 많은 증산절약의 예비를 찾아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살아나갈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하며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1985년판, 17페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광범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생산에서 과학과 기술이 노는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있는 오늘 그것을 발전시켜야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하여 증산절약의 예비를 더 많이 찾아낼수 있으며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생산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로 된다.

생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증산과 절약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물질적부의 생산은 생산자원을 리용하여 사람들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활동과정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원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물질적부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생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생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는 모든 자원들의 재질적특성과 리용조건을 개선하는것이다. 이것은 오직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할 때만이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지금 있는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능률적인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으며 생산물단위당 자원지출규모를 줄여 많은 로력, 설비, 원료, 자재를 절약할수 있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하여 지금 있는 공작기계를 개조하게 되면 그 생산성을 1.5~2배까지 높일수 있다. 또한 공구, 지구, 기계를 개별적으로 현대화할 때보다 종합적으로 현대화하게 되면 그 리용효과를 4~5배까지 높일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원료, 자재의 거둠률과 열, 동력 자원의 효률을 높일수 있게 되며 새로운 원료, 연료, 동력 자원을 개발하여 그 리용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할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카리장석, 하석, 모나즈와 같은 광석들이 가지고있는 유효한 성분과 성질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그것을 보다 효과적인 원료로 전환시킬수 있게 된것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력의 가장 능동적인 요소인 사람들의 창조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로동의 질적수준을 높

이며 그들로 하여금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탐구동원하는데서 더욱 커다란 역할을 할수 있게 한다.

이렇듯 과학기술은 생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근본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함으로써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또한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로 된다.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 때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기계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도록 할수 있으며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 로동행정, 자재보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조직사업을 객관적인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대적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진행할수 있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지출로써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경제부문과 단위, 생산공정들 사이의 련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복잡해진 오늘 증산과 절약의 중요한 예비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데 있다.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과학기술발전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비능률적이며 뒤떨어진 생산 공정과 방법을 새로운 능률적인 공정으로 바꿀수 있으며 생산과정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받아들여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할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의 손로동으로써는 이룩할수 없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수 있게 하며 막대한 사회적로동을 절약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과 실천능력을 높여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에 정확히 구현하며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받아들여 계량계측사업과 경제계산을 바로할수 있게 한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경영활동을 과학화할수록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고 생산 부문과 단위, 재생산고리들 사이의 련계와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여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고 물자소비기준과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출수 있게 되며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킬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또한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함으로써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로 된다.

제품의 질은 생산물의 유용성, 쓸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경제적지표이다. 질이 높은 제품일수록 사람들의 생활상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고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이게 된다.

원료, 자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의 질을 높여야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은을 충분히 낼수 있고 설비리용률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으며 생산물의 현물적인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로동을 절약할수 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힘있는 수단은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때 생산공정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널리 받아들여 제품의 기계적성질과 정밀도를 보장하고 새로운 재질적특성을 가지는 생산물들을 만들어낼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결국 생산을 증대시키는것과 같은 경제적의의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설계를 개선하고 기술공정을 합리화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제정하게 됨으로써 제

품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적극 추동하게 된다.

참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치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일찌기 경제건설에서 과학과 기술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주체적인 기술혁명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증산절약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기계공업부아래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난해 10개월동안에만 하여도 1만 3천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실현하였으며 그중 인민경제발전에 큰 의의를 가지는 기술혁신안만 해도 600여건이나 된다.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에서는 전기, 석탄, 강재 절약을 위한 중요 기술혁신안만 하여도 수십건이나 창안도입하였다. 특히 공장에서는 쓸모없이 버리던 버럭탄을 고열탄대신에 공업용원료로 쓰는데 성공하였으며 보이라를 개조하여 년간 7,400여톤의 고열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용증기를 원만히 보장하고 수만평방메터에 달하는 작업장의 실내온도를 훨씬 높이였다.

평양편직바늘공장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생산공정을 하나의 종합가공로보트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생산능률을 13.2배로 높이면서도 4,000여공수의 로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으며 평양종합방직공장에서는 종전보다 정방기의 가락회전수는 500회전, 직기의 회전수는 10회나 더 높여 년간에 1,200여톤의 실과 수십만메터의 천을 증산할수 있는 예비를 찾아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바로 여기에 증산과 절약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증산절약투쟁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생산을 늘이며 원료, 연료, 동력을 절약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원만히 풀어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면하여 기간공업을 비롯한 모든 공업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서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앞선 생산방법과 생산기술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넣어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며 경영활동에 전자계산기, 산업텔레비존을 비롯한 현대적인 수단들을 널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현대적기술로 장비한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최대한의 기술경제적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와 함께 원료, 연료, 동력을 절약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그 소비기준을 낮추며 연소효률을 높이고 연료를 효과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합리적방도를 찾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원료와 자재의 랑비를 없애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옳게 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원료와 자재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고 물자의 소비기준과 원가를 적극 낮추며 주어진 원료, 자재로 보다 큰 생산적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우선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한다.

일군들이 관점을 바로 가지는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문제이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더 많은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찾아내는가 못찾아내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달려있다.

만일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기계설비들의 공칭능력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생산을 늘이려 하거나 당면한 생산에만 치중하면서 설비들을 갱신하는데 무관심한 현상들을 발로시킬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되며 막대한 사회적로동을 랑비하게 된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져야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더 많이 탐구동원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생명선이라는 관점에 튼튼히 서서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과학기술을 홀시할수 있는 현상과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그릇된 사상을 뿌리뽑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성과는 생산에서 은을 내게 되여야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만일 새로 연구완성한 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만큼 증산절약의 예비

를 묻어버리는것으로 되며 결국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발전에 제동기를 걸고 증산절약투쟁에 저해를 주는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는데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부터 바로세우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해당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이미 있는 설비들의 능력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 기술경제적기준을 갱신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대책안들을 그 인민경제적의의와 경제적효과성을 잘 타산하고 계획에 반영하여 실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고리들을 찾아내고 그에 힘을 집중하여 풀수 있도록 세우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이는데서 새 기술도입체계를 바로세우며 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 기술도입체계를 바로세우고 보장사업을 잘하여야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선후차를 가리면서 제때에 빨리 받아들여 은을 내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에 받아들여야 할 과학기술적대책안들을 계획에 맞물리는 체계를 바로세우고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최신과학기술성과들과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로력, 자금 등 온갖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치고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옳게 규정하고 해당한 사회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를 잘하여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여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내밀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술적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기술개조운동이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모든 부문의 기계설비와 생산공정, 생산방법을 짧은 기간에 근본적으로 변혁해나갈수 있으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기술혁신 목표와 단계를 바로 정하고 기술혁신운동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와 련계를 강화하여 도처에서 가치있는 좋은 경험과 창의고안, 새로운 기술적발명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은 과학기술분야에서 혁명적군중로선과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과학기술을 전면적으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다.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적극 벌려야 과학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 과학기술발전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돌격대형식의 기술혁신운동을 발기하고 《4.15기술혁신돌격대》, 《2월17일과학자돌격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조직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기술혁명수행에서 기술혁신돌격대의 역할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당의 령도밑에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으

로써 지난 기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4.15기술혁신돌격대》에서만도 지난 10년간 4,000여만톤의 석탄, 179만여톤의 압연강재, 460여만톤의 세멘트, 130여만립방메터의 목재를 비롯한 수많은 원료,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근 40여만대의 기계설비와 장치들을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받아들이고 생산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치고 증산절약투쟁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방도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에서 제기되는 어떠한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여있으며 주체사상과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146만의 인테리대군이 있다. 당에 의하여 육성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할 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락원과 강선의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끝까지 풀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줄 아는 로동당시대의 참다운 과학자, 기술자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과학적자질을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실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옳바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당에서 맡겨준 본신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전공분야에 정통하는것은 물론 필요한 여러 부문의 과학기술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학습조건을 잘 보장하고 과학강연, 과학기술발표회 등을 널리 조직하며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재교육하는 사업도 짜고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해나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업발전과 환경보호문제

윤 진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는 자연과 생활환경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것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향유하며 풍족하고 건전한 물질문화생활을 할뿐아니라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린다고 말할수 있다. 파괴된 자연과 비문화적인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결코 자주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참다운 생활을 마음껏 누린다고 말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보호사업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된다.

환경보호사업은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이며 국토와 자연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자연환경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잘 꾸리고 보존하며 대기와 물, 토양과 생물을 비롯한 환경의 오염을 미리 막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경보호사업은 자연과 생활환경을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분야라고 할수 있다.

원래 환경보호문제는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들이 저들의 탐욕적인 리윤추구를 위해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는 생활환경을 마구 파괴하면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해온데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자본주의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공업의 규모와 집중도가 커짐에 따라 여러가지 산업폐설물이 대량적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서게 되였으며 오늘은 모든 나라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호련맹》의 결성과 《록색당》들의 출현, 《인간환경선언》의 채택과 《세계환경의 날》의 설정 등은 환경보호문제가 얼마나 큰 국제적관심사로 되고있는 절실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환경보호문제가 인류의 생존활동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류공동의 관심사로 되게 된것은 중요하게 공업발전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공업이 발전하여 그 규모가 커지고 원료, 연료, 물의 소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대되게 되므로 환경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공업생산과정은 자연에서 얻어낸 시초원료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것만큼 그 어느 부문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료, 연료, 물의 소비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게 된다. 공업의 규모가 커지고 공업생산이 늘어날수록 연기와 폐설물, 폐수와 같은 공업배설물의 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것은 사람을 비롯한 생명유기체의 생존과 활동의 필수적기초인 대기, 토양, 물, 동식물을 오염시키는 후과를 초래한다. 석탄과 원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대량적인 소비에 의하여 대기중에 방출된 아류산가스와 질소산화물가스들은 산성비의 원인으로 되며 탄산가스의 대량적인 축적은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한다. 오늘 산성비는 넓은 지역의 산림과 농작물을 못쓰게 만들고 토양을 산성화하며 건물과 구조물을 부식시키고있으며 탄산가스에 의한 《온실효과》는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어 때아닌 찬서리와 강추위, 열파,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현상을 초래하여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과

농업생산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공업생산의 증대와 급속한 발전은 강과 호수, 바다를 비롯한 물의 오염도 심화시키고있다. 최근 10년동안 세계적으로 공업용수와 주민용수가 매해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그에 비례하여 생긴 버림물들은 하천과 호수, 바다에 흘러들어 물오염을 심화시키고 련쇄적인 오염과 피해를 가져와 토양과 농작물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더우기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섬으로써 자연환경은 심중한 영향을 받고있다.

공업건설과 공업의 빠른 발전은 새로운 공장건설, 광산개발, 농경지개간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산림과 초원을 비롯한 록지면적은 줄어들게 된다. 산림과 초원은 산소를 생산하는 《산소공장》이며 어지러운 공기를 맑게 하는 《공기정화장》이라고 할수 있다. 공업건설과 여러가지 개발공사로 록지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이상기후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산림면적이 해마다 1,800만~2,000만정보씩 줄어드는것을 비롯하여 록지면적이 감소되게 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1968년부터 계속되는 왕가물로 사막화가 촉진되여 사하라사막은 최근 50년동안에 65만평방키로메터나 더 확대되였다.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며 자연계에 없던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과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있을뿐아니라 소음, 진동, 전자기파, 적외선 등으로 인체와 생활에 부정적인 후과를 미치고있다.

이처럼 공업발전이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공업생산과 그 발전이 환경문제에 영향을 준다는것은 결코 환경 오염과 파괴의 근본원인이 공업발전에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오염물질의 발생기초와 관련되는 물질적요인이 공업발전에 있다는것을 의미할뿐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시책을 세우면 아무리 공업이 발전하여도 자연과 생활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현상을 막을수 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하나의 《만성적인 종양》으로 되고있는 공해현상은 공업발전에서 환경보호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공해현상은 환경오염물질과 여러가지 환경파괴요인에 의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파괴되여 사회적규모에서 사람과 자연이 입게 되는 피해와 재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독점자본가들이 최대한의 리윤추구를 위하여 공업건설에서 공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기때문에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급격히 파괴되고있다. 미국에서는 《공해병》으로 인구의 30%가 고통을 겪고있고 그로 인하여 죽는 사람만 해도 해마다 1만명이 넘으며 일본에서는 악명높은 《미나마다》, 《이다이다이》를 비롯한 공해병에 의해 불구가 된 사람을 제외하고도 이미 죽은 사람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리고 영국은 인구 5명당 1명이 대기오염에 의한 병으로 고통받는 위험한 공해지대로 전락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거의 최악에 이른 공해는 《핵무기에 비길만한 인류의 적》으로, 《폭발직전의 시한탄》으로 커다란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광범한 사회계에서 《지금처럼 강과 바다, 대기와 땅을 〈쓰레기통〉으로 만든다면 인류는 자멸할것이다.》는 경고까지 울려나오게 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에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공해산업을 규탄하는 사회적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다국적기업》과 《경제원조》의 미명하에 쇠퇴공업과 공해산업을 뒤떨어진 나라들에 옮겨놓고있다.

바로 남조선은 그 주요대상지로 되고있다. 남조선에 들어온 1천여개의 외국

기업체들중 그 대부분이 다른 나라들에서 《오물단지》로 배척당한 공해업체들이다. 공해기업체들에서 마구 내뿜는 독한 연기와 유독성페수로 인하여 서울뿐아니라 남조선의 모든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심히 오염되고 산림과 물고기를 비롯한 동식물자원이 고갈되여가고있다. 공해때문에 멸종의 위기에 직면한 동식물이 257종이나 되며 예로부터 경치 아름답고 수산자원이 풍부하기로 이름났던 남해바다가 생물이 살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된 한가지 사실만으로써도 공해현상이 얼마나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오늘 남조선은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민주주의의 폐허지대》일뿐아니라 생명체들이 제대로 존재할 가능성마저 말살되여가고있는 가장 혹심한 공해지대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변호론자들은 공해현상을 마치도 《현대산업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묘사하려고 꾀하고있지만 결코 그것으로써 공해를 낳게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와 반인민적성격을 감출수 없다.

공해는 그 어떤 단순한 자연적현상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성격과 국가적시책에 의존하는 사회적현상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고 사람들의 생활환경마저 착취와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공해가 필연적인 산물로 되며 자본주의제도가 존재하는 한 공해와 같은 사회적재난이 더욱 우심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공해문제는 오직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참답게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일찌기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인민대중중심의 정치를 실시해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도 환경보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에도 그랬고 정전직후에 공업을 복구건설할 때에도 공장들이 인민들에게 유해롭지 않도록 하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44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건설에서 공해방지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릴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고 환경을 손상, 파괴하지 않고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산업지구와 주민지구들을 합리적으로 분산배치하며 생산에 앞서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공해를 미리 막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정확한 환경보호정책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한톤의 철이 귀중하던 때에도 로동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여 성진제강소의 원철로를 대담하게 폭파해버리도록 하시였으며 강물을 오염시키거나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는 광산들도 페광시키도록 하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건설에서 공해방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면서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공장과 산업지구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관개공사와 치산치수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도 본격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으며 국토자원에 대한 전국가적, 전군중적인 관리체계를 세워 환경보호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공해가 생기지 않도

록 하는데 첫째가는 국가적관심이 돌려지고 예견성있는 모든 대책들이 취해짐으로써 공해없는 공업을 일떠세우고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경제를 건설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좋은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에서 살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환경보호사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것은 환경보호의 기본지표들인 공기, 물, 토양의 위생기준이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이르고있는데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비롯한 모든 지역들에서 대기의 높은 정결도가 보장되고있으며 도처에 흐르는 강하천과 바다물의 수질은 규정된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고있다. 지금 평양지방에서는 대기오염의 하나인 아류산가스의 농도가 국제적인 허용기준에 비하여 무려 15분의 1이나 낮으며 일산화탄소도 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가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보호사업이 주체적인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담보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적 투자가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환경보호과학이 발전하고 이 분야에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설비들이 적극 도입됨으로써 환경보호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세기적전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환경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해주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우리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람들의 주위를 둘러싸고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면모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이 높아지는데 맞게 끊임없이 개변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그 내부구조가 더욱 현대적으로 급속히 개선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높아지고있다.

현시기 환경보호사업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인류공동의 과제이다.

나라들사이에는 국경이 있지만 오염된 대기나 바다, 강물의 흐름에는 국경이 없다. 지금 영국의 동북부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오염된 대기는 북해를 건너 스칸디나비아반도에까지 이동하여 다른 나라에 파괴적영향을 주고있으며 한때 미국과 메히꼬 국경을 흐르는 그란데강의 상류에 위치한 미국이 강을 오염시킴으로써 그 하류에 있는 메히꼬가 피해를 입어 국제분쟁으로까지 된 일이 있었다. 이것은 환경보호문제가 국제적성격을 띠는 매우 심중한 문제이며 그 종국적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도발과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쓰레기협정》을 통한 공해페설물처리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현실은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일치단결하여 환경보호사업을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공해가 없다고 하여 공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업이 더 발전하면 공해가 생길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공업이 발전할수록 공해를 막는데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295페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선 공업건설과 기업관리에서 공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해를 미리 철저히 막는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서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공업건설과 기업관리에서 철저히 환경이 손상, 파괴되지 않으며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 특히 새로 건설되는 화학공장들에서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잡이, 먼지잡이 장치와 물오염을 막기 위한 정화시설들과 나쁜 냄새를 가시는 려과장치를 비롯하여 생활오수와 버림물을 처리하는 정화시설과 회수시설을 갖추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국토건설부문에서 국토건설 계획화와 설계 사업을 강화하고 감독통제자적역할을 높여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도시와 마을,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관리를 현대공업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기술공정으로 더욱 개조하며 닫긴 순환체계를 비롯한 효과적인 폐수정화체계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며 그 질을 계속 높여야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로동생활과 문화정서생활을 보다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후대들에게도 아름답고 풍요한 락원을 물려줄수 있다.

공장지대와 주민지대들에서는 원림록화사업을 잘하여 대기순도를 높이고 도시와 공장의 풍치를 아름답게 조성하여야 한다. 산림조성사업과 관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계속 힘있게 벌리며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가와 강변, 바다가들에 경제림과 풍치림, 보호림을 더 잘 형성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적극 나서게 하는것은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환경보호사업은 사람이 살며 일하는 주위환경전체를 포괄하여 관리하는 방대한 사업인것만큼 광범한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력이 발양될 때라야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사업이 다름아닌 자기자신들의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옳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환경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공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오늘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환경감독기관들에서는 공업지구와 도시의 대기상태를 비롯하여 강하천과 연안수역들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감독과 법적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영원히 공해없는 나라로, 보다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생활

김 홍 록

문화생활은 사회적인간의 필수적이며 중요한 생활분야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따라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진다. 자주성에 대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는 정치생활과 물질생활, 문화생활을 참답게 누릴 때 전면적으로 실현된다. 사회생활의 3대분야를 이루는 정치생활, 물질생활, 문화생활의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은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말할수 없다. 사람은 정치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살려는 요구를 실현하며 물질생활을 통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살려는 요구를 실현한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요구를 실현해나간다. 때문에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본성적요구를 실현하자면 정치생활과 물질생활을 참답게 누리는것과 함께 건전하고 문명한 문화생활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며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이다. 문화생활을 발전시켜야 사람들은 높은 자주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건장한 체력과 고상한 문화정서적소양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값높은 정치생활과 행복한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문화생활은 사회주의문화생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는 자본주의문화생활과 구별되는 사회주의문화생활의 본질적특징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하며 전체 인민을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한다는데 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5페지)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생활의 면모는 전적으로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존과 발전은 일정한 국가사회제도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는것만큼 해당 사회가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 하는데 따라 인민대중이 자기의 본성에 맞는 문화생활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소수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문화생활을 할수 없다.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광범하게 퍼뜨린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가 짓밟히고 그들의 문화생활은 더욱더 빈궁화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본성을 구현한 사회로서 문화생활분야에서도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생활을 보장해준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

로 끊임없이 발전할데 대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문화생활이며 인민대중을 문화의 참다운 창조자, 진정한 향유자로 되게 하는 문화생활이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은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할데 대한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문화생활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며 따라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간다. 사람이 자기의 본성에 맞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은 자주적인 혁명사상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니고 세계와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고상하고 풍만한 문화정서생활을 참답게 누릴수 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할데 대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는 사회주의문화생활에서 참답게 실현된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은 인민대중이 력사적으로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사상정신적 및 물질문화적 재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 문화생활이다.

문화생활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그 진보성과 반동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본성에 맞게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운 문화생활만이 참다운 문화생활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공고발전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리용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화생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해주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화생활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해주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사회주의국가는 교육, 과학, 문학예술, 보건,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하여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가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조화롭게 발전하며 사회의 사상정신적 및 물질문화적 재부가 사람들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참답게 복무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문화생활은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이 저들의 부화방탕한 생활과 저속한 취미를 추구하며 인민대중을 몽매하게 만들고 그들을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문화생활이다. 자본가들은 인민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각성되고 뭉치면 자본주의제도자체를 위태롭게 하기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문화생활은 그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성으로 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해주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울수 없다. 사회주의문화생활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할데 대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 참다운 문화생활로 된다.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문화생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할데 대한 그들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문

화적조건들에 의하여 참답게 실현되는 문화생활이다.

문화생활이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생활로 되자면 그에 상응한 온갖 조건들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문화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은 해당 사회의 문화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주는 정치제도, 경제제도에 기초하여 선진적인 문화제도가 확립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는 사회적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세워져 누구나 다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사상정신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있으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제도와 체육의 대중화를 비롯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훌륭한 조건들이 마련되여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취미에 맞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아름답고 고상한 문학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한다. 사회주의사회에 마련되여있는 이러한 문화생활 수단들과 조건들은 다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할데 대한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해주는데 참답게 복무한다.

이처럼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모든 문화적 조건과 수단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할데 대한 그들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참답게 복무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문화생활이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문화생활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은 또한 전체 인민을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는 참다운 문화생활이다.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적인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기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려면 마땅히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사람이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가 되지 못하는 사회적조건에서는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킬데 대한 요구를 내세울수 없으며 또 그것을 실현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문화생활을 참답게 누리면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자면 반드시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될데 대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는 사회주의문화생활에서 실현된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은 사람들을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로 되게 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는 사회적존재로서 원래 문화의 창조자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아무 사회에서나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로 되는것은 아니다. 착취사회에서도 인민대중은 문화를 창조하지만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착취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문화를 창조하는것으로 하여 그 진정한 창조자로 되지 못한다.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로 될데 대한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원만히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문화를 창조한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문화가 창조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은 자기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화를 창조하는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로 되는것은 그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문화는 결코 개별적사람들에 의

하여 창조되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고 그들의 창조력이 통일적으로 발양되는것을 통하여 창조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가장 정확한 문화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투쟁하며 개별적사람들의 창조력이 통일적으로 조직되고 높이 발양됨으로써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로 된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은 인민대중을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로 되게 할뿐아니라 문화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물질생활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으며 문화의 참다운 향유자로서 자주적인 혁명사상과 과학지식, 고상한 문화정서적풍모를 지니고 문명하고 건강하게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은 문화의 향유자로 될데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문화의 진정한 향유자로 되는것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으며 사회의 모든 물질문화적 및 사상정신적 재부들이 그들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복무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이 문화의 향유자로 되자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것과 함께 문화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부들이 그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상정신적 및 물질문화적 재부들을 자신의 손에 장악하고있으며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리용하면서 문화생활을 참답게 향유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는 인민대중이 문화생활을 참답게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들과 물질경제적조건들이 충분히 보장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문화의 참다운 향유자로서 문명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문화생활이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참다운 문화생활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할데 대한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가장 옳바른 문화건설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문화건설사업은 오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들의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훌륭한 문화 기관들과 시설들을 비롯한 문화적재부들을 가지고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문화기관들과 문화시설들, 문화적재부들이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의무교육제의 혜택으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배움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일생동안 배우고 발전함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또한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과 무상치료제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아래에서 누구나 건강과 장수를 노래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리고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주체문학예술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으며 자주적인간의 고상한 품성을 지니고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며 일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사회주의문화생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할데 대한 그들의 본성적요구를 빛나게 구현한 문화생활이며 인민대중을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는 참다운 문화생활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문화생활이야말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문화생활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생활을 꽃피우는데서 나서는 선차적문제는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문화혁명의 최종단계의 과업이다. 온 사회가 인테리화될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게 되며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은 참말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것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여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의 질을 더욱 높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보통교육사업에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정확히 실시하며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 큰 힘을 넣어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온 사회에 일하면서 배우며 배우면서 일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을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보건사업과 체육을 발전시켜 육체적으로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체육을 대중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전국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며 전체 인민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행복한 문화정서생활을 참답게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더욱 꽃피우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며 건전하고 고상한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동반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건전하고 문명한 문화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반동적 목적과 본질, 해독적작용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그 사소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해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문화정서생활을 혁명적으로 건전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감으로써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가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모든 면에서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

로 상 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며 오늘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고있는 중심적인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함으로써 농업을 공업화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33페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업생산에서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작업공정을 기계로 수행하는 기계화의 높은 단계로서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기술혁명을 다그쳐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완성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야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농촌기술혁명수행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동해안지구의 농사문제를 토의하실 때마다 벌방지대인 우리 금야군의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군의 특성에 맞게 농업생산을 적극 기계화하여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을 늘이는 한편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금야군당위원회는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농업생산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농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군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만들어 리용하였으며 수리기지와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농기계들의 실동률을 훨씬 높이였다.

최근 10년동안에만 하여도 우리 군에서는 5천여대의 새로운 농기계들을 만들어냈으며 농기계부속품을 해마다 200여톤 생산하여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훨씬 높이였다. 그리하여 논밭갈이와 모내기, 모뜨기, 김매기, 운반, 낟알털기 등 영농공정에 따르는 중요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이였으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농업생산의 기계화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논벼와 강냉이 생산을 체계적으로 높여온 우리 군에서는 1989년에는 대풍을 이룩한 그 전해에 비하여 군적으로 3만톤의 알곡을 더 냈으며 자연기후조건이 매우 불리한 지난해에도 농업생산을 훨씬 늘이였다.

지난날 벌방지대라고 하지만 땡습하고 풍수해를 많이 받아 정보당 2～3톤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군에서 정보당 알곡을 7～8톤을 생산하고 다수확군쟁취운동에 떨쳐나 15만톤군의 영예를 지니기 위해 투쟁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농촌테제를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곧바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경

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우리 군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의 위대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농업생산을 기계화하도록 당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할 때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농촌기술혁명의 4대과업을 하루빨리 수행하여 농촌테제를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완성하는 한편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는 것은 농업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는 우리 군안의 모든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는 당의 의도대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군당 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당회의들에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집행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특히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당적분공을 주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당적으로 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우선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일군들을 비롯한 군급지도일군들을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내여 농기계의 보유정형과 그 실태, 가동률, 농기계의 종류별 소요량, 부침땅의 실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있는 농기계들을 수리정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필요한 농기계부속품과 새로운 농기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착한것은 농촌경리부문의 일부 일군들이 농촌에 있는 농기계들이 실지 얼마나 리용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그 대수만 가지고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평가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것이였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을 발동하여 효과적으로 리용되지 못하고있는 농기계들을 개조하기 위한 대책과 부속품해결방도, 필요한 수리대책을 세워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다 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이것은 이미 있는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훨씬 높여 기계화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넓히며 농업근로자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의도대로 농산작업을 기계화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이끌어주고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기계화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늘이기 위한 계획, 수리 및 부속품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계획, 기술발전계획 등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군안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여기에서 군농기계작업소에 수리기지와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잘 리용하기 위하여 진행한 조직정치사업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우리는 군안의 책임일군들과 군협동

농장경영위원회 지도일군들이 군농기계작업소에 내려가 그곳 생산자들과 진지하게 토의하여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기 위한 대책안을 세우게 하는 한편 그것을 군당위원회에서 토의한 다음 분공사업을 조직하였다. 우리는 행정경제일군들이 수리기지를 꾸리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도와주며 그 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면서 끝까지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추적전을 벌렸다.

이렇게 한 결과 짧은 기간에 농기계작업소에서는 주강로와 600키로와트주변압기, 압연연신설비, 1000톤프레스, 곡축연마반, 철도금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낼수 있었으며 각종 규격의 소재와 곡축, 치차, 베아링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마음대로 생산해낼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군농기계작업소에서 뜨락또르수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농기계의 수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게 되였다. 오늘 우리 군에서 뜨락또르수리기일은 국가기준보다 대수리는 4일, 중수리는 3일이상 앞당기면서 그 질을 훨씬 높이고있다.

군당위원회는 농기계작업소에서 이룩한 경험을 일반화하여 관개관리소와 농기구공장을 비롯한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이 기술혁신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수리기지,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적극 내밀었다. 그리하여 관개관리소에서 양수동력설비부속품 전량을 자체로 생산공급하여 군안의 모든 양수기들을 만가동할수 있게 되였으며 농기구공장에서는 수많은 농기구와 2단양수기, 증산식강우기를 만들어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게 되였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해주어 모든 행정경제일군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근기있게 수행해나가도록 당적으로 떠밀어줄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다음으로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농기계와 설비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여러가지 중소농기계와 설비들을 만들어 쓰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할 때 이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대주지 않아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간다는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지녔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어깨를 들이밀고 자체로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농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농기계를 만들어 쓰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벌리는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것은 농업생산공정에 따르는 여러가지 농산작업을 기계로 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여기에는 많은 기계설비들과 자재가 요구된다. 특히 산지가 많고 부침땅의 성질이 지대마다 다른 우리 나라에서 국가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다 만들어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며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게 된다. 그런것만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쓸수 있는 농기계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 리용하는것이 주인다운 일본새이다.

한때 우리 군의 일부 농업부문 지도

일군들과 관리일군들은 국가에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보장해줄것만 바라면서 자체로 만들어 쓸 생각을 덜하였다. 바로 여기에 기계화의 비중을 더욱 높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이 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수 있는 농기계의 종류와 그 소요량, 필요한 자재를 타산한 다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우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농촌경리부문을 적극 도와나서도록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였다. 특히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내부예비를 모조리 찾아내여 농촌을 돕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농기계들을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수많은 자재예비를 찾아내게 되였다. 이러한 예비동원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과정에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군적으로 내부예비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당조직들이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군당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이 금야기계공장의 기술자와 진행한 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렸으며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금야기계공장의 한 기술일군은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고있으면서도 농기계를 만드는 일에 적극 발벗고나서지 못하고있었다.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여러차례 공장에 내려가 그를 만나 당정책을 해설해주면서 기술혁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었다. 군당책임일군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새로운 기계를 창안제작하는것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일을 잘하여 당과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을 때에는 높은 정치적신임을 표시하면서 근기있게 이끌어준 결과 그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피타게 노력하여 정밀도가 높은 기계를 만들게 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렇게 기술자들이 발동되고 생산자대중이 일떠섬에 따라 농기계제작을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부서별 직능에 맞게 선전부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조직부는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장악지도사업을 짜고들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이빠진 영농공정을 기계화하는데 필요한 중소농기계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

필요한 농기계들을 만드는데서 우리는 군농기계작업소가 이 사업의 앞장에 서도록 당적으로 잘 도와주었다. 군당위원회는 군농기계작업소 부문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을 높이도록 군당위원회 부서들이 나가 도와주어 온 기업소가 언제나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그리하여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여러가지 농기계를 자체로 만들수 있는 가공설비들을 갖추게 되였으며 가공능력을 1.7배나 높일수 있게 되였다. 지난 기간 이 작업소에서는 30여종류의 기계설비를 수십대나 만들어 가공기지를 강화하였다. 가공기지가 꾸려지고 내부예비동원사업으로 많은 자재를 찾아내게 됨에 따라 농기계제작사업이 전례없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처음으로 만든것이 김매는 기계였다. 이 작업소에서 짧은 기간에 군안의 협동농장 작업반들에 평균 2~3대씩 차례지는 능률높은 김매는 기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군적으로 논김매기를 기계화할수 있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새로운 농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

목표조항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농기계작업소를 전투력있는 기업소로 꾸려나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군농기계작업소는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고 2중 26호모범기대공장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이 기업소의 가공작업반은 2중 3대혁명붉은기작업반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러한 혁신의 불길이 온 군안에 타번지 최근 몇해동안에 군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농기계들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지난 기간 기계화하지 못하여 이빠진 작업공정으로 남아있던 벼랭상모판씨뿌리기, 비료주기, 짐을 싣고 부리는 일, 논두렁짓기, 농약주기를 다 기계로 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농기계들을 자체로 만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것이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게 되였다.

농촌에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는것과 함께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옳바로 세우는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미 있는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옳바로 세워야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빨리 늘일수 있다.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을 비롯한 농기계의 운전공들과 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바로 농촌기계화초병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농촌기술혁명수행의 선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할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뜨락또르운전수를 비롯한 운전공, 관리공들은 농기계를 직접 책임지고 다루는 담당자들이다. 그들의 역할에 따라 농기계들의 리용수준이 중요하게 좌우된다.

군당위원회는 농촌기계화초병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군당과 리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들이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도록 장악지도사업을 강화하였다.

우리는 우선 뜨락또르운전수를 비롯한 농기계 운전공, 관리공들이 자기가 지닌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그들을 교양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일상적으로 힘있게 벌렸다. 특히 중요한 농번기와 영농작업을 앞두고는 강연회와 강습, 뜨락또르운전수협의회, 방식상학, 경험교환회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농기계 운전공, 관리공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켰다.

이렇게 정치사업을 앞세워 농기계 운전공, 관리공들의 열의를 높이는 한편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도통제하였다.

우리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분공을 주어 해마다 농사차비때 농기계들의 운전과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기술전습회, 기술강습, 다기능소유자협의회를 조직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모내기와 같은 중요한 영농시기에는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농기계운전공들과 함께 기대를 타고 같이 일하면서 운전조법도 배우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었다.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줌에 따라 농기계운전공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이렇게 한 결과 최근 몇년동안만 하더라도 군안의 뜨락또르운전수들의 급수는 평균 2급이상 높아졌으며 다른 농기계 운전공, 관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도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해마다 농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한 운전공, 관리공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모두가 자기 맡은 농기계에 정통하고 그것을 잘 다루도록 교양하였다. 모내는 기계, 김매는 기계, 모뜨는 기계, 양수기 등 농기계들을 맡은 운전공, 관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기계들의 리용수준과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는 농촌기계화초병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안전하게 포전작업을 할수 있도록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다.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의 지도방조밑에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포전정리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최근년간 우리 군에서는 2,400여정보의 논밭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었다. 농기계운전공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포전들이 규모있게 정리됨에 따라 모든 영농공정을 기계의 힘으로 더 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내밀도록 하는 한편 본보기단위를 잘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는 봉홍리를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모든 영농작업을 기계화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힘있게 이끌었다. 그리하여 이 농장은 10년전부터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지을뿐아니라 매해 논벼와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에서 도적으로 가장 앞선 단위로 되였으며 그처럼 기후조건이 불리한 지난해에도 논벼를 정보당 8톤이상 생산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봉홍리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 경험교환회를 널리 조직하여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나가도록 하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불과하며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농촌에서 4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농촌테제를 완성하자면 무엇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금야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쳐나갈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농촌당사업을 강화하여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일편단심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는 참다운 농촌혁명가로 튼튼히 키우겠다. 이와 함께 농촌계급진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신들에게 자주적인간의 참다운 삶을 안겨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밝혀주신 주체의 당사업방법의 요구를 구현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하며 광범한 군중을 적극 발동함으로써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그리하여 위대한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하며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 방안은 가장 정당한 우리 식의 통일방안

림 동 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1990년대의 첫해인 지난해에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으로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14페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관통되여있는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에 의하여 창립될 우리의 련방국가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 이미 존재하였거나 지금 존재하고있는 련방국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련방국가이다.

인류력사에서 련방제국가형태의 시원이라고 할수 있는것은 고대희랍의 도시국가동맹이였다. 그후 중세봉건시대에도 이러저러한 군주제련방국가들이 있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련방제국가가 출현하였다. 오늘날 지구우에는 스위스와 브라질, 말레이시아 그리고 쏘련과 체스꼬슬로벤스꼬, 유고슬라비아 등 20여개의 련방제국가들이 존재하고있다.

지난날의 련방국가들이나 오늘날의 련방제국가들은 여러 민족이나 국가, 자치체들의 련합으로 형성되였으며 그 련방국가테두리안에서 민족적인 혈통의 차이, 언어의 차이, 지역적특성의 차이 등을 함께 수용하였거나 지금도 함께 수용하고있다. 이러한 련방국가들은 과거에는 봉건제도, 오늘은 자본주의제도 혹은 사회주의제도와 같은 단일한 사회제도를 련방형성의 기초로 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설하려는 련방국가는 단일제도우에서 련합된 련방국가들과는 다르다.

우리가 창설하려는 련방국가는 조선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적기반우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를 형성하고 그 테두리안에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는 두 정부를 함께 받아들여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련방국가이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국토와 민족이 둘로 갈라진이래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생겨났으며 그것은 분렬이 오래동안 지속됨에 따라 고착되게 되였다. 오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는것이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어느측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며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까지 빚어내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의 두 제도의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을 우선시하고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이라는 독창적인 구상을 제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북과 남의 《이질화》론을 들고나오면서 북과 남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동질성》회복이 선행되여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나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민족적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인것이다.

우리 민족은 같은 피줄을 나누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하나의 겨레로서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투철한 자주정신을 지닌 민족이며 자기 강토, 자기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알뜰하고 풍요한 살림을 꾸려나갈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또한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것도 존중하며 근면하고 례절바르고 의리가 있는 고상한 풍모를 지닌 민족이다.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은 분렬후 40여년동안 존재하여온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에 비하면 더 말할여지도 없이 뿌리가 깊고 견인력이 강한것이다. 따라서 민족적공통성, 동질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운명을 중시하는 립장에 설 때 두 제도의 차이는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다. 민족의 운명을 중시하고 력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 《동질성》회복이라는 구실밑에 나라의 분렬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이다.

하나의 제도에 기초한 제도통일이냐 두 제도에 기초한 민족적통일이냐 하는것은 제도적이질성을 앞세우면서 통일을 무한정 끌어보자는 분렬주의적립장과 민족적동질성을 앞세우면서 하루빨리 민족적통일을 실현하자는 통일지향적립장간의 대결로 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으로서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민족적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우리 식의 통일방안이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통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나라나 민족들의 통일에서는 거기에 망라되는 모든 측들에게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같은 사상과 사회제도에 기초하더라도 통일이 공

정한 원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후 심한 사회적혼란과 민족적 및 지역적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는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 인민은 나라가 분렬된후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서 살아왔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북과 남의 여러 계급과 계층들의 리해관계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는 반드시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옳게 보장하여야 하며 두 지역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어느 일방, 어느 계급이나 계층에게는 특권과 리익을 주고 다른 일방과 거기에 있는 계급, 계층에게는 의무를 지우고 손해를 주어 두 지역사이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식으로 실현한다면 통일후 나라의 안정을 도모할수 없으며 통일을 공고하고 참다운것으로 되게 할수 없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도 북과 남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여야 나라의 통일을 공정한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의 두 정부가 똑같은 자격과 권한, 책임을 가지고 같은 비률로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통일정부의 지도밑에서 북과 남의 두 정부가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게 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의 존엄과 근본리익에 배치되지 않는 한 누구나 현재 누리고있는 기득권을 잃게 될 우려가 없으며 지금 남조선에 들어와있는 외국자본의 기업활동에도 지장을 줄것이 없다.

통일적인 련방국가창설에 북과 남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며 통일정부의 관리운영에서도 북과 남이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여있고 서로 평등을 보장해주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북남쌍방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공정한 통일방안으로 된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또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자주적인 통일방안이다.

한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어오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오늘과 같이 북과 남으로 분렬되게 된것은 외세때문이다. 외세는 우리 나라를 인공적으로 분렬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기본장본인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일이 지연되고있는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나라는 분렬되지도 않았을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인민이 불행과 고통을 겪지도 않을것이다.

오늘도 미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장본인들은 이른바 《현실인정》의 간판밑에 공모결탁하여 분렬을 고정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으며 북남대결을 고취하면서 우리 민족의 지속되는 분렬에서 더 큰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계속 허용한다면 손해를 볼것은 우리 민족뿐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단합의 문제로서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결코 외세에 내맡길수 없으며 또 외세가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해줄수도 없다.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를 창설하여야 한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일상적으로 관할하는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은 통일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제3자의 개입이나 승인, 국제적인 협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 통일방안이다. 우리 민족의 대표들로 창설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조국통일의 궁극적목표인 통일적민족국가의 자주독립도 확고히 담보하게 된다.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하며 통일후에도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게 하는데 바로 련방국가창설방안의 정당성의 다른 하나가 있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또한 우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적인 통일방안이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가 아니면 전쟁의 방법으로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며 애국애족적인 립장과 민족을 말살시키는 반민족적인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 인민이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자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분렬된후 45년이 지나도록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왔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가장 안정되고 공고한 기반우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하여왔으며 그 위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수립된 독특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지만 남에 우리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으며 주변의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든 이미 선택한 사회주의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북과 남의 어느 일방도 자기의 제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라의 통일을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희생과 막대한 재난을 가져오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민족이 있고서야 통일도 필요한것이지 민족이 없는 통일이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우리 인민은 지난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이미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볼대로 다 겪어보았다.

오늘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와 최신정예무기를 대량적으로 갖추고있는 미제침략군이 북침의 기회를 노리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고있는 상태에서 일단 전쟁의 불꽃이 튕기게 되면 그것은 헤아릴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고 민족을 말살하는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민족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하는 전쟁의 방법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장기간의 분렬로 인한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그러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이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

방국가창설방안은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을 해소하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게 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 열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게 한다. 민족적합의를 바탕으로 한 련방국가창설은 전체 조선민족의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울 리유가 없게 할것이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은 완화와 화해에로 나아가는 오늘의 세계적추세에도 맞는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조국이 통일된 다음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그 어떤 정치군사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인 나라로 발전할것을 예견하고있는것만큼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은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쌍방에 다같이 유리하게 민족최대의 숙망인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우리 식의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련방국가창설방안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는것은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의 여러나라 인민들속에서 이 방안을 지지찬동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속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자유로운 통일론의가 극도로 억압봉쇄되고있는 남조선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련방제통일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있으며 조국통일은 어차피 련방제방식을 통해서만 실현될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더욱 굳어져가고있다. 저명한 학자들과 언론계인사들, 기타 정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통일문제학술토론회들에서는 의례히 련방제통일방식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주장하고 론증하는 토론들이 지배적추세로 되여가고있다.

우리의 련방국가창설방안은 7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다.

련방국가창설방안은 세계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된 후 불과 1년반사이에만 하여도 세계 100여개 나라들에서 16억이상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이 방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우리 식의 통일방안은 최근시기에도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당수들, 인민들 그리고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와 민족위원회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지역별 주체사상연구소들에서 계속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이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 속에서 날로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는데 당황해난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그들이 제창하는 《통일방안》이란 통일을 표면상의 간판으로만 내건 반통일흉계이며 영구분렬책동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심지어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되여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과의 회담에는 성실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하는것은 그들의 사대근성과 분렬주의적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이다.

우리 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

때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실증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건설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축성있는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와 난관을 물리치고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함으로써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설방안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전민족적인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는것이다.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주인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하는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민족적단결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상과 리념, 신앙의 차이, 소속이나 직업의 차이, 재산과 지식정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우리 민족모두가 련방국가창설을 위하여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련방국가창설방안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를 성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각계각층과 각 분야를 포괄하는 자주적인 민간급 통일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진척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의 분위기를 더욱더 성숙시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으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련방국가창설방안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조국통일의 평화적전제를 마련하는 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저애하는 법적 및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하며 대규모적인 군축을 실현하고 불가침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분렬주의적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키며 우리 나라의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더욱 늘여나가야 한다.

투쟁의 년대, 희망의 년대, 통일의 년대인 90년대의 두번째 해를 맞이하는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올해에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야말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다.

우리는 희망찬 올해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창립의 날을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현시대발전의 절박한 요구

우 명 수

오늘 세계의 전반적정세는 복잡하다. 그러나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력사적흐름으로 되고있는 현시대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비할바없는 큰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문제는 반제자주력량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29폐지)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 위업은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실현될수 있다.

이로부터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자주력량과 그를 반대하는 반동세력간의 치렬한 대결로 된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투쟁에서 승패는 결국 반제자주력량의 위력에 달려있다. 물론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비할바없는 큰 힘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 위력은 반제자주력량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현시대 온 세계의 자주화를 방해하는 주되는 투쟁대상을 격파하고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절실한 문제로 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자주화운동에 대한 방해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시대 세계적범위에서 인민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 실현을 방해하는 기본세력은 제국주의세력이다.

제국주의는 인류력사에서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인 동시에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가장 횡포한 억압제도이다. 독점자본에 기초하고있는 제국주의는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착취제도인것으로 하여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사회계급적예속의 멍에를 들씌우고있을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예속과 지배를 필수적인 생존조건으로 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그 계급적본성으로부터 《반공》을 자기의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고 사회주의위업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불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 인민들의 투쟁,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교살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쓰고있다.

특히 현시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고 반제자

주력량이 날로 장성하는데 겁을 먹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을 분렬리간시키고 자주적으로 나가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전복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최근시기에 와서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이 단합하는것을 방해할 목적밑에 큰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완화》니 《평화》니 《화해》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대결을 피하거나 타협하며 자주적으로 나가는 작은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겉으로 《친선》과 《독립》, 《자주권》을 위하는듯한 간판을 내걸고 실지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정치경제적압력과 정부전복, 내정간섭과 분렬리간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에 매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전복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령토문제, 신앙과 제도의 차이, 경제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인종관계 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를 조성하여 싸움을 붙이고있다. 또한 그들은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내세워 《대리전쟁》의 방법으로 자주적인 나라들을 말살하려 하면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반동들을 주변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로 내몰고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반혁명분자들,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악당들에게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대주어 범죄적책동에로 부추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인 나라들의 진보적정책을 가로막기 위하여 로골적인 무장간섭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직접적인 무력침공에 의하여 1983년 그레네이더의 진보적인 정권이 말살되고 1989년에 빠나마의 반제자주적인 정권이 전복된것은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자주화운동에 대한 방해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범위에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로골적으로 유린하고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기본추세와 조성된 국제정세,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근본목적과 그 대상과 동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독창적인 국제주의구호를 제시하심으로써 세계자주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반자주세력에 대한 자주세력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국제주의구호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28~29페지)

현시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세계인민들이 단결할수 있는 기초와 그들사이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명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최대한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현시대의 국제주의구호이다.

이 구호는 현시대 세계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의 기초를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이 구호가 밝혀주고있는 단결의 기초는 자주성이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온갖 형태의 예속과 지배, 간섭과 통제를 견결히 반대하면서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은 세계인민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근본조건이다.

물론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자체의 주객관적인 조건에 의하여 벌어지는것만큼 매개 나라마다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본질적공통성과 보편성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모든 나라 인민들은 공통된 리해관계와 목적을 가지게 되며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 합류하게 된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고있는것은 그들의 단결과 협조를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만들수 있는 근본조건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운동인것만큼 여기에서는 그 어떤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도 있을수 없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와 민족, 당들에게 있어서는 지배와 예속,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허용될수 없다.

오늘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예속뿐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당의 간섭과 통제도 반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호상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에만 단결을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만들수 있다. 만일 자주성을 무시할 때에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은 파괴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 수행에 엄중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는 국제혁명력량편성의 기본원칙을 밝혀주고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자주력량과 그를 반대하는 반동세력간의 대결인것만큼 자주력량의 승리는 그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 단결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런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자체의 주객관적인 조건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공산주의운동, 반제반식민주의운동과 민주주의운동, 뿔럭불가담운동과 세계평화옹호운동 등 투쟁의 성격과 임무, 형태와 방법, 발전정도에서 구별되는 여러 사회세력에 망라되여있으며 특수한 사회력사적조건에서 활동하고있다.

자주력량의 이러한 구성상 특성으로부터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과 동력을 바로 규정하고 력량편성의 원칙을 정확히 밝히는 문제가 시대적요구로 절박하게 제기된다.

바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는 자주성을 유린하고 억제하는 모든 세력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이 단결할것을 제기함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대상과 동력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또한 이 구호는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나라, 모든 사회세력, 모든 운동을 하나로 단합시킬것을 근본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세계의 자주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반자주세력에 비한 자주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는 국제혁명력량편성의 기본원칙을 밝혀주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는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매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밝혀주고있다.

평화와 안전은 모든 나라에서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자주적발전을 보장하자면 공고한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여야 한다.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환경조건속에서만 인민들은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적변혁을 위한 투쟁에 전력할수 있다. 또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여야 나라와 민족들은 자기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잠재력을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정치적단결과 경제기술적협조를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오늘 세계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의하여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정치경제적처지가 날로 어렵게 됨에 따라 경제의 군사화와 정치생활의 파쑈화를 다그치면서 《리권보호》니 《안전보장》이니 하는 구실밑에 주요 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한 전쟁도발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지금 만지역에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이라크의 쿠웨이트병합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간판밑에 수십만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적간섭과 경제봉쇄를 감행함으로써 새로운 전쟁위험이 조성되여있다. 또한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리고있으며 우리 나라 령공과 령해에 군용비행기와 군함들을 침입시켜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주권을 보위하며 새 사회건설에 유리한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자면 세계의 모든 자주력량이 일치단결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길은 자주권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계급과 인종, 신앙과 정견, 사회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며 반제자주화투쟁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견결히 벌린다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매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가 현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생활력있는 국제주의구호라는것을 말해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이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나가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28페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며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매개 나라와 민족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으며 국제적 단결과 협조도 완전한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압력과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만일 그 어떤 외부세력에 눌리워 맹종맹동하거나 아부아첨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거나 남의 대리인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리익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뿐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의 친선단결에도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도모하고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들이 대외관계에서 평등과 호상존중을 도모하고 남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것은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할 민족과 지배받아야 할 민족은 따로 없으며 그들은 다같이 국제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 자주권을 가지고있다. 그런것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 나라나 민족에게 특권적지위가 허용될수 없다.

만일 특권적지위가 허용된다면 불평등한 관계가 생기게 되고 단결은 파괴되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이 진실로 화목하고 자원적이며 동지적인것으로 강화되자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고 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희생시키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제국주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현정세의 요구와 관련하여서도 더욱 중요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회유기만책동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거기에 붙어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근본리익과 민족자주의식을 고수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한대오에 서서 함께 나가자면 반드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과 함께 제국주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립장을 지켜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국제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세계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지배세력을 반대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근 로 자 1991년 제1호(루계 585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91년 1월 3일 발 행 • 1991년 1월 5일

ㄱ—05226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91

제 2 호(58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편집국론설)

(정치사상론설)

(혁명전통 및 당건설 론설)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는 일심단결의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은 우리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르며 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전통적풍모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왔으며 인민대중은 우리 당을 자기의 심장과 뇌수로 굳게 믿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왔다. 당과 인민대중이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동체가 됨으로써 우리 당은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낼수 있었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간고분투하여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를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다.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우리 인민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도 바로 우리 당이 위력하고 당과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는데 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그 어떤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당의 령도를 변함없이 충성의 한마음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며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1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그 개척기로부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그것을 면면히 계승하여온 빛나는 력사이다.

혁명이 력사적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하는것만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도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이며 힘의 원천이다. 혁명은 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전진하며 단결의 계승에 의하여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이 이룩한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그 순결성을 끝까지 고수할 때만이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혁명의 명맥을 튼튼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일심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 위대한 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그 기저에 놓여있는 전통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일심동체를 이룩한 그

숭고한 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고있다.

일심단결의 전통은 우리 당을 대를 이어 백전백승의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만년초석으로 된다.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전통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한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의 동지적이며 의리적인 참다운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투쟁속에서 찾은 신념과 피의 교훈으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영용하게 투쟁하였다.

청운의 뜻을 품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진정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여 헤매이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스승으로 맞이하게 된 때로부터 투쟁의 참다운 길을 찾게 되고 수령님의 령도적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여 태양을 옹위하는 별무리를 이루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결속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통일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셔야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었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높은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류례없이 간고한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운 불굴의 혁명정신은 그 고결성과 높은 정치사상성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며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은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고상한 사상감정으로서 혁명대오의 공고하고 진정한 통일단결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선 동지들을 한품에 안아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으며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은 자기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시며 보람찬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는 것을 혁명가의 본분으로, 마땅한 의리로 여기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다진 충성의 맹세와 혁명적의리를 지켜 생명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워나갔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수령과 전사, 전사들 호상간의 관계가 숭고한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결합됨으로써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가장 진실하고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이 이룩한 통일단결의 전통의 위대성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통일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는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다.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지 않으면 당대렬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행동상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혁명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념화, 신조화하였으며 그

기발아래 굳게 뭉쳐 전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으며 항일혁명대오를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 단결의 기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렬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모든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았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속됨으로써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적통일체를 이루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줄 모르는 확고한 신념과 철의 의지를 지니고있었기에 종파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의 온갖 오물들을 쓸어버리고 혁명대오안에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지배하고 차넘치게 하였다. 항일혁명대오가 그처럼 엄혹한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 항일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영웅적서사시로 수놓을수 있은것은 전대오가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강철같은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루고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실현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은 그 거대한 생활력과 감화력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끝없이 고무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우리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줄기차게 이어지고 그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일심단결의 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시련에 찬 년대들을 거쳐오면서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훌륭히 완수하고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치였으며 나라의 번영과 륭성을 이룩하여올수 있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오직 어버이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전승의 날을 앞당겨온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안팎의 원쑤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페허속에서 나라를 일떠세우던 그 어려운 시기 강재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호소를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으로 받아안고 6만톤 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여 온 나라에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올린 강선의 로동계급들의 영웅적투쟁은 우리 혁명의 간고한 시기들에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던 준엄한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어버이수령님께 이제는 인민생활이 걱정 없으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라고, 아무렴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는가고 말씀올리며 필승의 신념을 피력한 태성의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오늘 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의 충성과 효성이 지극한 소행들은 당과 인민대중의 떨래야 뗄수 없는 혼연일체, 일심단결이 우리 혁명의 여러 단계에서 줄기차게 이어지고 굳세여졌다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이처럼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그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불멸의 혁명적재부로 된다.

2

일심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대를 이어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키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데 언제나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통일단결의 중심을 대를 이어 확고히 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만물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운동발전하는것처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루는데서도 핵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 통일단결의 중심은 바로 혁명의 령도자, 수령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단결은 결코 공고한 통일단결로 될수 없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와 같이 굳게 결속될 때만이 당과 혁명대오는 불패의 힘을 지니며 혁명위업은 힘있게 전진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된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온 사회를 하나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속시킨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이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는 통일단결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있다.

혁명의 개척기에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통일단결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고수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새로운 리론적재부들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정하고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심으로써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결속된 사상의지적통일체로,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에도 물들지 않는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다져졌다.

이와 함께 당의 통일단결의 조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고 령도체계가 옳게 서야 조직적중심을 대를 이어 확고히 보장할수 있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핵심력량인 간부대렬을 당과 수령에 대

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일군들로 꾸리고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일심단결의 조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우리 당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올바른 조직관을 가지고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조직생활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당대렬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고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하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을 대를 이어 튼튼히 보장하고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전당에 당의 결정과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드팀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제때에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웠으며 전당이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안에는 당의 결정과 방침을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으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튼튼히 서고 통일단결의 조직적기초가 더욱 공고화되게 되였다.

일심단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는데서 그 빛을 높이 뿌리고있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그것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된다.

당이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여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베풀고 인민대중은 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당과 혼연일체가 되여 생사고락을 함이해나가는것이 우리 사회의 고결한 풍모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혁명의 령도자와 인민대중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로 굳게 련결되여있고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로 철석같이 결속되여있는데 바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백전백승의 위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를 이어 강화발전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중심의 확고부동성과 조직사상적기초의 순결성, 혈연적뉴대의 숭고성으로 하여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필승불패의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멀리 전진하여도 영원히 변색을 모르는 혁명의 위대한 기치로, 조선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의 원동력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이 불패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대담하게 헤치고 승리의 한길만을 열어나가는 필승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으로 그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다.

3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과거에도 중요하였지만 오늘에도 혁명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할

다. 제국주의가 있고 기회주의가 남아 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6~37페지)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1990년대에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거창한 과업을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과 반공화국소동이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는 정세하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뚫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면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당을 강화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시기 당의 통일단결,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당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킨다는것은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고 당의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보장하며 그 순결성을 끝까지 고수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당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일심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갈 때 아무리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영광스러운 혁통을 고수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당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가 철저히 실현되여야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행동의 일치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사업과 당활동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그것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무조건 접수하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방침관철에서 홍정을 하고 난관이 있다고 하여 주저하는 등 무조건성, 절대성이 없는 현상은 우리 일군들의 투쟁기풍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일군들은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이 없이 홍정하고 질질 끄는 그릇된 현상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를 세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적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튼튼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튼튼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

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세워야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질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숨을 쉬여도 당과 같이 숨을 쉬고 행동을 하여도 당과 같이 행동하는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녀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과 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력사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과 요소를 반대하여 벌려온 투쟁의 력사라고도 볼수 있다. 우리 당은 이색적인 사상과 요소를 반대하는 원칙적인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오늘과 같은 위대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지방주의, 가족주의, 기회주의, 사대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한 사소한 요소도 제때에 강한 타격을 주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며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는 특히 수정주의, 사대주의의 사소한 표현에 대하여서도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극복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며 현대수정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러한 반동적인 사상조류의 발생과 침습을 철저히 막을 때만이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기치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위업을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또한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으로 무장하는것은 오늘의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혁명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에서 쌓은 우리 당의 경험은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 귀중한 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는데서 앞장서나가는 견결한 투사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할수 있으며 예리한 당적 및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당의 통일단결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인민적품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그처럼 공고하고 위력한것은 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들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기때문이다.

당이 대중속에 뿌리를 내리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자면 간부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복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와 믿음은 더욱 두터워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끊임없이 공고화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일심단결의 전통을 거울로 삼고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중앙의 두리에 철석같이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굳건히 다져진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옹호고수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며 당이 부르는 90년대의 보람찬 투쟁에서 혁신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임무

김 중 린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지난날 인간어하의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우리 인민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존엄을 지니고 값있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길을 앞장서 개척해나가고있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온 우리 당의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앞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대중에게 더욱 충실히 복무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간고하고 복잡한 로정을 승리적으로 헤쳐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이야말로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이라는것을 확신하고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위대한 당과 당이 결심하면 그 어떤 과업도 기어이 해내려는 인민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여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의 자랑찬 모습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복무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 *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삼고있는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당이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이다. 일정한 계급과 사회적집단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를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목적으로 출현한 당은 언제나 자기 계급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여왔다. 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계급의 정당들은 소수 지배계급의 반동적요구를 추구하여나왔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고 착취계급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여왔다.

이와는 달리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요구로부터 출현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한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워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당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

한 령도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이끌어나가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떠나서 그 존재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이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때 대중은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며 모든것을 다 바쳐 당을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당은 대중속에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당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이 대중속에 뿌리박을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며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라야 혁명의 참모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사명을 다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모든 활동을 그것으로 일관시키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이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모든 활동을 그것으로 일관시키고있는것은 그 혁명적성격과 관련되여있다.

당의 사명과 임무는 당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조선로동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완성된 혁명사상이다.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정확히 명시한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이다.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력사가 전진한다.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없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사업은 없다.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혁명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가장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활동한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임무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방법과 작풍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키고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임무로 여기는 우리 당은 로선

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 전과정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모든것을 거기에 철저히 복종시켰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23페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활동원칙이다.

당의 활동에서 기본은 올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작성제시하여 인민대중이 나아갈 앞길을 밝히는것이며 그것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것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보는 주체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리익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였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적극 내세우며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여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령도해오시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의 의사와 요구를 알아보시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심으로써 그것이 인민대중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으로 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근본리익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관철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가장 독특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가 훌륭히 일떠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령도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전략적로선들과 전술적방침들을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과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신데 기초하여 작성하고 제시하시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고계신다.

로선과 정책 작성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이러한 원칙적요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에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고 주체위업이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시기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새로운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선포한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여기에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집대성되여있다.

오늘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는 3대혁명로선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방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등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올바른 로선과 정책들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뿐아니라 공업정책과 농업정책, 문화분야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구체적무쟁과업과 방도를 밝힘에 있어서도 그것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으로 되게 하는데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우리 당은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고 한대의 기계를 만들어도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자주적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기술혁명을 다그쳐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도 그것을 단순한 기술실무적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치사업

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교육과 문학예술, 보건과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분야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는데서도 언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며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될데 대한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전략적로선들과 전술적방침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여있으며 거기에는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활동하는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야말로 자기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자주성이 빛나게 실현될 희망찬 래일을 담보해주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이라는것을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철저히 관철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한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령도하고있기때문이다.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또한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당의 활동은 그들에게 값높은 정치생활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참답게 보장해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값높은 정치생활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참답게 누릴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주는 당만이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혁명적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사회정치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그들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해주고있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이다. 사람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값높은 정치생활을 하여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그 누구의 구속도 받음이 없이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에 비할바없이 귀중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히고 우리 인민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혁명가의 존엄있는 삶을 누리도록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풀고있는 어머니당이다.

인민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혁명동지로 믿으시고 그들에게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으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에 자그마한 흠집도 없이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은 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굳게 결합될 때 유지되고 빛나게 된다는것을 밝히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 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연한 조직사상생활체계를 세워주고 이끎으로써 그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

때에 하나의 생명으로 결속되도록 하였다.

사람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그것을 빛내이도록 세심히 보살피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모든 사람들이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당이 이끄는 혁명의 한길에서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자식의 생명에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준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주고 빛내일뿐아니라 그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가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때문에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인민들을 다같이 잘 살게 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피고있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쟁에서는 사소한 만족도 자만도 있을수 없다는 숭고한 립장을 지니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하나하나의 시책이 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으로 일관되도록 하고계신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문명한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고있을뿐아니라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을 일으켜 인민들에게 다양한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현대적인 거리들을 불과 몇해사이에 수많이 일떠세워 인민들의 주택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있으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우고있다.

우리 당이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들여 일떠세운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과 살림집들, 최신설비와 조건을 갖춘 학교와 병원, 웅장화려한 극장과 여러가지 체육시설들, 문화후생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은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사색과 로고의 낮에 밤을 이으시며 전국의 방방곡곡에 대한 실무지도의 새벽길도 수없이 걸고걸으신다. 우리 당의 령도의 손길,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황철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은률과 검덕의 장거리벨트콘베아가 뻗어나갔으며 로동당시대의 위용을 떨치는 서해갑문이 일떠서고 최상의 로동조건이 보장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전반을 책임지고 돌보고있을뿐아니라 매 가정과 개별적사람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도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근심걱정이 없는 행복한것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항시적으로 직접 대치하여있고

혁명의 근본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 배우며 치료받을 걱정, 세금걱정을 모르면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값높은 정치생활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현실을 통하여 우리 당이야말로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라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해나가려는 확고한 결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또한 자기 활동에서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의 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이 철저히 인민적인것으로 되여야 당이 자기의 활동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일관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지와 보호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집권당으로서 권력을 쥐고있지만 권력에 의거하는 방법으로써는 인민대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없다. 만약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떠나서 권력에 의거하여 행정식, 관료식 방법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해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되며 당자체의 존재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민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지니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인민대중에게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적사업방법과 작풍을 지니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을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우리 당은 특히 혁명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세련되지 못한 새 세대 일군들이 당의 핵심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그들이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로서의 풍모를 높이 지니고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일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힘있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그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시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곳이면 그 어디에나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석수떨어지는 지하막장과 공장과 어촌, 농장의 포전도 찾으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의 모범을 보여주고계실뿐아니라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실천행동에서 인민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구현해나가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따뜻이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당

은 언제나 일은 일군들이 더 많이 하고 혜택은 군중에게 더 많이 차례지게 하며 그러자면 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뛰고 또 뛰며 자신에게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인민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참다운 인민적풍모를 지니고 일하도록 하여왔다.

우리 당은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데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모든 일군들이 늘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도록 이끌었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호령은 인민이 하고 일군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작풍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일군들이 항상 어깨를 낮추고 인민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교양하고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인민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동반한다. 당안에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자면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교양사업과 함께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일군들을 주체의 령도리론과 방법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의 사소한 요소도 뿌리빼기 위한 강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안에 언제나 인민적인 사업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안에는 주체의 대중령도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철저히 구현되여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 충복으로서의 풍모를 지니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시는 주체적관점을 지니시고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그에 맞게 모든 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누려본적 없는 값높은 정치생활과 행복한 물질생활, 아름답고 고상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살며 투쟁하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일심단결되여 주체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당과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당은 인민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대중은 당을 자기 생명의 모체로 높이 받들고 당과 인민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이 자랑찬 현실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투쟁의 기수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인민대중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복무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당

최 영 립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오랜 세월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찬란한 현실로 활짝 꽃펴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오늘처럼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리념을 훌륭하게 실현해나가는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로, 참으로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로 온 누리에 자랑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가슴깊이 체득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으며 영원히 당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끝까지 나아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1)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위한 근본요구이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사람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켜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사회의 기본특징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결코 남이 선사하였거나 남의 힘에 의거하여 세워진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신이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세운 우리 식의 사회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2페지)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올바른 전략전술적령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에로 끝까지 나아갈수 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주체로 등장하여 그들자신이 수행하는 혁명위업이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그 주체인 인민대중을 어떻게 의식화, 조직화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으며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맞게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나간것은 전체 인민을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한것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주체사상학습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는 한편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문헌들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새로운 원리와 명제들로 풍부화하심으로써 주체사상교양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과학리론적기초를 마련해주시였다. 특히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로동계급의 선행리론과 대치시키거나 그 테두리안에서 해석하려는 그릇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으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밀접히 결부하도록 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결속될 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주체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집단에서 수령이 생명의 중심으로 되며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와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적극적인 교양대책을 세웠다. 여기에서 우리 당이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한것은 온 사회에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차넘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의 령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을 결합하는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당의 령도를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실현해나가며 당과 국가활동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당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혁명대오를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력량으로 다지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고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이게 한 기본요인이였다.

우리 당은 또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옳바른 투쟁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관철함으로써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조해나가는것은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근본방향이다. 사회주의를 이러한 근본방향에 따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주체적립장에 서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 일관하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관철하여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나서는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우리 당이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편향없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3대혁명에 관한 로선들과 함께 전당의 주체사상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사회주의농촌건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옳바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등 혁명적구호들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정세와 혁명실천의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우리 혁명의 투쟁력사와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었다. 결과 우리 인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은 기본담보는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옳바른 전략전술적령도를 보장한데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과정에서 혁명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다른 사회적운동들과 구별되며 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의거하여 앞길을 개척해나간다. 혁명투쟁의 력사는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면 사회주의위업이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면서 전진하게

되지만 혁명적원칙을 저버리면 중도에서 변색되고 주저앉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자주성에 대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고수하고 구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과정으로 된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개척기에 추켜들었던 주체의 기치를 계속 힘있게 틀어쥐고나가며 자주성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식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변함없이 관철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와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옳게 푸는데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렸다.

특히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를 그 본성적요구대로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사회주의제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적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를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방법으로 관리운영하면 점차 자본주의적인것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데서 사회주의사회를 집단주의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특히 인민경제를 집단주의적방법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 나라에서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집단주의적방법으로 관리운영되며 농촌경리가 현대적기계기술에 기초하여 대규모집단경리로 발전하고있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원칙을 굳건히 고수하고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원칙성은 중요하게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강화될수록 혁명적원칙을 더욱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해왔다.

우리 당은 복잡하게 조성되는 정세와 반동들의 악랄한 공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반제, 반수정주의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으며 《평화》와 《군축》, 《완화》와 《대화》의 막뒤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시종일관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여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집중되는 류례없이 복잡하고 첨예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한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이 철저히 분쇄되고 사회주의위업이 굳건히 수호되여왔으며 공산주의운동안에 예상치 않았던 복잡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혁명은 사소한 드팀도 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령도는 우리 나라

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결정적담보로 된다.

(2)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거세찬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보다 충분히 실현하는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나날이 륭성번영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5페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보다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풍족하고 건전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집단주의적인 생활은 오직 사회주의생활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리념에 맞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주적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으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참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비롯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 고르롭게 행복하게 살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적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꽃피우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생활이야말로 온갖 사회악을 모르는 참다운 사회주의적생활이며 그것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또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경제가 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며 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로 된다.

만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시 난관이 제기되였다고 하여 자본주의경제제도의 반동적본질과 취약성을 보지 않고 《자본주의적인 경제효률》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난관을 극복할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기초하여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

리 나라에서는 공업생산이 해마다 1970년—1979년사이에는 15.9%, 1978년—1984년사이에는 12.2%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80년대 대건설전투가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거창한 규모의 서해갑문과 대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1단계건설의 승리적인 완공 그리고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의 성과적추진과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온 나라 도처에서 벌어진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의 건설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발전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와 함께 문학예술, 교육, 보건, 과학기술도 급속히 발전하여 그 대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가 오늘 《주체예술의 조국》, 《전체 인민이 다 배우는 교육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병없이 건강하게 오래사는 무병장수의 나라로 세상사람들로부터 높이 찬양받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다.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또한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졌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면서도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이 혁명대오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당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온갖 시련을 이겨낸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참다운 모습이다.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인민은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와 력사 앞에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혁명적당

김 기 남

오늘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을 우리 식대로 건설하여온 자랑찬 성과이며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하여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주체의 혈통을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의 계승성은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1)

당의 혈통을 고수하고 굳건히 이어나가는것은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당건설의 전행정에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49페지)

일반적으로 혈통이란 말그대로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혈통에 의하여 당과 혁명의 명맥이 이어지며 당건설위업이 계승되고 발전완성된다.

우리 당의 혈통은 주체의 혈통이다.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혈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불멸의 투쟁업적과 투쟁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당의 혈통을 고수하고 계승하는것은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당의 혈통은 당의 존재와 발전을 담보하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명맥으로 된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의 전과정에 당의 혈통을 고수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사람의 몸에 한가지형의 피만이 흘러야 생명유기체로 존재하고 활동할수 있는것처럼 당도 자기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야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할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거세하고 말살한다면 당의 명맥이 끊기우고 당안에 각양각색의 주의주장이 대두하게 되여 당이 사상적으로 와해변질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안에서 분파활동이 허용되고 파벌에 의하여 당의 조직적기초가 허물어지게 되며 당이 조직된 부대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당의 사상적변질은 필연적으로 조직적인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당의 혈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세하고 말살하는가 하는것은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존재하고

발전하게 하는가 아니면 당을 변질시키고 파괴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선다. 력사의 교훈은 간고한 투쟁의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던 로동계급의 당도 자기의 혈통을 고수하고 계승하지 못하면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와 성격을 잃게 되고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당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굳건히 이어나가는것이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당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것은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당건설위업은 혁명의 세대교체와 함께 줄기차게 이어져야 한다. 이로부터 수령이 마련한 당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면서 당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 수행에서 전통과 계승은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전통이 없이는 계승이 있을수 없고 계승이 없이는 전통의 전면적인 구현과 발전풍부화가 있을수 없으며 당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이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 단계를 거쳐 실현되는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이 확고한 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하고 완성되여나가자면 당건설위업수행의 전과정을 하나의 피줄기로 이어주는 전통이 있어야하며 그것이 순결하게 고수되고 계승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혁명의 단계가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여도 그 명맥을 하나의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당건설위업수행의 전과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피줄기가 바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당의 혈통이다.

당의 혈통은 당건설위업수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피줄기로 이어주는 명맥으로 되며 거기에 담겨져있는 사상리론적재부와 혁명업적과 투쟁경험들은 장기적이고 간고한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이러한 혈통을 피줄기로, 명맥으로 하여 전진한다. 당건설위업이 전진하는 행정에서 당의 혈통이 발전풍부화되며 발전풍부화된 당의 혈통을 밑천으로 하여 당건설위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고 완성된다. 그러므로 당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다.

당의 혈통을 고수하고 계승하는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그 향도적력량인 당을 변질시키는데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편승하여 로동계급의 당안에 기여든 우연분자, 정치적사기군들은 당을 사상적으로 변질시키고 조직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반혁명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혁명의 배신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당이 건설되고 강화발전되는 합법칙성을 부인하면서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고있다. 혁명의 배신자들과 제국주의의 사환군들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음으로써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먹칠을 하고 수령의 사상과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업적과 전통을 거세하고 말살하고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기회주의, 개량주의당으로 전락시켰으며 부르죠아정당들에 령도적지위를 탈취당하고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였다.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당의 혈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지 못하면 당이 변질되고 파괴

되며 혁명이 좌절되고 중도반단된다는 쓰라린 교훈을 남기고있다.

참으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당의 혈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순결하게 계승하는것은 혁명의 운명, 당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되며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2)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전도양양한 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이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10페지)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은 당의 존망,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당의 전도와 발전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 당의 임무와 전략전술, 투쟁방법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당의 혁명적성격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당의 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당은 원래의 면모를 잃게 되고 이색적인 당으로 변질되게 되며 혁명에 대한 령도적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된다. 당의 혁명적성격이 고수되여야 당이 수령의 당으로 변함없이 존재할수 있으며 양양한 전도를 가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기 위하여 당의 혈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당의 혈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의 전도는 혈통의 순결한 계승에 의하여 담보된다. 당의 혈통에는 수령의 사상과 리론을 비롯하여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제반 요인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원천과 혁명적재부가 풍부히 담겨져있다.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하며 그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당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그 면모를 완성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철석같은 신념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의지와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의 혈통의 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을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우리 당이 계승해나가야 할 혈통의 모든 내용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투쟁업적만으로 일관되게 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흐리게 하거나 말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고 단호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주체의 혈통은 가장 순결하게 옹호고수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게 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긍지높이 불리우게 되였다.

우리 당은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기 위하여 당의 지도사상을 견결히 수호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당이 건설되고 당의 위업이 개척되여왔다.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가장 공고한 기초와 독특한 발전력사,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가진 백전백승하는 당으로

될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근본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자면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확고히 수호하고 순결하게 계승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고 당을 영원히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는것이며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만드는것이다.

우리 당은 당의 혈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속에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시키도록 하였으며 그들을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이색적인 사상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전당에 주체사상만이 차넘치게 하였다.

전당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그것이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는것은 주체의 혈통을 계승발전시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또한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가도록 하였으며 특히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을 당의 혈통계승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제기하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구현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당의 령도밑에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원만히 갖추게 되였다.

주체의 혈통을 고수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대를 이어 일관하게 간직하고 구현하여야 할 혁명적재부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리 당이 당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된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이 있으며 양양한 전도가 있는것이다.

(3)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 당의 령도의 계승성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전도양양한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리론실천적으로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당의 령도의 계승성문제란 당의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세우는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혁명을 개척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당의 혈맥을 굳건하게 이어나갈수 있으며 당의 위업이 끝까지 수행될수 있다. 당의 전도도 전적으로 당의 령도의 계승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를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혈통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빛나게 해결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계승하고 구현하여 당과 혁명위업을 령도하는 과정에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고 고귀한 혁명업적을 이룩하였으며 풍부한 투쟁경험을 창조함으로써 주체의 혈통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당건설위업과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한것은 우리 당이 주체의 혈통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하는데서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사상리론적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려는 확고부동한 립장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고 그 종국적승리를 위한 전투적강령과 방침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우월성과 변혁적역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적원칙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독창적인 당건설 리론과 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하면서 그것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켰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시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계승발전된 당건설리론은 혁명의 새로운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된 주체의 당건설리론이며 각이한 혁명단계와 투쟁조건에서의 당의 모든 활동경험이 집대성된 백과전서적인 당건설리론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국가건설과 국방건설,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수많은 독창적인 리론들이 새롭게 제시되였다.

이러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업적들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혈통을 발전풍부화시키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실증해주고있다.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것은 우리 당이 쌓아올린 커다란 업적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독창적인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나라의 만년대계를 마련하고 혁명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당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 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전변들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과 위대한 혁명실천에 의하여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은 모든 면에서 가장 빛나게 계승되고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되였다.

일찌기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투쟁로정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준엄한 시련과 겹쌓인 난관을 헤치고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여온 영웅적투쟁행로였으며 새로운 업적과 재부들로 주체의 혈통을 발전풍부화해온 보람찬 나날이였다.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정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혈통, 당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 승리하고 위대한 수령, 영명한 지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는 고귀한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였다. 여기로부터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만 당과 혁명의 앞길에 끝없이 밝은 전도를 열어놓을수 있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바로 투쟁속에서 찾고 력사적으로 형성된 이 고귀한 진리, 이 불변의 신념으로부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를 영원히 받들어나가려는 숭고한 지향과 절절한 념원을 가지게 되였다.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념원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함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당의 령도의 계승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한 빛나는 모범이였으며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수령의 후계자의 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의 령도의 계승성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문제이다.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후계자의 유일적령도는 조직사상적지반과 령도체계에 의하여 보장된다. 때문에 수령의 후계자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자면 반드시 튼튼한 조직사상적지반이 있어야 하며 혁명적규률과 질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령도체계가 확립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바로 후계자의 지도체제,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은 후계자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의 지도체제를 바로세우지 못하였을 때에는 배신자들, 정치적사기군들에 의하여 당이 롱락되고 그 위업이 파탄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과 그 후계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당의 지도체제 확립에 관한 리론을 체계화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시종일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의 지도체제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천명하고 그것을 철

저히 실현해나감으로써 전당에 수령과 후계자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당조직들로 하여금 당원들속에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대를 이어 계승되는 단결의 중심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당조직들이 모든 당사업을 당의 기초를 전망성있게 다져나가는데 철저히 복종시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당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 당의 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간부대렬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수 있는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이 높아진 결과 당대렬이 질적으로 공고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가 마련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철저히 섰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당의 령도를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반석같은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전도양양한 당으로,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가 한결같이 움직이는 령도체계를 확립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정치적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계승할수 있는 자질과 품격을 갖춘 지도자를 후계자로 추대하고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여기에 당의 령도의 계승성문제 해결의 합법칙성이 있으며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당을 전도양양한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참된 길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우리 당을 전도가 양양하고 미래가 밝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 *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을 더욱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속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전로정에서 이룩되고 발현되여온 충실성의 전통과 모범을 계승하고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혈통이 이룩되고 구현되여온 전로정은 충실성의 전통과 모범이 창조되고 계승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자기들의 혁명적본분으로, 마땅한 도리로 여기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다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고수하고 신변을 보위하기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싸웠으며 사령부의 안전과 혁명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혀까지 끊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전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고 만수무강을 축원하면서 결사전에로 나갔으며 전후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강철증산과 위대한 수령님만을 지지한다는 신념의 웨침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믿음을 의리로 받들고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고있으며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혁명하려는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과 온갖 원쑤들의 반혁명적모략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오늘과 같은 환경속에서도 한 민족의 운명, 혁명의 승패

는 전적으로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기고 영원히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로 나아갈 신념을 굳게 다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의 한 세포당원들이 올린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의 한마음으로 일관되여있는 편지에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회답서한은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위대한 사랑으로 충만되여있다. 참으로 그것은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 사이의 사랑과 충성의 혈연적관계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우리는 생동한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전사들, 인민들이 발휘하였으며 오늘 우리 당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혈통의 계승은 곧 업적의 계승으로 되며 수령의 업적에 대한 태도는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척도로 된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수령, 자기 당이 이룩하여놓은 업적을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사람만이 충실한 전사이며 참다운 혁명가이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과 고귀한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을 당과 혁명을 보위하기 위한 중대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의 혈통을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단결은 우리 당과 혁명의 생명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 혁명은 단결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승리하며 전진하여왔다.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숭고한 동지적의리와 사랑으로 맺어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고 변함없이 계승되여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며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 일심단결을 이룩하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만이 충직한 인민을 가질수 있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한 인민만이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단결할수 있다.

우리는 당의 위대성 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령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빛나는 전통과 위대한 투쟁력사,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진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양양한 전도와 밝은 미래를 가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우리 당의 불패성의 원천

현 철 규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유력한 전투적당으로,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는 로숙하고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높은 령도적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인 당으로 차랑떨치고있는것은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에 강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있다.

당안에 혁명적인 조직성과 규률성의 확립,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감으로써 당의 위력을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　　*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불패성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혁명을 위하여 조직된 정치적 부대이며 당의 전투력은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습니다. 당안에 혁명적인 규률을 세워야 당대렬의 행동상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당의 단합된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63페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과 규범대로 활동하며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인다는것을 말한다.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적특성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조직된 전위부대로 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적력량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온갖 기회주의당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바로 전당이 조직화되고 유일적인 규률에 의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이라는데 있다.

당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에서 표현된다. 당이 조직적으로 결속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규률에 의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는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당의 불패성이 당원의 수나 당의 투쟁력사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이 아니라 그 당이 얼마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담보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의 불패성의 원천이다.

당안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여야 우선 전당의 사상의 일심단결, 행동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사상의 일심단결, 행동의 일심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당의 위력은 통일단결의 위력이며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일심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당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만일 당안에 당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이러저러한 이색적인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당이 그 어떤 시련의 시기에도 하나의 전일체가 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일심단결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의 불패의 위력의 결정적조건인 일심단결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하여 이룩되게 된다.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단결의 중심과 사상적기초가 있어야 할뿐아니라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정연한 사업질서와 혁명적규률이 있어야 한다.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있지 못한 당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비당적요소들과 무규률적이며 비조직적인 경향들을 철저히 없앨수 없으며 결국 사상적으로 와해되고 조직적으로 사분오렬되게 된다.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여야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통되게 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또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지 않고 제가다리로 노는것과 같은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모든 당원들이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같은 걸음을 걷는 행동의 일심단결도 전당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할 때 철저히 실현되게 된다.

이처럼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전당의 사상의 일심단결, 행동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당안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는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당의 위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조직인 당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이끌어나가는 전투적무기이며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령도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사회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대신할수 없다. 국가정권을 포함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 가운데서 사회와 혁명에 대한 정책적, 전략전술적 령도를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여 출현하였고 또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있는 조직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밖에 없다.

당의 이러한 지위는 저절로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혁명적원칙을 지키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올바른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 때 확고히 담보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올바른 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당의 중요한 임무이며 당의 위대성과 불패성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는 당만이 강유력한 전투적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령도적역할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을 관철하는 투쟁

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제시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을 움직이고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령도해나간다.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을 떠나서 당의 령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로선과 방침, 당결정이 아래에 제때에 침투되게 되고 모든 당원들이 당정책을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을 저애하는 온갖 무규률적현상들이 제때에 극복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것이다. 당적령도에서 나서는 이 요구도 당이 전당에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해결되게 된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확립할 때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국가경제기관, 문화기관, 사회단체들의 당정책집행정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할수 있으며 모든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일해나가는 제도와 질서를 확고히 세울수 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여기에 바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참으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전당의 사상의 일심단결, 행동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당의 불패성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당안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이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키게 되면 당안에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이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허용되게 되면 온갖 반당적이고 반혁명적인 사상조류가 침습하여 머리를 쳐들고 제각기 자기의 주의주장을 내세우게 되며 종파와 분파가 생겨 당대렬이 사분오렬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은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되고 혁명은 쓰라린 실패를 겪게 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온갖 배신자들이 《민주주의》간판밑에 로동계급의 당을 분렬시키고 약화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우리 당이 끄떡하지 않고 더욱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있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중요하게 전당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온데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는것을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것을 빛나게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의 어느 한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진행되여야 한다. 비록 지난날에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해왔다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그 투쟁을 계속 벌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무기력한 존재로 되고 만다.

당안에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시기에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은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의 선결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전당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곧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다져진 공고한 조직성, 규률성으로 되게 하시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배양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기본요구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조직성과 규률성을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게 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그들의 높은 정치적자각성은 당의 조직규률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그것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이 사람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품성이며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충성심과 정치적자각성을 높여야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한것으로 된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함으로써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당원들의 높은 충성심과 정치적자각성에 의거할수 있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으로 규정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원칙과 척도, 요구들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모든 당원들이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준칙으로 삼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차넘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자각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시였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질서와 제도이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통일적인 규범과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체계는 그 성격과 사명, 활동방식에 비추어볼 때 마땅히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로 되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체계로 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원칙적요구들을 구현하시여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당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개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체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 아래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하부지도체계 등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사업체계이며 그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날이 갈수록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당안에 새로운 당사업체계가 섬으로써 우리 당에서는 매개 당원들이 당조직에, 아래당조직이 웃당조직에 철저히 복종하며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가 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당안에 당의 로선과 정책,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침투시키는 사업 체계와 질서가 서게 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규률이 서게 되였다. 새로운 당사업체계의 확립, 이것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업적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정상화하도록 한것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제도와 질서, 규률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게 된다. 당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이 당내부생활 규범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그만큼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안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 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당생활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확고히 섬으로써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이 고도로 조직화된 전투부대로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된것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확립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당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확립됨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출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기초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정확히 구현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습니다.》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는 근본조건이다.

수령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당대렬의 일심단결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된것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고유한 면모이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단합된 전일적인 조직체로, 우리 당의 유일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여 결합된 사상의지적인 통일체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혈연적으로 뭉쳐진 도덕의리적인 유기체로 전변되였다.

모든 당원들은 주체사상이 생명과 같이 귀중하며 그것이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는것을 신념으로 새기고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또한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이어나가려는 한결같은 의지에 넘쳐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 대렬은 그 어떤 사나운 풍파가 닥쳐오고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오직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하나의 사상의지를 가진 순결체로 되였다. 바로 이것이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 우리 당의 불패성의 위력을 보여주는 일심단결의 빛나는 화폭이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는것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고유한 면모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원칙이다.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혁명적당은 이 원칙에 기초하여 결속되고 활동하는 조직된 부대이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이 철저히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와 지향에 기초하여 진행되고있으며 전당에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있다.

당이 일단 하자고 결심한 일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빛나게 수행되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당이 제시한 그 어떤 방대한 과업도 기어이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이처럼 권위있는 불패의 전위대로 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적인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을 조직성있고 규률성있는 혁명의 전투적선봉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훌륭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시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당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이 위대한 공적은 우리 당이 혁명위업앞에 쌓아올린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주체형의 당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앞으로도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당을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나가야 할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는 제기된 혁명과업이 방대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복잡할수록 이 사업을 사소한 답보도 없이 부단히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준 우리 시대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강철의 당으로,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전투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린 력사적인 남호두회의

리 구 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력사적인 남호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55년이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2월 남호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발표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조선혁명에 전심전력하며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발전시켜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 로정우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력사는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외래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로 더욱 빛나게 되였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 55돐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호두회의는 주체의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린 력사적인 회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에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의 지도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밝혀진 혁명로선에 따라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첫 시기에 혁명의 진로를 밝힌 지도사상과 혁명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혁명투쟁을 우여곡절이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킬수 있다.

조선혁명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시기에 벌써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제시된 혁명로선에 따라 전진하게 되였다. 우리 혁명이 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해나가게 하는데서 남호두회의는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중엽에 조성된 새로운 혁명정세에 대처하여 남호두회의에서 이미 카륜회의에서 천명된 주체사상의 원리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적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밝혀진바와 같이 그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한 사상,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고 투

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방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들이다. 이 방침들은 조선혁명위업이 개척되기 시작하여 지난 10년동안에 이룩된 우리 혁명의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며 전체 인민을 반일투쟁에로 총동원시킬수 있게 한 전투적기치였으며 력사의 새 시대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투쟁의 무기였다. 우리 혁명이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꿋꿋이 전진해나갈수 있는 새로운 전략전술적지도대책들이 전면적으로 강구됨으로써 조선혁명은 간고하고도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이미 선택한 주체의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남호두회의가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은 무엇보다먼저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도록 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바로 조선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선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선혁명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12페지)

혁명투쟁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혁명승리의 선결조건이다.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대중인것만큼 마땅히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자기의 리익에 맞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인민대중이 이러한 주체적립장을 떠나서 자기 나라 혁명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없으며 언제가도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 없다.

1930년대중엽에 조성된 혁명정세는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적극적인 비호와 지원 속에서 강대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난 일제는 독일, 이딸리아 등 파쑈세력과 국제적련합을 형성하고 전아세아를 재패하려는 강도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을 준비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강도적략탈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었다. 이무렵 일제는 1910년대나 1920년대의 식민지정책을 릉가하는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과 자주의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조선민족을 동화해버림으로써 그 어떤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였다. 놈들은 이 시기 우리 나라를 저들의 군수물자생산기지로, 원료원천지로 전변시키고 제놈들의 대륙침략과 세계대전준비에 소요되는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특히 일제는 1933년과 1934년에 그처럼 발악적으로 감행한 유격구《토벌》에서 참패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35년에 들어와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더욱더 발광적으로 벌리였으며 유격대와 인민들사이의 련계를 끊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온 나라에는 민족적비운이 무겁게 드리우고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앞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혹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게 되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는 남호두회의에서 먼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조선혁명에 전심전력함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던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남호두회의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가 다시금 천명되자 조선혁명의 시원이 어떻게 열리고 개척되기 시작하였는가를 가슴깊이 돌이켜보며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그들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항일혁명투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갔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구호문헌 《천출명마탄 김대장 자력독립구상펼쳤다》, 《우리는 항일주력군 모두다 조선혁명 책임진 자각 잊지 말자》 등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만방에 자랑하며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모습을 그대로 펼쳐보이고 있다.

조선혁명에 전심전력하려는 각오와 결심이 그처럼 투철하였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당시 국제당안에 들어앉아 있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무모한 《열하원정》로선을 내려먹일 때에도 끄떡없이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지켜낼수 있었고 일제놈들이 《혜산사건》과 같은 대검거선풍을 일으켜 혁명앞에 엄혹한 난국을 조성했을 때에도 필승의 신념을 잃지 않고 굴함없이 싸울수 있었다. 그들은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며 풍찬로숙하면서도, 생명의 마지막순간을 앞둔 단두대에서도 조선혁명을 먼저 생각하며 맡겨진 혁명임무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그 어떤 역경속에도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는것, 바로 이러한 투철한 신념과 확고한 주체적립장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었으며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남호두회의가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은 또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전체 조선인민을 반일조국광복전선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한다면 능히 일제침략자들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26페지)

혁명운동은 주체의 운동과정이다.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림이 없이 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더우기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외래침략자들을 때려부셔야 하는 민족해방투쟁시기에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민족해방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반혁명세력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위업을 달성할수 있다.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의 앙양을 위한 근본요구로,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

《ㅌ. ㄷ》에서 닻을 올린 조선혁명은 그 첫 걸음부터 혁명대오의 단결로부터 시작되였고 주체적혁명력량이 확대강화되는속에서 발전하여왔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가 마련되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대오가 부단히 확대강화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이 조직화되여나가면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남호두회의는 이러한 주체적혁명력량

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려 무장대오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남호두회의방침들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강화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남호두회의방침은 우선 조선인민혁명군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도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남호두를 떠나 동강에로의 간고한 행군을 진행하는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재편성하고 새 사단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이 나날에 지휘원들과 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반《민생단》투쟁에서 발로된 좌경적오유의 후과를 철저히 가셔내고 대오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도처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여러 부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새 사단이 편성될 집결처로 모여들게 되였으며 《민생단》의 혐의를 받고 버림받던 수많은 유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 혁명의 길에 다시 나서는 감격적인 일도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불을 지르고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에 철추를 내리신 이야기도 바로 이때에 있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여 1936년 4월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인 새 사단이 편성되게 되였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이 튼튼히 꾸려진 새 사단은 수많은 전투행정에서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으로, 백전백승의 무장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한편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남호두회의방침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항일의 기치밑에 총집결될수 있게 하였다.

남호두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남호두로부터 동강에로의 간고한 행군로정에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완성하시고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는 포괄적이며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1936년 5월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민족주체적력량으로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이미 조직되여 활동하던 모든 반일단체들의 행동상 통일이 이룩되고 그 조직망이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확대되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총동원되여나가게 되였다.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남호두회의방침은 특히 조선혁명의 핵심대오가 튼튼히 마련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당조직전설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려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이리하여 만주의 넓은 지역

과 무산, 연사 지구 등 우리 나라 북부 국경일대에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 조직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들이 확대되고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우리 나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당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으며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특히 혁명적 실천투쟁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소유한 백절불굴의 혁명투사,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 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된 조선혁명의 핵심대오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처럼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이 마련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앙양의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게 되였다.

남호두회의가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은 다음으로 백두산일대를 조선혁명의 전략적기지로 꾸리고 조국땅전역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지대로 전변되게 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우리의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2~113페지)

혁명의 전략적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특히 나라가 외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시기에 혁명의 전략적기지를 바로 선정하고 튼튼히 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며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혁명의 책원지, 전략적기지가 있어야 적들의 포위속에서도 민족해방투쟁을 줄기차게 발전시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에 벌써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리자면 유격근거지를 창설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내놓으시고 조선혁명의 전략적기지, 유격근거지를 꾸리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30년대 전반기에 유격전에 유리한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가 창설되였으며 여기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급속히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제반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이룩된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남호두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출시켜 반일투쟁을 조직전개하자면 백두산지구에 새로운 유격근거지, 반유격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꾸리고 점차 조국땅전역을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무대로 전변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무대를 국내에로 확대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조선혁명의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남호두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백두산일대에로의 행군을 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9월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뚫고 압록강을 건느신 다음 백두산기슭 소백수골안에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을 백두산밀영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사자봉밀영, 간백산밀영, 곰산밀영, 소연지봉밀영과 선오산, 무두봉을 비롯하

여 압록강안지구, 대각봉지구, 쌍두봉지구에 밀영을 건설하도록 하시여 백두산지구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전략적기지로 만드시였다.

백두산지구에 꾸려진 비밀근거지들은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에 조선혁명에 대한 령도의 중심거점이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기본활동거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에 꾸려진 비밀근거지들을 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36년 겨울에 감행하기 시작한 일제침략자들의 악명높은 동기《토벌》작전을 1937년 2월의 리명수전투의 승리로 완전히 격파하고 적들의 군사요충지인 보천보와 무산지구를 련속 들이쳐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으며 일제의 식민지학정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과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에 의하여 놈들이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국경일대는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지대로 완전히 장악되게 되였다.

백두산지구에 꾸려진 비밀근거지들을 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부국경일대는 물론 전국이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무대로,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무대로 전변되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근거지에서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깊이에 파견하시였으며 국내 혁명운동을 발전시킬 명령을 받고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도처에 비밀근거지들을 꾸리고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갔다. 이것은 신흥지구와 혜산지구, 풍산지구를 비롯하여 덕천과 양덕 지구, 만포, 원산, 위원, 벽동, 운산 등 전국도처에 비밀근거지들이 꾸려지고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나왔으며 로조, 농조 운동이 점차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확증해주고있다.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이렇듯 백두산일대를 조선혁명의 전략적기지로 꾸리고 전국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지대로 전변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주체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해나가게 되였다.

참으로 남호두회의는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린 력사적인 회의였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남호두회의는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 빛나고있다.

* *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여온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력사는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주고있다.

혁명이 심화발전되고 혁명투쟁에서 성과가 클수록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자기 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거기에서 창조된 혁명의 고귀한 경험을 적극 살려나가야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력사는 우선 혁명의 개척기에는 물론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인민대중은 탁월한 수령을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는 귀중한 경험을 가르쳐주고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령도자이다. 수령의 령도밑

에서만 인민대중은 혁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고 수령의 령도에 충성다할 때에만 인민대중은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줄기차게 발전하여온 항일혁명투쟁은 이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호두회의에서 1930년대 후반기에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성과적으로 뚫고나갈수 있는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새로운 일대 앙양의 력사적 전환기를 맞이할수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선혁명이 있고 민족의 밝은 앞날이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해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대오가 있었기에 남호두회의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되고 항일혁명투쟁은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보장되고 수령과 그 위업에 충직한 혁명대오가 있는 한 혁명투쟁은 줄기차게 발전하며 승리의 한길을 걷게 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는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은 혁명하는 인민들의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력사는 또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개척기에 높이 추켜든 혁명의 기치, 투쟁의 원칙성을 일관하게 고수해나가야 한다는 고귀한 경험을 가르쳐주고있다.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는것만큼 그에 맞게 새로운 투쟁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변한다 하여도 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추켜든 혁명의 기치, 투쟁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된다. 환경을 무시하고 기존방법에만 매달리는 교조주의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되지만 변화된 환경만을 절대시하면서 혁명의 개척기부터 견지하여오던 혁명적원칙을 저버리게 되면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고수해낼수 없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여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력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명백히 주고있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는 당시에 조성된 복잡한 혁명정세에 대처하여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추켜든 주체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조선혁명의 전반적리익을 확고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새로운 투쟁 로선과 전략전술을 작성하고 제시하였다. 일제의 광란적인 대륙침략책동과 더불어 더욱 악랄해진 식민지파쑈통치에 겁을 먹고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높이 들었던 주체의 기치를 내리우거나 우리 인민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외면하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순종하였더라면 조선혁명은 다시는 소생하지 못했을것이다.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선혁명이 오직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의 한길로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의 력사는 실로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과 온갖 혁명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면 될수록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새롭고 독창적인 공산주의령도방법

량 룡 규

주체의 령도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구성부분을 이룬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위대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이며 공산주의자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방법으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　*

주체의 령도방법은 새롭고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령도원칙으로부터 사업 방법과 작풍 문제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명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방법문제가 새롭게 밝혀지고 전면적으로 완성된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에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이 성스러운 위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참가밑에 그들의 창조력이 높이 발양됨으로써만 수행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옳은 령도방법이 확립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이 인민대중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면 혁명의 지도리론은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밝혀준다. 혁명의 지도방법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우며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키고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밝혀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이 있다고 하여도 옳바른 령도방법을 가지지 못하면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실패와 오유를 면할수 없다. 이것은 령도방법문제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야 할 사명을 지닌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령도방법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를 운영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게 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혁명과 건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령도해나가는 과정에 혁명의 폭과 심도는 더욱더 넓고 깊어지며 혁명운동에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게 된다. 한편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집권당이라는것을 구실로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화, 행정화의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령도방법에 관한 옳바른 리론을 확립하고 구현하지 못하면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도 제대로 관철할수 없을뿐아니라 당자체의 존재도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반드시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를 혁명투쟁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분야로 제기하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를 독자적인 리론으로 체계화하여 내놓지 못하였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시기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이 일정에 오른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와서 지도와 대중을 옳바로 결합시키지 못하여 좌왕우왕하는 편향들이 나타나 심각한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절박한 해결을 요구하는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우리 시대에 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모든 사회혁명과 모든 분야의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가장 심오하고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업적을 이룩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시여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근로인민대중중심의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에는 혁명적령도의 본질과 기본요구,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사업 방법과 작풍 등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이끄시는 과정에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 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으로 발전완성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승완성하신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무엇보다도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근로인민대중중심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이다.

모든 혁명리론이 다 그러한것처럼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도 일정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은 그것이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되였으며 그 전체계와 내용에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들이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는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에 일관하게 구현되여있는 근본원리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

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그 전체계와 내용을 구성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한데 기초하여 지도와 대중의 결합의 원리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원리는 주체의 령도방법의 출발적원리이다. 이 원리는 지도와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때 인민대중에 대한 참다운 령도가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는 대중령도의 근본리치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만드는 옳바른 방도를 집대성하고 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의 령도리론은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를 곧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당활동방식과 령도적수완들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원리를 새롭게 밝혔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이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인민대중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 나가게 한다.

이 모든것은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이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근로인민대중중심의 대중령도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령도방법이 새롭고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이 담아야 할 내용과 그 구성체계를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완성된 대중령도방법이다.

령도방법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의 과학성과 다면성, 구성체계의 완벽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어느 한 혁명발전단계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혁명발전단계와 모든 분야의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내용과 구성체계를 가진 대중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이라야 완벽한 령도방법으로 될수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에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리론이 담아야 할 내용과 구성체계가 완벽하게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한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해오시면서 이룩하신 혁명적령도의 실천적경험이 전면적으로 일반화되고 체계화되여있다. 여기에는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등 우리 시대에 진행되는 모든 발전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령도예술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여기에는 또한 지하혁명투쟁과 무장투쟁, 당 및 국가 사업과 군사사업, 정치와 경제, 문화 사업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와 모든 단위의 사업에서 대중을 령도하는 가장 옳바른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더우기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심화발전시키신 귀중한 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그 내용에서 다면적일뿐아니라 구성체계에 있어서도 완벽한 대중령도방법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령도원칙, 령도체계와 함께 령도예술을 구성부분으로 하고있다.

령도원칙은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지침이며 령도체계는 대중을 동원하는 조직과 기구의 체계, 질서이다. 령도예술은 대중령도의 원칙과 체계에 따라 사람을 직접 움직이는 방식과 수완이다.

대중령도 원칙과 체계, 령도예술이 다 같이 완벽하게 확립되여야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대중령도의 원칙과 체계가 옳바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군중을 직접 대하고 움직이는 능숙한 활동방식과 령도적수완이 없이는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반대로 대중을 움직이는 령도예술이 있어도 대중령도의 원칙과 체계가 없이는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옳바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 원칙과 체계, 령도예술이 옳게 확립될 때라야만 대중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를 원만히 보장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에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며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는 령도원칙이 제시되여있다. 또한 거기에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관한 리론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령도체계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정권, 근로단체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또한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에는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이처럼 내용의 풍부성과 다면성, 구성체계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대중령도방법인것으로 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으로 된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또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대중령도방법이다.

령도방법이 혁명실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것은 대중령도방법의 독창성과 위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강력한 혁명의 자주적주체로 만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우선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수령, 당, 대중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룬다.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될 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위력이 강화된다. 그러므로 령도방법의 위력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는것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두리에 하나와 같이 뭉치며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일군들이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사업 방법과 작풍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주체의 령도방법은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는 방법과 묘술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력한 령도방법으로 된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또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은 고도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운동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추동된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대중령도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대중령도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그것을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 등 령도방법의 전반에 일관하게 관철시키고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또한 명령하고 호령하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묘술과 수완들을 옳게 적용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주체의 령도방법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한 령도방법으로 된다.

참으로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 혁명과 건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령도방법인것으로 하여 가장 완성된 새롭고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으로 된다.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 빛나게 구현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리론과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전로정은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온 자랑찬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당창건을 준비하는 첫 시기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의 골간을 꾸리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언제나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특히 우리 당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그리하여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이 당사업전반에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당 건설과 활동에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이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구현해나가는데서 독창적으로 내세우고있는 당활동의 원칙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요구로부터 출현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한다. 당과 대중사이의 관계는 령도

하고 령도받는 관계인 동시에 생명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이다. 당과 인민사이의 관계는 당이 인민대중의 어머니로서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할 때 가장 공고하고 숭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주체적관점에 서서 근로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웠다. 우리 당은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한 철저히 자주적이고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되게 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풍만한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문제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왔으며 자식의 생명에 대하는 어머니심정으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그들이 정치적생명에 자그마한 흠집도 없이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할 각오를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며 소박하고 겸손하며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인민적품성을 지니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당은 모든 활동의 중심에 인민대중을 내세우고 당사업전반이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적인간의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함으로써 말그대로 당의 품을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어머니품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당 건설과 활동에 구현하는데서 또한 우리 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에서 당적, 정치적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방법은 당의 본성에 맞는 사업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에 맞지 않는 당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것으로 될수 없다.

당적, 정치적 방법은 주체형의 위대한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성에 맞는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은 자기 본성에 맞는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을 당 건설과 활동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창건 첫날부터 정치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왔다.

우리 당은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함으로써 한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안에 밀수입하였던 관료주의적, 행정식방법을 극복하고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을 확립하였다.

당 건설과 활동에 당적, 정치적 방법이 철저히 세워짐으로써 우리 당에는 명령과 지시로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철저히 극복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당사업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당 건설과 활동에 구현하는데서 또한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도록 하였다.

당의 기본사명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 있다. 따라서 당의 사업체계는 어디까지나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체계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를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할수 있는 당적령도체계를 바로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커다

한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은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국가기관, 경제기관, 문화기관, 사회단체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며 모든 일군들이 당위원회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확고히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갔다.

우리 당은 당적령도체계와 함께 당내부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은데 기초하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내부사업체계를 심화시켜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게 하고있다. 우리 당은 당일군이건 아래에서 일하는 일군이건, 웃기관에서 일하는 일군이건 그리고 간부이건 일반당원이건 다 사람과의 사업을 중요한 혁명임무로 여기고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당적, 정치적 방법을 확립하며 정연한 당사업체계를 세움으로써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당 건설과 활동에 원만히 구현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당 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일부 나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혼란과 좌절을 겪고있는것과 같은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동요없이 계속 혁명의 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일심단결되여 혁명의 강유력한 주체를 이루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참다운 모습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끊임없는 혁신을 련일 창조해나가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자랑찬 현실인것이다. 이것은 주체의 령도방법의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과시로 되며 주체의 령도방법을 현실에 찬란히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확신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주체의 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위대한 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주체의 령도방법에 관한 우리 당의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

최 정 현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군중을 어떻게 보고 그들을 어떤 위치에 놓으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문헌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군들이 지녀야 할 참말로 옳바른 관점과 립장, 주체의 령도예술을 세울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 사업원칙이다. 우리는 언제나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군중을 존경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29페지)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활동원칙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위대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이며 사업원칙이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을 당의 활동원칙으로 한다는것은 혁명적군중을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혁명의 주인으로, 담당자로 내세우고 존경하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군중은 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언제나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선생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이다.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실천적경험은 끝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다. 군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투쟁의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행정에서 혁명의 고귀한 진리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묘술과 방법을 훌륭히 체득하고있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도 제일 잘 안다. 로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며 의견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역경속에서도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향도적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군중을 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양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활동원칙으로 된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의 활동원칙이다.

당의 활동이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성격의 발현이다. 당활동의 방향과 방도는 결국 당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따라서 당활동원칙은 마땅히 당의 성격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당의 성격은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며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선생으로 보고 그들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있기때문에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다.

당의 성격은 당의 지도사상에 의해서뿐아니라 당의 사회계급적기초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농민과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오에 묶어세운 대중적당이다.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당의 이러한 사명을 옳게 수행하자면 마땅히 군중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철저히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만일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사명도 다할수 없다.

우리 당은 이처럼 자기의 혁명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그들을 내세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당의 활동원칙이다.

당활동의 근본원칙은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대렬을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하는것과 같은 당자체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당건설의 요구와 동떨어진 활동원칙이란 있을수 없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할데 대한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구현한 당활동원칙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확고히 담보하는 사회계급적지반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세련되고 강유력한 당으로 되자면 광범한 군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아야 하며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여야 한다.

당이 군중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군중을 존경하고 내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당이 군중속에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가르쳐주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며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만일 당이 군중을 깔보고 군중우에 군림하여 대중을 관료적이며 행정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게 되면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정치를 실시할수 없고 광범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될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군중을 존경하며 그들의 힘에 의거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면 어떤 원쑤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혈연적련계를 이룩하는데 당의 불패성의 담보가 있다.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군중을 존경하고 그들을 내세우며 군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이룩하지 못할 때 당의 령

도적권위가 약화되고 무력해질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고 사회주의제도 자체를 고수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증시해주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을 자기의 시종일관한 활동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은 조선혁명의 전행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이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은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을 당의 활동원칙으로 삼고 시종일관 철저히 구현해왔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활동원칙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대중을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현명한 스승으로 보시고 험난한 혁명투쟁의 길을 헤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대중과 리탈되여 쓸데없는 말공부만 하면서 령도권쟁탈을 위한 파벌싸움을 일삼던 1920년대의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따라서 그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항상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자신께서는 전반적조선혁명과 무장투쟁을 조직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산하부대와 혁명조직성원들을 찾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의논하시였으며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가르쳐주시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렵고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이 오랜 기간 간악한 일제와 싸워 승리할수 있은 중요한 비결은 이처럼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그들속에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힘에 의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가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에 빛나게 구현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에도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활동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실천적모범으로 일군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방침을 세우실 때에도 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박사이고 그들에게 리해관계가 제일 많다고 하시면서 건국초기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많은 농촌들에 나가시여 그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토지개혁문제를 의논해주시였다. 이리하여 광범한 농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게 되였으며 토지개혁의 력사적과업은 단 22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수되게 되였다.

제1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던 어려운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부닥친 난관을 타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의 그 복잡한 때에도 농촌의 한 할머니의 소박하면서도 충성어린 말에서 신심을 얻으시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북진》소동과 안팎의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시였다. 1차 5개년계획수행을 위하여 강철과 강재가 매우

긴장하였을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으시고 6만톤밖에 생산할수 없다고 하던 기존설비로 12만톤의 강편을 생산하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이끄시여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시기 기계공업의 발전을 그처럼 힘있게 추동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질수 있은것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자그마한 공장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이 낡은 선반을 가지고 공작기계를 만들어내는 위훌한 싹을 보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결과이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그들을 내세우는 우리 당의 활동원칙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되고 관철됨으로써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구현될수 있었다.

실로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궂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찾으시여 그들과 정사도 같이 의논하시고 군중을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현지지도는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활동원칙이 전당에 철저히 구현되게 한 빛나는 모범이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활동원칙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있으며 위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사업방법을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모든 일군들속에서는 언제나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가르쳐주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이 생활화, 습성화되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그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제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혁명적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고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며 다시 내려가는 하부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가르쳐주어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활동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자신께서 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검덕과 청산리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인민대중을 위훈에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을 비롯하여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으며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땅우에는 당은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가며 인민은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력사적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군중을 존경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는 우리 당의 활동원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혁명 발전의 전로정에서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온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9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우리 일군들이 이미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 사업원칙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을 관철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은 혁명적군중관으로부터 흘러나온 활동원칙이다.

모든 일군들은 사람중심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언제나 군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는 어떤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군중을 존중하고 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 주저앉아 맴돌지 말고 대담하게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우리 인민들이 간직하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당정책관철에서의 그들의 끝없는 희생성과 헌신성,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돌진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와 함께 군중속에 들어가는데 그치지 말고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 당정책관철의 담당자로서의 대중의 자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여나가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활동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자면 일군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대중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틀을 차리고 특권과 특세를 부린다면 그것은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인민들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하며 친절하고 아량이 있어야 하며 사업과 생활을 겸손하고 소박하게, 청렴하고 결백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업방법,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이라도 나타나면 용화묵과하지 말고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존경하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당일군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고 범 수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90년대의 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1990년대를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겸손하며 소박한 품성을 가지고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실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서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당일군들이 높이 발휘하여야 할 혁명적풍모이며 전투적일본새이다. 수많은 일군들을 발동하고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당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여야 하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된다는것은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힘있는 정치사업과 실천적모범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는것은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당의 령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목적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자는데 있다.

원래 령도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데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참다운 리해관계를 옳게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얼마나 성과적으로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당의 령도를 대중속에서 직접 실현하는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당일군들은 해당 지역, 해당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해나가는데서 당일군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당은 당일군들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을 움직이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실현해나간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일군들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전달침투되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이 조직되고 포치되며 장악되고 지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 집행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당의 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일군들이 얼마나 책임적으로 일하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일군들의 활동에 의하여 보장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때문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는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 잘 실현하게 하는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는것은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임무와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대중의 정치적교양자, 조직동원자이다. 당일군들은 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을 본신임무로 하고있다.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일군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발동하고 조직동원하기 위한 위력한 방법은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는데서 당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게 된다. 무슨 일에서나 당일군들이 앞장에 나서고 모범이 되면 대중은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된다. 그러나 당일군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면 사업권위를 세울수 없고 발언권을 가질수 없다. 아래일군들에게 하라고 지시나 하고 결과를 놓고 평가나 하며 의견이나 주고 독촉이나 하면서 요구만 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참다운 일본새, 혁명적사업기풍이 아니다. 당일군들이 실천투쟁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군중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당일군의 말이 씨가 먹지 않고 날이 서지 않아 광범한 대중은 고사하고 몇사람도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당일군은 앉아서 말공부나 하고 호령이나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호령은 인민이 하고 당일군에게는 그 호령을 받아들이고 집행할 의무만이 있다. 당일군들이 말만 하여가지고서는 혁명가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고 대중의 조직동원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충실한 혁명가, 성실한 당일군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며 모범의 힘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간다. 옛날부터 일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야 군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당일군의 호소에 광범한 대중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군중을 조직동원하자면 당일군들자신이 먼저 기발을 들고 앞장에 나서야 하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일군들이 정치활동가로서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대중의 조직동원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늘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고 애로와 난관에 부닥치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면 대중은 당일군들의 얼굴부터 쳐다보게 되며 그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투쟁하는가 하는것을 지켜보게 된다. 당일군들이 사소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혁명의 전위투사답게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군중도 신심과 용기를 내여 따라나서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자체의 배수리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다시한번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 송도원수산사업소에 자체의 배수리기지를 꾸리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뜨랄상가선을 건설하는것이였다. 상가선건설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면서도 작업량이 방대하고 조건이 걸리며 일이 어렵다는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자재도 부족하고 설비도 모자랐으며 로력도 긴장하였다. 애로도 많았고 난관도 적지 않았다.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 한두번의 포치나 조직 사업만 하여가지고서는 상가선건설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없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였으며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이 필요하였다. 초급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상가선건설전투의 앞장에 섰다. 당일군들이 차거운 바다물속에 먼저 뛰여들어 막돌을 채취하고 침목을 깔았으며 콩크리트도 치고 떼무도 날랐다.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당일군들의 실천적모범에 고무되여 사업소일군 모두가 따라나섰고 종업원전체가 떨쳐나섰다. 사로청원들이 궐기하였고 직맹원들이 분발해나섰다.

온 사업소가 상가선건설로 들끓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방대하고 어려운 상가선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훌륭히 관철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모래섬에 세소선단기지를 꾸렸고 12정보의 섭양식장을 조성하였으며 2,500평방메터의 다시마 여름모기르기장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실로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사람들이 당일군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나서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그것은 여러번의 조직사업보다 더 큰 은을 나타낸 힘있는 선동이였으며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실효를 나타낸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우리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안되는 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으며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대중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온갖 원쑤들이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반사회주의적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면서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세련된 령도력과 비상한 조직력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여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혁명성이 강한 좋은 인민이 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중앙통신사 한 세포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위대한 사랑으로 충만되여있는 뜻깊은 회답서한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는 매우 높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도는 락관적이다. 당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은 당의 결심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철석의 신념을 가지고있는 한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도 극복하지 못할 난관도 있을수 없다.

문제는 우리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떻게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야 할 기수는 바로 우리 당일군들이다. 당일군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비상한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9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돌격전의 최선두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온 나라가 들끓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련이어 나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90년대의 거창한 진군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일군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대오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억세게 싸워왔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우에는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견결하게 투쟁하며 전진해온 당일군들의 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당일군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투쟁하며 전진하는 혁명가답게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교양자이고 기수입니다. 그런것만큼 당일군들은 마땅히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결심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것은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원쑤와 싸워서 승리하자고 해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고 해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불타야 한다. 충실성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훌륭히 해낼수 있고 아무리 준엄한 시련도 동요없이 이겨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필승불멸의 무기이며 백전백승의 근본원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바로 여기에 원쑤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무적의 힘이 있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창조의 비결이 있다.

당정책관철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낳게 하는 힘의 원천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일군은 언제나 당과 함께 숨쉬고 당의 의도에 누구보다도 민감하며 당이 결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된다. 충실한 사람들의 한생은 그 어떤 높은 직위와 명예로 빛나는것이 아니라 일생을 혁명에 바치고 령도자에게 충실한 혁명전사의 이름으로 빛나게 되는것이며 이러한 사람만이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길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일군들의 인생관의 근본핵도 삶의 참된 가치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으며 행복의 척도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며 수령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일군들의 충실성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 각오와 신념을 안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혁명의 전위투사가 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이 구호에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투철한 립장과 자세가 반영되여있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것이라면 기어이 해내려는 신념과 의지가 체현되여있다.

당일군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투쟁의 신념으로,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위대한 현실로 꽃피우는 보람찬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기수가 되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것이다.

당일군은 정치활동가이며 정치사업은 당일군의 본분이다. 혁명의 기수로서의 당일군의 역할은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뿐아니라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표현된다. 언제나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람을 움직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는 여기에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당일군들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본성적요구와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분에 맞게 모든 문제를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자신이 스스로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나타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집체적토의와 옳은 집행대책의 수립, 구체적인 분공조직과 그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와 제포치를 비롯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듦으로써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당일군의 활동은 언제나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된다는것은 곧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중과 떨어진 혁명의 기수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군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일군들이 대중과의 련계와 접촉을 강화하고 그들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자면 반드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 당일군들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게 하기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뛰고 또 뛰면서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인민의 성실한 심부름군, 참다운 충복이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혁명의 기수가 되여 대중

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는것이다.

사업 방법과 작풍 문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대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데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아무리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게 세워져도 일군들의 방법이 서툴고 작풍이 나쁘면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사업 방법과 작풍문제는 특히 집권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으면 혁명적세련이 부족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모든 문제를 대중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집권당이라고 하여 당권을 가지고 휘두르며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쓰면 인민의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켜 당자체의 생명을 좀먹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도와 관료주의로써는 결코 대중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당일군의 호소에 진심으로 호응해나서게 할수 없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가 되려면 혁명성이 강하고 투신력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반드시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탈하게 행동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면서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주어야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관료주의와 세도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는것이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대중에게 호령할것이 아니라 인민의 호령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작풍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며 활동하게 된다. 지식은 곧 창조적능력이다. 충실성이 높고 욕망이 아무리 커도 실무와 지식, 수준과 능력이 안받침되지 않으면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조직전개할수 없고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사업은 높은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자면 마땅히 남들보다 더 높은 실력을 가져야 한다. 높은 정치적열성에 실력이 안받침되여야 충실한 일군이 될수 있으며 능숙한 지휘성원이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의 수준과 능력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학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들, 당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한 일군,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실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성스러운 주체위업의 한길에서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대오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당일군들의 투쟁과 삶의 보람이 있으며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을 이끌어 혁명을 전진시키는 기수가 되고 선봉투사가 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해야 할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인 사업체계

라 정 빈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사람들의 생산활동, 로동활동을 조직지휘하는 경제관리사업을 사회주의적원칙의 요구에 맞게 올바로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사람들의 생산활동, 로동과정을 조직지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기초, 사회주의사회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사업인것만큼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는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과 립장, 사회주의적원칙이 확고히 구현되여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구현한다는것은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사회주의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집단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구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 집단주의적원칙을 구현하는데서 기본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경제관리운영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구현해야 경제관리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진행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사회주의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구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경제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관리운영하지 못하게 되며 경제관리분야에 온갖 낡은 잔재들이 침습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말아먹을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구현해나가자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관리발전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경제관리가 일정한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며 실현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경제건설분야에는 낡은 경제관리의 잔재가 일정한 기간 남아있게 되며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세워졌다 하여 낡은 경제관리의 잔재가 없어지거나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이 저절로 구현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이 낡은 경제관리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질서를 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관리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을 창시하시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구현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당적지도와 행정경제적,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신년사》, 1991년, 단행본, 7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는 혁명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군중로선을 구현한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라는데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게 한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구현하는데서 기본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당의 령도밑에서만이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당의 령도는 옳은 전략과 전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경제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는 근본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모든 경영활동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경제관리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사업전반을 옳게 장악하고 당의 의도대로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도록 키잡이를 하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통하여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당위원회에 당 및 경제 지도일군들과 핵심적인 기술자, 로동자들이 참가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공장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과 방도를 세우고 그 관철에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게 됨으로써 당의 의도가 아래에 쭉쭉 내려가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계가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문제가 옳바로 해결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사업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경제관리분야에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이 끼여들지 못하게 되였다. 또한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독단과 주관주의, 관료주의가 극복되고 생산자대중의 민주주의가 최대한으로 발양되게 되였으며 그들의 자주적인 리익과 요구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이것은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혁명적군중

로선을 확고히 구현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하자면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며 그들이 국가와 사회,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자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경제관리에서도 마땅히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관리운영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이러한 본성적요구를 옳게 실현하자면 경제관리에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적극 참가할수 있는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이 세워져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이기는 하지만 낡은 자본주의적경제관리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지배인유일관리제에서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우리 당이 창조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우리 식의 혁명적경제관리체계로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가장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경제관리형태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그 어느 한 개인이 경제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하거나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행정적방법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호령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지도와 기술준비, 설비관리와 로력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풀어나간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준비, 생산보장, 후방공급 사업과 같은 경제관리의 중요한 사업이 다 생산자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 지시하고 명령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도와주는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경제관리분야에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것이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됨으로써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생산자대중이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생산과 관리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때에 원만히 해결되고 대규모의 사회주의경리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그러므로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경제관리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사회주의적원칙의 하나는 경제를 과학기술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하는것이다.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 높은 경제적성과를 이룩해야 사회주의경제토대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킬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리에서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인식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방향과 객관적과정을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밝혀주게 된다.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해야 경제관리운영의 방향과 방도를 생산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맞물리고 생산과정을 순조롭게 추진시킬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경영활동의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그것을 관철해나감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기업관리에서 경제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타산하고 경영활동의 방향과 방도를 바로 세울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은 서로 다른 내용과 요구를 가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밀접한 련관속에 동시에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기업소들은 경영활동에서 생산요소들과 생산공정사이의 맞물림을 잘하고 물질적수단들의 보장사업을 앞세우며 생산지도를 짜고들고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잘하는 등 여러가지 요구들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몇몇 관리일군들의 수공업적타산이나 지배인 한사람의 소총명에 의해 바로 진행될수 없으며 대중의 집체적힘에 의해서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경제관리에 옳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해야 생산의 객관적조건과 기술경제적요인들이 정확히 타산되게 되며 온갖 내부예비와 가능성이 적극 동원되게 된다. 또한 그래야 행정지휘관의 유일적지휘밑에 생산자대중이 일치하게 행동하게 됨으로써 경제조직사업에서 과학성이 보장되고 그것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바로 실현할뿐아니라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통하여 현대적생산의 기술공정들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술준비사업과 기술공정지도, 제품가공과 설비관리에 이르는 모든 기술적보장대책이 제때에 세워짐으로써 생산이 과학적으로 진행되게 되며 자재공급체계에 의하여 생산현장에까지 자재가 원만히 공급됨에 따라 생산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는 우리 식의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시고 우리 식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공업건설에서 이룩

된 빛나는 성과와 우리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일어난 혁명적전환과정은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구현하는데서는 오직 대안의 사업체계밖에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식의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일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중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훌륭히 생산해내고있다.

오늘 우리 공장에서는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생산지도, 자재보장, 후방사업에 이르는 모든 사업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진행되고있으며 나라의 중기계생산기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하여 공장을 관리운영해온 196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공장의 공업총생산액은 40배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 해마다 125프로의 높은 속도로 생산이 장성하게 되였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우리 련합기업소에서는 그 전해에 비하여 훨씬 높아진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지난날 중소형 변압기와 전동기나 만들던 우리 공장에서 오늘은 12만 5천키로볼트급수력발전기, 2극 1만크바고속전동기, 20만키로볼트급특고압변압기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참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이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구현한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가 관리운영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기쁨이며 영광이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17페지)

올해는 우리 당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관철을 위해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경제관리 원칙과 방법은 대안의 사업체계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안체계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내밀 때 경제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위원

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자연개조사업인것만큼 당의 령도를 떠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하자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지도에서 집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당위원회의 키잡이역할을 강화하고 집체적협의제를 심화시키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에 밝혀진 경제관리 규범과 질서의 요구대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이 서있다 하더라도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가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은을 나타낼수 없다.

대안의 사업체계에는 경제관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관리 규범과 질서가 밝혀져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계,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 자재공급체계, 후방공급체계가 세워져있으며 모든 부서들과 단위, 공정들에서 생산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규범들이 밝혀져있다.

이 모든 사업 체계와 질서의 요구를 옳바로 지킬 때만이 대안의 사업체계가 참말로 큰 은을 나타내게 되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생산규률을 강화하며 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경제적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낡은 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짬이 난 포장도로에서 잡초가 돋아나듯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지 못할 때에는 사회주의원칙과 어긋나는 낡은 경제관리방법의 잔재가 머리를 쳐들게 된다.

낡은 경제관리방법의 잔재가 비록 사소한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사회주의경제를 관리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당이 제시한 대안의 사업체계밖에는 다른것이 없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오직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이색적인 경제관리요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며 경제관리실천에 끼여들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그러한 사소한 편향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바로 사회주의적원칙과 인연이 없는 자본주의적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끌어들일 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것이다.

재정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내부 예비동원의 중요방도

안 영 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을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주되는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주되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정은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재정은행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사회주의재정은행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철저히 관철하여 재정은행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와 함께 재정관리에 큰 힘을 넣어 전반적인 기업관리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며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정관리사업이란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에 맞게 그리고 국가 규범과 질서에 따라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고 분배하며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재정자원을 형성하고 리용하는것을 계획화하며 재정계획에 따라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화폐형태로 동원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재정관리사업에는 화폐축적을 늘이고 국가자금을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통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오늘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밀접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물의 원가와 수익성을 정확히 따지고 보다 적은 지출로 생산을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드는것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늘이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것이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재정계획화사업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하

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요대상건설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투자대상을 바로 정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투자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상들에 자금을 먼저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주어진 자금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진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다.

국가자금의 지출과 리용 방향을 옳게 규정하자면 재정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재정계획화사업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지출하기 위한 규모와 방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재정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자금지출계획을 잘 세우고 자금지출한도를 옳바로 규정함으로써 투자대상과 투자규모를 바로 설정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된다. 재정계획화사업을 잘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 설비, 자재를 비롯한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정확히 맞물릴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재정계획을 잘 작성해야 가장 효과성있는 투자방향을 규정할뿐아니라 인민경제계획에서 타산하지 못한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것이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는것은 내부예비동원의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랑비를 없애는것이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예비가 절약에 그 원천을 두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내부예비를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 기술 도입 등 여러가지 요인과 관련되여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설비, 로력, 자금을 절약적으로 리용하는데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제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부예비 조성과 동원의 기본방도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자면 국가의 법 규범과 규정대로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랑비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의 발현형태로서 경제관리에서 규률과 질서가 문란하고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랑비를 없애자면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재정활동에서 법 규범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한방울의 기름, 한그람의 석탄, 한쪼각의 천이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면 계획 및 계약 규률을 강화하여 생산의 물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고 원료, 자재를 비롯한 물자와 로력의 지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그것을 부단히 낮출수 있게 한다.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여야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일수 있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여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자금리용에서 효과성을 높여 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국가자금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개별적기업소들은 물론 전사회적규모에서 제한된 자금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형태로 된다.

국가자금의 효과적리용은 설비, 자재, 로력의 절약적리용과 그것을 보다 빨리 회전시키기 위한 재정적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여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면 국가자금을 절약적으로 리용하고 그 회전을 촉진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것이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그것이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할수 있게 하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제 밑에서 기업소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나가면서 생산에 지출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는 합리적인 경제관리운영방법이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국가의 중앙집권적계획적지도밑에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더 잘 보장할수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줄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조직을 잘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을 형태별로 잘 관리하고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고정재산, 류동재산, 류통재산 등 형태별로 그 규모를 정확히 계획화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원천을 정확히 조성하며 생산물의 원가와 리윤, 거래수입금, 판매수입금 계획 등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재정관리를 진행하여야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맞추면서 독립채산제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다시말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독립채산제의 우월성은 과학적인 재정관리,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통하여 발양되게 된다.

독립채산제를 잘 실시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축적을 늘이고 국가의 재정예산수입을 보장하며 국가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영활동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재정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참으로 재정관리를 개선하는 여기에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첫 시기부터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재정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재정관리사업이 끊임없이 개선되여왔으며 사회주의재정관리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여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재정관리사업이 더욱 개선됨으로써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경영활동을 과학화할수 있게 되였다.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과 3월25일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고 수익성을 높여 기업소의 채산을 자체로 맞추면서도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고있다.

룡강전동기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10년동안 해마다 생산원가를 4~5%로 낮추면서도 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함으로써 전동기와 변성기를 비롯한 전기설비들을 중요대상건설에 원만히 보장하였다.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에서는 지난해 2월 한달동안에 145건의 절약예비안을

실현하여 2,300여공수의 로력과 많은 전력을 절약하였으며 유색금속, 강재, 성형분말, 규소강판 등 중요자재를 10~15% 절약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이 모든 성과는 재정관리를 짜고들어 설비, 로력, 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수록 내부예비를 얼마든지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드는것이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재정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혁명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이 재정의 주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재정문제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하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관리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재정관리사업을 짜고들 때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할수 있으며 증산과 절약의 모든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자면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와 특히 재정관리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나라의 재정토대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되며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더 늘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게 된다. 또한 국가자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게 되며 국가자금을 랑비하거나 국가사회재산을 되는대로 관리하고 손해를 주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재정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나라의 재부를 더 늘이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재정규률을 바로세우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재정규률, 재정통제를 강화하여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다.

재정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선차적인것은 국가예산규률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은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으로서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척도이다.

국가예산규률을 강화하자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재정계획을 바로세우고 경영활동이 국가예산과의 직접적인 련관속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 로력, 자재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재정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며 세워진 계획을 엄격히 수행하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며 자금의 사장, 랑비 현상을 없애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재정은행기관들의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재정은행기관들은 모든 부문, 기관, 기업소들이 예산납부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수행하도록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원가를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데서 재정은행기관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정은행기관들에서는 국가자금을 계획에 예견된 항목과 규모대로 지출하고 그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며 정상적인 재정검열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재정검열위원회를 잘 꾸리고 계산제도를 바로세워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여야 한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재정총화제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는것은 재정활동정형을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재정총화제도를 세우는데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를 정상화하는것이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이 창조한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는 나라살림살이와 재정관리를 대중자신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재정총화제도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할수 있는 독창적인 재정관리제도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제도화, 생활화하며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를 정상화하자면 인민경제 부문별,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총화단위와 총화지표를 옳게 설정하고 작업반장과 사회적담당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에서는 생산 및 절약 과제수행을 비롯한 내부예비동원정형을 지표별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총화평가하며 그에 기초하여 정치적평가를 앞세우고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

일 생산 및 재정 총화를 증산절약모범작업반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내부예비동원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전개할수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갈수 있다.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자면 기업소와 직장들에서도 재정총화를 잘하여야 한다.

순, 월, 분기, 반년, 년 재정총화는 나라살림살이와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모든 직장과 공장, 기업소, 국가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순, 월, 분기, 반년, 년 재정총화를 철저히 제도화, 정규화하여야 한다. 순, 월, 분기, 반년, 년 재정총화는 준비를 잘하여 재정관리에서 나타난 우결함과 결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를 충분히 발양하여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우는 방향에서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 직장, 작업반 재정총화결과를 반드시 공개하여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생산자대중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서한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깊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올해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의 령도에 대한 빛나는 화폭

—장편소설 《예지》에 대하여—

최 언 경

최근 문예출판사에서는 장편소설 《예지》(4.15문학창작단, 리종렬 작)를 출판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장편소설 《예지》는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업적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훌륭히 형상한 기념비적작품이다.

소설은 우리 당과 혁명 력사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던 1960년대 후반기로부터 1970년대초까지의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어느때보다도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혁명적변혁이 이룩되고있었다.

새로운 력사적시대는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발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 문학예술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있었다.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하여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우리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사상경향과 자연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문학예술의 요소들이 완전히 가셔지지 못하고있었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문학예술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하였다.

장편소설 《예지》는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문학예술혁명의 웅대한 대강을 펼치시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키시고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업적을 불멸의 화폭으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06페지)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 이것은 실로 우리 인민이 수천년을 두고 이룩해놓은 정신문화의 총화이고 집대성인 동시에 그 최고의 정화이며 공산주의미래의 문학예술에 대한 인류의 세기적리상이 빛나게 구현된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의 대부흥기이다.

일찌기 인류문예사의 그 어느 시기에도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와 같이 영화와 문학, 가극과 연극, 음악과 무용, 미술과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진면적이고도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한적은 없었다. 또한 그 어느 문학예술도 우리 주체문학예술에서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긍지높이 노래되고 인간의 자주성이 열렬히 주장되고 옹호된적은 없었으며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된적은 없었다.

인류문예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이 불멸의 업적은 작품의 제명이 보여주는것처럼 위대한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시며 령도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예지에 의해서 마련되였다는것을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이 이룩한 커다란 사상예술적성과가 있

으며 그 의의가 있다.

장편소설 《예지》는 무엇보다도 문학예술혁명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에로 창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대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풍모를 빛나게 형상하고 있다.

문학예술혁명은 시대가 요구한다고 하여 저절로 수행되는것이 아니며 그 누구에 의해서나 수행될수 있는것도 아니다.

문학예술혁명은 부분적개혁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학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이러한 혁명은 오직 태동하는 시대의 맥박에서 바야흐로 도래하게 될 새 시대의 숨결과 새 문학예술의 생동한 모습을 선명하게 예감하고 그것을 현실로 앞당겨올 비범한 예지와 사상, 시대가 요구하고 혁명이 요구하면 그 어떤 기성의 리론이나 경험에도 구애되지 않고 오직 혁명적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력사의 초행길을 대담하게 독창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거인적담력과 위대한 령도력, 동서고금의 문학예술에 대한 막힘데 없는 해박한 지식과 천부의 예술적조예를 한몸에 완벽하게 체현한 사상의 영재, 령도의 영재, 예술의 영재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는 거창한 력사적 위업이다.

소설은 이 거창한 력사적위업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풍모와 자질을 체현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서 빛나게 수행될수 있었다는것을 긍지높이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은 우선 한편의 영화가 범한 결함을 두고 문학예술전반의 실태를 통찰하시고 문학예술혁명의 필연성을 절감하시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독창적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고 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어느 한 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방금 만든 예술영화 《광풍》을 놓고 굉장한 걸작이 나왔다고 온 촬영소가 떠들썩하게 기뻐하였다. 영화시사회가 있은 날 밤에는 이 영화를 맡았던 연출가 최승진의 집에서 축하연까지 요란하게 벌리였다.

그러나 영화는 로동계급의 전형으로서의 주인공의 형상, 중산층녀성의 운명문제, 혁명사상의 보급문제 등 원칙적문제들이 당정책에 어긋나게 잘못 설정되고 잘못 처리된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의 교시에 접하게 된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자책감으로 하여 몹시 가슴아파했으나 그 누구도 과오의 원인을 똑바로 찾지 못하였다.

게다가 촬영소당위원회 비서 주영도는 창작에서 과오를 범한 예술인들을 혁명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부업지로동에 동원시켰으며 부정적인 자료들을 과장하여 보고하였다.

이리하여 촬영소안에는 서로 반목질시하는 랭랭한 불신의 분위기가 돌고 연출가 최승진은 고민끝에 앓아눕게 되며 오랜 녀배우 리명선은 촬영소를 영영 떠나가버린다. 참으로 사태는 엄중하였으며 출로는 그 어디에도 없을듯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본분으로 여기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 자신이 영화부문 사업을 책임지고 풀어보겠다고 말씀드리며 몸소 이 사업을 맡아나서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편의 영화를 두고도 거기에 비낀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의 후과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였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으로부터 문학예술혁명의 봉화를 지펴나가

야 하겠다는것을 가슴뿌듯이 절감하시였다.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면서 주체의 한길을 따라 영원히 승리해나가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며 한없이 귀중한 재부이다.

민족예술의 전통이 없으면 참된 예술이 있을수 없다.

(예술이 꽃이라면 전통은 그 줄기이고 뿌리이다. 예술이 푸르싱싱한 숲이라면 전통은 그 숲이 뿌리박은 비옥한 토양이다. 예술이 아름다운 용모의 인간이라면 전통은 그 우수한 혈통이다. 예술이 생명세계라면 전통은 강력하게 계승되는 유전인자사슬이며 그 생명력의 무궁한 원천이다!…)

백두산혁명전적지들을 찾으시여 이러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돌아오시는 그길로 영화촬영소에 가시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일한 혁명전통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성황당》, 《3인1당》, 《혈분만국회》, 《경축대회》등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해주신 더없이 심오하고 풍부한 혁명적문예전통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우리 문학예술이 이 위대한 유산속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이 유산속에 담겨져있는 그 열화같은 넋이 우리 문학예술작품들에 충만된다면 우리 예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혁명적인 예술로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격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상은 그 예지의 비범성과 위대성으로 하여 참으로 숭엄하다.

소설은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창작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화폭을 펼치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등을 영화와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술적예지와 위대한 령도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창조과정, 그것은 정녕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밤낮이 따로없이 촬영현지에서 창작가들과 함께 보내신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지도의 나날이였으며 천재적예지로 장면장면을 완벽한 주체예술의 새로운 경지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창조와 령도의 나날이였다.

소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친히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연출대본수여식과 의도발표회에도 참석해주시였으며 매일과 같이 촬영소에 나오시여 제작단의 촬영준비사업을 보살펴주시고 촬영전과정을 몸소 현장에서 지도해주시였다. 이 과정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머니와 자식들간에 오가는 뜨거운 정을 강조할데 대한 문제, 주인공에 대한 동정선을 대담하게 자르는 문제, 꽃분이와 순희가 약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달밤장면과 어머니의 죽음장면을 기쁨과 슬픔의 상반되는 감정으로 대조시키는 문제, 꽃분이가 감옥에 있는 오빠를 찾아가는 로정을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과 밀착시킬데 대한 문제 등 수많은 사상미학적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빛나게 해결해나가신다. 소설은 특히 작품에서 일관하게 축적해온 감정을 어머니의 죽음장면에서 폭발시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가장 감동적인 극의 절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작품을 인정심리극적양상이 뚜렷한 혁명적대작으로 완성시켜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영화혁명으로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여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성과를 지체없이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 일반화해나가도록 현명하

게 이끄시였다.

소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세계적인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만도 무려 2천여곡의 노래를 친히 들어주시고 손수 풀라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위대한 령도에 의하여 가극혁명이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문학예술전반에서 새로운 전환과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1972년 7월 까를로비 바리세계영화축전에서 전례없는 특별상과 특등메달을 수여받았으며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하여 만수대예술단, 평양예술단, 인민군협주단은 수만리 세계 《원정》의 길에서 주체예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이것은 참으로 일찌기 인류문예사에 없었던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만천하에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였으며 위대한 령도자를 주체예술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민족의 긍지이고 자랑이며 영광이라는것을 소설은 격조높이 확인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혁명적문예전통뿐아니라 문학예술을 우리 식으로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에로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오랜 력사를 통하여 창조된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민족적 구미와 정서에 맞는 문학예술을 건설하는것은 민족문학예술건설의 참다운 길이다. 이러한 문학예술은 오직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부르죠아문학예술에 대한 온갖 환상을 막고 우리 식으로 창조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소설에서 보는것처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대나 중세의 침략자들은 령토를 점령한 다음 자기의 신앙과 문화를 이식했지만 현대제국주의자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문화를 먼저 침투시켜 민족의식을 타락말살시키고 제놈들에 대한 숭배심과 환상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부터 침략의 길을 닦으려 한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면 이기고 흥하고 영생합니다. 줴버리면 지고 먹히우고 망합니다. 망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실로 현대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인 사상문화적침투의 반동적본질을 여지없이 발가내고 그것을 철저히 막아낼수 있게 하는 가장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에 환상을 가지고 력사에 역행하려는 혁명의 배신자들이 있는한 우리 문학예술이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로 된다는것을 소설은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하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는 최승진은 (아, 나는 어떤 시대 예술인인가! 김정일…저분은 자주시대가 낳은 인류문화의 탁월한 향도자이시다! 세계적인 문예사상의 거장이시다! 나는 오늘 세계문화발전의 전략을 들으며 거인적인 포부를 느꼈다. …위대한 사상에 안받침된 우리 예술은 응당 세계일등급의 수준으로 뛰여올라야 하며 세계적인 감화력을 지녀야 한다!)라고 무엇이 폭발하는듯한 격정을 체험하며 전률할듯한 환희를 느끼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승진을 비롯한 창작가들을 세계영화축전에 참가하도록 하시며 그들자신이 부르죠아사회의 부패상과 서구문화의 퇴폐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함으로써 서구문화에 대한 자기들의 환상이 얼마나 허황한것이였는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이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오랜 기간 문학예술분야에 뿌리깊이 남아있은 서구문화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떻게 종국적으로 완전히 청산되고 우리 문학예술이 명실공히 내용도

형식도, 창조체계와 창조방법도 우리식인 주체의 문학예술로 줄기찬 발전을 하게 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장편소설 《예지》는 이 땅우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은 문학예술혁명의 실현과정은 곧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이의 위대한 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하는 과정이였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장편소설 《예지》는 다음으로 창작가, 예술인들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아 문학예술혁명의 담당자로 내세워주시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간적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는 그것이 위대한 인간적풍모와 함께 하나의 인격속에 조화롭게 통일될 때에만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으로 될수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알고 그이의 인간적위대성에 매혹되여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며 수령님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사람들이다. 인간중심의 위대한 혁명학설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천품으로 체현하신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믿음에 원천을 두고있다.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믿고 그들을 사랑과 의리로 뭉치게 한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인생철학이다.

소설은 그러한 인간애의 철리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펼어지는 각이한 운명을 가진 인물들과의 뜻깊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우선 최승진을 비롯하여 곡절많은 운명의 주인공들인 연출가 로영무, 녀배우 리명선의 눈물겨운 갱생과정을 통하여 오랜 예술가들을 주체문학예술의 기둥으로 끝까지 믿어주시고 혁명적예술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빛내여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의리와 믿음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특히 최승진과의 관계에서 가장 의의깊게 그려지고있다.

예술영화 《광풍》의 창작에서 실패한 후 몸에 설은 로동에 지치고 정신적으로 막다른 지경에 이른 최승진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창작에서 물러서며 끝내 병석에 눕게 된다. 황혼기에 들어선 그의 인생은 더는 빛을 보지 못하고 막을 내릴것만 같았다.

인간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인 바로 이러한 때 따뜻한 혈육의 사랑으로 시들어가는 그의 육체적생명에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신분은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승진에 대한 엄중한 자료보고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일제의 악독한 민족문화말살정책속에서 민족예술을 해보자고 애국애족의 길을 걸어온 그의 량심을 굳게 믿으시였으며 일부 사람들이 그가 승승장구할 때에는 추켜올리다가 형세가 기울어지자 별의별 흠을 다 들춰내는것은 동지적태도가 아니라고 엄하게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최승진동무는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오신 귀중한 예술가이고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든 공훈예술가이라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그의 집을 방문하시여 앓고있는 그를 위로하시며 영화의 개작을 다른 연출가에게 맡길수도 있지만 나는 승진동무가 잘 고쳐 세계적인 명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시는 장면은 참으로 눈물겹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최승진이 영화를 성과작으로 개작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고 그에게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연출을 맡기시여 재생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장면의 형상은 그대로 위대한 믿음과 사랑, 충성의 정화로 빛나는 생동한 화폭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는 금을 주고도 사올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인재라고 하시며 수도의 의료진을 다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살려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신다. 전사에 대한 이렇듯 뜨거운 사랑을 지니셨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진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나라의 어떤 보배를 잃었는가고 비분을 금치 못하시며 남모르는 오열을 터뜨리시는것이다.

고인의 집을 방문하시여 아버지를 찾아 울부짖는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달래기도 하시며 어린것을 아버지와 같이 당에 충직한 예술가로 키우자고 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남편의 뒤를 잇고싶어하는 고인의 안해를 대견히 여기시고 꼭 소원을 풀어주겠다고 약속도 하시며 고인이 생전에 출연한 영화필림을 복사하여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산 모습을 볼수 있게 해주자고 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소설은 그이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의리심을 깊이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한다.

소설은 오랜 예술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어 또한 연출가 로영무는 낡은 사상의 때를 씻어버리고 최승진이 못다하고 간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혁명적대작으로 완성할수 있었으며 한생을 바쳐온 삶의 보금자리인 촬영소를 떠나갔던 리명선이도 다시 초소로 돌아와 새 삶을 빛내이게 되였다는것을 감명깊게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자라나는 새 세대의 예술인들을 문학예술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주체문학예술의 훌륭한 계승자로 키워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사랑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창작과정에 능력있는 연출가로 자라는 강철룡, 두메산골태생의 어린 처녀로부터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어엿한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녀배우 손영실, 창작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되는 젊은 연출가 한기석의 형상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특히 배우생활이 생소한데다가 가정문제로 인한 고민까지 겹쳐 어린 가슴을 태우는 손영실을 위해 그의 어머니가 살고있는 군의 당조직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어머니가 평양에 올라와 딸과 함께 살도록 배려해주시며 마침내 훌륭한 주역배우로 키워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잘 그리고있다.

소설은 이 모든 감명깊은 형상과 뜻깊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혁명의 담당자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단합되고 당과 수령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예술인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예지》는 다음으로 생활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창작의 독창성,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풍모를 높은 형상성과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로 된다.

소설은 우선 영화혁명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선을 기본줄거리로 하여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도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의 불길을 일으켜나가시는 령도과정전반을 폭넓게 보여주고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백두산혁명전적지, 지하철도건설에 대한 지도와 같은 뜻깊은 생활들을 밀착시켜 그림으로써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풍

모를 매우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었다.

봄빛도 짙어갈 무렵 백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되새겨보시면서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자면 반드시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시는것이다. 또한 지하철도건설과정에 벌어지는 극적인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리는데서 최상의 행복을 찾으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충성심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생활선을 통하여 정신문화의 건설을 민족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는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그이의 풍모를 잘 부각하고있다.

이러한 의의깊은 생활의 탐구로 하여 소설은 문학예술뿐아니라 우리 혁명전반에서 일대 앙양을 마련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매우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할수 있었다.

소설에서는 또한 작가에 의하여 탐구된 기발하고도 독창적인 수법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집약적으로 부각하는데 능숙하게 활용되고있다. 연출가 로영무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미학사상에 매혹되여 자기 수첩에 날자별로 적어넣은 그이의 주옥같은 명제들과 불철주야의 쉼없는 정력과 빛나는 예지로 문학예술혁명을 이끌어나가시는 그이의 위대한 령도를 두고 사람들속에 파다하게 퍼져가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그러한 실례이다. 또한 평양주재 한 외국통신기자가 본사에 보낸 다음과 같은 타전내용을 삽입한것은 작가의 기발한 창작적솜씨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 문예부흥을 련상시키는 전대미문의 예술운동이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분명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과 관련된다고 보아진다. 조선사람들은 그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고 부르고있다!》

력사적사료에 기초하고있는 이 풍부하고도 적중한 생활자료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여러모로 생동하게 부각해보여주고있으며 김정일동지를 령도자로 맞이한 인민의 환희와 력사의 필연성을 웅변으로 확증해주고 있다.

그밖에도 소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연고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시점에서 그이의 위대성을 비쳐보임으로써 형상의 진실성과 예술적감동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높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이야기의 기본줄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독자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형상에 이바지하는 흥미있는 삽화들을 적절하게 도입함으로써 형상의 감미와 작품의 견인력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작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되고 빛나는 형상으로 구현된 이 모든 형상수단과 수법, 생활묘사는 다같이 사상의 영재, 예술의 영재, 령도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반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술적공간으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예지》는 이 모든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고 당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이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형상에 바쳐진 문학예술작품들을 보다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일심단결된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과 군당 위원회의 지도

김 영 섭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은 농촌테제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위대한 농촌건설강령이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다그쳐야 생활조건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군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군사업의 참모부이다. 군내의 농촌당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농촌에서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이끌어나가는것도 군당위원회이다. 군당위원회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조직발동하고 온갖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문화농촌을 더 빨리, 더 잘 건설할수 있다.

은천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테제와 현지교시에서 제시하신 농촌문화혁명의 과업을 받들고 사회주의문화농촌을 건설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1988년 7월 17일 농촌테제를 실현하는데서 은천군을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하여 하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언제나 주체의 당건설 원리와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첫 공정으로 내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문화농촌건설을 지도하여왔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읍중심부로 넓게 뻗어나간 포장도로 좌우 량켠에는 온천물을 리용하여 난방화를 실현한 5층, 6층 짜리 탑식아빠트들,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꾸려진 문화기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줄지어 일며섰다. 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산천천기슭에는 유보도가 펼쳐지고 여러가지 문화시설을 갖춘 유원지가 꾸려졌다.

군소재지가 도시부럽지 않게 건설되였을뿐아니라 농촌마을들도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꾸려졌다.

양지바른 산기슭에는 현대적으로 건설된 농촌문화주택들이 오붓하게 자리잡고있으며 리소재지에는 아담하게 꾸려진 학교와 문화회관,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자리잡고있다. 군소재지로부터 농촌마을들을 련결하는 도로들이 시원스레 뻗어나갔고 그 량옆에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다.

오늘 은천군은 옛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변모되였고 살기 좋은고장으로 전변되였다.

은천군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변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주체의 당건설 원리와 원칙의 진리성과 독창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문화농촌건설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서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현실성있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밀고나가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제나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기백있게 일할수 있으며 대중이 왕성한 의욕과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투쟁해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은 대대로 물려받은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농촌주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하나의 혁명이며 후대들에게 현대적이며 문명한 생활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 보람찬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서 처음부터 통이 크게 궁리하여 높은 목표를 내걸고 대담하게 밀고나가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어렵고 방대한 농촌건설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농촌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할수 있다.

그러나 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계획을 세우는데서 처음에는 통이 크게 궁리하고 높은 목표를 내걸지 못하였다.

군당집행위원회에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문제를 협의할 때 일부 위원들은 군소재지에 탑식아빠트 몇채를 더 짓고 도로를 포장하며 농촌리들에는 이미 있던 주택들을 이개축하고 마을길과 농촌집주변들을 알뜰하게 꾸릴데 대한 의견을 내놓았을뿐이였다. 이렇게 하여가지고서는 군을 문화혁명수행의 본보기로 꾸릴수 없으며 농촌에 남아있는 문화적락후성마저 없앨수 없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 대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의견이 나오게 된것은 주로 그들이 몇몇 일군들과만 협의하고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데 있었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은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대중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인 담당자이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서 높은 목표를 내거는가 못내거는가 하는것은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계획을 세우는데서도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켜야 대담한 목표를 내걸수 있다고 확신하고 모든 집행위원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광범하게 협의하도록 하였다.

대중속에 들어간 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들은 그들에게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다시 침투시키고 초보적으로 작성한 군건설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주었으며 군중들과 광범히 토의하였다. 군중토의의 효과적인 방도는 군건설전망도를 군소재지와 리소재지들에 전시하고 대중의 의견을 듣는것이였다. 군건설전망도는 사람들에게 군의 투쟁목표와 전망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대중토의에 스스로 참가하도록 추동하였다. 군건설전망도를 둘러싸고 당 및 행정경제 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지어는 인민반들에서까지 대중적인 토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군당위원회는 대중토의에서 제기된 창발적인 의견들을 제때에 여러가지 선전수단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주었다. 이것은 대중토의에

새로운 불길을 지펴주었다. 새것을 사랑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속에서는 군사로청의 발기에 따라 군건설전망도를 더욱 훌륭하게 보충완성하기 위한 토론회와 현상모집이 진행되였다. 대중토의가 심화되는 과정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적지 않게 극복되였고 우리 군을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로 꾸리려는 결의가 더욱 확고히 다져졌으며 수많은 창발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대중토의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의견들을 종합하여 대중의 지향과 의사가 전면적으로 반영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계획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을 오늘만이 아니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꾸밀수 있게 하는 설계도로 되였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계획에 따라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을 건설하는데서 가장 큰 애로로 된것은 군자체의 튼튼한 건재기지가 없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군에는 변변한 건재공장이 없었다. 건설에서 많이 쓰이는 소석회원천도 없었기때문에 백여리나 떨어진 린접군에서 생산한 소석회를 실어다 썼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과 더불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건재에 대한 수요를 멀리 떨어져있는 린접군들에 계속 의존할수는 없었다. 방대한 농촌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군자체의 건재기지가 있어야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자체의 건재기지를 꾸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건재공장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군중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그것을 관철하여나갔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군중의 창조력을 발동하기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 사업원칙이다.

군당위원회는 군자체의 건재기지를 꾸리는데서도 일군들이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군중을 존경하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군자체의 건재기지를 꾸리는데서 우리가 선차적인 힘을 넣은것은 수요가 많은 소석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것이였다.

소석회공장을 건설하자면 석회석원천을 찾아내여야 하였다. 석회석원천을 찾기 위하여 광담리에 나간 우리는 로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에게 지금 군에서 소석회가 없어서 군소재지건설도 힘있게 내밀지 못하고있고 농촌문화주택도 더 많이 짓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고장에서 오래 살고계시는 여러분들이 석회석원천을 함께 찾아보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한 로인이 일제때 왜놈들이 이곳에서 금광을 채굴하느라고 캐낸 돌무지속에서 석회석과 비슷한 돌을 본 일이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로인과 함께 험한 길을 헤치고 산에 올라가 석회석매장지를 찾아내였다. 그리고 매화리와 학월리에서도 석회석매장지를 찾아내고 소석회공장들을 건설하여 군자체의 생산으로 소석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농촌리들에서 문화주택이 대대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기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군에서는 무연탄이 모자라 그것을 제대로 생산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촌문화주택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연탄대신에 쓸 새로운 대용연료를 찾아내여야 하였다. 대용연료를 찾기 위하여 남산리 기와공장 열관리공들속에 들어간 우리는 그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의논하였다. 열관리공들속에서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제기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가장 합리적인것은 우리 군에 풍부한 벼겨와 톱밥을 리용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이 방안을 적극 지지해주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그것을 빨리 실현할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열관리공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여러차례의 시험을 거쳐 마침내 벼겨와 톱밥을 가지고 기와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이 방법을 군안에 일반화하여 기와생산량을 대대적으로 늘임으로써 농촌문화주택건설을 더욱 대담하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이와 같이 광범한 군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짧은 기간에 군자체의 힘으로 세멘트공장, 벽돌공장, 기와공장, 도자기공장을 비롯한 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렸으며 그에 의거하여 군건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체의 힘으로 하였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이 문화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효과적인 방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생활조건과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사업인것만큼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밀고나가야 실물교양을 통하여 일군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광범한 대중을 그 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서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은혜리를 시범단위로 정하고 리일군들을 도와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로 꾸려나갔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은혜리를 시범단위로 꾸리는 사업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음으로써 리의 건설은 물론 군의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는데도 지장을 주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군당위원회 조직부와 선전부 일군들과 함께 은혜리에 내려가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보았다. 료해한데 의하면 은혜리를 시범단위로 꾸리는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기본원인은 일군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있지 못한데 있었다. 그들은 대중을 발동하여 지방의 예비를 탐구동원하고 자체의 힘으로 리를 꾸릴 생각은 하지 않고 건재로 쓸 석비레와 모래 한삽 안나오는 리의 실정에서 국가에서 자재를 받아다 건설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국가에 손을 내밀거나 린접군들에 가서 자재를 얻어오는데 시간과 로력을 랑비하고있었다. 국가에서 그 많은 자재를 받아다 건설하는 방법으로는 군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빠른 시일안에 문화농촌으로 꾸릴수 없으며 또 그런 방법으로 창조된 단위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서 시범단위로 될수 없는것이다. 은혜리를 시범단위로 꾸리는 열쇠는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바로잡는데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벌렸다. 우리는 일군들에게 시범단위를 꾸리는 사업은 반드시 지방의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하며 이곳에서 그런 모범이 창조되여야 온 군에 일반화할수 있다고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당정책학습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연구발표모임, 예술영화 《그날의 맹세》, 《전환의 해》에 대한 실효모임도 조직진행하였다.

일군들이 제 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우를 바라보며 국가에 손을 내밀지만 제 힘을 믿을 때에는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일군들은 제 힘을 믿

고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여 시범단위를 꾸려나가게 되였다. 일군들이 관점을 바로잡고 팔을 걷고 달라붙으니 농민들속에서 블로크대신에 리에 원천이 풍부한 돌을 캐서 건재로 쓸 방도를 비롯하여 창발적인 발기들이 수많이 나오게 되였으며 대중적인 운동으로 리를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로 훌륭히 건설할수 있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은혜리를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로 꾸리는 과정에 일군들이 제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기만 하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방의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우리 농촌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릴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으며 군의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더 빨리 다그칠수 있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서 시범단위를 창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여 은혜리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였고 시범단위를 창조하는 사업에 동원되였던 군일군들을 리들에 파견하였다. 특히 시범단위를 창조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가지고 당 및 행정, 근로단체 일군들과 3대혁명소조들 속에서 경험교환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농촌문화주택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공공건물을 꾸린 정형을 가지고 부문별로 방식상학과 강습을 조직진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은혜리에서 창조된 모범을 온 군에 제때에 일반화하고 다른 농촌리들을 은혜리의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려 군의 전반적인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였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다음으로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문화농촌건설에서 더욱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신작칙은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서 큰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과 건설에서의 성과는 지도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이신작칙은 위력한 정치사업이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면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군소재지건설을 통하여 더욱 절실히 체득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밀고나가는데서 먼저 군중적운동으로 군소재지부터 더 잘 꾸리기로 결정하고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건설대상을 정해주었다.

그런데 군소재지건설은 처음에는 예견했던것처럼 활발하게 벌어지지 못하였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군소재지에는 2~3층짜리 다층주택이 몇동 있었을뿐이고 5~6층짜리 탑식주택이란 한동도 없었다. 군급기관 책임일군들은 건설해본 경험도 없는 5~6층짜리 탑식주택건설을 맡아서 짧은 기간에 해낼수 있겠는가고 주저하면서 건설을 대담하게 밀고나가지 못하였다.

우리는 군소재지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군당일군들이 담당한 5층짜리 탑식주택건설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떨쳐나서 주택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특히 군당 책임일군들은 이른새벽과 깊은 밤에도

주택건설장에 나가 막돌과 모래를 날랐으며 중앙이나 도에 출장을 갔다와서도 먼저 건설장에 찾아가 웃동을 벗고 블로크도 쌓고 미장도 하였다. 군당일군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첫 탑식주택이 군소재지 중심에 일떠서게 되였다. 이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군당일군들의 뒤를 이어 군행정 및 경제 지도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이 건설장에 달려나가 주택건설을 다그쳤다. 군소재지에는 10여동의 탑식주택들이 경쟁적으로 키돋움하며 솟아올랐다. 여기에 고무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두 주택건설에 떨쳐나섬으로써 군소재지가 건설로 들끓었고 주택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되였다.

이신작칙은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특히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할 때 아래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군소재지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던 초기에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낡은 사업방법에 매달려 행정식방법으로 사업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일수 없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벌리는 한편 군당의 책임일군들이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지도하는데서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군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장공장건설장에 나간 군당의 한 책임일군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군당책임일군은 공장건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먼저 자동차운전수들속에 들어가 장공장건설이 군내 주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가지는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물동을 날라오는데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여 긴장한 수송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그는 《맛있는 간장과 된장을 생산하기 위하여 장공장건설을 로력적으로 지원하자》는 강연제강을 만들어가지고 읍주민들속에 들어가 심금을 울리게 강연을 하여 그들이 장공장건설을 적극 지원해나서게 하였다. 다른 한편 그는 건설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불과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보다 현대화된 5층짜리 장공장건설을 와닥닥 해제끼였다.

군당책임일군이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장공장건설을 추켜세운 실천적모범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군안의 일군들로 하여금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일군들속에서 낡은 행정식, 재래식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일하는 기풍이 확립됨에 따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서는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군중적인 운동으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에 은혜리와 초교리, 장공장과 화학공장, 영예군인식료공장과 과일 및 남새 가공공장이 훌륭히 꾸려졌으며 이 농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전국적인 방식상학까지 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군을 농촌테제실현에서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 관철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였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서 우리 군이 이룩한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군당위원회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군을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본보기로 꾸려나갈것이다.

《실체인정》론의 반동적본질

김 대 화

조국통일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오래동안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은 분렬의 비극을 반세기이상 더 지속시키지 않으려는 굳은 결심을 안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들은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가로막고 나라의 분렬을 합법화하며 고착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통일에 대하여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신년사》, 1990년, 단행본, 10페지)

남조선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책동은 최근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린것을 계기로 그 무슨 《실체인정》론과 《현실인정》론을 들고나오고 유엔 《동시가입》과 《단독가입》을 주장해나서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해 9월이후 3차에 걸쳐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상호 실체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남북관계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주장해나섰다. 그리고 지난해 11월하순에 진행된 남조선—일본《정기각료회의》에서 조일국교정상화교섭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실체인정》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할것을 애걸하였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실체인정》이니, 《현실인정》이니 하는 주장은 조선반도에 《두개 국가》가 있다는 현상태를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것이며 그러한 바탕우에서만 남북관계가 개선될수 있고 우리나라의 평화도 보장될수 있다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실체인정》론은 남북당국간 《합의》로 우리 나라에서 《두개 국가》를 조작하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합법화하여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영원히 고착시키려는것이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념원을 저버리고 통일로 향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궤변이다.

우리는 물론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남조선당국자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있는 사실자체가 이것을 말해준다.

문제는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현 분렬상태를 어떻게 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문제에 어떻게 림하는가 하는것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립장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실체인정》이니,《현실인정》이니 또는 《체제인정》이니 하는 모호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들고나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주장은 사실상 우리 나라에 《두개 국가》가 존재한다는것을 합법화하자는것이며 현 분렬상태를 고착화하자는것이다.

원래 《실체인정》문제는 국제관계에서 국가들호상간에 적용되는 문제이다. 즉 새로 출현한 나라들에 대하여 《법률적승인》이나 《사실적승인》 또는 《현실인정》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인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원칙을 외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렬된 나라들에 적용할수는 없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에 걸쳐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공동운명체이다. 이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의사와 념원에도 부합되는것이다.

우리 민족은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디에서 살건 한결같이 나라의 통일을 바라고있으며 자주적인 통일국가에서 살기를 원하고있다. 분렬은 일시적이고 인위적인것이며 통일은 영원하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본연의 모습이다. 하나의 유기체인 인간을 두개로 쪼갤수 없듯이 원래 하나인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절대로 둘로 갈라놓을수 없는것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실체이며 현실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나라에 《두개 국가》가 있다고 하면서 《실체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어긋나는것이며 민족의 운명과 근본리익을 우롱하는 반민족적처사인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오고있는 《실체인정》론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선반도에서 《두개 조선》의 존재를 합법화하고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최종적으로 고착시키려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두개 조선》정책은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전략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은 미국상전이 쥐여준 《두개 조선》전략에 따라 국토와 민족의 영구분렬책동을 집요하게 벌려왔다.

70년대초 남조선위정자들은 《유엔동시가입》을 들고나와 《두개 조선》을 조작해보려고 책동하였으며 그것이 실패하자 70년대중반기부터는 분렬고정화책동을 감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자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은 《유엔동시가입》, 《단독가입》과 함께 《실체인정》론을 들고나와 어떻게 하나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고 고착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북남당국이 고위급회담에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한다는것은 곧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고 국가관계를 가진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된다. 그리고 북과 남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주권국가들이 가입하는 보편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조선반도에 《두개 국가》가 존재한다는것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으며 통일의 길우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게 되리라는것은 더 말할여지도 없는것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자면 북과 남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데로 나가야 하며 민족안에서 오해와 불신, 대결을 없애고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남북쌍방의 《합의》와 《유엔동시가입》으로 우리 나라에 《두개 국가》가 존재한다는 《실체》,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아니라 분렬을 합법화하고 고착시키게 되며 민족내부에 분렬의 장벽을 더 높이 쌓게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부터 《국가》간의 문제로 전환되게 되고 북과 남은 서로 별개 국가로 갈라져 남남처럼 살아가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과 남을 갈라놓고있는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으로 합법화되고 민족적뉴대는 완전히 끊어지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공동의 애국운동이나 호상지지성원도 결국 다

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처럼 되지 않을수 없다.

지난 근 반세기동안 우리 민족이 분렬의 비극을 겪어온것만도 가슴치며 통탄할 일인데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겨레가 90년대통일의 부푼 희망을 안고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지금 《실체인정》론을 들고 통일문제의 해결을 포기하며 《두개 조선》으로 영영 갈라져 살자고 하는것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오고있는 《실체인정》론의 반동적본질은 또한 그것이 남조선을 《독립국가》로 공식인정받아 남조선의 식민지적성격을 위장하고 뒤흔들리고있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려는데 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다. 남조선에 수립된 《정권》은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와 략탈을 가리우는 병풍의 역할을 하고있다.

자주독립국가라면 마땅히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은 자주독립국가의 이러한 징표들을 어느 하나도 가지고있지 못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동반자관계》니, 《수평관계》니 하고 말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철저한 주종관계에 있다.

남조선에는 형식상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가 있지만 그것들은 대내외정책 작성과 집행에서 아무런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있으며 미제의 대남조선정책과 그의 지령에 따라 결정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집행할뿐이다.

남조선경제도 미국을 비롯한 외국독점체들과 다국적기업들의 예속밑에 있으며 자금과 원료, 자재, 기술과 판매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국에 의존하고있다.

남조선집권자들은 군사분야에서도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있지 못하다. 미제는 1950년의 이른바 《대전협정》, 1953년의 남조선과 미국《호상방위조약》, 1966년의 남조선과 미국《행정협정》, 1978년의 남조선과 미국《련합사령부설치에 관한 협정》 등을 통하여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통수권 지어 인사권까지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시킨 장본인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감정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민족적으로 각성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파쑈독재세력의 탄압을 박차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 《정권》위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심화되고있으며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영속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취약점으로, 불안거리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은 어떻게 하나 현 남조선《정권》에 《자주적국가정권》의 외피를 씌우고 집권안정을 도모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통치배들이 쏘련과 동구라파에서 일어나고있는 사태에 편승하여 이른바 《북방정책》을 코에 걸고 마치도 남조선이 《독립국가》인듯이 자처하면서 이 나라들과 《국교관계》를 가지며 유엔《단독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는것도 바로 이러한 분렬주의책동의 일환인것이다.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은 지금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실체인정》론을 들고나와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고 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뒤흔들리고있는 저들의 통치체제를 안정시켜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그대로 남아있고 미제가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는 이상 세계의 면전에서 남조선의 식민지적성격을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의 식민지지배를 반대하

는 반미애국투쟁이 더욱 치렬하게 벌어지는것을 막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오고있는 《실체인정》론의 반동적, 반민족적 본질은 다음으로 그것이 《승공통일》을 바탕으로 한 《체제대결》의 궤변이라는데 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의 《두개 조선》정책은 그들이 결코 《승공통일》의 야망을 포기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궁극적으로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북에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제도통일》을 실현하려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당국자가 내놓은 이른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이 방안에서 남조선당국자는 지난 70년대초 7.4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민족앞에 서약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는 배치되게 그 무슨 《민주, 자주, 평화통일원칙》이라는것을 떠벌이면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민주》원칙으로 바꾸어놓았다. 그것은 남조선위정자들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원칙이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제도 밑에 통일할것을 내세우고있는 저들의 《제도통일론》과는 배치된다고 보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또한 그 무슨 《민주》원칙내용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조금도 숨기지 않고있다. 이것은 결국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서로 초월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통일하려는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승공통일》을 실현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은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아직 《자유민주주의체제》밑에 통일할 조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고 보면서 국가통일을 하기전에 《남북련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해놓고 부분적인 교류나 협력을 실현하며 그 누구를 《개방》에로 유도하여 《승공통일》의 조건을 마련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남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분렬을 합법화하고 고착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는것이다.

지난해 북남고위급회담들에서 남측이 내놓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은 결국 이러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바탕을 둔것으로서 그 기본취지는 남과 북이 서로 《실체》와 《현실》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사회개방》을 실현하여 그 누구를 《개방》에로 유도해보겠다는것이다.

허지만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이 다른 나라의 본을 따서 《실체》, 《현실》 인정을 중간걸음으로 하여 우리에게 체제변화를 강요하며 흡수통일을 실현해보겠다고 하는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허황한 꿈이다.

우리 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때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실증된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건설된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예측할수도 없는것이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어느측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며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까지 빚어내게 될것이다.

이처럼 현 남조선집권자들이 들고나오는 《실체인정》론은 그들의 사대근성과 분렬주의적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이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벌이는 《실체인정》론은 민족분렬을 합법화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영구화하며 《승공통일》의 길을 닦기 위한 반통적, 반민족적 궤변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이 90년대 통일의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구태의연하게 분렬주의로선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그들에게 통일의지가 전혀 없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통치배들은 《실체인정》과 《현실인정》을 통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면서도 그것이 마치도 《민족적리익에 부합》되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에도 리롭다.》고 떠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겨레의 절박한 통일열망을 외면하고 민족분렬을 추구하고있는 저들의 추악한 반민족적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 위장설이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이다.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실천적으로는 북과 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보조를 같이할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대화의 첫 실마리도 풀수 없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다.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것은 력사적 필연성이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아무리 방해책동을 하여도 온 민족의 억센 통일의지와 전민족적범위에서 날로 앙양되고있는 통일운동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민족의 통일기운이 막을수 없는 기세로 비등되고있는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실체인정》, 《현실인정》론을 들고 분렬에로 나아가는것은 력사와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큰 죄악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민족적인 《실체인정》, 《현실인정》론을 집어던져야 하며 온 민족의 통일흐름에 합류하여야 할것이다.

다당제는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페하기 위한 위장물

박 주 룡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정치제도를 헐뜯고 자본주의정치제도를 극구 찬양하면서 부르죠아다당제의 《우월성》에 대한 기만선전을 강화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죠아다당제의 《우월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목적은 저들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며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인 로동계급의 당을 파괴하여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교활하게 책동하여도 결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치제도인 다당제의 본색을 가리울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인민들과 그것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 *

인류사회에 계급이 발생하고 계급사회가 발전해온 여러 단계들에는 그에 상응한 정치제도들이 있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교활하고 포악한 정치제도는 자본주의정치제도, 부르죠아정치제도이다.

부르죠아정치제도는 독점자본가들을 비롯한 극소수의 착취계급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치제도이다.

자본주의사회에는 부르죠아정치제도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질을 은페하는 보통선거제, 의회중심제, 대통령중심제, 정당제와 같은 여러가지 정치형태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정당제, 다당제는 다른 정치형태와 결합되여 반동적인 부르죠아정치제도를 《민주정치제도》로 더욱 미화분식하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리용되는 전형적인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부르죠아다당제는 소위 《민의》를 대표하여 《민주정치》를 실시하는듯이 표방하면서 부르죠아독재실현에 복무하는 기만적인 정치제도이다.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을 달리하는 정당들사이의 선거경쟁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거나 다수표를 획득한 정당 또는 정당의 인물이 집권하여 정치를 한다는것이 바로 부르죠아지들이 선전하는 다당제의 기본내용이다. 그러나 다당제는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로동계급의 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치세력들의 장성을 억제하며 독점자본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하고 부르죠아독재를 강화하는 철두철미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치제도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이 부르죠아다당제가 《민주정치제도》인듯이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통치배들의 전횡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한 연막이며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페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소수 착취자들에게만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가짜민주주의인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죠

아다당제는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당제는 원래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로 생겨났다.

다당제는 근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부르죠아정당들과 그 력사를 같이하고 있다.

자본주의이전의 착취사회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치분파가 있었지만 정당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조직으로서의 정당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로 발전하던 시기의 계급적, 정치적 관계를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력사상 최초의 정당은 17세기후반기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한 영국에서 봉건을 반대하는 과정에 계급으로 형성된 부르죠아지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후 여러 나라들에서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수많은 정당들이 나왔다.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인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출현한 부르죠아정당들은 처음부터 착취계급의 권력독점과 독재실현을 위한 정치적도구로 리용되였다.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에 편승하여 부르죠아혁명을 수행하고 정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들은 갓 생겨난 자본주의적착취제도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권력기구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계급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새로운 통치방식, 정치방식을 고안해내게 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정당제, 다당제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첫 정당제라고 할수 있는것은 1688~1689년 영국의 궁중정변(이른바《명예혁명》)을 계기로 보수당과 자유당에 의하여 확립된 량당통치제도였다. 그후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화제와 밀착된 다당제, 정당제가 실시되였다.

다당제의 사상리론적기초는 반동적인 철학리론의 하나인 《다원론》에 바탕을 둔 《정치적다원주의》이다. 원래 《정치적다원주의》는 여러가지 사상정치적견해와 주장들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부르죠아정치개념이다. 부르죠아지들은 《정치적다원주의》를 다당제의 《합리성》, 《우월성》을 선전하는 리론적무기로 써먹으면서 저들의 독단과 전횡을 《민주정치》로 감싸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이 다당제를 들고나온것은 결코 정당이 없이는 저들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할수 없었던것도 아니며 더우기 다른 정당들과 정권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도 아니였다. 그것은 다당제가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외피를 쓰고있는것으로 하여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인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켜 부르죠아정권에 순종시키는데 편리하기때문이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에 의하여 《민주정치제도》로 널리 분식되고있는 다당제의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다당제는 그것이 나오게 된 력사적경위만 보아도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이며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당제가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이라는것은 부르죠아지들이 다당제를 리용하여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특권적지위를 가리우고 진보적인 정당들의 활동을 억제하는데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는 각양각색의 이름을 가진 수많은 정당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들도 있고 중산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당, 로동귀족의 리익을 대변하는 당을 비롯한 중간정당들도 있으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 당들도 있다. 부르죠아지들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 당들이 평등한 원칙에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전도 벌리고 정치를 조종하기 위한 의회투쟁도 벌린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당들사이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불

평등한 관계이다.

자본주의사회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사이에는 평등한 관계가 있을수 없고 오직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정당들사이에도 평등한 관계란 있을수 없다. 사회의 지배계급인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은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기마련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진보적인 정당들의 활동이 심히 억제되고 탄압의 대상으로 된다. 독점자본가들은 다른 정당이 자기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그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 존재하는 공산당들의 활동은 부르죠아독재기구의 엄격한 감시속에서 진행되며 그것도 자본주의국가제도를 전복할 위험성이 없는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독점자본가들은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저들의 통치위기가 조성되면 다당제의 간판마저 줘던지고 공공연한 폭력정치에 매달린다. 다당제를 《민주정치》의 장식품으로 써먹다가도 로동계급의 정당을 비롯한 진보적정당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 의회제의 페지와 국가권력의 행정부에로의 집중, 파쑈분자들에 의한 정권장악과 무제한한 권력행사와 같은 로골적인 폭력정치를 실시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당들사이에 평등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수백년동안 존재해온 다당제의 력사에서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는 혁명적당이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정권을 장악해본 례가 그 어느 때, 어느 나라에서도 있은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지들은 모든 정당들은 《평등》하며 이러한 정당들이 다같이 정치에 참가할수 있는 다당제가 우월한 정치제도인듯이 설교하고 있다.

이것은 부르죠아다당제가 정당들사이의 불평등을 《평등》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으로 가리우고 인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제도이며 독점자본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특권적지위를 은페하고 진보적인 정당들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리용되는 위장물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다당제가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페하기 위한 위장물이라는것은 부르죠아지들이 정당들을 저들의 통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당들이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며 따라서 다당제가 정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의 배후조종자는 정당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도 정당도 억만금을 독차지한 독점자본가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 정당은 다만 독점자본가들의 독재정치를 뒤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될뿐이다.

형식상으로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정당들의 집권경쟁에 의하여 선거되는 의회에 있는것처럼 되여있지만 실제상 그것은 경찰, 군대를 비롯한 파쑈권력기구를 직접 틀어쥐고있는 독점자본가들에 의하여 행사된다. 의회가 부르죠아정권의 들러리인것처럼 정당들도 부르죠아정치에서 들러리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권당이라고 하여도 부르죠아정치기구체계에서 령도적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집권당의 지위를 차지한 정당은 늘 그 배후조종자인 독점자본가들의 통제를 받으며 독점자본가집단의 사환군으로 될뿐이다.

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을 내세우고 금권과 관권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당들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착취계급의 독재정치를 뒤받침하게 하고있다.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의 정당제도는 사실상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량당제도이며 본질에 있어서 1당독재이다.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만 놓고보더라도 공산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집권경쟁에서 배제되고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만이 번갈아 집권하고있다. 미국의 통치배들이 이것을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물로 써먹고있지만 그것은 허위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다같이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이며 차이가 있다면 어느 당이 위장술을 더 잘 써서 독점재벌들의 사환군노릇을 능숙히 수행하는가 하는것뿐이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는가 민주당이 집권하는가 하는것은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쌍두마차》에서 어느 한 말이 주역을 하고 어느 한 말이 보조역을 하는가 하는 순전히 기만적인 연극놀음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다당제의 미명아래 독점자본가들이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들로 하여금 집권경쟁을 벌리면서 번갈아 집권하게 하는것은 인민들을 기만하고 로동계급의 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들의 진출을 막아버림으로써 저들의 독재정치를 유지공고화하자는데 그 교활한 목적이 있다. 독점자본의 리익을 대변하는 당들중 어느 한 당이 집권하건 정치에서 달라지는것은 조금도 없으며 오히려 폭압정치는 더욱 로골화되고 포악해질뿐이다.

다당제가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이라는것은 오늘 다당제를 실시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민들의 온갖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있다.

지난 기간 다당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부딪쳐 그 위장술도 적지 않게 다듬어졌다. 그러나 자루속에 든 송곳은 감출수 없고 아무리 분칠을 진하게 하여도 승냥이를 양으로 변모시킬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죠아지들이 다당제가 《민주정치제도》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그 반동적본질은 가리울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것처럼 다당제가 《민주정치제도》라면 실지로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야 할것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소수(개인)의 전횡, 독재를 반대하고 다수에게 권리를 줄것을 주장하는 정치적개념으로 세상에 나왔으며 다당제를 찬미하는 부르죠아지들이 들고나온 구호도 《평등》, 《자유》, 《국민주권》과 같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것들이였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공공연한 폭력적억압에 기초한 독점자본가들의 반동정치가 실시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정당정치를 한다고 하는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얼마 안되는 독점자본가들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있는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하여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오직 폭압정치의 대상으로만 되고있다.

금권과 관권, 회유와 기만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에 자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들을 내세울수 없다. 오늘 미국의 국회에는 로동자, 농민 출신의 대표는 단 한명도 없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국내안전법》, 《공산주의활동의 통제에 관한 법령》, 《금지명령제도》 등 파쑈적인 악법과 제도들을 수없이 조작하여 진보적인 사상활동과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미중앙정보국》, 《미련방수사국》과 같은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여 온 나라를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인민들의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란폭하게 유린말살하고있다.

다당제가 실시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속에서 《최하계층》, 《빈자》로 멸시당하고 온갖 생활고에 신음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을 비롯

한 근로인민대중은 일하고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로부터 정치로와 배움의 권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있으며 그들에게는 오직 착취당할 《권리》, 헐벗고 굶주릴 《자유》밖에 차례지지 않는다. 만성적인 대중적실업으로 인한 실업자들과 거지들, 그날그날 품팔이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해가는 사람들이 욱실거리고 온갖 범죄와 패덕이 판을 치는 사회, 잘 사는자들은 날로 더욱 부유해지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는 사회가 바로 《만민복지사회》, 자본주의사회이다.

바로 이것이 부르죠아다당제가 실시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이며 부르죠아반동정치가 가져온 응당한 결과이다.

이처럼 부르죠아다당제는 그것이 나오게 된 력사적경위로 보나 그 실제적역할과 자본주의나라들의 오늘의 실태로 보나 철저히 자본주의통치배들의 전횡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한 연막이며 부르죠아반동정치를 은페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다당제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반동적인 정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다당제의 《우월성》을 떠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 다당제를 강요하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원래 다당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며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제도이다. 부르죠아다당제는 사회가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의 반영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그 사회계급적특성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다당제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로 계급적대립은 청산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다당제를 실시할 사회계급적기초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는 과도적사회로서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정당과 함께 다른 정당이 존재할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정당들은 결코 집권경쟁을 위한 정당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친선적으로 협조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근본리익이 일치되여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이다. 착취사회와 구별되는 사회주의사회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제도를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제도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령도적지위를 차지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정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정치이며 그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대표되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집대성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하여야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결속시킬수 있고 옳바른 전략전술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집단주의의 요구에 맞게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향도적력량으로서 유일적령도를 실현하여야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성과도 관련된다.

로동계급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 자주성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는 계급이며 그 어느 계급, 어느 계층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계급

이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모든 계급, 계층을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령도계급인것만큼 그의 전위조직인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적역할을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보나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성으로 보나 합법칙적인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거세하는것은 결국 사회주의자체를 말살하는것으로 된다. 때문에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거세하는데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에 저들의 다당제를 강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요에 못이겨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어긋나게 다당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인위적으로 분렬시키고 반혁명분자들에게 공공연히 활동할수 있는 정치무대를 마련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구경에는 피로써 쟁취하고 고수해온 사회주의를 망쳐먹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에 의하여 오늘 사회주의위업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으나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정당한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인민들의 앞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정치적다원주의》와 다당제의 반동적인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고 인민들은 다당제의 도입이 자기들에게 자유도 권리도 유족한 생활도 가져다줄수 없으며 가져다주는것은 오직 정치적무권리, 실업과 빈궁, 사회적혼란과 범죄뿐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교활하게 책동하여도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나라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는 결코 다당제를 실시하게 할수 없다.

부르죠아 다당제, 정치제도에 비한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발전도상나라들과 인민들도 부르죠아다당제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기들의 유일집권당을 옹호하며 그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부르죠아다당제의 파산은 불가피하며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들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생명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위력을 강화하는 참된 길이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와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당의 령도밑에 가장 우월한 사람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고수하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것이다.

근로자 1991년 제2호(루계 586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91년 2월 1일 발 행•1991년 2월 8일

ㄱ—05232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정기간행물번호
第13206号)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9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호(587)

차 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은 첨예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원칙과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우리에게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탁월한 령도자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 불패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　　　*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혁명투쟁의 승리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위력한 추동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3페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한다는것은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며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간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의 주체는 사회주의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힘있는 추동력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혁명의 주체의 위력에 의하여 승리하고 발전하며 추동되고 전진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물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객관적 조건과 환경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결코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는 되지 못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혁명의 주체에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도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아무리 좋은 사회주의건설로선을 내놓아도 그것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주체적력량, 혁명의 주체가 마련되여있지 않으면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없다. 혁명의 주체,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이 튼튼히 준비되여야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날수 있으며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진 사회정치적집단이다. 원래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은 분산되여가지고서는 혁명의 주체로서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다.

집단주의의 위력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여 가장 높이 발양된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인 힘으로써만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고 자주성을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은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단합된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 원쑤와 싸워서 승리하자고 해도 일심단결의 무기가 있어야 하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고 해도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 일심단결만 있으면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사회주의건설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자면 그것을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이 마련되여야 할뿐아니라 그에 대한 당의 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끊임없는 앙양은 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다. 당이 사회주의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자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정확한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제시하고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 실현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당이 인민대중과 일심단결을 이룩하였을 때 원만히 해결된다.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일심단결되여야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 가장 정확한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세울수 있으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또한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되여야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갈수 있으며 당의 령도가 대중의 창조적능력과 결합될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게 되며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결국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일심단결됨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켜 인민대중을 력사의 위대한 창조자로 되게 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서게 한다.

이것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일심단결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떠밀어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온 전로정은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며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일심단결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온 자랑찬 행로이다.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한 힘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고 빈터우에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전후복구건설시기는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으며 자금과 자재도 모자랐고 인민생활도 어려웠다. 전쟁의 상처를 아직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강재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우리 당이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남조선괴뢰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북진나발을 불어대고 당내 종파분자들은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나섰다. 조성된 난국은 엄중하였으며 뚫고나가야 할 시련은 준엄하였다.

믿을것은 인민대중밖에 없었으며 의거하여야 할 힘은 통일단결의 위력밖에 없었다. 이 준엄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았다.

전후 성한 벽돌 한장 없고 안팎의 원

쑤들이 악랄하게 책동하던 그처럼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대진군과 같은 위대한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된것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할 때 혁명과 건설에서 어떠한 전변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준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과 혁명대오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의 요구에 맞게 튼튼히 꾸려지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로 마련된 당과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의 위력한 힘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당이 제시한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구상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당이 한번 호소하면 전당이 동원되고 전체 인민이 들끓고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일떠선 충실한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서해갑문 건설을 비롯한 류례없이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으며 260여개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대상건설을 2년 남짓한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낄수 있었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혁명적인 군대와 좋은 인민이 있음으로 하여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1단계 건설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대상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으며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울수 있었다. 당과 인민이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이 빛나는 승리와 놀라운 성과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의 힘있는 시위로 된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도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하면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하고 착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졌으며 이것은 나라가 분렬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앞에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적공세로써 반혁명적공세를 맞받아나갔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전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대진군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온갖 장애와 도전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물리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오늘과 같은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것은 수령, 당,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조선혁명의 명맥이 끊기우느냐 아니면 다시 이어지느냐 하는 준엄한 시련과 엄혹한 난관이 닥쳐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그때마다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해나갔다. 단결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면 승리하고 사분오렬되면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 고귀한 혁명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한것처럼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힘의 원천도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고 있는 영예롭고 책임적인 임무이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사환군들은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헐뜯으면서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것은 그자체가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생활력의 과시로 되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공세에 대한 주동적이며 혁명적인 공세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계속 높이 울릴때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소동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주체사상의 견인력이 보다 강화되고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은 단결에 있으며 단결의 기초는 사상에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뭉치지 못한 단결은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힘으로 될수 없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자면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단합으로 되여야 한다. 단결의 공고성과 위력은 사상의지의 유일성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사상이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완벽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사상인것으로 하여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것을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의 지도사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당의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는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은 력사적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승리하고 완성된다. 그런것만큼 혁명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서의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도 대를 이어 옹호고수되고 발전되여야 하며 혁명의 세대교체와 함께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한다.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혁명의 수령, 당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은 혁명위업의 승리와 사회주의건설의 앙양을 위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하는것만큼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도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한다.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며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결속된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 사이의 관계는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이다.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지는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는 수령, 당, 대중이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루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믿음을 의리로 받들고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고있으며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혁명하려는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과 온갖 원쑤들의 반혁명적모략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오늘과 같은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는 전적으로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기고 영원히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로 나아갈 신념을 굳게 다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 한 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올린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의 한마음으로 일관되여있는 편지에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는 충성과 효성의 모범을 적극 소개선전하고 널리 일반화하여 모두가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충실성에 기초하여 당중앙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하는것이다. 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체득한 인민만이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단결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의 위대성 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령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동지적단결의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과정을 통하여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에 대한 믿음, 숭고한 목적 실현을 위하여 생사를 함께 할수 있다는 믿음을 깊이 간직하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우리는 동지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귀중한 전우로 믿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끌어줌으로써 동지적단결의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하며 단결과 협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로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다.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여부는 군중로선의 요구를 어떻게 철저히 관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의 모든 계기와 고리들에서 우리 당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이 구호에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밑에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또한 이 구호에는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게 함으로써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더욱 높이고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굳건히 다져나가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게 될 때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의 뚜렷한 표시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의 집중적표현이다. 우리 인민은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오늘을 일떠세웠으며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충성심에 불타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인민의 신념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려는 당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여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 위대한 일심단결을 이루고있다. 참으로 당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인민은 당의 의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이 있고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일편단심 당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 대를 이어 꽃펴나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심단결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은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투쟁력사가 보여주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온 우리 인민의 투쟁과정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기치,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계속 강화해나감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

김 충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10돐이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은 주체의 당사상사업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문헌에는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로부터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고 당사상사업에 대한 당위원회들의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문헌에 제시된 탁월한 사상과 방침들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만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항도적기치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당사상교양사업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인간개조, 사상개조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관, 혁명적수령관을 인생관화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로력적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가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문헌에서 밝히신 당사상사업 리론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우리는 당사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방침을 계속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키고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6페지)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야 그들을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혁명은 주체의 운동이며 주체의 주동적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승리하며 전진하는 사회적운동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자면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만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결합된 공산주의적집단으로 될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된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하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단합된 사회정치적집단이며 그 공고성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고있는 인민들의 사상에 의하여 담보된다. 혁명의 주체는 그를 이루고있는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된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공산주의적집단으로 될수 있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선 그들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의식화되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은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의식화되고 그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결속된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은 그들을 혁명의 주체로 되게 하는 전제로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단합시키는 요인이다. 사람들이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낡은 사상을 가지게 되면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할수 없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면 각성이 무디게 되고 의식적으로 활동할수 없게 되며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할수 없게 된다. 인민들은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라야만 의식화되고 그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될수 있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또한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공산주의적집단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공산주의적집단으로 만드는가 못만드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동지적으로 결합된 공고한 집단을 이룰 때 참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불패의것으로 될수 있다.

동지적으로 결합된 공산주의적집단이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하나의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생사를 같이해나가는 사람들사이의 공고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사람들의 사상은 그들을 동지적으로 결합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

람들은 사상의 공통성, 요구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된다.

동지적결합을 이룩하게 하는 사상적기초는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간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사상으로서 사람들을 하나의 공산주의적집단으로 결합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지 않는 결합, 순수 실무적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합은 진정한 의미에서 동지적결합으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적집단의 공고성과 위력을 담보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의 주체의 공고성과 위력은 그것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된 공산주의적집단이라는데 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공산주의적집단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된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다음으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에서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이 높은 사상의식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사람, 인민대중은 높은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릴수 있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인민들의 혁명적인 사상의식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그런것만큼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떠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그 주인이며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는 여기에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게 하는 기본열쇠가 있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특히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간고하고 복잡한 로정을 거쳐 승리하며 전진하는 력사적위업이다.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닥치게 되고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과 반동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아낼수 없으며 혁명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앞에 주저앉게 되고 사상적동요를 일으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적원칙마저 줴버리고 혁명을 포기할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홀시할 때 사회에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이 범람하게 되고 사상적혼란상태를 조성하게 되며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저버리고 수천수만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마련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아무

련 곡절과 편향이 없이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자면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높은 계급적각오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버릴수 있고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해온 우리 인민의 실천투쟁이 힘있게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주체의 사상론을 제시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그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혁명투쟁력사는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세가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혁명의 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들을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웠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묶어세웠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난관이 조성되거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함으로써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은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였기때문에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15개 추종국가 군대까지 동원하여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 타승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고수할수 있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였기때문에 우리 당은 또한 전후 미제와 그 괴뢰들의 북침소동이 강화되고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도전해나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놈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릴수 있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를 헤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으며 놈들의 공세가 집중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오늘 우리 인민이 추호의 동요없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대진군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는데서도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세계적규모의 서해갑문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와 같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 2,000리의 물길을 건설하여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천지개벽을 이룩한것은 그 뚜렷한 증시로 된다.

참으로 전체 인민이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혈연적뉴대로 련결된 우리의 일심단결, 이것은 우리 혁명

이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게 하는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립장을 견지하게 함으로써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수정주의를 비롯하여 온갖 기회주의를 정확히 가려보고 극복하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계급적원칙과 계속혁명의 정신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그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간직할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은 그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나라 현실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피줄기이며 사람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적량식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적극 따라배워 대를 이어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충성과 효성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지닌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게 하는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은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편지를 올림으로써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받들고 당과 운명을 같이할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들의 높은 충성심을 적극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에게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사람중심의 사회,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회제도라는데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특한 사회라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켜야 그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 기초하여 생겨나고 굳세여진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식의 독특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계속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의 주체사상과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당과 수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내여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를 지니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집단주의적생명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동지적단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을 좀먹는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할수 있으며 그것이 온 사회에 만연되는것을 막을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에서 진공상태란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키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강화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것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건전한 혁명적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의 성과도 당조직들의 옳바른 지도를 떠나서는 기대할수 없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사상사업에서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사상사업이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선전일군들은 당사상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시대발전의 지름길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들이다. 우리 선전일군들은 누구보다도 당의 사상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시대정신에 민감해야 하며 당사상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벌리기 위하여 항상 사색하고 사상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생명

리 원 경

인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것은 어길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이 력사발전의 법칙을 추동하는 힘은 바로 공산주의운동에 있다. 공산주의운동은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의 책동으로 하여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공산주의운동이 겪고있는 시련은 일시적인것이다.

공산주의운동이 오늘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도식과 교조, 사대와 굴종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도식과 교조에 빠져 발전하는 다양한 현실을 옳바로 보지 못하거나 사대주의에 물젖어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저버리게 되면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일시적난관앞에 굴복하여 력사의 궤도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실패와 좌절을 면할수 없게 된다.

공산주의운동의 담당자인 인민대중과 그 향도자인 로동계급의 당이 온갖 낡은 관점과 사고방식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이 운동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생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운동은 자주적인 운동이며 주체를 세우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생명입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주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과 관련되여있는 근본문제이며 이 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주체를 세우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운동이 존재할수도 없으며 전진할수도 승리할수도 없다.

주체를 세우는것이 공산주의운동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주체확립이 이 운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기때문이다.

공산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의 요구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혁명운동이다.

혁명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며 이 자주적요구는 혁명운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적전진과정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여왔던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력사적인 변혁과정이다. 이 과정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가 영영 끝장나게 되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 공산주의운동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가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되게 된다. 공산주의운동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최고리념으로 하고있는 가장 숭고한 혁명운동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로동계급의 당과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제 힘으로 벌려나가는 혁명운동이다. 이 운동은 어떤 외부의 의사나 지시에 의하여 전개될수 없다. 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력사적사명감을 자

각하고 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일떠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 발전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남에게 예속되여 자기의 신념이 없이 맹종맹동할 때에는 온갖 편향을 범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이렇듯 공산주의운동은 자주적본성과 창조적성격에 맞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는 혁명운동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운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려면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주체를 세우는것이 공산주의운동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전개되는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이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적전진과정은 이 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는 혁명운동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시대에 와서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는 혁명운동의 특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있다.

오늘 근로인민대중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마침내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난날 세기적으로 억압받고 멸시를 받아오던 수많은 피압박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그리하여 력사무대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나라들이 출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벌어진 력사적사변들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주인이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많은 나라들의 혁명운동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투쟁에서 국제적인 지지성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밖에 할수 없다. 자체의 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으면 비록 유리한 국제적조건이 조성되고 외부의 지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혁명은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없다.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혁명의 국제적환경이 비록 불리하다 하더라도 혁명투쟁에서 주도권을 틀어쥘수 있으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이것은 승리한 혁명이나 아직 승리하지 못한 혁명에 다같이 해당되는 혁명의 객관적원리이다.

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여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지 않고 외부의 힘에 기대를 걸면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없으며 나중에는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매개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주체를 확립하는것이 공산주의운동의 생명으로 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이 확증해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그 본성과 관련하여 발생의 첫 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민족적자주성과 창조적정신을 견지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혁명운동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단계에 따라 각이하게 해결되

여왔다.

지난날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저버린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비교적 날카롭게 전개되였지만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민족부대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을만큼 준비되지 못했던 사정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선행시기에는 공산주의운동이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만 벌어졌으며 이러한 나라들에도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였고 혁명의 주체적력량, 특히 지도력량이 충분히 마련되여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맑스가 창건한 제1국제당이나 레닌이 창건한 제3국제당에서는 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였다. 실제로 국제당은 여러 나라 공산당들에 대한 통일적지도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으며 반수정주의투쟁을 강하게 벌렸던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 공산주의운동은 매우 달라진 력사적조건에서 발전하고있다. 선행한 시기와는 달리 오늘 공산주의운동의 민족부대들이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그 지도력량도 높은 수준에서 꾸려지게 되였다. 공산주의운동은 자체의 지도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여 서로 다른 단계와 조건에서 벌어지고있는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을 제 힘으로, 독자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후에 조성된 혁명정세는 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 민족적자주성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력사적과업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산주의운동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전개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된것은 대국주의와 사대주의였다. 시대는 달라지고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나 일부 나라 당들이 자기의 견해와 로선을 다른 나라 당들에 강요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고있었다. 다른 한편 일부 나라 당들은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다른 나라 당들에 맹종맹동하면서 대국주의를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계속되였다. 이러한 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은 례외없이 곡절을 겪었거나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것도 아니며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전세계에서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어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이 없이 남에게 맹종맹동할 때에는 자기 나라 혁명을 망치는것은 물론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이룩된 력사적경험의 귀중한 총화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걸쳐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을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풀어나가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근본문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나라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사대주의가 우심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다.

민족해방투쟁시기에 사대주의자들은 남의 승인을 받아 당을 창건하고 남의 힘을 빌어 독립을 이룩하려 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해방후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심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에도,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도 언제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과 그들을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혁명위업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할수록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혁명전통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원리교양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더욱 굳게 결합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우리의 현실은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이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는가 아니면 중도반단하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것은 주체를 세우는것이 공산주의운동의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현시기 주체확립을 공산주의운동의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절실한 문제는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운동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저애하는 기본사조는 사대주의입니다.》

원래 사대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좀먹는 반혁명적사조이다. 공산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자체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인 운동인것만큼 혁명운동안에서 사대주의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사대주의는

수정주의사상,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독소를 끌어들이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대주의에 빠지면 수정주의를 가려보지 못하고 덮어놓고 받아들이며 나중에는 자본주의사상까지도 끌어들이게 된다. 사대주의자들은 하나와 같이 옳고그른것을 가려볼줄 모를뿐아니라 외부의 압력도 물리칠수 없는 무골충들이다. 결국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치게 된다. 사대주의는 공산주의운동과 량립될수 없다.

오늘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에서는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걸쳐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심각한 사회적변혁을 동반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간고하다 하더라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혁명적립장에서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 문제는 변화된 환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어떻게 견결히 고수하는가 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범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은 자주성과 창조성으로 일관된 가장 원칙적인 립장인것으로 하여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이 하라는대로 해서는 절대로 고수될수 없다. 사대주의에 물젖어 남이 시키는대로 움직이여서는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남이 시키는대로 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망쳐버린 쓰라린 경험을 수없이 보여주고있다.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사대주의를 하면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혁명적립장에서 물러서게 된다는것이 오늘의 시대적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나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이것이 복잡하게 엉켜져있는 현정세를 혁명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라고 할수 있다.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이다.

반사회주의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생리이다.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책동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이 세상에 없으며 제국주의는 멸망할 때까지 반사회주의소동을 버리지 않는다. 반사회주의소동은 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이 가까와올수록, 그들의 위기의식이 강화될수록 더욱 우심해지며 더욱 발악적인것으로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조성된 복잡한 정세에 편승하여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십자군원정》을 세계적범위에서 벌리고있다. 그들은 《평화적이행》전략에 매여달리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길로 되돌려세워 정치,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철저히 극복하고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

어야 한다. 환상은 그자체가 비과학적이지만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에 대한 몰리해와 그 힘에 대한 굴복에서 오는것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의 변종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오늘 사대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을 받아들이는 온상으로, 제국주의 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협조》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큰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 힘을 빌어 《평화적이행》전략을 추진시키려고 광분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큰 나라들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적기도를 물리치지 못하고 먹히우게까지 될수 있다.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이의 심각한 투쟁으로부터 응당한 교훈을 찾고 그에 대처할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은 공산당, 로동당들의 투쟁전략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우심해지는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가장 옳바른 투쟁전략으로 된다.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은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심각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그 영상을 흐리게 하고 사회주의리념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념을 허물어버리려고 광분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지니도록 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선차적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위업수행과정에 생긴 오늘의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없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일부 동구라파나라들이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나가는것을 극구 찬양하면서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도 그 길로 돌려세워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에 발맞추어 벌리는 일부 나라들의 대국주의적인 간섭책동은 날을 따라 우심해지고있다.

조성된 사태를 주동적으로 타개하려면 사대주의의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과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반석같이 다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그들이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며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끝까지 고수해나가야 할것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

박 태 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년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집단주의의 본질과 집단주의를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집단주의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집단주의에 관한 사상리론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집단주의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 사상과 리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입니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자기의 운명을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는것으로 하여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합니다.》

집단주의는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사상이다. 집단주의의 본질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적집단의 리익에 대한 충실성, 집단성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정신을 담고있다. 그것은 집단의 리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리익만을 내세우거나 반대로 개인의 리익을 무시하고 집단의 리익만을 절대화하는것과는 인연이 없다. 집단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리익도 있다는데 집단주의의 특징이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의 본성이라 할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말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데 있다고 밝히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 본질적특성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것을 본성적요구로 한다.

사람은 이와 함께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한다.

집단주의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오직 집단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할수 있다는것과 관련된다.

사람은 개체로서 살며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관계를 맺고 자신을 사회적집단과 결합시키며 사회적집단의 성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살아야만 사회적인간답게 생활할수 있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이처럼 사회적집단속에만 존재하고 활동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는것으로 하여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한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자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는것과 함께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물론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기때문에 제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개

별적사람이 개인의 힘으로 자기 개체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힘은 제한되여있으며 그것은 집단의 힘을 대신할수 없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회적집단속에서 살면서 집단의 힘에 의거하여야만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할수 있는것이다.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사람은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발양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훌륭히 개척할수 있게 된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집단주의에 기초해서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사람의 운명 개척의 방도는 사람의 본성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는 그들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세워져야 운명개척의 가장 옳바른 방도로 된다. 사람은 자기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할수 있기때문에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발양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필연코 집단주의에 의거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보람있고 값있는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할수 있게 한다.

보람있는 생활을 하려는것은 사회적인간, 자주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인간의 생활은 사람의 운명문제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만일 사람의 운명문제가 인간의 생활과 관련없는 추상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게 될것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운명문제는 곧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다. 사람은 사회적인간답게 보람있게 생활하며 발전하려는데로부터 언제나 자기 운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한다. 사람들이 어떤 불행한 인생에 대하여 동정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기구한 운명》 또는 《곡절많은 운명》이라고 말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생사존망, 그 발전도에 관한 인간의 운명문제가 다름아닌 인간의 생활문제와 떼수 없이 련결된 하나의 통일된 문제이며 보람있게 살며 생활하려는것이 인간의 지향이며 본성적요구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은 원래 자기의 본질적특성, 본성적요구에 맞게 사는것을 보람있는 생활로 여긴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을 본성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람있는 생활로 여길뿐아니라 사회적집단속에서 사는 존재이기때문에 집단주의적생활을 보람찬 생활로 여긴다.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는것만큼 생활의 가치는 그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한 생활일수록 그만큼 값높은 생활로 되며 그러한 값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수 있다.

만일 사람이 사회적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한생을 마친다면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무한것으로 될것이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기여한것이 없고 남긴것이 없기때문에 이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던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것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호의호식하면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사회를 위하여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한생은 력사에 남긴것이 없다.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사는 생활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게 되며 그것은 미래가 없는 생활이다. 그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집단주의적 생활은 자기 개인과 자기 세대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영원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생활인것이다.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집단주의적 본성에 맞는 생활이며 집단과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보람찬 생활이며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력사에 길이 남게 될 값높은 생활로 된다. 사회적집단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한몸의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고 탐욕을 부리는것은 사실상 동물의 생활과 다를것이 없다.

집단주의적생활은 그자체가 보람있는 생활일뿐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참된 길을 밝혀주는 값높은 생활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집단주의적생활과 함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사회적집단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람은 사회생활,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니게 된다. 자주성, 창조성은 사회적속성인것으로 하여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도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사람은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고독하게 사는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 투쟁의 한길에서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이처럼 집단주의적생활은 그자체가 보람찬 생활인뿐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것으로 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의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생활로 되며 사람의 생활은 그것을 본성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집단주의는 또한 사회적집단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할수 있게 한다.

힘있는 존재로 되려는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인것만큼 힘있는 존재로 살며 발전하려고 한다.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며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높여나가는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운명 개척의 본질적특징이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며 활동한다. 여기로부터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며 사람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를 높여나감으로써 자기 운명을 개척하게 된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를 높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자면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창조적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적집단의 창조적위력을 강화하는 근본조건이다. 집단주의가 사람의 창조적위력을 강화하는 근본조건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존방식인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처음부터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왔다.

단결과 협력은 사람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단결과 협력은 개별적사람들을 사회적집단에 결합시켜줄뿐아니라 집단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이룩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물질문화적재부를 늘여나갈수 있게 한다.

사람은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힘을 합쳐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왔을뿐아니라 사회적운동을 전진시켜왔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단합된 인민대중이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의 힘은 집단주의를 어떻게 발양하는가에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힘이 위력한것은 그것이

단합된 힘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분산되여가지고서는 아무리 수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혁명의 주체로서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다.

단결은 곧 힘이며 투쟁의 무기이다. 적과의 대결에서나 자연과의 투쟁에서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하는 법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단결은 혁명의 주체가 필승불패하는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집단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돕고 이끌어주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존방식인 단결과 협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여준다. 집단주의는 그 본성으로 하여 단결과 협력을 가장 높은 형태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집단주의가 사회적집단의 위력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을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게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는것을 증시하여주고있다.

이처럼 집단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며 사회적집단의 위력을 강화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로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집단주의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은 리론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 사상이 집단주의에 관한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는데 있다.

집단주의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 사상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집단주의를 요구하게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집단주의의 근원문제를 새로운 원리적토대우에서 완벽하게 해명하여주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자주적인간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를 집단주의의 유일한 기초로 보고 그것이 확립되기만 하면 집단주의가 저절로 발양되고 사람들의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물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는 집단주의의 발생발전의 객관적, 물질적 기초로서 그것을 떠나서는 전사회적범위에서의 집단주의의 확립과 공고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의 확립과 공고발전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였다고 하여 집단주의가 저절로 사람들의 활동방식으로 굳어지는것이 아니다.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사람들의 활동방식으로 확고히 굳어지자면 그 주인이며 담당자인 사람들자신이 그것을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였다고 하여도 집단주의가 그 담당자인 사람에게 본성적요구로 자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생활에서 꽃펴날수 없으며 사람들이 참말로 집단주의적으로 살며 활동할수 없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집단주의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 사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본성과의 관계에서 집단주의의 근원문제, 기초문제를 새롭게 밝힘으로써 집단주의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빛나게 완성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집단주의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준데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인것만큼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하여서만 옳게 운영될수 있고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결국 집단주의의 우월성이며 사회주의적방법은 다름아닌 집단주의적방법이다. 사회주의는 오직 집단주의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 집단주의적방법에 의

거하여야 자기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편향과 우여곡절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난관이 부닥친다고 하여 집단주의원리를 버리고 개인주의적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난관을 극복할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집단주의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 사상과 리론은 사람의 집단주의적본성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줌으로써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 바로 여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집단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가지는 또하나의 의의가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집단주의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 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집단주의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습니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인민대중은 집단주의적본성에 맞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다 집단주의가 사람의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은 아니였다.

물론 지난날 착취사회에서도 외래침략자들과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민들은 집단적항거의 정신을 발휘하였으며 어려운 생활처지를 서로 힘을 합쳐 개선해나가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사적소유는 언제나 개인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집단의 리익도 서슴없이 해치도록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때문에 착취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하나의 사회사상으로 보편화될수 없었다. 특히 반동적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의 단합을 두려워하는데로부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가 발양되는것을 억제하고 개인주의를 고취하여왔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면서 비로소 그의 계급적사상으로 전환되였으며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였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뿐아니라 개인의 리익도 존중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이 일치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와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집단주의를 사회생활의 기초로, 활동방식으로 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집단주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 가장 높이 발양되고있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뿐아니라 개인의 리익도 존중되고있으며 매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이것은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집단주의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집단주의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된다. 집단주의가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

로게 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는 집단주의가 집단의 의사를 대표하는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결속된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여 발양되기때문이며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참다운 인간관계가 높이 발양되기때문이다.

집단주의는 사람들이 굳게 뭉쳐 서로 사랑하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단결이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곳에 집단주의가 높이 발양될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참다운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들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사회정치적집단안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게 한다. 그리하여 집단생활, 공동활동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생활원칙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할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커다란 우월성이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 집단주의가 가장 높이 발현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혁명을 해나갈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우리 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우리 인민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온 사회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시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시였으며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전진하는 강력한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렇듯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집단주의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에 자기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온 세상 사람들의 감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우리 사회의 숭고한 미풍이 있으며 그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집단주의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집단주의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특출한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

안 천 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률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행동을 실현해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서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6페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중요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은 그 직접적담당자, 주인인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사상의식, 혁명적열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높은 정치사상적열의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쟁할 때 사회주의제도는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우선 사회주의법의 인식교양적작용을 높여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주의정신을 비롯한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확고히 지닐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인 사회주의법에는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집단과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모두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하며 생활할데 대한 요구, 그 실현에서 나서는 제반 과업과 방도들이 행위준칙의 형태로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개인리기주의가 사회관계의 기초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법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의 본질적특성이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법에만 고유한 집단

주의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규범적요구들을 통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하고 생활하는 관점을 보다 명확히 세울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을 통하여 법에 구현된 집단주의적원칙과 요구들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게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강화되면 또한 사람들의 법의식이 높아져 사회주의법에 규정된 집단주의요구를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규률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현상, 개안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온갖 부정적현상과의 투쟁이 심화되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집단주의정신을 키워나간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주의정신과 함께 고상한 공산주의적풍모도 지닐수 있게 한다.

혁명과업수행에서의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립장, 로동에 대한 성실한 태도, 검박한 생활기풍, 고상한 공산주의적풍모는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사회주의법의 작용이 강화될 때에 보다 확고히 형성되게 된다.

사회주의법에는 공동로동과 사회활동,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지키고 집행해야 할 행위준칙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법규의 이러한 요구들을 준수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에 구현된 공산주의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게 되며 사상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준법기풍, 법무생활기풍을 세우면 세울수록 사람들은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더 빨리 교양개조되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낡은 사상 잔재의 발현을 철저히 막을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게 한다.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고 뒤떨어진 사상잔재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빼지 않고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수 없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법의 통제적역할을 높임으로써 사람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법적통제는 법준수집행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법적제재를 가하는 국가기관들의 권력적활동이다.

법준수집행에 대한 료해장악사업은 낡은 사상 잔재의 발현을 제때에 적발하고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법준수집행에 대한 료해장악사업을 실속있게 할 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법무생활실태를 정확히 알게 되고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낡은 사상 잔재의 발현으로서의 위법현상이 생겨나고 자라날수 있는 틈을 없앨수 있으며 위법현상으로 인하여 초래될 후과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적통제의 날을 세우는것은 이처럼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으로서의 위법현상을 철저히 없앨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적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더 잘 갖추어나가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경제문화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뿐아니라 경제문화건설을 잘하여야 공고발전될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문화제도를 공고

히 하는데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경제문화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는것은 사회주의법의 조직동원자적역할과 관련된다.

사회주의법이 경제문화건설에서 조직동원자적역할을 한다는것은 당의 경제문화정책을 법화하여 그 집행을 국가경제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의무로 만들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그 관철에 떨쳐나서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법은 우선 당의 경제문화정책을 법화하여 행동규범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당의 경제문화건설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해준다.

사회주의경제문화분야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생산과 건설, 분배와 류통,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과 교육, 보건 등 문화건설에 필요한 활동원칙과 행동준칙들을 상세히 담고있다. 이러한 법규범과 규정들은 경제업무활동, 생산활동을 조직화, 규범화하며 경제문화관리사업을 정상화하게 하며 나아가서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복무한다. 그것들은 또한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문간, 공정간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계약규률이 철저히 보장되게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함으로써 경제문화건설의 순조로운 발전을 담보한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은 무질서와 무규률, 무책임한 현상, 요령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온갖 그릇된 현상과의 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원만히 진행할수 있다.

사회주의법은 생산과 건설, 문화발전에 저애를 주는 온갖 그릇된 행위를 위법적인것으로 규정하고 그것들과의 투쟁을 예견하고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법의 규제적, 통제적 기능을 높여 온갖 위법현상들이 배겨내지 못하게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릴수 있으며 경제문화기관들에 대한 법무기관들의 검열, 감독 및 통제적 기능을 높여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기관, 기업소 안에 정연한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법의 조직동원자적작용과 통제적기능을 높여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중요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은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리는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에 정치적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려는 계급적원쑤들의 사소한 준동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적대분자들에 대한 사회주의법의 진압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계급투

쟁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법의 진압적 기능을 높여야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튼튼히 세워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제도를 공고히 하는데서뿐아니라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해나가게 하는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인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사회주의법은 인민정권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주의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소이다.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이 국가주권행사와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 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사회주의법은 또한 국가기관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하는 활동원칙과 행동규범을 상세히 규정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법이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즉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바로 사회주의법의 이러한 작용을 높여줌으로써 사회주의정치가 진실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집대성한 정치로, 국가활동이 전적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활동으로 되게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참으로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준법교양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법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인 정연한 준법교양체계를 세우고 법무일군들과 법무해설원들의 역할을 높이게 하였으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준법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의무성의 정신을 가지고 누구나 법을 의무적으로 철저히 지키게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치외법권적인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위법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소한것이라 하여도 묵과하지 않고 강한 투쟁을 벌리게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이 생활화, 습성화되게 되였으며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의무적으로 준수집행하는 강한 준법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또한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가 더 잘 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가 더욱 공고발전하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

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배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는 어디까지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법적통제를 합리적으로 배합하는것이다.

준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적인 법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법규범의 요구들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하는것이다.

특히 자기 부문과 관련된 법규를 잘 알게 하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준법교양은 이와 함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생동한 실례와 결부하여 참신하게 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하면서 법적통제를 또한 강화하여야 한다.

위법현상은 사람들의 낡은 사상에 그 근원을 두고있는것만큼 강한 법적통제가 배합되여야만 성과적으로 극복되게 된다.

법적통제에서 중요한것은 검열감독사업을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중에 의거하고 과학적자료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고 공명정대하게 벌려나가는 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주권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주권기관안에 설치되여있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관할지역안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정연한 준법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안의 법무해설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철저히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특히 위법현상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적가치가 크게 투쟁형식을 바로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 검찰안전 기관들이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불순적대분자들이 그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은 법의 준수집행정형을 기준으로 삼고 진행되는 특수한 형식의 대중운동이다.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우선 군급지도일군들이 이 운동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 군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 결의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수시로 총화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미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받은 군들에서는 그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보다 높은 결의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그 실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기층 당조직건설경험

한 영 길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자기의 력사적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상히 풍부하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쌓아올리며 당조직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왔다.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력사를 돌이켜볼 때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커다란 긍지를 가지게 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이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는 존엄있고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된것이다.

우리 당이 주체혁명위업의 개척기로부터 당건설의 전로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과 혁명의 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있으며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할수 있은것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당건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온데 있다. 우리 당이 계승발전시켜온 당건설전통의 내용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기층당조직건설경험이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기층당조직건설경험에 의거하여 언제나 기층당조직들을 먼저 튼튼히 꾸리고 그 기초우에서 전당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전투력과 높은 령도력을 지닌 전위대오로 발전하여올수 있었다.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조직체계에서 기층을 이루는 말단단위의 조직을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잘해나가야 당창건준비기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또한 창건된 당을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위업 수행에서 항구적으로 제기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우리나라에서의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적인 기층당조직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당조직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빛나게 개척하여오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소조들을 묶어세우거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부터 혁명파가 분리되여나오는 방법으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것이 일반적현상으로 되여있었다. 그것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당중앙을 먼저 선포한 다음 당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당을 건설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길을 걸을수 없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공부나 하고 제가끔 파벌을 뭇고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면서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돌아다니던 나머지 모처럼 시작한 초기공산주의운동을 말아먹는 망동을 부렸다. 그러므로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종파사대주의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하여서는 결코 혁명적당을 건설할수 없었다. 혁명적당을 건설하려면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야 하였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하였다. 이 사업은 당의 기층조직들을 먼저 내오고 끊임없이 확대강화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깊이 통찰하시고 1930년 6월에 있은 카륜회의에서 자주성의 원칙에서 당을 창건하되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은데 토대하여 당창건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며 당이 창건되기전에도 기층당조직들을 통하여 혁명투쟁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구현하시여 새세대 공산주의자들로 기층당조직들을 내오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기층당조직건설사업에서는 참으로 고귀한 경험들이 이룩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성의 당창건방법과는 달리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뭇고 그것을 모체로 각지에 당조직들을 확대하시면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은 토대우에서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기층당조직을 비롯한 각급 당조직을 조직지도하는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기층당조직건설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옳바른 혁명적원칙을 가지고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을 벌려나간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조직건설에서 견지할 혁명적원칙을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옳바른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 당조직건설에서 있을수 있는 편향을 미리 막을수 있으며 조직된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과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 생소하게 진행되였던것만큼 기층당조직건설에서 견지할 혁명적원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는 문제는 매우 심중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조직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구체적실정에 맞게 기층당조직건설사업에서 지켜야할 혁명적원칙들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층당조직건설사업에서 견지하도록 하신 원칙적문제들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기층당조직들을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직하고 지도하며 종파사대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기층당조직들을 확대해나가는것이였다. 그것은 또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을 진행하는것이였다. 이러한 혁명적원칙들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임무,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칙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근본목적은 당조직을 통하여 혁명운동에 대한 당적령도,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옹호고수하고 실현하자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을 잘해나가자면 마땅히 당조직건설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내오면서 이 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길만이 우리 나라에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엄중한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기층당조직건설원칙이 정확히 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당창건준비기에 벌써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이 옳바른 궤도우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 원칙에 따라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기층당조직들을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해나간 결과 결성된 당조직들이 처음부터 주체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세우고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전위조직으로 꾸려질수 있었다. 또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묶어세워 당조직을 내오는 원칙에서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을 진행해나가게 됨으로써 일제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가능한 모든곳에 당조직들을 빨리 확대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성과적으로 보장해나갈수 있었다. 그리고 당조직건설사업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기층당조직들을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핵심들로 튼튼히 꾸릴수 있었으며 기층당조직들이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계몽각성시키며 투쟁에로 이끌어주는 교양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당조직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어려운 사업이였지만 이처럼 옳바른 혁명적원칙이 제시되고 그것이 확고히 견지됨으로써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현실적요구에 맞는 당조직건설의 옳바른 원칙을 가지고 기층당조직을 건설한 경험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당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기층당조직건설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조직의 참다운 원형을 마련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해나간것이다.

당조직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담보는 당조직의 참다운 원형을 마련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려나가는데 있다. 이 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완성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며 당건설위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의 필수적요구에 맞게 기층당조직의 원형을 마련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들을 확대해나가실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데 기초하여 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조직사상적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데 기초하시여 1930년 7월 3일 카륜에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첫 당조직은 《ㅌ.ㄷ》의 강령을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첫 당조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오의 조직사상적단결을 이

록하며 광범한 군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건설의 혁명적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첫 당조직은 사대와 교조, 종파와 분렬로 조선혁명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악페를 가시고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참다운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었다. 첫 당조직의 결성으로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였다.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아직은 당중앙을 내올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당조직건설사업이 시작에 불과하였던 당시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들을 합리적으로 내오면서 확대해나가는것은 당조직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였다.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당조직을 보호하는 문제도,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 문제도,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해나가는 문제도 기층당조직들을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확대하여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능한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을 추진시킬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항일무장대오와 유격구역에서는 물론 적통치구역에서까지 기층당조직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확대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들과 각 부대들의 지휘단위들에 당세포들이 조직되였다. 유격근거지에서는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여 당세포를 내왔으며 적통치구역에서는 당원 3명이상을 묶어서 당세포를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층당조직들은 지난날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던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처럼 계급적립장이 튼튼하지 못한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레세식맑스주의자들로 조직된것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출신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혁명적지식인들을 망라하여 건설되였다. 그리하여 첫 당조직이 결성된후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북부국경일대에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기층당조직들이 수많이 결성되여 활동하였으며 1930년대 후반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의 기층당조직들이 더욱 정비되고 유격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넓은 지역과 국내깊이에서 기층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였다. 이것은 실로 주체형의 당조직,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함으로써 이룩된 당조직건설의 커다란 승리였다.

당조직의 참다운 원형을 마련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들을 확대해나간 이 고귀한 경험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층당조직건설사업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완성할수 있는 준비를 원만히 갖추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기층당조직건설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을 높여나간것이다.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은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투쟁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나갈수 있는 실제적힘이다.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이 높아야 당조직자체를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다. 특히 간고한 투쟁조건에서 어렵고 복잡한 혁명임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조직들이 자기의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과 일제의 파쑈적탄압을 이겨낼수 없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해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층당조직들을 빨리 확대하여나가시는 한편 그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기층당조직건설의 고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조직들의 지도핵심을 육성하고 그들을 기층당조직들에 배치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기층당조직들의 지도핵심을 육성하는 사업은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투쟁열의가 높으며 대중의 신망이 있는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과 진보적지식인들을 지도핵심육성대상자로 료해장악하고 그들을 항일무장대오와 반일대중단체들에 망라시켜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렇게 키워진 지도핵심들을 그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지방의 당조직들에 배치하였으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이 질적으로 공고화되였으며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조직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해나가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층당조직들에서는 조직관념을 높이고 제정된 당생활규범을 지키며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끊임없이 해설하였으며 자그마한 무규률적인 현상도 묵과하지 않고 제때에 비판하였다. 기층당조직들에서는 특히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웠다.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층당조직들은 안팎의 원쑤들의 사면포위속에서 활동하는 조건에서도 분파와 변질을 모르며 날로 강화발전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정연한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급속히 확대되여나가는 기층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 그 전투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진행되는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게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결성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고 온성지구당위원회, 연사지구당위원회, 국내당공작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적당지도기관들을 내오시여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령도밑에 해당 지역에서 산하기층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체계를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기층당조직들의 사업과 활동이 정확히 조직지도되고 그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당조직건설사업은 계속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기층당조직건설경험에는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부터 당조직의 원형을 마련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들을 확대하며 조직된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층당조직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보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이 경험은 그 내용의 혁명성과 전투성, 과학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력사적뿌리로, 주체적인 당건설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기층당조직건설경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제때에 당창건위업이 완성될수 있었으며 조선로동당은 명실공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 건설의 자랑찬 현실은 당의 기층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끊임없이 강화하는 길만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성과가 크지만 자만할 근거는 없으며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전투적위력과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이고 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당을 약화시키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세할 때 인민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와해되게 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 있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는 바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주체적인 당건설의 빛나는 전통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열쇠가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 청년당원들 속에서 기층당조직건설경험을 비롯한 항일의 혁명전통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당조직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우리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들과 초급당위원회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주체의 당건설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와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억세게 틀어쥐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며 조국통일의 민족적숙망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운것은 우리 당의 불패성의 확고한 담보

김 기 빈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대렬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한 불패의 당으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운데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제시된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은 계급의 최고대표자,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 사회적집단의 운명을 개척하고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지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을 중추로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 최고뇌수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의 생명유기체에 모든 생명활동을 지휘조절하는 뇌수가 있듯이 사회정치적생명체에는 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뇌수가 있게 되며 바로 그러한 뇌수의 역할은 수령이 하게 된다.

수령, 당, 대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공고성과 생명력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여야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이룩되고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운명이 빛나게 개척되여나간다.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중추를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다.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지도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이 자기의 혁명적본성에 맞게 건설되고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기초하여 전당과 사회정치적생명체전반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당의 불패성의 확고한 담보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만들수 있게 한다.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될 때 이룩

될수 있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을수 있으며 당안에 여러 갈래의 사상이 있으면 당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도 참다운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의 공통성과 유일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리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실무적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결은 사상투각과 같은것이다. 당안에서 여러 갈래의 정치적견해를 허용하여 제각기 자기의 주의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당이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 활개칠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이 사상적으로 와해되고 조직적으로 분렬되는것을 막을수 없다.

당의 불패성을 담보하는 당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당안에 수령의 사상만이 차넘치게 하고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절대로 배겨내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당의 불패성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세움으로써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을 위하여 조직된 정치적부대이며 당의 전투적위력은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과 혁명적질서에 따라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참말로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안에 무규률성이 존재하고 자유주의의 사소한 요소라도 허용되면 그러한 당은 제구실을 할수 없고 무기력한 존재로 되고만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만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중앙집권적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철저히 세울수 있고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정치적자각성에 기초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할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함으로써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당의 위력은 곧 당의 령도력의 발현이다. 령도적역할을 떠나서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의 불패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높은 령도력을 가지고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의 령도력은 령도의 유일성에 의하여 담보되며 그것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확고히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목적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뿐아니라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는데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만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처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함으로써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들을 없애고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우리 나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헤아릴수 없는 해독을 끼쳤으며 우리 당 건설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없었을뿐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었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으며 특히 전후시기에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않고 제때에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사상사업을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당안에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당이 진행한 주되는 투쟁은 또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되게 된다.

우리 당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적발분쇄하고 놈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였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의 온상인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종파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

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청산한 다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1970년대에 더욱 힘있게 전개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원칙들을 새롭게 제시하심으로써 당안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려면 전당을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원칙들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념화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밝힘으로써 당안에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세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새로운 원칙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울데 대한 문제가 명시되여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만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도록 하였으며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정확한 목표와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수행되는 위업이며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에 의하여 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이다. 그러므로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수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을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간부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릴데 대한 방침, 당안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울데 대한 방침,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등을 제시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되였으며 당

의 위력은 불패의것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무엇보다도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에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일심단결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된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오늘 모든 당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생명과 같이 귀중하며 그것이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는것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고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말을 하여도 주체의 사상의지대로 한결같이 말하며 걸음을 걸어도 당이 가리키는 주체의 한길로만 걷고있다.

우리 당에는 이렇듯 주체의 신념만이 차넘치고있으며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발붙일수 없게 되였다.

전체 당원들이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오직 당과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결심밑에 굳건히 단결되여있다. 바로 이것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위대한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참다운 모습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당은 또한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수령의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사업체계와 규률이 튼튼히 서있다. 당사업과 당활동이 철저히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진행되고있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의도대로 한결같이 움직이고있다. 순간을 살고 한생을 살아도 당과 수령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까지 쭉쭉 내려가고있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 대외분야에서 모든 사업이 철저히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이것은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된 우리 당의 면모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우심하고 정세가 그처럼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 당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함이 없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는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높여온데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그 예봉을 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거세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제기된 혁명과업이 어렵고 방대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생명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라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강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사상의 침습을 막지 않고서는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할수 없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당,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이색적인 사상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전당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당의 조직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견지하여야 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을 세울수 있으며 당이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자기 활동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하며 중앙집권제를 앞세우는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는 민주주의,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떠난 순수민주주의, 부르죠아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절대로 당안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기 위하여 당안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을 세우고 당사업,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하고 처리하며 당의 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사업, 당생활 전반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원대중의 창의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에 의하여 마련된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감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당원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와 자질

박 춘 학

당원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서 선발된 정수분자이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을 결심하고 자진하여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다. 당원들이 혁명가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소유한다는것은 정치사상적풍모와 도덕적풍모, 사업기풍과 생활기풍, 실무적자질 등 모든 면에서 준비된 공산주의혁명가로, 정치활동가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당원이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소유하는것은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60페지)

조선로동당원은 보통의 혁명가가 아니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풍모와 높은 자질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자이다.

공산주의혁명가의 풍모와 자질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세계관, 혁명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투사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있다. 주체사상을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원이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소유하는것은 자기의 숭고한 시대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영광의 년대인 1990년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1990년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전환의 시기이다. 이 영광의 년대에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하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제국주의자들이 광란적인 반사회주의책동을 벌리고있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당앞에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 난관이 앞을 막아나설수록 투쟁의 앞장에 서서 기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당원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1990년대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원들이 지닌 숭고한 시대적사명으로 되고있다.

당원들이 자기의 숭고한 시대적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자신을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당원들은 당을 받드는 고임돌이 되여 당의 위업을 언제나 믿음직하게 받들어왔다. 간고한 시련을 헤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적로정의 갈피마다에는 당의 위업을 받들어온 우리 당원들의 영웅적투쟁이 수놓아져있다.

당원들은 자신을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고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함으로써 1990년대를 우리 혁명의 투쟁사에서 또다시 영광의 년대로 빛나게 장식해나가야 한다.

당원들이 자신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상한 풍모를 지녀야 한다.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수령관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을 이루는 수령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위업 수행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원의 정치사상적풍모에서 핵을 이룬다.

당원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인것만큼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자기의 고귀한 품성으로 삼고있다. 당원들의 정치사상적풍모를 이루는 이 모든 품성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토대하여 형성되며 높이 발양된다.

수령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이다.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곧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으로 된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면 할수록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원의 제일생명이다.

혁명가인 당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며 당원들은 바로 사회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가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참된 삶을 누려나간다.

당원들이 간직하고있는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이 이끄는 로동계급의 혁명조직가운데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한 성원으로서 지니는 가장 고귀한 생명이다.

당원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해서는 그 고귀한 생명을 안겨준 수령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위업 수행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원의 기본품성이며 제일생명이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숭고한 높

에에서 간직한 진짜배기충신이 되여야 한다.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이다.

당원들이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다는것은 언제 어디서나 당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생활 규범과 준칙,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의무적으로 지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혁명적조직관에 기초하고있는 당원의 고유한 품성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조직은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이며 당원은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서만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된다. 그런것만큼 당원은 당조직을 자기 생명의 모체로서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여야 한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한 성원인 당원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당은 참말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이 없는 당은 오합지졸과 같으며 그러한 당은 적과의 싸움에서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할수 없고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다.

당의 생명과 그 전투력의 원천은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으며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적특성이다.

당원은 최고형태로 조직된 부대인 당의 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로동계급의 당의 특징으로 되고있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져야 한다.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이다.

혁명적도덕관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 높은 인간성과 문화성 등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은 당원의 도덕적풍모를 이룬다.

물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인 당원의 풍모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사상적풍모이다. 이와 함께 도덕적풍모도 당원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풍모의 하나로 된다. 도덕이 없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것과 같이 도덕적 품행이 바르지 못한 당원은 참다운 당원이라고 할수 없다.

당원의 정치사상적풍모도 고상한 도덕적풍모와 결합될 때 비로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도덕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정치사상생활도 바로할수 없고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생활에 빠지면 혁명의 락오자, 변절자로 굴러떨어질수 있다.

당원은 집단주의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기초하고있는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지녀야 진정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은 군중과 늘 사업하는 당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당원은 군중의 교양자, 조직자이다.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당원들이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당원들이 집단생활과 군중을 대하는데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높이 발양하여야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고 그들과 어울릴수 있으며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발동할수 있다. 도덕품성이 바르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면 당원들이 군중을 교양할수도, 투쟁에 불러일

으켤수도 없으며 당원의 자격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당원들은 언제나 당과 혁명,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리익을 희생할줄 알며 혁명적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높은 인간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에 세심히 관심하며 겸손하고 례절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가적기풍은 당원들이 소유하여야 할 중요한 풍모의 하나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기풍,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며 이신작칙하는 기풍 등 혁명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인 당원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다. 당원은 혁명과 투쟁으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로동계급의 당의 당원답게 정치도덕적으로 전진할뿐아니라 사업하고 생활하는 태도와 작풍에서도 혁명적이고 전투적이여야 한다. 혁명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은 당원들에게서 뗄수 없는 중요한 풍모로 된다.

당원은 고상한 풍모와 함께 높은 실무적자질을 소유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투쟁하는 선봉투사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하자면 그들이 비당원들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높은 정치적열성에 실무적자질이 안받침되여야 충실한 당원이 될수 있습니다.》

당원은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대중의 앞장에 서서 남보다 사선도 먼저 헤쳐나가는 선봉투사이다. 당원이 대중의 선봉투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혁명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높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한다. 실무능력이 없이 정치적자각 하나만으로는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당이 맡겨주는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실무적자질을 갖추는것은 당원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당원은 또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 정치활동가이다.

당원들이 정치활동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맡은 혁명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조직능력을 가져야 한다. 당원이 아무리 정치적열성이 높고 기술실무적능력이 있어도 대중을 움직일수 있는 조직적수완이 없으면 정치활동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이처럼 당원은 고상한 풍모와 함께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며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높은 실무적자질을 겸비하여야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원들이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혁명가의 풍모와 자질을 다 갖추고 당에 들어오는것이 아니며 또한 당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것을 스스로 지니게 되는것도 아니다. 완성된 혁명가란 있을수 없는것처럼 혁명가의 풍모와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갖춘 당원이란 있을수 없다. 당원들은 오직 꾸준하고도 끊임없는 혁명적 수양과 단련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을 고상

한 풍모와 자질을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해나갈수 있다.

학습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갖추기 위한 사상수양의 중요한 방도이다. 학습을 강화하여야 모든 당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고상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철저히 갖출수 있으며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의 자질을 더 잘, 더 빨리 소유할수 있다.

당원들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누구보다도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워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수양하고 깊은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혁명가의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당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생활과정에 당원들은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직성과 규률성 등 혁명가의 품성을 키우게 되며 정치활동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나가게 된다.

당원들은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함으로써 자신을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혁명적실천은 공산주의자의 품성과 자질을 소유하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방도이다.

사람들의 풍모는 실천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며 혁명실천과정에서 공고화된다. 사람들의 실무능력도 혁명적실천과정에 끊임없이 높아진다.

당원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하고 실무능력을 키움으로써 공산주의적품성과 혁명가적기풍을 완성하고 공고화하는 동시에 실무적자질을 더 잘 갖추어나가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은 그들을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갖춘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는 동시에 당원들이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원들의 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도 배우고 문화지식수준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당원들에게 군중을 교양하고 당정책집행에 조직동원할데 대한 정치사업분공을 많이 주고 그 집행과정을 지도통제하면서 그들이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고상한 풍모와 자질을 철저히 갖춘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

주 용 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입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5페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은 사회적생산순환의 첫 단계를 이루거나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앞세워나가야 할 부문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로 광업, 석탄공업, 림업과 같은 채취공업부문들과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문이 속하게 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은 생산순환의 출발적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원료, 연료, 동력을 생산하여 가공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보장하게 된다. 선행부문은 또한 수송을 통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을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인민경제를 하나의 생산유기체로 련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킨다는것은 채취공업, 전력공업 부문의 생산능력과 철도운수의 수송능력을 수요보다 앞세워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늘어나는 원료와 연료, 동력과 수송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민경제를 활력있게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사회적생산은 로력, 설비와 함께 원료와 연료, 동력이 제때에 보장되여야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 생산과정은 끝 원료와 연료, 동력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과정이다. 생산의 필수적요소를 이루는 원료와 연료, 동력이 원만히 보장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공장, 기업소들을 수많이 건설하여놓았다 하더라도 크게 은을 낼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

시킬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적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고 하여도 어디에서나 요구되는것이 원료와 연료, 동력이며 수송에 대한 수요이다. 그러므로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워나가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사회적생산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풀자면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광업, 석탄공업과 전력공업은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원료, 연료, 동력의 대부분을 생산하고있으며 철도운수는 우리 나라 교통운수의 기본형태로서 화물수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원료와 연료, 동력의 생산과 수송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선행부문의 발전에 크게 달려있다. 채취공업, 전력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면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광석, 석탄, 전력을 비롯한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훨씬 늘이고 그것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제때에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철도운수를 앞세워야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계획에 예견된대로 원료와 연료를 미리미리 마련해두고 생산계획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생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경제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생산의 정상화는 경제발전의 계획성을 전제로 하며 인민경제의 균형이 옳바로 보장될 때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균형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에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을 비롯한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균형이 옳게 설정되고 보장되여야 생산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빨리 발전할수 있게 된다.

재생산과정을 실현하는데서 련관된 고리들 사이에 맺는 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인민경제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부문들 사이의 균형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부문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의미하며 그것은 련관된 부문들 사이에 필요한 생산수단들을 서로 주고받는 량적적응관계로 나타난다. 인민경제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여야 생산순환의 모든 고리들사이, 생산요소들사이의 련계를 유기적으로 맞물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균형, 전력공업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 사이의 균형, 생산과 수송사이의 균형을 원만히 보장해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이 빨리 발전하게 되면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문들이 다른 부문들보다 확고히 앞서나가게 되며 이로부터 인민경제적인 생산순환을 실현하는 부문들과 고리들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인민경제적인 범위에서 재생산과정이 원활하게 보장되게 된다.

이처럼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부문들 사이에서로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생산을 조화롭고 순조롭게 발전시키며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을 원활히 진행하여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을 안정된 토대우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생산을 안정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는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경제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중요하게 자체자원에 의거하여 원료, 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제반 생산부문들을 갖추며 자체로 생산소비적련계를 완결하여 재생산을 독자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면 자체의 튼튼한 원료와 연료, 동력 기지와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에 의거하여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동력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 인민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 생산공정들 사이의 생산적련계를 정확히 맞물릴수 있으며 생산순환을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는 자체로 해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이것을 남에게 의존하는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다.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걸어가지고서는 생산을 안정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오직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여야만 그 어떤 세계적인 원료위기, 연료위기가 닥쳐와도 전반적인민경제를 안정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지하자원, 수력자원, 산림자원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개발리용하며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되는 원료, 연료, 동력은 그 수량에 있어서뿐아니라 품종상 면에서도 끊임없이 확대되게 된다. 이것은 원료와 연료, 동력의 자급률을 더욱 높이게 하며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많이 창설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선행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를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며 종합적으로 발전된 경제로 확고히 전환시키게 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전반적인민경제를 안정된 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참으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원료와 연료, 동력, 수송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다른 모든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그 현대화수준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에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늘어나는 원료와 연료, 동력, 수송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80년대와 지난해의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통하여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비할바없이 확대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금속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이 크게 높아났으며 이에 따라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특히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들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과 10월9일강철종합공장 건설을 비롯하여 중요건설대상들이 완공되면 원료와 연료, 동력, 수송에 대한 수요가 방대한 규모를 이루게 된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관리가 과학화, 합리화되는데 따라 원료와 연료, 동력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최종생산물 단위당 수송량이 체계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량과 물자수송량을 줄이는데서 큰몫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가공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원료, 연료, 동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인민경제선행부문들을 빨리 발전시켜 그 생산량을 훨씬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원료, 연료, 동력, 수송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그래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인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폐지)

채취공업은 생산의 첫 공정이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를 앞세워 더 많은 광석, 석탄 매장량을 확보하고 채굴후보지들을 미리미리 마련해놓아야 한다. 특히 이 부문에서는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여 다량채굴,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전력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의 기본동력을 이루고있으며 기술발전의 기초로 되고있다. 전력공업을 앞세우는것은 현시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규모발전소건설을 다그치면서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군중적운동으로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전력설비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석탄과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야 하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여 생산된 전력이 소비지에 더 많이 가닿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생산과 건설이 방대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 철도운수를 앞세워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철도운수를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철도의 전기화를 더욱 완성하며 8축전기기관차와 100톤화차 생산을 늘여 철도의 중량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철길과 륜전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예방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운수수단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힘있게 벌려 현존수송능력으로 더 많은 짐을 실어날라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능히 수행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선행부문의 발전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당의 정확한 경제정책이 있으며 그것을 관철하는데 요구되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보장할수 있는 강력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꾸려져있고 위력한 과학기술력량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근로자들이 있다.

문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결심하고 이악하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다.

투자를 집중하는것은 선행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며 이 부문들의 생산기술적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선행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새롭게 확대하는것을 동반하게 된다. 생산능력을 늘이자면 새로운 광석과 석탄 후보지들과 발전소후보지들을 찾아내고 이미 있는 광산, 탄광, 발전소들을 개건확장하면서 새로운 대상들을 건설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기본투자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광업, 석탄공업에서는 확대재생산의 경우에는 물론 단순재생산의 경우에도 기본건설이 동반되며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운수수단의 물리적마모가 심하여 갱신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현행생산을 유지하는데만도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는것을 말한다.

선행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기에 보다 많은 기본투자를 돌리도록 하며 선행부문에 요구되는 자금을 먼저 뚝 떼여놓고 다른 부문들에 자금을 분배하는 원칙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광석, 석탄,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을 늘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한걸음도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특히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이며 작업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선행부문의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오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선 과업은 매우 무겁다. 이 부문에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탐사방법과 탐사수단을 리용하여 탐사효률을 높이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채취기술과 선광기술, 여러가지 동력원천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 채취설비, 발전설비, 륜전설비들을 현대화하는 문제 등 현시기 실천적으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장비수준을 현대화하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더 많이 창안하며 그것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파고드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당적지도와 행정경제적,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을 파고들어야 로력, 설비, 자재를 비롯한 생산요소들을 옳게 결합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선행부문의 생산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들은 3위일체가 되여 정상적으로 모여앉아 경영활동정형을 늘 협의하면서 기업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을 파고드는데서 특히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선행부문의 행정경제일군들은 기업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경제적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로동안전상 요구가 높은 이 부문의 경제활동에서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생산규률을 철저히 세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국가의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앞선 기술과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적은 지출로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이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문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한다.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들은 선행부문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해서만 옳은 생산적련계밑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부문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선행부문과 련결되여있지 않은것이 없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선행부문을 지원하는것은 곧 자기 부문의 발전과 전반적사회주의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금속공업과 건재공업, 림업부문에서는 선행부문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철강재와 세멘트, 목재를 계획과 계약에 예견된대로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능률적인 채취설비, 동력설비, 운수설비와 부속품들을 질적으로 생산하여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군중적운동으로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문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이렇게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선행부문을 지원할수록 짧은 기간에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적극 높일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쳐야 할것이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

김 원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공업과 함께 농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농촌경리가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오늘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자면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며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농업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심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인다는것은 토양안에 영양물질함량을 높이고 농작물의 생육에 알맞춤한 토양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부침땅의 생산능력을 높인다는것을 말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다는것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과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농업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 자연과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생산자체의 특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농업생산은 토지를 바탕으로 온도, 빛, 영양물질, 물기 등을 리용하면서 진행하는 농작물의 자체증식과정을 사람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농업생산을 높이려면 부침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그 비옥도를 끊임없이 높이며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기되는 생물학적요구를 정확히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게 되면 토양속에 영양물질의 함량을 증대시켜 작물이 쉽게 뿌리를 내리고 토양속의 영양원소를 잘 흡수할수 있게 한다. 또한 그렇게 되면 작물의 종류와 품종, 자라는 단계와 포전상태, 기후조건에 맞게 농작물을 과학리치적으로 심고 가꾸어 옹근소출을 낼수 있게 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의 농업실태로부터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나라의 부침땅은 개간된지 오랜데다가 립지조건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

리 비옥하지 못하며 착취사회에서 오래동안 수탈당한것으로 하여 부식질과 영양원소함량이 매우 적다. 그리고 부침땅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해마다 땅을 비우지 않고 집약적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오는것과 관련하여 토지의 자연적비옥도는 거의 소모되여가고있다. 따라서 부침땅의 인공적비옥도를 계속 높여주어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토양환경을 마련하여주게 될 때 알곡수확고가 올라가게 된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인민생활이 높아감에 따라 식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질적요구도 날을 따라 증대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알곡을 비롯한 농업원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있다. 날로 장성하는 알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지금 있는 부침땅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다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가 추진되여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특히 최근년간 2천리 관개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발관개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왕가물과 큰물에도 끄떡하지 않는 공고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조건에서 알곡소출을 늘이려면 땅의 지력을 더욱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 물론 부침땅을 새로 늘구거나 육종사업과 영농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그런데 농업발전을 위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일수 있는 예비는 무진장한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한정되여있다. 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것으로서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낼수 없으며 더우기 부침땅은 간석지나 산을 개간하는 외에는 그 면적을 늘일수 없다. 여기에서 간석지를 개간하는 문제는 방대한 로력과 자재, 자금을 요구하는 대자연개조사업으로서 한두해 걸려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산을 개간하는 경우도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보아 그 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있는 부침땅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명줄로 되여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농사에서 기본인 물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된 조건에서 빠른 시일안에 알곡생산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에서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흙갈이를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으며 농업생산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가장 과학적인 토지개량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지력을 전면적으로 빨리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농업실태, 현대농업의 발전추세 등을 전면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신데 기초하여 독창적인 주체농법을 창시하시고 농업생산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해방전에 논벼 정당 수확고가 겨우 1～2톤, 강냉이는 600～700키로그람이였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정보당 평균 8톤을 내다보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올해는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처음으로 땅의 진정한 주

인으로 되게 한 력사적사변인 토지개혁이 실시된 때로부터 4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희망의 년대, 투쟁의 년대인 90년대의 두번째해인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주체농법의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을 다시 찾으시고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 짧은 기간에 흙깔이를 와다닥 해제낄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는 잘 다루기만 하면 다른 생산수단들과는 달리 그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있으므로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1~2년사이에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전국적으로 알곡 정당 수확고를 훨씬 더 높이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흙깔이를 잘하는것이다.

흙깔이는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포함되여있는 흙을 파다가 논밭에 펴는 토지개량방법이다. 논밭에 흙깔이를 하면 미량원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분이 보충되기때문에 그루바꿈을 하지 않고 해마다 같은 작물을 심어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지난해에 알곡수확이 높은 협동농장들의 경험은 낟알을 심울수 없다고 하던 척박한 비탈밭에도 흙깔이를 잘하고 강냉이를 심으면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정보당 평균 9.5톤, 지어 12톤까지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흙깔이는 필지별 토양의 기계적조성과 여러가지 영양요소들을 가지고있는 정도, 경토층의 깊이와 비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영양물질이 많은 흙을 토양조건에 맞게 제대로 내는 원칙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한뙈기의 땅도 빼놓지 말고 모조리 다해야 한다.

당면하게는 지금 하고있는 강냉이밭 흙깔이를 다그쳐 3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흙깔이를 대대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야 한다. 유기질비료에는 보통 한두가지 영양원소만을 포함하고있는 화학비료와는 달리 질소, 린, 카리와 규소, 마그네시움 등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많이 내면 농작물이 요구하는 영양원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농작물은 보통 수십종에 가까운 원소들을 요구하며 그가운데서 필수영양원소만도 십여종에 달한다. 그러므로 다수확작물인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의 소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많이 내야 한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부식토와 흙보산비료 등 유기질비료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논밭에 규정된 량을 무조건 내야 한다.

지력을 높이자면 미량원소비료도 많이 쳐야 한다. 미량원소비료는 곡식이 자라는데 량적으로는 적게 요구되지만 없어서는 안될 영양원소이다. 벼와 강냉이의 1,000알당 무게가 적은것은 논밭에 린, 카리, 마그네시움, 규소 성분과 함께 망간, 동, 붕소, 아연과 같은 미량원소가 부족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미량원소비료는 당해년도에 농작물이 다 흡수하는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비료이므로 영농기에 관계없이 년중 계속 생산하여 논

밭에 쳐야 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고 랭습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며 논밭의 깊이갈이도 하고 록비작물도 심어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원만히 보장해주어 자체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자연환경에서 생물체를 키우는 농사는 땅의 지력을 높이는것만으로써 높은 소출을 낼수 없으며 농사에 영향을 주는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작물의 생물학적요구가 원만히 충족될 때 보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마다 날씨가 서로 다르고 토양조건도 같지 않으며 봄날늦추위가 들이닥쳐 모가 자라는데 지장을 주는가 하면 때아닌 높은 온도가 나타나고 많은 비가 내리며 왕가물이 계속되는 등 예견하기 어려운 기후변동이 계속 나타나고있다. 이처럼 날씨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조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거나 한가지 처방으로 농작물을 가꾼다면 농작물이 자라는 단계별 생물학적요구를 충족시켜줄수 없으며 결국 높은 소출을 기대할수 없다. 룡천군 장산리를 비롯하여 지난해 높은 알곡소출을 낸 협동농장들의 경험은 아무리 무더기비가 쏟아지고 해비침률이 낮아도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만 하면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난해 농사 경험과 교훈을 똑똑히 총화짓고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는 다수확작물과 과학있는 품종을 배치하며 농사의 개별적공정들인 씨뿌리기, 비료치기, 물대기, 김잡이, 병충해막이, 가을걷이, 낟알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올해 농업부문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이다.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농촌을 나라의 식량기지로뿐아니라 경공업원료기지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농촌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농민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다. 모든 농촌들에서는 작물 및 품종 배치를 해당 지방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이면서도 축산과 과수, 공예작물 등을 배합하여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하자면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은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받들고 농사를 중시하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늘 전당, 전국, 전민이 흙갈이전투에 동원될것을 호소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흙갈이전투에 자각적으로 동원되여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일한다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한삽의 흙을 갈아도 질적으로 해야 하며 작업능률을 높여 제때에 끝내야 한다. 전체 인민이 주인된 자각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을 때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이 빛나게 관철되여나

갈수 있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흙깔이를 비롯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만 할수 있는 대자연개조사업이며 온 나라 모든 기관, 기업소,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세밀하고 째인 경제조직사업을 전제로 한다. 이미 흙깔이를 성과적으로 끝낸 사리원시안의 협동농장들과 함주군, 강동군 봉화리의 경험은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모든 운반수단들을 동원하는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이악하게 내밀 때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조건들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장악하고 광범한 군중을 적극 발동하며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동원배치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이다. 일군들은 토지의 조사사업부터 앞세우고 작업대상을 정확히 선정하며 그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여 흙깔이전투를 주도세밀하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앞에 부과된 과제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해제끼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조직지도사업도 치밀하게 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농사를 짓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를 따져가며 그와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강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하며 농사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해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과 함께 영농물자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사는 그 시기에 못한 일을 다음시기로 미루어할수 없으며 비료와 농약 등은 꼭 알맞는 시기에 필요한것을 수색이 맞게 쳐야 효과를 낼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영농물자공급에서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필요한 물자와 자재들을 빠짐없이 앞세워 보장하는것은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곡생산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조건의 하나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촌에 보내게 된 영농물자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지도일군들이 앞장설 때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사업에서는 혁신이 창조될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해방직후 보통강개수공사때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그 정신을 가지고 흙깔이전투에 적극 참가하여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군중의 앞장에서 우리 당의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은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올해에 례년에 없는 대풍을 이룩하며 제3차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과 일군들의 경제조직사업

김 창 석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되는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6~7페지)

우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은 경공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공업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해방후 빈터우에서 시작하여 끊임없는 상승일로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경공업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게 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경공업의 부문구조는 더욱 완비되고 그 기술장비는 보다 현대화되였으며 인민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는 훨씬 늘어나고 그 질은 현저히 높아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의 경공업은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락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방직공업, 식료가공공업, 신발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다 갖추고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경공업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으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경공업건설방침, 경공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경공업혁명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는 빠른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우리 당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우월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가장 값높고 보람찬 정치생활과 풍부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에 상응하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생활을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이 요구를 실현하는데서 경공업부문앞에는 실로 무겁고도 영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는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해야 할 중요한 해이다. 우리는 올해에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국가의 계획과제를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생산을 지난해보다 1.5배이상 늘여야 한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가까운 몇해안에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할 확고한 결의밑에 천생산을 빨리 늘이는 한편 천조직을 개선하여 날염천, 선염천, 뜨개천, 방수가공천의 비중을 높이며 옷차림을 편직화하는데 필요한 질좋은 여러가지 편직물생산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신발생산기지들을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생산능력을 높이며 신발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가죽구두, 사출천신발, 사출비닐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와 형태의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한해에 1억 2천만켤레이상의 신발을 생산하기 위한 더욱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주식물가공품과 부식물가공품, 어린이식료품, 여러가지 청량음료 생산을 늘이며 일용품생산을 다그쳐 인민들에게 질좋은 철제일용품과 전기일용품, 전자일용품, 가구와 부엌세간, 학용품과 일용잡화 등을 더욱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공업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이 보람찬 투쟁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은 생산자대중이 맡겨진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조직적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사업, 로력조직, 협동생산조직, 수송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기때문에 전사회적범위에서나 기업소적범위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닌 기본임무이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반드시 경공업부문의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있는 일군들이 당정책과 객관적인 경제법칙,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와 구체적인 경제실태 등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무엇보다 경공업혁명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경공업혁명은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경공업생산토대를 확대강화하며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획기적으로 늘이고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경공업혁명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최상의 질과 높은 속도를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경공업혁명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목표는 가까운 몇해안에 인민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훨씬 늘이고 그 질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는것이다.

경공업혁명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일군들이 소비품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공업은 제품의 량과 가지수가 많고 그 수요구조가 복잡하며 원료원천도 매우 다양하다. 경공업제품의 생산에는 소비품의 종류에 따라 복잡한 기계설비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것이 있는 반면에 비교적 간단한 시설과 기술을 가지고도 생산을 보장할수 있는것도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인민들이 요구하는 다종다양한 소비품들을 생산장성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다.

더우기 경제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경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며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경제부문들과의 생산적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고있는 실정에서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생산을 높은 속도로 다그칠수 없다.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소비품생산을 련관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 생산고리들사이의 정확한 균형과 합리적인 련계에 기초하여 빨리 진척시킬수 있다.

이것은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경공업혁명의 특성에 맞게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보여준다.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또한 경공업혁명을 심화시킬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된 현실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경공업혁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는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이 갖추어져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대규모의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옷공장, 신발공장, 일용품공장, 곡산공장, 고기가공공장, 남새가공공장, 과일가공공장 같은 경공업공장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 나라에 있는 경공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은 대단히 크다. 경공업부문에는 과학기술력량도 튼튼히 준비되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짧은 기간에 경공업혁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경공업혁명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제시되는 당의 방침들을 모든 인적 및 물적 조건들을 동원리용하여 철저히 집행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실질적인 물질적성과로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공업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도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게 하여야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시킬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경공업혁명수행에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데 언제나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현시기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모든 부문이 다 갖추어져있으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천을 아껴가며 마련해놓은 경공업공장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다면 투자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수 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련관된 부문들에서 경공업부문에 화학섬유를 비롯한 섬유원료와 합성수지, 기초화학제품과 여러가지 규격과 재질의 철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유색금속가공제품을 비롯하여 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넉넉히 대주는 한편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이 그것을 보다 절약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올해에 경공업제품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26호선반을 따라배우기 위한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모든 기계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비부속품과 기료품 생산을 늘이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을 제

때에 보수정비하는것이 중요하다. 설비리용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며 설비들을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잘 다루고 설비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은 또한 경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경공업을 현대화하는것은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경공업을 현대화하여야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수 있으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

경공업을 현대화하는 사업은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의 뒤떨어진 설비와 생산공정을 선진적인것으로 개조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최신기술로 장비된 새로운 경공업공장들을 더 건설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최근 평양종합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강서원직공장,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생산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신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살려 지금 있는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조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대담하게 들어내고 현대적인것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지금 진척시키고있는 일부 방직공장들의 설비를 빨리 개신하며 신발생산의 원료공정을 담당한 생산단위들의 기술개조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대중속에서 더 많은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이 나오게 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의창발성에 의거하여 경공업의 현대화를 빨리 다그칠수 있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은 또한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군중적운동으로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독창적인 우리 식의 경공업건설방침이다. 이 방침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매개 군에는 평균 20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꾸려져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양덕군과 삭주군, 북청군, 타진시, 태탄군, 맹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의 경험은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의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은 지방공업을 창설한 당의 의도에 맞게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자체의 원료기지를 더 많이 조성하고 지방공업원료생산을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불비한 생산공정을 빨리 완비하며 뒤떨어진 설비와 생산공정을 새 기술에 토대하여 개조하는것이 중요하다. 군들에서 지방공업의 특성과 자기 군의 실정에 맞게 지방산업공장들을 잘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는 한편 중앙공장들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문

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발기하고 이 운동에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시작된 이후 지난 몇해사이에 전국적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작업반과 소비품생산자대렬이 급격히 확대되고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그 전해에 비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액은 113%이상 장성하였다.

일군들은 경공업혁명수행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유휴로력으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조직하고 공업부산물과 농토산물, 자연원료, 재배원료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여 경공업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올해는 우리 당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해이다. 실천적경험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생산자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경공업공장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언제나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생산규률을 엄격하게 세우며 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경제적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경공업제품생산의 특성에 맞게 물감장사하듯이 세밀하고 깐지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적은 로력과 원료, 자재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며 인민들에게 질좋고 값싼 소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면서 국가수입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는것은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임무수행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옳게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없는것은 찾아내고 모자라는것은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제기된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들이 요구하는 더 좋은 소비품들을 더욱 넉넉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높은 영예를 지닌 우리 문학 창작가들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김 일 수

오늘 우리 문학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 속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창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가슴에 새길수록 뜻이 더욱 깊어지고 경모의 정이 솟구치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담긴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회답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이것은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뿐아니라 당과 함께 보람찬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있는 우리 나라 모든 인테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표시로 된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우리 나라 작가, 예술인들, 인테리들만이 지닐수 있는 더없이 고귀하고 영예로운 칭호이다.

우리 당이 안겨준 이 높은 칭호에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 인테리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인간적가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

사회적인간이 가질수 있는 최대의 긍지와 영광, 행복은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령도자, 당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살며 활동하는것이다. 사람의 운명과 미래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개척되고 빛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당의 믿음과 사랑은 곧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람찬 삶의 량식이고 원천이며 투쟁의 원동력이고 고무적기치이다. 때문에 당의 믿음과 사랑을 떠나서 사람은 삶의 가치와 보람,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것은 시대의 가수로서 지닐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으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지니고있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되고있는데 있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된다는것은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길에서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적관계로 되여야 한다. 동지적관계는 사람들사이에 맺게 되는 관계들가운데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관계이다.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적관계로 될 때 사람들사이에 믿음과 보답이 생기고 믿음과 보답이 있어야 그 어떤 시련도 뚫고 혁명의 길을 과감히 헤쳐나갈수 있다.

동지적관계에서 가장 숭고한것은 수령과 전사, 수령과 대중사이의 관계이다. 혁명의 길에서 맺어지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대중사이의 관계는 일시적인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자의 관계, 뜻을 같이하는 동지적관계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회답서한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불러주심으로써 령도자와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사이의 관계를 가장 숭고한 동지적관계에 이르게 하여주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주체조선의 작가, 예술인들만이 지닐수 있는 특전이며 영광인것이다.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이 출현하여 자기의 투쟁사를 기록하여온지는 오래지만 그 어느 당과 지도자도 창작예술활동으로 당에 복무하는 인테리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불러주는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준 그러한 당과 위인을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과 전사, 수령과 대중사이에 맺어지는 혈연적인 인간관계, 동지애의 관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해나가시던 첫시기에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시인 김혁, 청년인테리 차광수를 비롯한 열혈청년들을 혁명을 끝까지 같이할 진정한 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그들과 함께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동지애의 위대한 력사가 펼쳐지고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동지애의 빛나는 전통을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옹호보위한 김혁, 차광수와 같은 혁명동지들이 섰던 그러한 위치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뜨겁게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회답서한에서 우리 문학창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뜨겁게 불러주신것은 천사들을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혁명동지로 내세워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여기에 바로 우리 문학창작가들이 당과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된 끝없는 긍지와 부풀어오르는 혁명적자부심이 있는것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지니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은 또한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되고있는데 있다.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된다는것은 당의 의도와 구상,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협력군으로 된다는것을 말하며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 된다는것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과 방도를 제기하는 당의 정열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활동가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당이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다하자면 자기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대오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러한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대오를 가지고있어야 그들에 의거하여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회답서한에서 우리 문학창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뿐아니라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대오에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신임과 한량없는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문학창작가들이 지닌 또하나의 커다란 긍지이며 영광으로 된다.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는 끝자기 당의 지도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

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작성에 도움을 주며 대중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관철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사활적인 요구로, 끝없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불굴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불없는 긍지와 영광을 지닐수 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창작예술활동을 통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당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이 세상 그 어느 작가, 예술인도 지닐수 없는 더없는 긍지와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것은 문학창작가들을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나팔수로,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운명을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당의 이러한 최고의 신임과 따뜻한 사랑, 위대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문학예술인들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고 당의 위업에 헌신적으로 복무해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문학창작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강화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 높이 당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있는것은 위대한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속에 차넘치고있기때문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회답서한에서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우리 문학창작가들을 내세워주신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서 새롭게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사랑을 베풀어준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빛나는 위대한 령도로 우리 문학창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높은 영예를 끊임없이 빛내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던 첫 시기부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시대의 선도자, 투쟁의 나팔수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이 당의 동행자로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이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성과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비록 자그마한것이라 할지라도 매우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그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당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우리 당은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이 방침에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두 한품에 안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은혜로운 사랑이 담겨져있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행정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영원한 동행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나 생활에서 엄중한

파오를 범하였을 때에도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의 정치적생명에 자그마한 흠집이 갈세라 자식의 생명에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다.

…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서 재생의 길에 들어선 한 시인이 어머니당의 넓은 품을 노래한 숭엄한 송가의 한 구절이다.

이를 어찌 한 시인의 마음속깊이에서 우러나온 절절한 목소리라고만 하겠는가.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알리고 잊을번한 잘못까지도 다 말하는 어머니당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것이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심정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하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참으로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인간애, 숭고한 동지애를 지니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향도자로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써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의 부대로 자라날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문학창작가들이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도록 늘 보살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뚜렷한 방향을 밝혀주시고 한편의 시, 한편의 가사, 한편의 소설작품이라도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선도하며 혁명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가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나의 작품이라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작으로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몸소 종자도 잡아주시고 미숙한 작품을 가필도 해주시면서 창작가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의 손길밑에서 사상예술적으로 미숙하였던 수많은 작품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다시 태여나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부르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모든 작품들에는 례외없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예지와 세심한 지도, 뜨거운 보살피심이 깃들어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튼튼히 서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명한 스승으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긍지로 여기고 당의 믿음과 사랑에 빛나는 창작적성과로 훌륭히 보답해나가야 한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령도자의 믿음과 사랑,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도리이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준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령도자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전사가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의 운명이며 우리 혁명의 심장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으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을 믿고 높이 받들어야 하며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가는 투철한 자세, 견결한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드팀없는 철리로 삼아야 한다.

당에 진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문제성있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정열적으로 사색하고 창작적열정을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일심단결을 형상한 작품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형상한 작품들, 혁명전통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 1990년대의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자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적량심의 대변자, 인간정신의 기사인 작가는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특히 작가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환히 꿰뚫고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하고 풍만한 인간생활을 그대로의 모습대로 작품에 훌륭히 그려낼수 있다. 특히 우리 창작가들은 당의 문예정책, 문예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의 문예방침은 창작의 기초이며 창작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문예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높은 창작적성과로 보답할수 있다.

생활과 투쟁으로 들끓는 현실생활은 창작의 무한한 원천이며 비옥한 토양이다. 당에 도움을 주고 당에 힘을 주는 작품을 창작하려면 생활과 투쟁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숨쉬고 생활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생활체험을 많이 할 때만이 자신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영원히 당의 동행자, 조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일군들과 문학창작가들은 자기들앞에 나선 이 모든 과업을 관철해나감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리 도 형

모든 인테리들을 혁명의 주체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 대렬을 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된 인테리로, 인테리화된 로동계급으로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높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 모든 사람들을 인테리화된 로동계급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온 나라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주인들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들이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담당자, 혁명의 주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려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할뿐아니라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창조적능력은 사회주의건설의 담당자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격이며 바로 이러한 품격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것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것이다.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가운데서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자면 마땅히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우리 당이 창조한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일을 계속 하면서 고등교육까지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것이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과 실천을 다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쓸모있는 인재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 목적은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사회주의건설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자는데 있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려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소유하여야 하며 리론과 실천이 결부된 산 지식을 가져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지 못한 사람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다 하여도 자체의 능력을 다 발휘할수 없다. 반면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철저히 서있다고 하여도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두가지 문제를 다같이 풀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리론과 실천이 겸비된 산 지식을 소유한 인재로 키우는 문제는 바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학생이자 곧 생산자이며 현직일군이다. 실천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들은 혁명적실천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리론을 배우며 배운 리론을 실천활동에 직접 적용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습과 실천활동은 서로 떼수 없는 통일적과정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교육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한다. 또한 그들이 일터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생산에 적용하여 나라의 생산장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과정으로 되며 학습과 생산실천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더 잘해나갈 각오를 굳게 다지는 과정으로 된다. 이러한 과정에 그들은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더 많이, 더 잘 배워 그것을 생산에 적용하는 사업을 습성화, 생활화해나가게 되며 기술혁신, 창의고안, 발명 등을 수많이 진행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은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쓸모있는 인재로 키워나감으로써 그들의 인테리화를 적극 다그쳐나가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것이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이 교육체계가 나라에 보탬을 주면서도 모든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보다 원만히 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 사업은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있는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 농장, 어장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와 자금을 들여 고등교육기관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교원대렬을 꾸리며 교육시설을

갖추고 실험실습조건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 방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국가에 추가적인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고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보다 쉽게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게 한다.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은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 농장, 어장 등에 잠재하고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하고 동원하여 생산현지에 세워지고 운영되는 대학들이다. 이 대학들에서는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 농장, 어장들에서 일하는 유능한 기술자들이 겸임교원으로서 일하면서 교육하도록 하여 교원문제를 풀고 그 기관자체의 힘으로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교사와 교구비품, 교육시설과 실험실습조건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교육조건을 원만히 갖추어나간다.

이것은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국가투자를 절약하고 나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고등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근로자들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일터를 떠나지 않고 배울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근로자들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력문제는 언제나 긴장성을 띤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서고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계속 창설되므로 로력의 긴장성을 풀어나가는것은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이런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인테리화가 중요하다고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초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떼내여 공부만 시킬수는 없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옳게 풀면서도 근로자들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고등교육을 줄수 있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은 로동자, 농민들의 생산활동현지에 세워져있고 또 일하면서 공부하게 되여있음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산활동에서 유리됨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게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사업은 그들의 본신혁명과업인 생산활동에 아무러한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확고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이 원칙에 철저히 기초해서 진행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생산과제와 학습과제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야말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으며 그 우월성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력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창조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을 위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성인학교를 내오고 문맹퇴치사업을 진행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으며 문맹퇴치사업이 성과적으로 끝나자 근로자학교, 근로자중학교, 근로자고등중학교와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를 창설하시여 모든 근로자들이 중등일반교육을 다 받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중등일반교육을 완전히 끝내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오늘은 근로자들의 인테리화를 위한 고등교육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가렬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포화속에서 첫 공장대학이 창설되였으며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증설되고 강화발전되여왔다. 또한 많은 대학들에 야간 및 통신 학부들이 조직되고 1970년대에는 어장대학이, 1980년대에는 농장대학이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유능한 기술인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가장 높은 형태로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 훌륭한 기지로 되고있다. 룡양광산 금산갱 같은데서는 모든 광부들이 다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한날한시에 기사자격을 받았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창조된 이러한 모범은 널리 일반화되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인테리로 자라난 많은 일군들이 나라의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 있으며 생산활동과 건설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의 혜택을 받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문맹자란 말조차 모르며 배움에 대한 사람들의 자주적요구가 가장 폭넓게 실현된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하고 더욱 빛내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들에서 교육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있다.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것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더 큰 은을 내게 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여야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될수 있으며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다.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자면 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교육강령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할 법적과제이다. 교육행정기관들에서는 과학적인 교육행정지도체계를 세우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요구와 매 단위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정과 과학기술습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들에서 교육강령을 잘 만들도록 하며 교원들의 교수사업에 대한 장악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들에서 교육강령에 예견된 과정안을 철저히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고 교수교양사업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해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

통교육체계에서는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자기 부문과 직접 관련된 전문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많이 배워주고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할수 있으며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도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다지며 생산을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교원들의 자질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교원의 자질과 역할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교원들은 근로자들의 인테리화를 실현해나가는 중요한 초소에 선 혁명가이라는 높은 자각을 간직하고 강의와 개별학습지도를 생산자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잘하여야 하며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알아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이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는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야만 학습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학습과제를 당이 맡겨준 전투과업으로 여기고 무조건 집행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각오가 없이는 학습에서 전진할수 없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근로자들은 학습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당과 혁명에 충실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소유해나가는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인 학습기풍,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이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자면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각적인 학습기풍은 강한 통제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더 큰 은을 나타낸다. 이것은 실천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모든 일군들과 교원들은 학생들의 학습정형에 대하여 늘 료해하고 장악하며 강하게 통제하는것과 함께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당적지도는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언제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교수교양사업이 철저히 당의 의도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진행되도록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과학리론적자질이 높은 좋은 사람들로 교원대렬을 꾸리고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 농장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행정지도일군들이 생산일면만 내세우지 말고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보장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잘해나가야 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도 잘하고 학습도 잘하는 훌륭한 혁명인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최 인 먹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됩니다.》(《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3페지)

기술혁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술혁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주체적인 기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경공업공장들이 많이 자리잡고있는 우리 선교구역을 여러차례 찾으시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경공업혁명을 적극 다그침으로써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선교구역당위원회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전자계산기화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생산을 높이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구역에서는 지난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5년동안에만 하여도 1,730여건의 기술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였으며 그가운데서 142건은 국가발명권을 받게 되였다.

평양신발기계공장에서 만든 《판식열교환기》, 평양종합방직공장에서 창안한 《전식소모방법에 의한 스프데트론양복천가공방법》, 평양방직기재종합공장에서 제기한 《국내산수지에 의한 북침편생산방법》, 선교편직공장에서 창안한 《직조기급제동장치》를 비롯한 많은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은 그것이 가지는 커다란 경제적의의로 하여 국가적으로 높이 평가되였다.

지난 5년동안 우리 구역에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생산에 도입한것으로만 하여도 759만 2천여원의 자금과 101만 9천여공수의 로력, 3,880만 5천키로와트시의 전력을 비롯한 많은 원료와 자재, 동력, 로력을 절약하여 국가에 적지 않은 리익을 주었다.

지난날 락후한 수공업공장들이 몇개 있던 우리 구역이 지금 수많은 중앙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가지고있는 산업구역으로 전변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주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주체적인 기술혁명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우리 선교구역당위원회는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이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칠 때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 일군들이 기술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지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때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는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문제이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일군들의 사상관점이 어떠한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옳게 가지지 못하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될수 없게 된다.

한때 구역안의 일부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곧 기술혁명이며 기술혁명을 다그쳐야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 견해와 관점이 부족한데로부터 당면한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면서 경제건설과업을 기술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낡은 기계설비를 그러안고 로력을 계속 늘이려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않거나 그들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하는 현상도 없애지 못하였다.

지도일군들이 기술혁명에 낯을 돌리게 하지 않고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없었다.

구역당위원회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일반적인 호소나 말로써 강조하는 현상을 없애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지도일군들이 직접 생산현장에 내려가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구역의 특성과 생산기술적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우리는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는 동시에 구역당위원회 부부장이상 일군들과 구역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과장이상 일군들을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보내여 그들을 공장의 《4.15기술혁신돌격대》성원으로 망라시키고 기술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군들이 기술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지게 하며 그들이 공장, 기업소의 실태를 환히 꿰들고 아래단위를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하는데서 매우 좋았다. 특히 그것은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당면한 생산에 힘을 넣으면서도 기술혁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조사업을 다그치며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도록 자극하고 통제하며 방조하는데서 효과적이였다.

구역당위원회는 구역급일군들이 자기의 본신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계획적으로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4.15기술혁신돌격대》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당 및 행정조직들에서 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과정에 우리가 경계한것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4.15기술혁신돌격대》성원으로 이름이나 걸이놓고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것과 같은 현상이 발로되지 않게 한것이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당 및 행정 조직을 통하여 아래에 내려간 일군들의 활동정

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그들이 기술혁명수행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역안의 기술자격을 가지고있는 일군들이 직접 한가지이상의 발명안, 창의고안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천적모범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아래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지금 우리 구역에는 구역급기관 책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가운데서 기술자격을 가지고있는 일군이 수백명이나 된다. 이들을 잘 발동하면 기술자들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것이다.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구역안의 당 및 행정 일군들 속에서 먼저 창의고안전람회를 조직하였다. 당일군이나 행정일군들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있는것도 아니고 기술혁신안을 내놓을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있는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파악하고 이 사업에 적극 달라붙었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조직할 때에는 40여건밖에 전시되지 못했지만 반영은 대단히 좋았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기술자격을 가지고있는 수백명의 모든 일군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을 하도록 분공을 주고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하도록 지도통제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우수한 기술혁신안이 나오게 되였으며 평양신발공장 초급당비서와 평양방직기계공장 초급당비서를 비롯하여 여섯명의 당일군들과 수십명의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발명권을 받게 되였다.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고 기술일군이 아닌 당일군, 행정일군들이 발명을 한다는것이 알려지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분발하여 기술혁신에 달라붙게 되였다.

그리하여 1988년에 진행한 《8월3일인민소비품》 현상모집에는 가두, 인민반녀성들까지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3,500여건 출품하게 되였으며 그가운데서 536건은 국가적인 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이러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과정에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기술혁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이 바로서고 그들의 열의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기술혁신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적극 밀어주며 완성된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사업체계도 세워놓았다. 기술혁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종합하여 공장적으로 풀어줄것은 공장간부협의회에서 풀어주도록 하고 구역적으로 풀어줄것은 구역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일군들과 기술자들 속에서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기술혁명수행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기술혁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 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구역적인 과학기술 보급실과 전시관을 잘 꾸리고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 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는것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과학과 기술로써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기술인재들이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로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할 때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는 공장, 기업소에 내려가 기술자들과 사업하면서 걸린 고리를 풀어주고 사업조건을 보장해주며 기술혁신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함께 벌렸다.

이 과정에 얻은 중요한 경험은 구역책임일군들이 공장, 기업소에 내려가 몇몇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하면서 한두가지 걸린 고리를 풀어주는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구역안의 모든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더 중요하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구역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구역안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구역 과학기술 보급실과 전시관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수십개나 되는 크고작은 중공업, 경공업 공장들이 자리잡고있는 우리 구역에 기술자들만 하여도 수천명이 있는만큼 그들을 적극 발동한다면 구역의 경제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구역안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기 위해 우리는 군중적운동으로 700석을 가진 과학기술보급실과 1,300평방메터에 달하는 과학전시관을 새롭게 꾸리고 그것을 옳바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구역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문헌을 제때에 전달침투하고 그 관철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한편 강연회, 덕성실기발표모임, 창의고안명수들에 대한 축하모임, 경험토론회, 기술혁신총화모임 등 기술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진행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과학자들의 초빙강의,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에 대한 통보, 과학기술토론회, 론문합평, 과학영화와 록화물을 통한 기술학습을 조직하였다. 우리는 기술혁신에 앞장선 공장, 기업소와 국가적인 전시관참관사업을 진행하고 한 분기에 한번씩 구역적인 발명 및 창의고안전람회도 조직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구역과학기술 보급실과 전시관을 통하여 구역안의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하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과학기술보급실도 다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장악지도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구역에서 진행하고있는 이러한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기술보급실의 이름을 친히 《구역과학기술보급실》로 고쳐주시였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고무된 구역안의 일군들은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렸다.

지도일군들이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 때 얼마나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구역당의 한 책임일군이 평양방직기계공장의 현장기사와 진행한 사업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실태를 료해하기 위하여 현장에 내려간 구역당의 한 책임일군은 이 공장의 당비서와 함께 공무동력직장을 돌아보던 과정에 밤늦도록 작업장휴계실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만드는 한 기술일군을 만나게 되였다.

알고보니 그는 이 공장 공무동력직장의 현장기사였는데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설비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용접기를 창안하고있었다.

구역당의 책임일군은 그 동무와 마주앉아 토론도 해주면서 그가 하고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그 다음날에 다시 그를 만나 당정책을 해설해주는 한편 걸린 고리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풀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당적으로 지지해주고 공장에서도 내세워주도록 하면서 기술자들이 그를 도와 기술혁신에서 한몫 하도록 불러일으켰다.

구역당위원회는 공장당위원회를 통하여 그에게 당적분공을 주어 학습을 꾸준히 시키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기술일군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헌신분투하여 여러대의 용접기를 대신하는 성능이 높은 새로운 용접기와 수천암페아의 정류기를 비롯하여 64건의 기술혁신안을 완성하였다.

많은 기술혁신안을 제기하여 생산에 크게 이바지한 그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높은 국가표창을 받게 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구역에서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온 수백명의 기술자들이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천수백명의 기술자들이 높은 국가수훈을 받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분기에 한번씩 구역과학기술보급실에서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의 축하모임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으며 그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기술자들을 감화교양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기술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술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기술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게 되였다.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다른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갈 때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모든 대중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혁신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운동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힘있게 내밀 때 사회개조와 인간개조, 기술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기술개조사업을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다른 대중운동과 옳게 결합시켜 힘있게 벌려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 직장, 작업반, 개인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조항에 기술혁신과제를 명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도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것으로부터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이르기까지 단계별 목표와 과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도록 지도통제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에 반영된 기술혁신과제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그것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갱신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틀어쥐고 나간것은 일정한 계기점을 잘 리용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일군들과 기술자들, 근로자들이 높은 결의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것이다.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질 때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구역안의 모든 근로자들을 기술혁명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우리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 자재의 15.2프로를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는 방법으로 보장하며 구역의 원자재소요량의 11.2프로는 기술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구역내부예비동원전시관을 꾸리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찾아낸 내부예비동원안들을 전시한 다음 구역안의 모든 근로자들이 전시관을 참관하여 따라배우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구역안의 모든 기술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안을 내놓으며 그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조항에 포함시키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도록 정치사업을 벌리였다.

지난해만 하여도 우리 구역에서는 중요한 계기점들을 리용하여 네차례의 기술자회의를 열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이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모범기술혁신 공장, 직장, 작업반 칭호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림으로써 기술자들은 물론 로동자들속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구역당위원회는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이 《모범기술혁신 공장, 직장, 작업반칭호 쟁취운동》에 떨쳐나선 단위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도처에서 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하며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평양전구공장에서 도입한 유리구생산공정의 자동화, 평양고무공장에서 진행한 콘베아수지벨트생산공정의 현대화, 평양방직기재종합공장에서 받아들인 바늘생산공정의 자동화, 평양제약공장에서 만든 알약생산공정의 반자동흐름선, 평양일용품종합공장에서 창안한 충진제에 의한 수지단판생산방법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적인 설비들과 능률적인 생산방법들은 모두가 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창조물이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 구역에서는 500여종에 1,000여대의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창안제작되여 생산에 도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구역에서는 4개의 공장이 《모범기술혁신공장》으로, 28개의 직장이 《모범기술혁신직장》으로, 14개의 작업반이 《모범기술혁신작업반》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모범기술혁신 공장, 직장, 작업반 칭호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때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불과하며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밝혀주신대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정치적 지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역앞에 맡겨진 경제건설과업수행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겠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생산과 건설에서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쳐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관철하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서 출발점

백 남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조국통일방안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북과 남이 평화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대화와 접촉을 활발히 가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안은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며 올해를 완화와 평화의 해, 화해와 단합의 해,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안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됩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12폐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리념이다. 평화가 없이는 인류의 생존자체가 위태롭게 되며 인류가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평화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하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조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될수 있다.

평화는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평화적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어의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켜야 한다. 여기에서도 북남불가침문제는 당면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이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화해와 신뢰,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오늘 북과 남사이에는 첨예한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가 지속되는 속에서 극도의 오해와 불신이 조성되여 있다. 북과 남은 서로 북침과 《남침》에 대한 위구심을 느끼고있으며 《승공》과 《적화》에 대한 의심을 가시지 못하고있다. 이와 같은 오해와 불신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

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일방이 타방을 먹으려 한다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조건에서는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와 평화통일의 공동목표를 실현해나갈수 없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오해와 불신을 가셔야 하며 그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부터 해소하여야 한다.

불가침문제의 해결은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된다.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게 되면 그것은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 앞에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게 될것이며 쌍방은 서로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위구심을 털어버리고 화해와 신뢰, 단합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게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그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이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기때문이다.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이 서로 방대한 무력으로 대치되여있는 실정은 임의의 시각에 사소한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해에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체육인, 예술인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대화와 축제를 벌리는 환경에서도 무력을 계속 증강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미제가 도발한 만전쟁을 구실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면서 도발적인 《팀스피리트 91》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고있다. 이와 같은 첨예한 군사적대결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도 평화통일도 바랄수 없다.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하여서는 서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불가침선언에는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와 함께 불가침을 실천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조치까지도 규정하게 되는것만큼 그것은 북침도 《남침》도 없는 명실공히 평화로운 북남관계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문건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북남불가침선언이 채택되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의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통하여 완화와 평화의 길로 나가게 되면 북침과 《남침》에 대한 위구심도 없어지게 될것이며 나아가서는 조미평화협정체결에도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게 될것이다.

이와 같이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할수 있게 한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대화와 협력, 교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다는데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온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우리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서는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대화와 협력, 교류는 어디까지나 호상 리해와 신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바탕우에서 진행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자면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고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

속에 칼을 품고서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할수 없으며 협력과 교류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대화와 협력, 교류 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호상 리해와 신뢰의 분위기속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협력과 교류를 안정된 기반우에서 추진시킬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게 되면 대화와 협력, 교류를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게 될것이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힘있게 앞당기게 될것이다.

이와 같이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문제의 해결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평화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1984년 [illegible]에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여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조미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으시였으며 그후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와 1988년 신년사, 1988년 9월 8일 공화국창건 40돐기념경축보고대회,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도 거듭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담긴 실천적조치들도 취하였다.

1985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회의는 남조선《국회》에 북남국회련석회의를 가지고 여기에서 북남불가침선언을 발표할것을 제의하였으며 1988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남조선《국회》에 불가침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편지와 함께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보냈다. 또한 1988년 11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것을 예견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에 북남고위급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과 그 실현을 담보할수 있는 실제적조치가 담겨진 불가침에 관한 선언제안을 제시하고 그 채택을 촉구하였다.

이 제안에는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와 의견상이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으며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단계적군축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들어있다.

이 제안은 남조선당국의 립장과 주장도 충분히 고려한 매우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제안이다.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내놓은 수많은 평화제안들은 조선반도의 평

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립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정당한 평화발기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불가침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남조선당국의 립장은 지난해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더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남측은 처음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자기들도 불가침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였고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도 불가침문제는 이미부터 자기들이 제기해온 문제이고 또 북측이 내놓은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 다만 《절차상문제》가 있기때문에 제3차 회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3차 회담에서 남측은 그 무슨 《신뢰조성우선》이라는 또 새로운 구실을 들고나와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끝내 회피해나섰다.

원래 불가침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이 오래전부터 들고나온 문제이다.

남조선의 이전 《유신》독재자는 1974년에 불가침문제를 제의한 일이 있으며 1980년대에 와서 《5공》독재자도 불가침문제를 들고나왔다.

현 남조선최고위당국자도 여러 기회에 불가침문제를 협의할것을 제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는 저들의 최고당국자가 한 말을 뒤집어엎고 또 자신이 한 약속까지도 어기면서 불가침문제를 절대로 협의할수 없다고 하였다.

남측은 이른바 《신뢰조성우선》이라는 구실밑에 《두개 조선》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기본합의서》부터 먼저 합의하고 다음에 불가침문제를 합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은 서로가 상대방이 자기를 무력으로 먹으려 하지 않는가 하는 위구심에서 나오는것이다. 그러므로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군사적대결상태부터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불가침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남조선의 현 최고당국자자신도 인정하고 주장해온 문제이다. 그는 1988년 10월 유엔총회연설에서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것을 제의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최고당국자가 한 말까지 부정하고 《신뢰조성우선》이라는 구실밑에 《남북관계기본합의서》를 우선 합의하자고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위선적으로 파렴치하게 행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시키고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자고 하여도 우선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북침과 《남침》에 대한 위구심부터 풀어야 한다. 전쟁이 현실적위험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불가침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면서 《신뢰조성우선》을 운운하는것은 사실상 남조선당국자들이 완화도 평화도 바라지 않는다는것이다.

불가침선언은 결코 신뢰조성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서로가 상대방을 치지 않으며 먹지 않으려 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확약하는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외면하고 그 무슨 《신뢰조성》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생억지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어 불가침선언을 채택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준수되리라는 확고한 담보가 없다느니, 《시행력》이 문제라느니 하는 말까지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도 전에 그것을 휴지장이라고 하고 우리를 믿을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들이

우리와 마주앉아 합의할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이며 도대체 회담을 한다는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을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거부하는것은 불가침을 외워온 그들의 말이 거짓이고 《남침위협》이라는것도 한갖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을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한사코 반대해나서는것은 그들에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으며 대결과 분렬만을 추구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그처럼 집요하게 반대해나서는것은 무엇보다도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이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군사독재체제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의 전략계획실현에 불리하다고 보기때문이다.

미제의 대조선전략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제패하기 위한 전략적거점으로서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는것이다. 미제는 이러한 전략적목적으로부터 남조선에 미군을 영구주둔시키고 남조선《정권》을 힘으로 적극 뒤받침해주고 있다.

남조선통치배들 역시 미군의 영구주둔을 확보하고 그의 《보호》밑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공통된 목적으로부터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은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확보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리화할수 있는 유일한 구실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유지하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여 조선반도에서 완화와 평화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되면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에게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과 핵무기의 배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수 있는 구실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은 불가침선언채택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한사코 반대해나서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불가침선언의 채택을 반대해나서는것은 또한 남북관계를 계속 긴장시키면서 군사파쑈독재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데 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이 반인민적인 파쑈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수단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공《국시》이며 그것을 합법화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각종 파쑈악법들을 리용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해나서는 모든 애국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해나서고있으며 집권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각종 《사건》들을 조작하여 우리를 걸고 파쑈적폭압을 더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여 완화와 평화의 새 국면이 열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조선에서 반공파쑈체제가 무너지고 통일기운이 고조되여 저들의 통치위기가 더 심화되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지금 불가침선언채택을 반대하고 대결과 긴장, 전쟁의 길로 나가면서 그것을 구실로 군사파쑈독재체제를 더 강화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반공대결과 파쑈적폭압의 길은 결코 궁지에 빠진 남조선통치배들의 출로로 될수 없다. 남조선위정자들의 통치위기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자체가 안고있는 모순의 산물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미추종정책, 파쑈화정책, 민족분렬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것이며 남조선에서 통치위기는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거부해나서는것은 다음으로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두개 조선》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

한 《승공통일》의 야망을 결코 버리지 않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내놓은 이른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남북련합》의 과도적단계를 거쳐 총선거의 방법으로 제도통일을 실현할것을 예견하고있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헌법》 제3조에 전조선령토를 저들의 《령토》로 규정해놓고 이 지역에는 저들의 《주권》이 미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북과 남이 서로 사상과 제도를 인정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해하지 않을데 대하여 확약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들의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의 대화의 막뒤에서 《북을 수복》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며 무력증강과 신형무기반입, 대규모의 전쟁연습 등으로 이른바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되여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와의 회담에는 성실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한것은 그들의 사대근성과 분렬주의적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이다.

우리 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때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된 힘은 필승불패이며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수 없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결코 실현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불가침문제에 대한 립장은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심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원한다면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려고 할것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주저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로 이 길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도 우리의 진지한 평화노력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조국통일열망을 바로 보고 힘의 립장에 선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며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

력사에 조국통일의 년대로 기록될 1990년대의 두번째해를 맞는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올해를 반드시 완화와 평화의 해, 화해와 단합의 해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력사적인 해로 전변시킬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시장경제강요책동의 반동적본질

서 재 영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이행》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사상정치분야에서 부르죠아자유화와 다당제를 강요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시장경제를 받아들일것을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시장경제는 리윤추구를 생산의 목적으로 하고 무제한한 자유경쟁과 가치법칙의 조절적작용에 의하여 유지되는 경제이다. 시장경제의 근본특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고있으며 생산과 류통이 자연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진행된다는데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사람의 로동력까지도 포함한 모든것이 상품으로 되며 사람들사이에 지배와 예속, 착취와 피착취의 적대적관계가 맺어진다.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근로대중은 단지 생산의 요소로만 취급되고 그들이 창조한 물질적부의 압도적부분은 생산수단을 독점한 소수 착취계급의 치부수단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강요하는 시장경제는 다름아닌 자본주의경제이다. 자본주의경제, 시장경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경제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저들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도록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언론수단과 사상문화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앞세우고 자본주의의 《물질적번영》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속에서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이와 함께 《원조》와 《협조》를 미끼로 사회주의나라들에 국영기업체들을 해체하여 개인경리를 복귀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없애고 경제를 자유화할것을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시장경제강요책동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여러 국제경제기구들도 리용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저들의 시장경제도입에 대한 강도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적요소를 부활시키는 조건에서만 차관을 주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고있다. 사실상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이 장악하고있는 국제경제기구가 주는 《원조》와 《협조》는 대부분 그 나라들이 자본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정도와 정치경제적으로 저들에게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제공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시장경제강요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를 자본주의경제로 되돌려세워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전략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있는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길로 되돌려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21페지)

사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류력사상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사회적존재로 내세우고

그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 온갖 물질문화생활조건들을 보장해준다. 이 세상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는 사회주의사회밖에 더는 없다. 사회주의사회를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해주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평화적 이행》전략의 일환으로서 사회주의나라들에 시장경제를 집요하게 강요하는 목적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자본주의경제제도로 변질시켜 이 나라들의 경제를 저들의 지배통제밑에 두려는데 있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거세하고 그 영향력을 막는데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에 시장경제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시장경제강요책동은 시장경제의 성격으로 보나 그 책동의 목적으로 보나 철두철미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시장경제로 복귀시키려는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경제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이 특성들로 하여 자본주의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회경제생활전반에서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시장경제를 강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제를 사적소유제로 복귀시켜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허물어버리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소유인 국영경리와 협동적소유인 협동경리가 있다.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다같이 사회적소유이며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룬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시장경제강요책동에서 노리는 주되는 목표는 바로 사회주의국영경리와 협동경리를 개인경리로 복귀시키자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대로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를 개인경리로 복귀시키면 기필코 사회주의적소유는 사적소유로 되여 사회주의경제의 기초는 허물어지고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자본주의경제제도로 되돌아가게 된다. 경제제도의 성격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사회적소유가 지배하는 사회의 경제제도는 사회주의경제제도로 되고 사적소유가 지배하는 사회의 경제제도는 자본주의경제제도로 되기마련이다.

사회주의국영경리와 협동경리를 개인경리로 복귀시켜 생산수단을 사적소유로 만들면 생산조건이 유리한 소유자들은 치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거나 령락되여 사회적집단은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분렬되게 된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수백년전에 이러한 리치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들과 수백수천만의 빈곤자들도 바로 이 리치에 의하여 생겨났다.

국가적소유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국가적지도를 떠나 기업소들에 완전한 독자성을 주고 리윤분배를 제 마음대로 하게 한다면 그러한 소유는 본질상 사적소유와 다를바 없다.

사회주의적소유는 그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되여야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공동소유로서의 우월성을 발휘하게 된다. 아무리 국가적소유라 하더라도 관리는 자본주의적방법으로 하거나 개인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게 한다면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개인기업과 같은것으로 된다. 소유관계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경제관계의 기초이지 그 전부는 아니며 경제관리방식에 따라 소유관계의 성격이 변화될수 있다. 국가적소유의 기업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자는 실제

적인 기업의 주인으로 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기업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기업소는 순전히 법적형식에 있어서만 국가적소유에 불과한것이다.

사회주의적협동경리는 더구나 소집단의 소유이므로 국가의 통일적지도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에는 필연적으로 소집단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경리로, 자본주의적협동경리로 되고만다.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든지 국가적소유제를 허물거나 약화시키며 협동적소유를 국가가 방임하는것은 사적소유, 자본주의적소유제를 부활시키고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파괴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자본주의경제제도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경제, 근로인민대중의 힘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제를 건설하려면 사회주의적소유를 확고히 틀어쥐고 그 우월성을 옳게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어떤 처방으로도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튼튼히 다질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를 자유화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거세하려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와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우월한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가 자본주의경제에 비하여 우월한 경제로 되는것은 바로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소유형태와 근본원리에서 우월할뿐아니라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밑에 목적지향성있게 발전한다는데 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떠나서는 결코 사회주의경제라고 말할수 없으며 경제의 목적지향성있는 계획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보장하여야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경제건설에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물질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요구를 옳게 충족시킬수 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나라들이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커다란 사회경제적진보를 이룩할수 있은것도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밑에 경제를 발전시켜왔기때문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시장경제를 강요하여 달성하려는 음흉한 목적의 하나는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없애버리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경제를 자유화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자유화할 때에는 가치법칙이 생산과 류통을 자연발생적으로 조절하는 상품시장이 생겨나게 되며 시장을 통한 무제한한 자유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조장되고 경제의 균형이 파괴되여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에서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

경제의 자유화는 기업소자체에 의한 생산지표의 설정과 생산물의 자유매매, 자유가격제의 실시를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의 자유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생산지표를 국가가 기업소들에 규정해주는것이 생산과 류통을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국가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타산하여 기업소들에 생산지표를 규정해주어야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확대재생산의 고리들을 합리적으로 맞물릴수 있다.

그러나 기업소들이 시장의 가격수준을 보고 마음대로 생산지표를 설정하거나 수요자기업소와의 자유계약제도에 의하여 생산을 조직한다면 생산과 류통

의 자연발생성을 면할수 없다. 국가적지도를 떠나 공장, 기업소들에서 마음대로 생산한 제품은 자유매매되는것이 필연적이다. 생산물유통의 자연발생성은 지역적범위가 넓고 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할수록 더 심해지게 된다.

생산과 류통이 바로 진행되자면 국가가 생산지표를 규정해주고 생산된 제품을 계획적으로 실현할뿐아니라 계획가격제도를 옳게 세워야 한다. 계획가격제도가 바로서있지 않을 때에는 생산과 류통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여 불피코 시장경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계획가격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 자유가격제를 받아들이도록 그토록 강요하고있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가격을 완전히 자유화하면 마치도 생산과 수요의 균형도 잘 맞추어지고 인플레를 없앨수 있는듯이 선전하고있지만 오늘의 자본주의나라들의 시장경제형편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가격공간 그자체로써는 생산과 수요의 균형은 커녕 인플레도 억제시킬수 없다.

기업소자체에 의한 생산지표설정, 생산물의 자유매매, 자유가격제의 실시는 서로 작용하면서 경제발전의 자연발생성을 가져오며 가치법칙이 생산과 류통을 조절하게 한다. 경제의 명맥을 이루는 부문에 국영기업체들이 있고 협동경리들이 늘어난다 하여도 이러한 세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면 그 경제는 자본주의적성격을 띠게 되며 나아가서 자본주의경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가에 의한 생산지표의 시달, 생산물의 계획적류통, 계획가격제의 고수, 이 길에서 벗어나는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포기하는것으로 되며 설사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경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의 시장경제강요책동은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적기초를 허물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거세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자본주의경제제도로 복귀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려는 반동적인 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시장경제강요책동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똑바로 보지 않고 그것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면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생활에 돌이킬수 없는 막대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있는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계획경제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생산과 류통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발전의 통일성이 파괴되고있다. 그리하여 벌써 자본주의사회에 고유한 현상들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빈부차이의 격화, 기업의 파산과 생산감퇴, 경제적침체가 초래되고있으며 대중적실업과 물가폭등, 암거래의 성행, 인플레의 격화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협하고있다.

뽈스까에서는 지난해 12월말에 실업자가 112만명에 이르렀다. 이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개의 일자리를 놓고 189명의 실업자들이 달려들어 그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렸다고 한다. 뽈스까에서는 또한 1990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공업제품판매액이 25% 줄어들었다. 그중 경공업제품판매액은 37% 떨어졌다. 지난해에 소비품값은 약 500%나 뛰여올라 주민들의 생활을 극도로 불안케 하였다. 올해초에 물가는 또 대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올해 1월초만 하여도 상품가격이 평균 40%, 일부 상품가격은 50~60%까지 올랐으며 벌가리아에서는 지난해 하반년기간에만 하여도 물건값이 50.6%나 뛰여올랐다.

시장경제는 사회의 부유층, 착취계급을 낳는 반면에 대다수 근로자들을 빈궁화시킨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고있는 나라들에서는 개인기업가들, 모리간상배들, 협잡군들이 대대적으로 생겨났으며 이들에게 막대한 재부가 집중되고있다. 벌써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월소득은 자본주의나라 중소규모기업주들의

월수입에 못지 않는 규모에 이르게 되였다. 이와 반면에 대다수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국가의 관심과 배려 밖에서 날로 어려워지고있다.

지난해 12월말 유고슬라비아신문 《보르바》가 밝힌바에 의하면 헝그리아에서는 200만명의 사람들이 빈궁에 빠졌는데 그들의 월수입은 최저생계비도 안된다고 한다. 신문은 경제개혁으로 30만세대의 가정이 파산되였으며 앞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수와 함께 한끼의 끼니를 에우기 위하여 《구제식당》에서 줄서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늘어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돈만 알게 하며 사회악과 패륜패덕이 점차 사회를 지배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경제제도, 경제관리방식은 사람들의 사상, 정신도덕적풍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에 의하여 극도로 조장되고있는 리기주의와 치부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과 물건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게 하고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리속을 채우는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게 하고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사회와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열하고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의 운명이 돈에 의하여 결정되게 하고 그들을 황금만능사상과 부르죠아적생활양식으로 오염시키고있으며 온갖 사회악과 패륜패덕이 늘어나게 하고있다. 부르죠아자유화를 허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집단적인 강도, 지어 총기류에 의한 살인과 략탈, 마약밀매가 심해가고있으며 알콜과 마약 중독자들도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도입은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 조성된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할수 있는 처방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조장시키는 촉진제로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시장경제강요책동이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제도를 자본주의경제제도로 복귀시키려는 반동적인 책동이며 사회를 과국에로 이끌어가는 마약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시장경제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경제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역행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책동이다. 사회발전은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상승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주의경제가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경제라면 시장경제, 자본주의경제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경제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시장경제가 우월한 경제인듯이 미화분식하고있지만 그 반동성은 여며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되살리고 사람들사이의 경제적불평등을 초래하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본주의시장경제로는 결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시장경제강요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의 계획화 사상과 리론을 신념화하고 경제건설에 더 잘 구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시장경제를 강요하기 위하여 아무리 악랄하게 책동하여도 우리 인민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확고히 고수하며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나갈것이다.

부르죠아인도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

최 철 웅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은 부르죠아인도주의를 반공, 반사회주의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무기로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저들이 그 무슨 《인도주의자》이며 자본주의가 가장 인도주의적인 사회인것처럼 떠벌이면서 이미 파산된 기만적인 부르죠아인도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선전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죠아인도주의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목적은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가리우고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습니다.》(《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10페지)

인도주의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 존경 그리고 인간의 복리증진과 전면적발전을 위한 조건 및 기타에 대한 견해와 관점의 총체를 말한다.

처음에 인도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소박한 형태로 제기되였다. 그후 인도주의는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부르죠아지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에 의하여 사상운동의 형식으로 리론화되였으며 그것은 부르죠아지들을 위한 사상적도구로 되였다.

부르죠아인도주의는 《인간성옹호》의 감언리설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타협을 조장하고 인민대중의 반제의식을 마비시키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극악한 반동적부르죠아사상이다. 바로 여기에 부르죠아인도주의의 반동적본질이 있다.

부르죠아인도주의는 14~15세기에 봉건주의와 교회의 중세기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신흥부르죠아지의 해방의 요구를 담아 《개성의 자유》와 《인격평등》을 주장하는 사조로 발생하였다. 부르죠아지들은 당시 봉건적인 신분적예속에서 신음하는 농노, 농민들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마치도 그들의 비인간적처지를 동정하고 위하는것처럼 《인간성》과 《인격의 존중》 등 기만적인 구호를 표방하였다. 부르죠아인도주의는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인도주의는 자본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반인민적이며 비인간적인 본질을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며 그들을 자본의 노예로 얽어매기 위한 기만적이고 반동적인 사상적무기로 복무하고있다.

부르죠아인도주의는 극단한 개인주의를 고취하는 인간철학, 실존주의, 프로이드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부르죠아철학사조들과 부르죠아륜리관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다. 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은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고립된 생물학적인간을 《인도주의리상》으로 내세우며 부르죠아륜리학이 설교하는 《초계급적》인 《인간성》, 《인간애》를 《인도주의》의 《중심적》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인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따라 인도주의의 성격이 규정되게 된다.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하는 힘있는 존재로 볼 때에는

참된 인도주의로 되며 반면에 사람을 단순히 동물과 같은 생물학적존재로, 개인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리기적인 존재로 볼 때에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인도주의로 된다.

부르죠아인도주의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철두철미 반인민적이며 기만적이고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다.

부르죠아인도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있다.

부르죠아인도주의가 내세우는 주요한 주장들은 《인간성》과 《자유》, 《평등》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성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과 품성이다. 다시말하여 인간성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의 아픔과 기쁨을 자기의 아픔과 기쁨으로 여기고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줄 아는 고상한 정신과 품성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론자들은 초계급적인 《인류애》, 《박애》를 모든 사람들이 체현하는 《인간성》으로 묘사함으로써 참된 인간성을 외곡하고있다. 그들은 사람은 누구나 천성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동정하는 《자연적애》와 《륜리적애》를 가지고있으며 비록 리기적본성을 가진다 해도 《리성》의 《조절적작용》으로 《자기자신에 대한 절제》, 《적당한 자기애》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자본가계급들도 그 무슨 타고난 《인류애》, 《박애》를 가지고있는듯이 선전하는 반동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적대립과 계급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한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경제적기초로, 극단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고있으며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기본생존방식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 인간성이란 도저히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과 극단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가장 부패하고 반동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원래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혼자만 잘살려는 개인리기주의는 착취계급의 사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최대한의 리윤추구를 위한 착취계급의 리기적탐욕은 절정에 이르며 사람들속에서는 황금만능의 생활철학이 지배한다. 인격적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시킨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준으로 되며 돈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비인간적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결국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개인의 치부와 향락, 공명과 출세를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한다. 이러한 비인간적관계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참다운 인간성이란 결코 있을수 없으며 그에 대하여 생각할수도 없다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다.

부르죠아인도주의가 설교하는 《자유》와 《평등》도 《인간성》과 함께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을 《인간성발양》의 조건으로, 《인도주의의 불가분적요소》로 묘사하면서 마치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온갖 자유와 권리, 평등이 보장되는것처럼 떠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요란스럽게 설교하는 《개성의 자유》나 《인격의 자유》는 그 어떤 진정한 정치적신념도 없이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고 개인의 출세와 부패타락한 동물적향락에 몰두하는 《자유》이며 개인

주의와 리기주의로 일관된 부르죠아적 자유이다. 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의 《자유》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어 그들이 자본주의제도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자는데 있는것이다.

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은 《날 때부터 가지는 불가양도의 평등권》이니 《법에 의한 인격평등》이니 하면서 《평등》에 대하여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한갖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착취와 압박이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극도에 이른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사이의 평등이란 도저히 있을수 없다. 무제한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유한 특권계층과 실업과 빈궁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근로인민대중사이에 평등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평등에 대한 부르죠아인도주의의 주장은 착취사회에서 사회적불평등과 계급적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르죠아인도주의가 표방하는 《인간성》이나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미화분식하고 인민들의 자주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위선적구호로 되는것이다.

부르죠아인도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은 다음으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진면모를 가리우고 자본주의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데 있다.

현대제국주의는 대내외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있으며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를 겪고있다.

모순에 찬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는 사람의 개성을 말살하고 사람을 비인간화하며 각종 사회악을 빚어내고있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더는 숨길수 없이 드러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위기와 파국적후과에 대한 가짜비판과 거짓치료책을 광고하는 교활한 술책을 꾸며내고있다. 그 하나가 바로 현대부르죠아인도주의이다.

부르죠아변호론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구체적분석을 떠나 사회일반에 대하여 고찰하고있으며 자본주의제도의 위기를 전인류의 위기로 묘사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에서 실존주의철학과 대중사회론을 비롯한 잡다한 사조들은 례외없이 《인류의 위기》, 《인간의 위기》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현대문명》사회에서 인간은 《기술의 노예》, 《소비가치의 노예》, 《기계화된 사회체계의 노예》로 되는 《위기》를 겪고있다고 제치고있다. 그러나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떠들어대는것처럼 《인간위기》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물질문명이 발달되였다고 하여 오는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것이 억만장자들의 무제한한 치부와 특권을 위해 복종되고 정치생활의 반동화, 물질생활의 기형화, 정신생활의 빈궁화를 동반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위기이고 멸망의 막바지에 이른 자본가계급의 위기이며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사상과 도덕의 위기이다.

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위기의 근원도 외곡묘사하면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방》, 착취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방도》를 고안해내고 있다.

제국주의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륜리도덕적으로 《수양》되지 못하였으며 《인간성》이 《이질화》된데 있다고 설교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지나친 치부욕》과 《성적본능의 불만족》, 《리성의 변질과 인간성의 대립》과 같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자본주의사회의 위기의 원인이 있는것처럼 꾸며대고있다. 이로부터 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은 위기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이 아니라 《인격수양》과 《도덕배양》에 몰두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그들은 《우리를 억압하는것은 우리들의 내면적인 약점, 무

능력에서 오는것이며 인간과 세계와의 대립을 반드시 내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과 《교양》, 《새로운 세계적륜리의 확립》, 종교적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그러진 인간성을 재생》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다. 제국주의옹호론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속에서 극도의 현실도피와 계급협조, 개량주의적환상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욕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자본의 노예로 만듦으로써 제국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자본주의제도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위기를 제거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간해방의 가장 근본적인 방도는 사람들의 《자아의 완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제도,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데 있다.

부르죠아인도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은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 반사회주의적책동을 합리화하는데 있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변함없는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파멸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평화와 진보의 성새인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기 위하여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반사회주의책동을 사상리론적으로 정당화하고 뒤받침해주는 반동적사조의 하나가 바로 현대부르죠아인도주의이다.

현대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은 《평화》의 구호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감싸고있으며 옹호하고 있다. 그들은 《보편적인 평화》는 《인간적행복실현의 근본조건》으로 된다느니, 《전인류적립장》에서 민족 및 국가들사이의 충돌을 《리성적으로 타협조종하는데 현대인도주의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변호하고있으며 그들을 《평화의 수호자》로 미화분식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평화에 대한 침해》라고 하면서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에 순종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반면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인도주의적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선행》으로 극구 찬양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미화분식하는 부르죠아인도주의의 반동성은 미제의 조선침략사와 그들이 오늘 세계도처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행위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허울좋은 《인도주의》의 간판을 들고 조선침략의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수없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있으며 군사파쑈분자들을 내세워 피비린내나는 인간살륙만행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게 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두개 조선》 정책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다.

미제는 《인권옹호》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자주와 진보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미제는 그레네이더에 대한 무력침략을 감행하여 그 나라의 수상을 살해하고 합법적정부를 전복하였으며 2만여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주권국가인 빠나마를 공공연히 침략하고 국가수반을 랍치해가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세계최

대의 인권유린자이며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의 왕초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인권옹호》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반사회주의책동의 사상적무기로 복무하고있다.

원래 인권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이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있으며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사회주의사회는 인권과 자유가 무시되는 《반민주주의적》이며 《비인도적》인 사회라고 헐뜯으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인권》이 존중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인권》이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극소수 반동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위한 《인권》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그 무슨 《인권문제》가 있는듯이 떠들어대는 진의도는 참된 인민의 사회인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사회주의나라들에 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려는데 있다.

현실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부르죠아인도주의자들이 설교하는 《인권》이 허용될 때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마비되고 불순이색분자들이 준동하게 되며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게 됨으로써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사회정치적후과가 빚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진정한 인도주의는 사회주의적인도주의이다. 사회주의적인도주의야말로 인류가 오랜 기간 력사적으로 갈망해온 가장 고상하고 높은 형태의 참다운 인도주의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는 진정한 인도주의자들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참다운 인도주의가 구현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이 아무리 부르죠아인도주의에 대하여 떠들어대여도 결코 그 반동성을 가리울수 없으며 그 어떤 달콤한 말로써도 인민들을 기만할수 없다.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부르죠아인도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 침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91년 제3호(루계 587호)

편 집 위 원 회

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91년 3월 1일 발 행•1991년 3월 3일

ㄱ—1512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평 양 근로자사 199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제4호(58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인민은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4월의 명절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4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지난날 빈궁과 억압, 세기적락후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오늘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꽃피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가 거연히 일떠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일찌기 민족사에 있어보지 못한 부흥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고있으며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갈 한마음을 굳게 다지고있다.

1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떠세우신 우리 식의 독특하고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 리상으로 그려왔고 수많은 혁명가들이 그것을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친 사회주의가 으뜸가게 훌륭히 세워졌다.

사회주의는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진적인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대표하며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는것을 최고리상으로 한다.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불패의 위력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아무리 선진적이라고 하여도 그자체로써는 자기의 본연의 리념을 옳게 구현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지도사상에 기초하고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에 의해서만 그 위력과 우월성을 발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그 본연의 숭고한 리념과 특성을 가장 빛나게 체현한 우리 식의 독특하고 우월한 사회주의가 건설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상적기초와 건설과정의 특수성에 있어서 그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폭과 깊이, 그 공고성에 있어서 독특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여 세워지고 주체사상에 의하여 발전완성되여나가는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2페지)

사회력사적운동에서 지도사상은 라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위업이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투쟁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마다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실정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기의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이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방식을 기계적으로 본따서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자기 인민의 지향과 념원,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자면 자체의 옳바른 지도사상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그것이 의거하고있는 지도사상에 따라 그 특성과 우월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다름아닌 사람위주의 철학인 주체사상이 구현된 주체의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운명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이며 현실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중심, 인간존중의 사상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드는 참다운 길을 밝혀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위력과 불패성, 그 밝은 전도는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사람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본특징이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기회주의사상조류가 범람하는 환경속에서도 거대한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불패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고있는것은 사람중심의 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기초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민족의 넋으로, 투쟁과 생활의 신념으로 간직하고있기에 준엄한 나날에도 남을 쳐다보거나 남에게 자기 운명을 의탁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도 우리 식대로 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건설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또한 그 건설과정이 독특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적본성을 구현한 우월한 사회로 되자면 반드시 자기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선택되고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건설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참작할만한 기성 리론이나 경험이 없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처음부터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권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쌓으신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계승하시여 해방후 인민정권을 창건하시였으며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탄생한 우리의 인민정권을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 손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세운 정권으로서 남의 도움을 받아 세운 정권과는 달리 처음부터 철저히 자주적인 정권으로 되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비상히 넓은 사회정치적지반을 가진 정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정권을 단순한 권력기관으로가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건설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낡은 사회경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경제관계를 세우는 사업도 우리 혁명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민주주의혁명시기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던 토지혁명을 비롯한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철저히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을 때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과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짧은 기간에 그것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을 제때에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교육, 문화, 보건 제도를 세우는 문제도 우리 인민의 주체적신념에 따라 우리 식으로 해결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 문화, 보건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가 세워졌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식대로 풀어나감으로써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우리 식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건설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또한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우리 식의 독특하고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집단주의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사회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중요하게 그것이 사회관계의 담당자인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게 구현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당과 수령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가장 존엄있고 보람있는 삶을 향유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창조적 생활과 활동을 보장받고 그것을 꽃피워나가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창조적로동에 참가하여 사회와 집단, 자기자신을 위한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고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높은 창조적능력을 가진 존재로 키워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높은 자주의식을 가지고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와 개인의 생명을 집단의 생명과 결합시켜 집단의 믿음과 사랑, 집단의 도움속에서 영생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훌륭히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또한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심동체를 이루고 그 불패의 위력에 의거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생명력의 근본조건이다. 계승되는 공고한 중심을 가지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속된것은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며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온갖 난관과 시련을 대담하게 밀어제끼고 승승장구하는 열쇠가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은 당을 자기의 심장과 뇌수로 믿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당과 수령,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되여 일심동체를 이루고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공고하며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다. 이 공고한 일심단결로 하여 우리 사회는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생기와 활기에 넘쳐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소동과 반사회주의책동을 혁명적인 대진군으로 단호히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 땅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찬란히 빛을 뿌리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그 어디에도 비할데 없는 가장 값높은 삶의 보람을 누리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고 행복이며 민족적 긍지이고 자부심이다. 민족의 자랑이고 운명개척의 등대인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는 새 생활을 지향하는 세계의 싸우는 인민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면서 폭풍도, 혁명의 역류도 과감히 헤치고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2

우리 나라에 거연히 솟아 빛을 뿌리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전취물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2폐지)

당과 수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커다란 활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전진의 앞길을 힘있게 개척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은 류례없이 복잡하고 험난하였다. 나라와 민족이 분렬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전인미답의 길을 걸으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사회주의를 오늘과 같이 특색있게 훌륭히 건설하여 그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새기고있으며 그에 대하여 떳떳이 자부하고있다.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에 관한 탁월한 사상리론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해오신것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혁명사상과 리론을 요구하며 그것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며 발전풍부화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아진 빛나는 령도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비롯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을 집대성한 수많은 로작들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넓은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정권건설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으로부터 인간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며 주체의 령도방법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르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독창적으로 해결해올수 있었다.

심오한 사상리론적탐구와 발견을 통하여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보물고는 더욱 풍부화되였으며 온갖 반사회주의사조를 물리치고 사회주의리론의 혁명적진수를 튼튼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불멸의 재부로 된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력사적시대와 앞날의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리론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에 넘쳐 힘있게 전진시키고있다.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일관하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이다. 사회주의건설은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성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주체가 선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면 혁명에서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고 자주성을 침해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났다.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간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은 중요한 요인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과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을 아무런 편향도 범하지 않고 곧바른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시켰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작성과 집행에서 일관성과 원칙성이 철저히 담보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우리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주체가 선 우리 식의 힘있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다.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계급적립장,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오신것이다.

정세가 바뀌고 혁명임무가 달라지는데 따라 혁명의 구체적방법은 변화되여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근본립장, 사회주의원칙은 언제나 튼튼히 고수되여야 한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근본립장을 저버리고 원칙에서 물러서면 돌이킬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며 모든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개인주의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로동계급적립장,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사회를 관리하여야 한다.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한 사회주의에 개인주의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방법이 허용되면 사회에 자본주의적요소와 풍조가 범람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성을 면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언제나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시였으며 아무리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로동계급적립장, 사회주의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 투쟁의 진로를 열어나가시였다.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특히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오신것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운동이다. 혁명의 승패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어떻게 의식화, 조직화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맞게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켜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속시키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이 혁명대오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옹성같이 굳게 뭉쳐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신것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멀리 전진하였다. 이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우리 인민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였으며 실지체험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는 아무리 엄혹한 시련이 닥쳐오고 혁명의 역류가 범람한다 하여도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의 한마음으로 높이 받들고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자.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한 위대한 령도

최 태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간고하고 복잡한 로정을 과감히 헤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가장 독특한 사회주의로 세계만방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혁명위업이 아무런 편향과 곡절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자랑찬 사회주의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시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오시였기때문이다.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시였으며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랜 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로정에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이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주체는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된 인민대중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승리하며 전진한다.

물론 혁명투쟁은 일정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조직전개되는것만큼 객관적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객관적조건과 환경은 혁명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아니다.

혁명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결정적요인은 혁명의 주체로 된 인민대중이다. 조직사상적으로 각성되고 결속된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가지고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이 진행되는 객관적 환경과 조건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 이것은 혁명운동을 떠밀고나가는 결정적요인이 조직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뭉친 인민대중, 혁명의 주체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주체로 된 인민대중의 힘에는 한계가 없으며 혁명의 주체의 전진운동을 멈춰세울 힘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키우는데서 기본은 당과 수령의 령도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은 자주의식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그러나 만약 혁명의 주체에서 차지하는 당과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보지 못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키울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롱락되여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며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시였으며 혁명위업이 전진하는데 맞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주체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으며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맞게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왔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2페지)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수령을 최고뇌수로 하고 당을 중추로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될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인민대중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신것이다.

혁명의 주체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상의지적통일체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그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람들은 사상의지가 같아야 하나로 뭉쳐 혁명의 주체를 이룰수 있으며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때문에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시대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확고히 앞세워오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혁명의 주체로 키우는것을 저애하는 기본사조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이다. 주체사상과 사대주의는 량립될수 없다.

사대주의는 지난날 우리 인민의 자주의식을 좀먹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헤아릴수 없는 해독을 끼쳤다.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키울수 없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해방후 몸소 전국사

상층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박혀있는 사대주의사상과 일제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한편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전군중적인 사상개조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전후시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더욱 우심하게 나타났으며 그것은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줄기차게 벌어졌다.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완강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력사적으로 우리 혁명에 해독을 끼쳐온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철저히 극복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주체가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이 땅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짧은 기간에 완수되고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가 거연히 솟아났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새로운 환경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된 인민대중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질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히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사상과 다른 이색적인 사상을 퍼뜨리려고 책동하고있던 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취하시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고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주체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체로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묶어세워 혁명대오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되게 하신것이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데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이다.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속되자면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

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야만 인민대중은 수령과 혈연적으로 결합된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마련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제때에 당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되게 하시였다.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체없이 우리 당을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망라한 대중적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조직로선을 내놓으시고 공산당을 다른 정당들과 합당하여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이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인민대중의 분렬을 막고 각계각층의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새 민주조선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의 조직적단결을 이룩하신것은 당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종파주의는 당의 조직적공고화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고 당과 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이다. 종파분자들은 우리 혁명앞에 시련이 닥쳐오고 난관에 부닥칠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하여나섰으며 전후시기에는 적들과 결탁하여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는 참을수 없는 죄행을 감행하였다.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당의 조직적공고화를 실현할수 없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도 이룩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여 놈들을 제때에 적발분쇄하시였으며 그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그들에 의거하여 모든 난국을 타개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그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그 어려운 투쟁도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종파분자들의 죄행을 알려주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우리 당을 믿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주체를 이루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강선과 락원의 로동계급들과 태성의 할머니를 비롯한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종파분자들이 아무리 쏠라닥거리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혁명의 주체로 굳게 뭉치였다.

당을 강화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자면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당에 의탁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룰수 있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은 당의 인민적인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 의하여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

하시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것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참답게 마련해주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마련하신 대중령도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하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은 우리 당을 참다운 어머니로 믿고 따르며 당과 인민이 운명의 공동체로 되여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나가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을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신것은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령도하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는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의 주체를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발전완성시키시고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의 주체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당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히고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며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앞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혈연적으로 굳게 결합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을 자기들의 심장과 뇌수로 굳게 믿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일심단결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여온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것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3페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련에 찬 투쟁로정이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오랜 기간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나라가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국토와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거기에다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되였으며 력사적으로 우리 혁명과 민족의 발전에 해독을 끼친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나서고있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였다.

조성된 환경과 조건은 매우 어려웠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기때문에 그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립장에서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관철하는 자주적인 정치를 실현할수 있었으며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었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해놓을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나라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빛나는 가장 목특한 사회주의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튼튼히 마련된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되여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것처럼 우리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혁명적구호를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현시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는것이다.

우리는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올린 충성의 편지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된 회답서한을 높이 받들고 당과 함께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로 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당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길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업적을 우리 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창시한 불멸의 업적

강 석 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면서 세기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들을 쌓아올리시였다.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당건설리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당 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당을 창건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건설해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은 당건설에 관한 혁명적리론에 기초하여 조직전개된다.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지침으로 되는 혁명적리론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고 발전완성된다.

로동계급의 수령들은 일찍부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해방투쟁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혁명적당을 건설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그리하여 일련의 당조직건설원칙이 제시되고 로동계급의 당들이 출현하였으며 이때부터 수많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전위부대를 가지고 혁명투쟁을 벌려나가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전면적으로 해명되지 못하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새롭게 밝히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 건설위업의 전행정을 승리적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완성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창시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당창건의 길을 새롭게 밝힌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자주적인 당건설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시였습니다.》

당창건에 관한 리론을 옳게 밝히는것은 당건설위업을 처음부터 올바른 길로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당창건에 관한 리론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면 혁명적인 당을 창건할수 없으며 과학적리론에 기초하여 창건되지 못한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 강화발전될수 없다. 이것은 쓰라린 실

계를 가져온 우리 나라에서의 초기공산주의운동과 심한 곡절을 겪어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이 모든것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1930년 6월에 있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당창건에 관한 리론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여기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주체적립장에 서서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리론이며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리론은 당창건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가며 창건된 당을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밝히고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자주적으로 건설되여야 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 자체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공산주의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자주적인 령도적정치조직이라는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당창건사업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자주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그 초창기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것으로 인정되여온 국제적중앙의 지도나 큰 나라 당의 방조밑에서 당창건사업을 진행하던 낡은 관념이 좀처럼 극복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도 교조주의,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이 제가끔 당파를 뭇고 국제당의 승인이나 받으려 다님으로써 당창건사업은 올바른 길에 들어설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창건사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본질적결함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주체적립장에서 당을 창건하는 길만이 가장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시고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새로운 당건설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1930년 7월초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로 주체형의 첫 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이때로부터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더욱 힘차게 조직전개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에 관한 리론은 만단의 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당창건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길을 밝히고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반혁명의 공세를 짓부셔나가는 준엄한 환경에서 창건되며 튼튼한 토대우에서만 필승불패의 전투적당으로 강화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충분한 준비없이 간판이나 내거는 방법으로 창건된 당은 공중루각과 같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였으며 이 과정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여기에는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공산주의핵심들을 키워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리는 문제,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꾸릴데 대한 문제들과 그 실현방

도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 리론에 의하여 당중앙을 먼저 선포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던 기성방식에서 벗어나 당의 기층조직부터 먼저 튼튼히 꾸린 기초우에서 당을 창건할데 대한 새로운 리론이 정립되였으며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이 확고히 보장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을 건설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이 열리게 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당창건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신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리론적공적으로 된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집권당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이룩하신 다양하고 풍부한 당건설경험에 기초하여 당건설리론을 새롭게 체계화하시였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의 풍부한 집권당건설경험에 기초하여 집권당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집권당건설리론을 완성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완성된 집권당건설리론에 기초하여 공고발전되는 당만이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자기의 령도권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온갖 원쑤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할수 있다.

해방후 제때에 우리 당을 창건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당건설경험을 이룩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집권당건설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집권당건설리론은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당을 건설하는 문제로부터 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 문제,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 문제, 당의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 등 집권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집권당건설에서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 기본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며 그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밑에 완성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적무기로 건설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운 당만이 당안에서 사소한 분파적요소도 철저히 막고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여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만 불패의 위력을 지닌 집권당을 건설할수 있다는것이 리론실천적으로 뚜렷이 확증되였다.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중심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그 기본

핵은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당건설사상이 제시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정확히 구현하는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와 같이 유일사상체계를 세워 수령의 사상과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위력한 당,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당을 건설하기 위한 당건설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당건설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본초석이 마련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집권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의 원천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혼연일체를 이룩하자면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이 확대되여나가는 실정에 맞게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망라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대중적당건설문제는 해방직후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고 로동계급은 아직 청소하였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이 부족한 형편에서 그리고 로동계급의 당인 공산당과 함께 근로자들을 망라한 다른 정당이 존재하게 된 조건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집권당인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1946년 8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립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통일적으로 대표하는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량적장성과 함께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당핵심을 육성하는 문제,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문제, 당장성사업에서 혁명적조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등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당의 질적공고화를 전제로 하는 조건에서 대중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리론이 확립되였다. 이리하여 집권당건설리론에서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으며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진 강유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이 뚜렷이 명시되였다.

집권당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도록 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집권당으로 된 다음에도 사업대상은 여전히 사람이다. 집권당이라고 하여 당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하지 않고 당사업을 행정화하게 되면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건과 더불어 집권당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일관하게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나날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리로,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것을 당활동의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당의 령도의 본질은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이며 당적령도의 근본원칙은 당의 유일적령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것이라고 밝혀주시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을 당적령도의 근본방도로 규정하시였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이러한 원리와 원칙, 방도들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

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제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리론에 의하여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높은 령도력을 지닌 전투적인 당을 건설할수 있는 길이 더욱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집권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의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당건설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키지 못하면 배신자들에 의하여 혁명이 전통과 좌절을 겪게 되고 당건설위업이 중도반단되게 된다는것을 쓰라린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위업의 계승문제를 로동계급의 당의 존망, 그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시였으며 그것을 리론실천적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건설위업을 계승하는데서 기본은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고 그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으며 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할데 대한 리론,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리론 등 당을 수령의 당으로서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갈수 있는 근본방도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이와 같이 그 전체계와 내용의 완벽성과 풍부성에 있어서, 거기에 담겨진 사상의 진리성과 심오성에 있어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의 백과전서이며 위대한 학설이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이 그처럼 위대한것은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시되였기때문이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풍부하고 다양한 당건설의 실천적경험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집대성된것이기때문이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날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당의 위력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혁명업적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세상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당을 건설한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높은 전투력과 령도력을 지닌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당건설리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한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한 탁월한 령도

김 복 신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난관에 굴하지 않으며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적극 다그쳐지고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위력과 생활력은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사회주의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밀고나갈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경제건설에서 언제나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옳게 구현하도록 곧바로 이끄시여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나게 건설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다그쳐나가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빛내여온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계속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원칙과 방법이 세워지고 그것이 철저히 구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기초를 튼튼히 쌓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인것만큼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진행되여야 승리적으로 진척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방법은 사회주의사

회의 기초로 되는 집단주의를 확고히 구현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오직 사회주의의 원칙과 사회주의적방법에 의거하여서만 건설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그리고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27페지)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한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그리고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건설에서 구현해야 할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은 다름아닌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하자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행정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확고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데서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고수되고 구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정에 환경과 조건이 달라질수 있으며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에 부딪칠수 있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진행하는 앞길에 애로와 난관이 있고 안팎의 정세가 변한다고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원칙과 방법을 줴버린다면 경제건설에서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이 침해당하고 낡은 자본주의적잔재들이 머리를 쳐들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지켜야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할수 있으며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리익과 요구를 확고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사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한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추진된다.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 사회주의길은 근로인민대중에게 가장 값높은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길이며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자면 무엇보다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해야 하며 자주성에 대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리익과 요구를 구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경제건설에서 집단주의 원칙과 방법, 사회주의 원칙과 방법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갈 때만이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더우기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동원하는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풀어나가는 방법을 확고히 구현해나갈 때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해야 인민대중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에 관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언제나 로동계급적원칙, 집단주의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경제건설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얼마나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혁명성과 정당성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이 정확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할때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성을 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진통을 겪게 되며 사회생활의 전반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는 가장 옳바른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사회주의공업화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할데 대한 방침과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모든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이 구현되여있으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집단주의적요구, 사회주의적원리를 옳게 구현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로선과 방침에는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되여있으며 경제법칙들의 요구

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방도들이 구현되어있다. 이와 함께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옳게 조직진행함으로써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이러한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과 방침들을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구현해나갈수 있었으며 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시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제시하시였으며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경제관리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4폐지)

전사회적규모에서 밀접히 련관되여 하나의 생산유기체를 이루고있는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를 통일적으로 움직이자면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있어야 하며 혁명적인 경제지도관리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산활동, 로동생활을 사회주의적요구, 집단주의적요구에 맞게 옳게 조직지도하여야만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람들의 생산활동을 조직지휘하는 사업체계인 경제관리체계와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견지해야 할 사람들의 활동원칙을 밝힌 경제지도관리원칙은 마땅히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제도는 사회주의이지만 경제관리체계와 경제지도관리원칙이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옳게 구현하지 못할 때에는 경제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제도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전일적으로 확립된 첫 시기에 벌써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기본핵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화사업에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과학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하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당의 령도밑에 경제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집단주의적요구를 확고히 구현하며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사소한 편향도 없이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게 하시였다.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지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이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시고 과학적인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제시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는데 공헌한 불멸의 업적이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관철하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감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경제건설에서 언제나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성과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의 경제정책이 정당하고 그 관철방도가 명확한 다음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에 중요하게 달려있게 된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은 철두철미 사회주의원리, 집단주의적요구를 구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이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것이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게 하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이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혁명의 주인, 경제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적인 군중관을 확고히 세우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군중을 존경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원칙을 확고히 구현할수 있는 사업체계를 세워주시고 모두가 대중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발동하도록 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감에 따라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경제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에서 나타나는 온갖 자본주의, 수정주의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 집단주의원칙과 어긋나는 낡은 잔재들과 요소들을 제때에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없이는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과 어긋나는 낡은 잔재들을 허용하면 그것이 점차 자라나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좀먹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과 어긋나는 자본주의, 수정주의 요소들을 허용하면서 그것을 끌어들인다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시던 첫 시기부터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과 어긋나는 낡은 잔재들과 요소들을 제때에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기간 당의 사상과 의도를 옳게 파악하지 못한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이 정치도덕적자극을 소홀히 하면서 물질적자극을 내세우려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발로될 때마다 그것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철저히 극복하도

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와 어긋나는 온갖 요소들이 제때에 철저히 극복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이 확고히 구현되게 되였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이 더욱 확고히 구현되게 되였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의 빛나는 구현,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의 고귀한 발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이 확고히 구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이 구현된 결과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것이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로골화되고 주변의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 인민은 추호의 동요없이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일수 있었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구현한 결과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창조한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더 좋게,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창조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전기간 (1957년—1970년)에 공업은 해마다 평균 19.1%씩 장성하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은 물론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도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은 해마다 12.2%씩 장성하였으며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할수 있었으며 인민생활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었다.

오늘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고있다.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온 우리 인민은 오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의 제시는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

윤 기 복

조국통일을 어떠한 방도로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장구한 민족해방투쟁의 로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민족의 통일열망이 전례없이 비등되고 1990년대에 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해결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을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으로 새롭게 정식화하심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새롭게 천명하신것은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1990년대 조국통일위업성취를 위한 의로운 거족적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불패의 고무적기치로 되며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전환적인 국면이 열려지고있다.

지난해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력사적인 8.15범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대화와 통일축제들이 련이어 벌어져 7천만 겨레에게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기록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통일열망을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통일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이다. 조국통일방도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실천적으로는 북과 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보조를 같이할수 없고 통일대화를 전망성있게 진척시켜나갈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민족의 노력과 힘을 한곬으로 합칠수 없다.

더우기 조국통일이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하루빨리 이룩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에서 여러가지 각이한 통일방안들이 제기되고있는 실정에서 북과 남은 하루빨리 조국통일방도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함으로써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나라의 통일방도를 확정하자면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 북과 남의 리해관계, 분단된 오늘의 구체적현실 등이 충분히 고려된 통일방도의 대원칙을 설정하는것이 필수적전제로 나선다. 다시말하여 통일방도를 확정하는데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지도적지침이 없이는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할수 없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새롭게 제시하심으로써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리론실천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입니다.》
(《신년사》, 1991년, 단행본, 17페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이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세우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 그것은 이 출발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통일방도의 대원칙이 달라지고 통일에로 나아가는 길이 갈라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이 근 반세기동안 지속되는 과정에 산생된 북과 남사이의 차이점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비록 나라가 분단된후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 이질적인 사회가 세워졌지만 오늘에 와서도 북이나 남이나 민족만은 여전히 하나의 민족, 동질적인 민족으로 남아있으며 차이점보다는 민족적인 공통성, 동질성이 더 말할수 없이 크고 가장 중요하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밝혀주시였다.

나라는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으나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공통성, 동질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이 엄연한 객관적현실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민족을 특징짓는 주되는 징표인 혈통과 언어에서 북과 남은 변한것이 없으며 조선민족으로서의 혈통도 같고 언어도 같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이 오랜 력사민족으로서 창조하여온 찬란한 전통을 가진 민족문화, 유구한 세월 조선민족으로서 지녀온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더없이 용감하고 슬기롭고 근면한 민족적기질, 고상하고 례절바른 민족적품성 등에서도 여전히 같은것이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민족의 어느 표징을 놓고본다 하더라도 완전히 같은 민족이며 민족적공통성, 동질성에서 변화된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북과 남사이에 서로 다른것이 있다면 지난 40여년동안 존재하여온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인데 그것은 수천년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동질성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로 될것이 없다. 분렬의 장벽으로 오래동안 격페상태에 있었지만 북과 남의 인민들이 만나기만 하면 같은 형제자매로서 인차 서로 친숙해지고 함께 얼싸안고 돌아가게 되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몸에 조선의 피가 흐르고있으며 조선의 넋이 살아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사람들이 수천년동안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동질성을 차요시하고 40여년동안에 생겨난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을 절대화하여 《동질성》회복을 부르짖으면서 제도가 단일화되기전에는 두개 국가로 갈라져있을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으며 그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이나 다름없다.

사회의 이질성보다는 민족의 동질성을 더 귀중히 여기고 제도의 차이점보다는 반만년의 력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 립장에 설수 있으며 이러한 립장을 지키는데서만 현실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된다.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통일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는 오늘의 실정에서 력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 두 정부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얼마든지 공존할수 있는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이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전적으로 맞는다는데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제도와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있다. 반세기 가까운 분단의 력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굳어져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것은 비현실적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는것이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것은 그 실현방도가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방법이건 모두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어느측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며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까지 빚어내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이 더없이 귀중하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이러한 방도를 택할수 없으며 또 택하여서도 안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되여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방식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의 회담에는 전혀 성실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하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행위이며 이미 파산된지 오랜 《승공통일》론의 재판이다.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이 《승공통일》을 입버릇처럼 외워왔지만 누구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또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상대방을 먹고 흡수통합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실증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립

장은 확고부동하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북반부에 세워놓은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 오늘도 우리 식으로 계속 발전완성시켜나가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는 필승불패이다. 그 누구도 존엄있고 위력한 우리의 사회주의를 감히 건드릴수 없으며 그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현실적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는 길은 오직 북과 남이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서로 그것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국가만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길, 다시말하여 련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은 나라의 분렬이 더이상 지속되는것을 막고 북과 남이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대결의 방법이 아니라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서로 다른 두 제도, 두 정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기초우에서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 민족적단합의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원칙이며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가장 심오하고도 완벽한 해답을 준 강령적지침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도로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벌써 10년전에 제시하신 이 방안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 구현된 통일방안인것으로 하여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가장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리익을 전혀 침해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숙망을 가장 쉽게 그리고 매우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위용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것이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에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으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시였다.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은 조국통일방도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들을 충분히 고려한 아량있고 신축성있는 제안으로서 여기에는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빨리 확정하여 가까운 앞날에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숙망을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원대한 구상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련방제통일방안을 밝혀주신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울여오

신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또하나의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그것은 오로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며 1990년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위대한 기치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구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다시금 심오하게 천명하신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찬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통일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숙원이며 가장 절박한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오늘 우리앞에는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하는것이 잠시도 미룰수 없는 긴절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 통일방안이다.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련방제통일방안밖에 다른 길이란 없다.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련방제통일방안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곧바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총집결하여 범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자체가 하나로 굳게 단합되여야 한다. 지금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가 합쳐지지 못하고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중요하게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이 저마다 제나름대로의 통일방안을 내놓고 주장하며 아직도 북과 남, 해외를 망라하는 범민족적인 통일대화와 정치협상을 통하여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민족성원모두에게 접수될수 있는 하나의 원칙, 하나의 통일방안이 마련되면 통일을 바라는 전체 애국력량이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통일문제해결에서 힘을 합치고 보조를 같이할수 있다.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련방제통일방안이 명시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애국세력이 하나의 기치밑에 총집결할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 되고 광범한 통일애국세력이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련방제통일방안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속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 각국 인민들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1990년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앞당겨 성취할것이다.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

강 현 수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하고 공고한 사회주의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오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는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4페지)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의 공고성을 규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떠밀어주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의 공고성은 당과 인민이 얼마나 위대하며 어떤 사상에 기초하고있고 사회제도가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 제도인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당은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이고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담당자이며 사회제도는 그 사회적바탕이다. 당과 인민이 위대하고 지도사상이 혁명적이며 사회제도가 우월한 사회주의만이 공고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에 의하여 령도된다는데 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다. 당의 령도가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의 건전한 존재와 끊임없는 공고발전을 담보하고 규제하는 근본요인, 필수적조건으로 된다는데 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사회의 존재와 공고발전을 담당하고 추동하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는 혁명의 주체의 주동적작용과 능동적역할에 의하여 공고발전한다. 혁명의 주체는 사회주의의 존재와 공고발전을 담보하는 담당자이며 추동력이다. 물론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는 객관적 조건과 환경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결코 사회주의사회발전을 규제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되지 못한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은 혁명의 주체에 있으며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은 혁명의 주체의 령도적력량이며 핵심력량이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은 당의 령도적역할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여야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될수 있다. 당이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 향도적력량인것만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자면 당부터 강화하여야 한다. 당이 위대

하고 사상적으로 전전해야 대중이 사상적으로 전전할수 있고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될수 있다.

당의 령도는 옳바른 투쟁 전략과 전술, 정확한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심각한 계급투쟁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거창한 투쟁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옳바른 투쟁 전략과 전술, 정확한 로선과 정책에 의해서만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끊임없이 공고발전할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위대한 당의 령도에 의하여 해결된다.

인민대중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어 뿌리박고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며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옳바른 전략과 전술을 제시할수 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올수 있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과정에서 혁명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에로의 길은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인것만큼 사회주의가 전진하는 과정에 예견치 않았던 난관에 부닥칠수도 있고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겪을수도 있다. 또한 혁명의 조건과 환경도 달라질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 원칙과 립장, 방법에서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다른 사회적운동들과 구별되며 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의거하여 앞길을 개척해나가며 공고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 원칙과 혁명적립장을 고수하는데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의 원칙과 혁명적립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적방법을 견지하는데서 오늘 자그마한 타협이나 양보를 하게 되면 래일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투항하게 되며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전복당하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에는 그것이 의거하는 지도사상과 건설 및 운영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색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적령도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같은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떠난 그 어떤 사회주의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가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발전한다는것과 자본주의적으로 변질된다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회주의가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발전한다는것은 로동계급적성격, 혁명적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운영해나간다는것이다.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줴버린다면 간판은 어떠하든 관계없이 자본주의적으로 변질되는것으로밖에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오직 그 본질과 성격에 맞게 사회주의의 원칙과 사회주의적방법에 의거해서만 건설할수 있으며 그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원칙성은 중요하게 제국주의

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위업을 방해하고 와해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분쇄될수 있다. 현실은 당이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데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가 맥을 추지 못하며 당이 원칙을 양보하고 저버리는곳에서는 사회주의가 변질되고 좌절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의 전과정에 시종일관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여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집중되는 류례없이 복잡하고 첨예한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켜왔으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한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참된 길이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으로 되며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는 또한 그것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에 의하여 강화발전되여나간다는데 있다.

튼튼한 정치적지반과 위력한 경제적 기초는 사회주의의 공고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주의의 공고성은 튼튼한 정치적지반과 위력한 경제적기초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정치적지반과 경제적 기초는 당의 령도에 충실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마련되고 축성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여 튼튼한 정치적지반을 이루고있는 가장 공고한 사회주의이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 공고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은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있다.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정치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충실성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심단결을 이루어야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적지반이 튼튼히 다져질수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 자기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위대한 인민이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인민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에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투철한 립장과 자세가 반영되여있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것이라면 기어이 해내려는 신념과 의지가 체현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이 구호를 투쟁의 신념으로,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꽃피우는 길에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확고한 결심에 넘쳐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

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충성심에 불타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은 자기의 심장과 뇌수이고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은 자기 생명의 뿌리이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인민의 신념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당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여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사랑과 충성의 혈연적관계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루고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의리로 따르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여 튼튼한 사회정치적지반을 이루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그처럼 공고하고 위력한것이며 비길데없이 우월한것이다.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그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해서만 끊임없이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우리 인민들은 력사적으로 자기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과 정책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투철하였으며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전후의 령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였던 간고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천리마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단 14년동안에 빛나게 수행하고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인민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70일전투속도》와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였으며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튼튼한 경제적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 혁명성이 강한 좋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정치적 지배와 간섭도 경제기술적인 압력이나 군사적위협도 단호히 물리치면서 자체의 힘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해나가는 주체가 선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튼튼한 경제적기초와 믿음직한 군사적담보를 가진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다.

반석같은 사회정치적지반과 위력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고있으며 불패의 자위적국방력에 의거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가장 공고하고 우월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로 빛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는 또한 그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발전완성되여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공고성은 그 사상적기초의 공고성이다.

어떤 사회에나 거기에는 지배적인 사상이 있으며 사회의 지배적사상은 해당 사회의 사상적기초를 이룬다. 사회주의

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며 사회주의의 발전은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사상리론의 과학성, 혁명성, 현실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에서 지도사상이 결정적역할을 하기때문에 진보와 반동사이,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대결의 기초에는 언제나 사상분야에서의 대결이 놓이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을 침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도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를 허물어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가 공고하지 못하면 부르죠아사상의 침습을 막을수 없으며 사회주의사회안에서 각이한 사조와 주의주장이 머리를 쳐들고 정치적다원주의가 허용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가 사상적으로 병들고 와해되게 된다. 사상적와해는 필연적으로 조직적파괴를 가져오게 되며 로동계급이 피로써 전취한 사회주의정권을 부르죠아지들에게 탈취당하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오직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건설되고 공고발전되는 사회주의만이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도 자기의 생명력과 우월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편향과 곡절이 없이 승리의 길로만 전진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도 끄떡함이 없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인 사상이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로동계급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을 주고 그것을 개척하기 위한 길을 오늘의 조건에 맞게 정확히 밝혀주는 가장 현실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사상, 리론, 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이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공고발전하여온 근본비결은 주체사상을 구현한데 있다.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우월성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적우월성은 사람중심의 사회,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회라는데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사람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 우월성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하여주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거나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 자식을 공부시키고 병치료를 받을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생활기풍과 건전한 생활양식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모두가 유족하고 문명하게 생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모 인민의 지향과 요구, 리익에 맞게 세워지고 국가의 시책도 인민을 위하여 베풀어지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무슨 결정을 하나 채택하여도 먼저 인

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였으며 하나의 공장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여도 인민들의 편의가 원만히 보장되도록 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인민대중의 복리를 위한 공산주의적시책들이 수많이 실시되고 우리 인민의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는것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우리 사회주의국가의 헌신적인 복무와 매개 가정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미치는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들과 뜨거운 배려는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낳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를 념원과 리론으로만 알고있던 지난날의 인민이 아니며 착취와 압박이 없고 누구나 자주적으로 평등하게 사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인민이다. 이런 인민이 지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수 없으며 그 어떤 회유와 유혹으로도 약화시킬수 없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은 철석같은것이며 확고부동한것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은 이 귀중하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사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 높은 혁명적 자각과 의지를 가지게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의 사회주의가 제일 좋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겠다는 드팀없는 의지로 맞서고있다.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위대한 혁명적인민의 굴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주체의 사회주의는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아무런 진통과 좌절도 모르고 승승장구하고있으며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하고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사회로서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특징을 규정하는 사상적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사상적기초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공고한 사회주의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개척하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당과 인민의 위대성,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공고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수령의 위대성은 바로 수령이 위대한 당을 건설하고 위대한 인민을 키워내는데 있으며 당과 인민을 이끌어 가장 공고하고 우월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성은 나라와 민족, 당과 인민의 위대성을 낳는 근본요인이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당의 세련된 령도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로 공고발전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기때문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인민을 력사의 위대한 창조자로 더 잘 준비시키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감으로써 가장 우월하고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위대한 혁명학설

정 성 철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이며 주체사상을 떠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함으로써 조선혁명은 사대와 교조로 인한 요람기의 진통에서 벗어나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는 락후와 빈궁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동방에 거연히 일떠서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기때문에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사상의 파산》,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적혼란과 무정부상태가 조성되는 착잡한 정세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주체사상은 시대와 혁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운동을 힘있게 고무하는 투쟁의 기치이다.

* *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자주위업 수행에 복무하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13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인식과 개조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자주위업 수행을 위한 투쟁의 근본원리,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위대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실천적요구를 구현하고 혁명투쟁경험에 기초하여 체계화된 혁명사상이라는데 있다.

시대의 요구, 자주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구현하고 실천투쟁경험에 기초하여 체계화된 사상만이 가장 과학적인 혁명학설로 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자주위업 수행에 참답게 복무하는 투쟁의 무기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자주위업은 그들자신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런것만큼 혁명사상과 리론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과학적인 혁명학설로 되자면 자주시대의 요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실천적요구를 구현한 혁명사상으로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 시대 혁명실천은 선행시대에 대비할수 없이 다양해졌으며 심화되였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력사적

과업이 복잡하게 제기되였다.

사회의 물질경제적관계를 중심에 놓고 일부 자본주의나라의 사회경제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경험을 일반화한데 기초하여 주로 자본의 전복을 위한 혁명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힌 선행리론만을 가지고서는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혁명실천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수 없었다.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모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구현하고 실천투쟁경험을 일반화한 혁명사상을 창시하여야 하였다.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로 우리 시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하신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관하게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기성리론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적용할수 있으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사상과 리론을 창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운동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서 몸소 쌓으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자주시대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자주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구현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하고 심오한 경험의 일반화이고 총화이다. 여기에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위대한 혁명학설로서의 과학성과 생활력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상과 리론은 실천투쟁경험에 기초하여 체계화된것이라야 그 과학성과 진리성, 생활력이 확고히 담보된다. 혁명실천과 동떨어진 사상과 리론은 많은 경우 가정과 예측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공리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주체사상은 그 어떤 고요한 서재나 도서관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실천의 요구를 구현하고 실천투쟁경험을 체계화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구현하고 실천투쟁경험을 체계화한 사상이라는데 그것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복무하는 위대한 혁명학설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위대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사상, 리론, 방법을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사상이라는데 있다.

혁명사상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위대한 학설로 되자면 그 구성체계와 내용이 완벽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주며 혁명리론과 방법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우선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의 앞길을 밝혀주는 철학적세계관을 준다.

인간의 자주성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투쟁의 숭고한 리념과 목표는 옳바른 세계관에 기초할 때라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인간의 자주성,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고 실현되게 된다. 사람의 운명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으며 인간의 자주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였는가 하는것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선행한 모든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철학의 근본사명에 맞게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정립하였다. 주체철학은 이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됨으로써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새로운 철학으로 되였다.

주체철학은 세계에 대한 견해에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의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혔으며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도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고 사람의 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주체철학은 또한 사회적운동도 사람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사회력사관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와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원리를 사회력사에 구현하여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원리를 새롭게 밝혔다.

이리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구현한 새로운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 확립되게 되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확립은 로동계급의 세계관발전에서 혁명적전환으로 된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에서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고 세계의 물질성과 그 운동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 그 인식의 합법칙성을 밝히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증법적유물론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력사에 적용하여 력사적유물론을 창조하였으며 물질적생활과 사회경제적관계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면서 사회발전을 주로 객관적법칙에 따르는 자연사적과정으로 보았다. 이것은 력사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로동계급을 관념론적 및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에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주어야 할 당시의 력사적과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된다.

주체철학은 선행한 시대와는 달리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것을 근본사명으로 내세우고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철학의 근본문제로부터 그 구성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혁신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밝혀주었다.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가장 옳바른 철학적원리를 안겨줌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참다운 지침을 주었다. 그것은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주었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세계관은 종래의 모든 세계관이 가지고있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주체인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복무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전변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안겨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모든 혁명위업을 전진시키고 인류해방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확립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나라 로동계급이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주로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힌 선행한 혁명리론만을 가지고서는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각이한 단계의 혁명,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벌어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풀수 없었다. 특히 전인미답의 길을 걸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조건에서 그것은 더욱 그러하였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원리를 밝히고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모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주체시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을 위하여 절박하게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힘으로써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혁신하고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 등장한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혁명리론을 새롭게 전개하고 체계화할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우리 시대에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활동의 세 분야,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리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이 완벽하게 확립되였다.

참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총적목표로 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 혁명의 기본내용과 전략전술, 혁명위업완성의 합법칙성을 남김없이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혁명의 지도리론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령도방법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사업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만들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령도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령도방법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를 운영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게 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령도방법문제를 독자적인 리론으로 체계화하여 내놓지 못하였다.

주체사상은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해명하고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하였으며 특히 집권당의 령도방법,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방법문제를 독창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복무하는 위대한 혁명학설로 완성되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방법에는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령도예술 등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밝혀지고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는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인 당과 수령의 령도에 대한 본질과 그 원칙,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본질과 기본요구들이 체계화되여있으며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며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주체적관점을 구현한 혁명적

군중로선에 대한 리론, 관료적행정식 방법과 인연이 없는 혁명적사업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에 관한 리론 그리고 일군들의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 등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시대의 근본요구와 혁명투쟁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참으로 주체의 령도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며 그들의 정치사상적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령도방법이다. 령도방법을 자기의 구성부분으로 하고있는 여기에 또한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혁명학설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에 의하여 힘있게 확증되였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확한 세계관을 밝혀주며 완성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에 구현되여 거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나게 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으며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머리를 구속하던 사대주의, 교조주의,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으로부터 해방되고 확고한 주체적관점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준비되였다. 수령, 당, 대중이 혈연적인 뉴대로 일심단결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함께 투쟁해나가는 필승불패의 동지적단결의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주체사상은 특히 우리 당과 인민대중이 필승불패의 혼연일체를 이룩하게 한 사상적원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단결이 혈연적인 관계로 되였다. 그것은 당의 의도와 활동원칙을 구현하고있는 구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과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고있는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에 집약적으로 담겨져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당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여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사랑과 충성, 믿음과 보답의 관계, 혁명적의리의 관계로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올린 편지와 그들에게 보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회답서한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의 관계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주체사상은 또한 이 땅우에 사람중심의 사회,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혁명학설로 빛나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특징과 우월성은 바로 새롭고 독창적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 특징이며 우월성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과정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과정이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그 누구의 지시나 남의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의 자주적요구와 신념에 따라 선택하였으며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떠세우고 공고발전시켰다.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위업도 자체의 힘으로 실현하였으며 주권문제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립장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리하여 이 땅우에 일떠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이며 집단주의적인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되였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모범》, 《독특한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는 현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사상이며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학설이며 인민대중을 자주위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백전백승의 전투적기치이다.

* *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아직 완수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력사의 전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가로막아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그것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살며 투쟁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빛나게 관철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삶의 요구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끝까지 관철해나갈 때 주체혁명위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불굴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1990년대 대진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계속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사회생활에서 사상정신생활이 노는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

박 정 학

사회생활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꽃피워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은 사회생활이 어떤 분야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어느 분야의 생활이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알아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의 사회생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인간의 사회생활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게 되는것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와 관련되여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 사회적존재로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누리자면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사람은 정치생활과 문화생활, 물질생활에 대한 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린다.

정치생활은 사람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조직사상생활이며 문화생활은 사람이 정신문화적재부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니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이다. 물질생활은 사람이 자연의 주인으로 되여 자연을 개조하고 발전시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함으로써 먹고 입고 쓰고살려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이다. 사람의 사회생활은 이와 같이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본성적요구로부터 정치생활, 문화생활, 물질생활의 세 분야를 포괄하게 된다.

사람의 사회생활이 정치생활, 문화생활, 물질생활의 세 분야를 포괄하고있지만 그것을 보다 폭넓게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2대분야로 갈라볼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활동이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두 분야에서 진행되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사회정치적생명과 육체적생명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생명의 운동과정으로서의 생활도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과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로 갈라볼수 있다.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정치생활과 문화생활은 직접적으로 사람자신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여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상정신생활로 나타나며 물질생활은 물질적면에서 자주적요구를 실현하여 육체적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로 나타난다.

정치생활과 문화생활을 결합시켜 하나의 사상정신생활로 보고 사회생활을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2대분야로 구분하는것은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 사상정치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한다는 사상과 내용상 일치한다. 사상정신생활을 발전시켜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정치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가 완전히 실현되며 경제건설을 다

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인간의 육체적생명의 요구가 완전히 실현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기초하여 보면 사회생활을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2대분야로 갈라보는것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것이다.

결국 인간의 사회생활을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2대분야로 보는것은 사람의 자주적본성이 실현되는 생활분야를 보다 폭넓게 구분하여 본것이며 사회생활을 정치생활, 문화생활, 물질생활의 세 분야로 보는것은 인간의 자주적본성이 실현되는 생활분야를 보다 구체화하여본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회생활을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2대분야로 보는것은 사회생활을 정치생활, 문화생활, 물질생활의 세 분야로 갈라보는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회생활을 폭을 넓혀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2대분야로 갈라보는가 아니면 정치생활과 문화생활, 물질생활의 세 분야로 보다 구체화하여 보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매 분야들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똑똑히 알고 그에 맞게 살며 투쟁하는데 있다.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사상정신생활은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하게 생활한다고 하여도 사회정치적으로나 사상문화적으로 값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정치생활, 사상생활은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어느 분야의 생활이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것을 옳바로 리해하고 생활실천에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을 꽃피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사회생활분야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 호상 제약하고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구성을 이루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꼭 같은것은 아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 생활이 어느것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옳은 투쟁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생활을 꽃피워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생활은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참다운 생활이다. 사회주의생활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집단주의적인 생활이다. 인민들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사회주의생활을 꽃피워나가자면 사회주의사회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공고발전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을 꽃피워나가자면 그들의 사상정신생활을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정신생활의 의의를 보지 못하고 자본주의사회의 기형화된 물질생활에 현혹되여 그것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사상정신생활을 약화시킨다면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울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전반을 파괴하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력사가 남기고있는 심각한 교훈이며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력사적교훈과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의 매 분야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사회생활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람의 사회생활을 꽃피워나가는데서는 물질생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정신생활이다.

사상정신생활이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높여주는 주되는 생활분야이기때문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존엄을 지니고 값있는 참된 삶을 누릴것을 요구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 가장 발전된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의 사회생활은 그 속성의 발현인것만큼 사람은 동물과 같이 객관세계에 순응하면서 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면서 존엄있게 살려고 하며 객관세계에 기성의 형태로 주어진 생활재료를 그대로 리용하면서 살려는 생활력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면서 살며 발전할수 있는 생활력을 지니려고 한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와 창조적능력을 지니고 살며 발전할 때 존엄있고 값높은 삶을 누린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의 존엄과 값높은 삶을 담보하는 주인의 지위와 창조적능력은 물질생활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사상정신생활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은 참다운 사상정신생활을 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존엄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람이 높은 존엄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말하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가져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그 누구의 구속도 받음이 없이 참말로 존엄있는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생활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고 사는 생활로 된다. 사람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참다운 정치적자주성을 지니고 존엄있게 살자면 옳바른 사상정신생활을 하여야 한다. 사람은 사상정신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존엄있는 삶을 누리게 되며 값높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게 된다.

사람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존엄있게 살뿐아니라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니고 값있게 살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값높은 삶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사상정신생활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상정신생활에 대한 요구는 물질생활에 대한 요구에 비하여 더 절실한 요구로 된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가 물질적부에 의하여 평가되는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있는 사상과 지식에 의하여 평가되기때문이다. 물질생활은 동물도 하지만 사상정신생활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고유한것이다. 사상정신생활을 떠나 물질생활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고 사는 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다름없는 저속한 생활로 된다. 사람은 사상정신생활을 통하여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녀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자각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면서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다.

이처럼 사상정신생활은 사람들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존엄을 지니고 세계와 자기 운명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척하면서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하는 생활분야인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상정신생활이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한 물질생활을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사람은 물질생활을 통하여 먹고 입고 쓰고살려는 요구를 실현할뿐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조건도 마련하게 된다.

물질생활이 사람의 자주적본성을 실현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생활분야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의하여 담보되게 된다.

자연을 개조하여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물질생활은 인간의 사회적지위와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상응하게 이루어진다. 사람의 사회적지위와 그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옳은 사상정신생활을 통하여 높아진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사상정신생활을 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그리고 생산된 물질적부를 참답게 향유함으로써 유족하고 고르로운 물질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람은 또한 사상정신생활을 발전시켜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자기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자연개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발전된 사회적인간의 요구에 맞는 건전하고 풍부한 물질생활을 참답게 향유할수 있다. 이것은 사상정신생활에 의하여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행복한 물질생활이 담보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사상정신생활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주는 주되는 생활분야이며 그들의 행복하고 건전한 물질생활을 담보해주는 생활분야인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생활에서 사상정신생활이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데로부터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을 꽃피우는데서 언제나 정치생활과 사상문화생활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그들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을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에 대한 령도적정치조직인 당을 강화하여 혁명대오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사업에 큰 힘을 돌리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누구나 다 당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와의 련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면서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정치생활이야말로 사회적인간의 가장 존엄있고 값높은 생활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있는 생활이다.

우리 인민은 사상정신생활을 통하여 또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할데 대한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완전한 배움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다 일생동안 배우며 발전하고있으며 무상치료제와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건강과 장수를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서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사상정신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자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뭉쳐있으며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물질생활분야에서도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참답게 누리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있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은 우리 당이 사회생활에서 사상정신생활이 노는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다같이 발전시켜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사상정신생활이 노는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고 정치생활과 사상문화생활을 앞세워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을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상정신생활을 발전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에 더욱 튼튼히 결속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정치적면에서는 당을 공격하는데 화살을 집중하고있으며 사상문화적면에서는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사상정신생활을 발전시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을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는 자기의 정치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의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우리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로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사상문화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님으로써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건설분야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높은 정치생활과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사상정신생활이 차지하는 주도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을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

박 규 홍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90년대속도》창조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성과 대중적영웅주의의 발현인 이 거창한 진군운동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대진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진면사》, 1991년, 단행본, 8페지)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그들의 립장과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어떤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맡은 혁명임무를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가지고 투쟁하는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고 혁명과업이 빛나게 수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맡은 임무 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없고 침체와 답보를 면할수 없다.

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은 중요하게는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나타난다. 책임성은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신이 맡은 혁명임무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태도이며 창발성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묘술과 방법론을 찾아내고 참신하게 일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작풍이다.

혁명임무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책임성은 창발적으로 일할것을 요구하며 창발성은 책임적으로 자기 초소를 지켜나가는것을 전제로 한다. 책임성이 없는 일군에게서 창발성이 발휘될수 없으며 반대로 창발성이 없는 일군이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당정책관철에서 책임성이 높은 일군이라야 창발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또한 창발성이 있는 일군만이 혁명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혁명성의 발현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사업하는 일군이 다름아닌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혁명성이 높은 일군인것이다.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은 우리 일군들

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다.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행하는 사회주의건설이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야 하는 거창한 사업인것으로 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으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 숭고한 위업은 매개 나라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매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요구하는것도 해당 나라의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담당하여 추진시켜나가는것도 그 나라 인민들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주체는 다름아닌 해당 나라의 일군들과 인민대중이며 이들자체가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성과가 좌우된다.

사회주의건설은 또한 새로운 거창한 과업들을 수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련이어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고정격식화된 처방이란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일하는것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이처럼 자체의 힘으로 거창한 과업들을 수행해나가는 력사적위업인것으로 하여 그 담당자들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을 철저히 지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자신이 맡은 과업을 남이 대신해줄수는 없으며 또 기성경험에나 매달려가지고서는 그 어떤 새로운 과업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방도는 끝자체의 힘을 믿고 모두가 다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해나가는데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으로 되는것이다.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은 특히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인것으로 하여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혁명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책임적인 임무를 담당수행하고있다. 당이 제시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모두 우리 일군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포치되며 장악되고 지도된다. 우리 당은 우리 일군들을 믿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내세웠으며 그것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당의 크나큰 신임을 받으면서 혁명의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고있는 우리 일군들은 마땅히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하며 그러자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며 혁명과업을 창발적으로 수행하는것을 떠나서 혁명가인 우리 일군들의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이런 일군은 결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하는 일군이 바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가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고야말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일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데 당과 수령이 맡겨준 영예로운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참된 길이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맡은 과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경제사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일군들은 맡은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그 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여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은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는데 경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릉라도무역총회사에서는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일군들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그들속에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지도일군들자신부터 앞장에 서서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키면서 창발적으로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당에서 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해마다 국가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은 일군들이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이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닌 일군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직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되며 가장 옳바른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내여 당이 준 혁명임무를 끝까지 훌륭히 수행해나간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속에 혁명적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며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을 제기된 혁명과업 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당이 준 혁명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묘술과 방법론을 찾아나갔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조건타발을 하는 현상이 철저히 극복되였으며 기일이 촉박하여 보통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던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당에 충성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일군들속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기풍을 확립하는데 많은 힘을 넣어왔다.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은 일군은 늘 대담하게 구상하고 기발하게 착상하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간다. 이것저것 재기만 하면서 오물쪼물 일하는 사람은 결코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졌다고 할수 없으며 언제 가도 절대로 큰일을 할수 없다. 한때 우리 일군들속에서 나타났던 부족점도 중요하게는 일본새자체가 대담하지 못하고 통이 크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우리는 당이 안겨준 담력으로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벌려 판로를 넓혀나갔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수출품의 가지수를 늘이는 사업도 통이 크게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신덕샘물과 같은 질좋은 물을 수출하기 위한

착상도 하였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겨 당의 구상을 더욱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한 결과 오늘 우리는 세계 수십개 나라의 근 200개 상사,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커다란 힘을 넣은것은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한것이다.

자력갱생은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은 일군들만이 지니고있는 혁명정신이며 혁명적일본새이다.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은 자력갱생하는데서 발현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킬수 없고 혁명임무를 창발적으로 수행할수도 없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구상대로 수출을 늘이자면 자체의 힘으로 수출품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는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수출품생산기지를 늘여나갔으며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들은 현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풀어나갔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는 자체의 위력한 기지에 의거하여 수출을 늘이고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릉라도무역총회사가 이처럼 발전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사업에서 걸린 고리들을 몸소 풀어주시면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언제나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올수 있었으며 사업을 창발적으로 전개하여 나라에 적으나마 보탬을 줄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어깨를 들이밀고 한몫씩 해제껴야 합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그 생산소비적련계는 대단히 복잡해졌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일군들이 책임지고 제때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고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세를 혁명과 건설에서의 빛나는 성과로 짓부셔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맡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인 열정을 가지고 언제나 혁신적인 안목에서 참신하게 작전하며 사업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은 일군들은 례외없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에 넘쳐있으며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확신성있게 일해나간다. 사업의욕과 열정이 부족하고 기성의 방법에만 매달리면서 우물우물하는

사람은 결코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일군들의 사업의욕과 열정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일군들은 당에서 맡겨준 직무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에 넘쳐있어야 하며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지휘를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언제나 자만과 만족을 몰라야 하며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연구를 깊이있게 하여 새로운 착상을 하고 방법론을 바로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앞장에 서서 그것을 관철할 때까지 확신성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일하는 일군이라야 참말로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은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이 맡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전반을 틀어쥐고 제기된 과업을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 이악하게 달라붙어 근기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자신이 맡은 사업전반을 어떻게 추진시켜나가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개별적인 문제들이나 시기별로 제기되는 새로운 과업뿐아니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며 아래일군들에게 되받아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달라붙어 이악하게 근기있게 사업을 추진시켜나가는 일군이 곧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은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인것이다.

일군들은 하나가 열, 열이 백을 움직이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전반을 확고히 틀어쥐여야 하며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똑똑히 주고 모가나게 열하여야 한다. 책임일군들은 특히 아래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잘해야 하며 총화사업과 재포치사업을 짜고들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맡은 과업은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내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어 모든 단위와 초소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 있다.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은 일군들이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하기 위한 실제적담보이다. 일부 일군들이 사업을 대담하게 책임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창발성이 없이 일하는것은 중요하게는 그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못하고 실력이 딸리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정통하며 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당정책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잘 알고 경제관리지식과 현대과학기술도 더 깊이 체득하여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거침없이 수행할수 있게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정세가 매우 복잡한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지워진 책임과 임무는 대단히 무거우며 일군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한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중요원칙

고 갑 종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당이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은 당안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여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원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관한 문제는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고 로동계급의 당들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이 론의되여왔다. 그것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론의되여온 이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라는것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모아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당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운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것을 말한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중요한 요구는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당조직은 웃당조직에, 전체 당원들과 당조직은 당중앙에 복종하는것이며 기층당조직으로부터 당중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지도기관을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활동과 관련한 창발적인 의견을 충분히 제기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당안에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는 서로 긴밀히 련관되여있다. 로동계급의 당안에서는 민주주의와 떨어진 중앙집권제를 생각할수 없으며 중앙집권제를 떠난 민주주의도 있을수 없다. 당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는 민주주의,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떠난 순수민주주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외의 다른 그 무엇으로도 될수 없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떠난 중앙집권제, 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창의창발성에 기초하지 않는 중앙집권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를 분리하여 그 어느 하나만을 내세운다면 로동계급의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좌왕우왕하게 되며 결국에는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자면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의 결합방식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행리론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주지 못하였으며 기회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 막대한 후과를 미치였다.

주체의 당건설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당의 중앙집권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당내민주주의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한 당원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발양시키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반드시 중앙집권제를 앞세우는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중앙집권

제와 민주주의를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시켜야 필승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당을 건설할수 있으며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전과정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된 혁명적당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조직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19페지)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바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을 건설하는 근본목적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로동계급의 당을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건설해나가자면 반드시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해야 하며 당안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은 중요하게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해결된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론의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이러한 각도에서 고찰하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당건설원칙이다. 당안에서 중앙집권제가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한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전당이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게 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을 근본요구로 한다면 당내민주주의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한 당원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것이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철저히 구현될 때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 인민대중의 의사가 수령에게 집중되고 수령에 의하여 집대성되여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으로 제시되게 되며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유일한 신념으로 받아들여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할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또한 모든 당원들이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행동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적극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함으로써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곧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된 혁명적당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

은 또한 그것이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인 당을 건설하여 당의 위력을 비상히 높이고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나가는 조직자이며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결코 무정형적인 집단이나 토론구락부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반드시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전투적부대로 되여야 한다. 당중앙에서 《가》하면 모든 당원들이 《가》하고 《앞으로 갓》하면 당원대중전체가 앞으로만 나아가며 열가지를 하고싶어도 당에서 한가지만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한가지만 하는 그러한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없이는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적참모부로서, 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다 발휘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온갖 기회주의당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바로 전당이 전일적으로 조직화되고 유일적인 규률에 의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이라는데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전일적인 체계와 혁명적규률을 확립함으로써 전당이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정확히 구현되여야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안에 세워진 질서와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당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위력한것은 그것이 당원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의거하고있는데 있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원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그 위력은 곧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타난다.

당은 당원대중으로 이루어진 정치조직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을 이루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어느 정도로 강하고 그 령도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어떻게 참가하고있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이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면 자연히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적위력이 강해지게 되지만 반대로 당안에 의무에 못이겨 시키는 일이나 하는 식의 사업기풍이 자리잡게 되면 그러한 당은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질수 없고 나아가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대중에게 의거하여야 하며 그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원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위력을 높여나간다.

당내민주주의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한 당원대중의 자각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자기의 근본요구로 하고있다. 그런것만큼 당안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할 때 당원대중의 자각성과 창의창발성이 높이 발양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당안에서 중앙집권제를 떠난 민주주의를 허용하여서는 당원들의 자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

킬수 없다.

당원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은 중앙집권적지도를 앞세우는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여야만 최대한으로 발양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제기된 사업이 자기의 지향과 요구, 리해관계에 맞을 때 하고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되며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해나가게 된다. 당원들의 자각성과 적극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자기의 지향과 요구, 리해관계에 부합될 때 당원대중은 스스로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된다. 당원대중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는 수령에 의하여 집대성되고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구현되며 따라서 모든 당원들은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을 사고와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제를 떠나서는 당원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에 기초한 당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원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은 또한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투쟁속에서 최대한으로 발양된다. 중앙집권제는 바로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보장된 당조직과 당원들의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투쟁으로 당의 결정을 관철해나가게 함으로써 당원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중앙집권제가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전당이 당정책관철에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당원들의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에 기초한 조직적인 투쟁을 벌려나갈수 없다. 이것은 당의 중앙집권제가 결코 당내민주주의를 억제하고 당원들의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는것이 아니며 반대로 당안에서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당내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관철되여 모든 당원들이 당에서 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자각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할 때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은 백방으로 높아지게 되며 당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건설에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 빛나는 결실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투쟁로정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의 구현과정이였으며 그 빛나는 승리를 과시하는 자랑찬 로정이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전당에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만이 꽉 들어차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원대중의 의사를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을 받아 처리해나가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당의 결정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옳은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한

결같이 움직이도록 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이 진행한 반종파투쟁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단결을 철저히 실현하여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일환이였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한때 우리 당안에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깊이 물젖은 종파주의자들을 비롯한 반당분자들이 숨어있으면서 당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반당반혁명적책동을 감행하였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들과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였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은 당생활을 강화하며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은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였으며 전당을 유일적인 당생활규범에 의하여 움직이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당건설의 전과정에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 전당에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키고 당원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에 기초한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전위부대로 자기 대오를 강화발전시켰다. 이처럼 우리 당이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서 백전백승의 힘을 지닌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바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온데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안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을 세우고 당사업,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제때에 보고하고 처리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당원들속에서 당의 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함으로써 그들이 당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 당생활 전반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이 당회의들에서 창발적인 의견을 내도록 적극 조장시키고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급 당위원회들이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앞으로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당으로 계속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

김 주 성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가 얼마나 공고하게 유지되고 발전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령도적정치조직이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로동계급의 당이 없고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사회주의사회란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고 그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게 된다.

아무리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고 하더라도 당의 령도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면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킬수 없고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서 향도적력량인 로동계급의 당을 변질시키는데 화살을 집중하고있으며 그 무슨 다당제를 운운하면서 로동계급의 당의 집권적지위를 약화시키고 령도적역할을 거세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됩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이다.

인류력사에서 최후의 착취제도인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있는 사회이다.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생활에서 기본을 이룬다. 개인의 육체적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그러한 생활은 본질상 동물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은 잘입고 잘사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아무리 생활수단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도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것은

그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담보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쥠으로써 나라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는 정치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주의정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정치이며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인민대중의 의사는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고수하고 실현하며 그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할데 대한 의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는 로동계급의 당만이 대표할수 있다.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며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이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는 그들자신의 리익의 체현자이며 대표자인 로동계급의 당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분석하고 종합일반화하여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함으로써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국가적인 의사로, 전사회적인것으로 되게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해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이러한 지위와 역할은 그 어떤 다른 조직이나 단체도 대신할수 없다. 물론 사회의 다른 조직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목표를 세우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 그러나 이런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까지나 당의 령도밑에서만 수행될수 있다. 당의 정치적령도가 없이는 그 어떤 정치조직도 군중들의 활동을 옳게 조직지휘해나갈수 없다. 위력한 조직체계와 조직기구들을 가지고있는 령도적정치조직인 로동계급의 당만이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를 실시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만이 향도적력량으로 되며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라는 여기에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을 결합시키고 모두가 동지적으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의 발전을 이룩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사회생활의 원칙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과 도덕,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집단

주의와 동지적 협조, 단결의 정신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살며 일해나간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가 바로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키자면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사회적집단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다.

당의 령도는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하나의 목적 실현에로 조직동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성격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한다.

특히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분야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성격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집단주의적생명관이 지배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에 기초하여 관리운영되는 경제이며 매개 사회성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경제이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를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관리운영하지 않고 사회주의경제를 개인주의적 원칙과 방법으로 관리운영하게 되면 사회제도는 사회주의적인것인데 그에 대한 관리는 비사회주의적으로 하는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개인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있는 개인주의적방법은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기때문에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에도 맞지 않으며 결국 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힘도 제대로 발양시킬수 없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경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집단주의적 원칙과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당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정치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될 때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집단주의적원칙이 견지되고 매개 사회성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이 더 높이 발양되게 되며 분산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위력이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당의 령도가 사회주의사회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되며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키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지 못하고 약화시키게 되면 사회에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게 되고 계급적원쑤들이 활개치게 되며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이 들어와 사회주의사회가 사상적으로 병들고 조직적으로 와해되게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리념을 외곡하고 부정하는 각이한 반혁명적, 기회주의적 사조가 머리를 쳐들고 사회주의에 도전해나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침식당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화하는 엄중한 후과가 빚어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키는 생명선이 있으며 온갖 반사회주의사조와 기회주의를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의 력사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야만 혁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유지하고 공

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에서 당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언제나 당을 튼튼히 꾸리고 그 령도적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주권을 틀어쥔 로동계급의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확고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그 어떤 정치조직도 철저히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사업하고 활동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이다. 우리 당은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혁명이 멀리 전진할수록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은 당을 강화하는데 있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을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총적목표로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영광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이 강화되고 당의 령도적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사회의 모든 조직들과 성원들이 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를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운영해나가는 문제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혁명은 참으로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걸어왔다.

이 로정에는 강대한 제국주의원쑤들과의 준엄한 혁명전쟁도 있었고 심각한 사회적변혁과 어려운 건설투쟁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잘해왔기때문에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만일 우리가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았더라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올수 없었을것이며 오늘과 같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고 모든 분야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하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울수 없었을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그처럼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은 필승불패의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기때문이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높은 단계인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변할수 없는 절대적진리이며 합법칙적요구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과정을 더욱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단행본, 10폐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자체를 더욱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며 당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오직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지배하게 하고 수령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다. 공산주의운동력사는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있을수 있으며 당안에 여러갈래의 사상이 있으면 당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지지 못하고 참다운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을 인민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벌리며 당의 령도와 혁명적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감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당과 대중이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우리는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과수업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

원 회 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30돐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이 발단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나고있던 격동적인 시기인 1961년 4월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북청군을 몸소 찾으시고 이곳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온 나라의 야산들을 과일동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북청회의는 우리 나라의 과수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회의로서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인 북청회의와 북청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청군에 오시여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계속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 *

북청회의는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61년 4월에 있은 북청회의는 실로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중요한 회의로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6권, 133페지)

과수업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수업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과일을 넉넉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려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많이 생산할수 있다. 과수업은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협동경리의 현금수입을 높이고 그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나라에는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이 있으며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과일나무를 가꾸어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치는 봉건통치제도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과수업발전은 심히 억제되고 뒤떨어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과수업은 해방후 비로소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나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얼마 안되던 과수원마저 여지없이 파괴되고 황페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과수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시기부터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북청회의를 마련하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 과수원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청회의에서 지난 기간 과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며 짧은 기간에 과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 과수원개간대상지를 옳게 선정하고 수종구성과 품종배치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과일나무모생산을 앞세울데 대한 문제 등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청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들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과수업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북청회의에서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군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농촌들을 찾으시여 과수원 조성과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여러가지 과일나무모들과 현대적인 농기계들, 비료와 농약 등을 보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북청회의가 열린 뜻깊은고장인 우리 군의 룡전리와 라하대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찾으시여 과수원을 알뜰히 관리하도록 가르쳐주시였으며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과수업은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북청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사회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린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야산들은 백과주렁지는 과일동산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더욱 풍요하고 아름다운 지상락원으로 되였다.

해방전에는 불과 몇천정보의 과수원밖에 없었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서해기슭의 룡선을 따라 아득히 펼쳐진 100리 청춘과원과 북방의 수천여정보의 덕지대에 꾸려진 3월21일과수농장을 비롯하여 1천여정보의 과수면적을 가진 국영과수농장, 수백여정보의 과수면적을 가진 협동농장들이 수많이 생겨나 나라의 믿음직한 과일생산기지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우리 군에서도 실로 《천지개벽》이 일어나 과수업발전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해방전에 불과 얼마 안되는 면적의 과수원밖에 없던 우리 군이 오늘은 해방전의 무려 수배나 되는 과수원을 가지고 해마다 많은 과일을 생산하고있다. 그리하여 북청군은 우리 나라의 손꼽히는 과일생산기지로, 과수업발전의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과일나무의 수종구성과 품종배치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사과를 위주로 하면서 올과일과 늦과일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심고 단벗을 비롯하여 살구, 추리, 복숭아, 감, 대추 등 빨리 크고 열매가 일찍 달리는 과일나무와 고급과일나무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갖가지 신선한 과일을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과수업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늘어난 결과 과수업의 기계화, 화학화 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과학적인 기술관리체계가 확립되여 근로자들이 보다 헐하고 흥겹게 일

하게 되였다.

특히 과수업이 농업의 중요한 생산부문으로 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더욱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모든 군들에 과일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지방공업의 생산을 적극 높일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북청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지나온 30년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과수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가 마련된 영광의 30년이였으며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킨 창조와 투쟁의 자랑찬 30년이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수업발전에서 끊임없는 전진이 이룩됨으로써 나라의 재부는 더욱 늘어나고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을뿐아니라 철따라 신선한 과일을 먹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보려던 우리 인민의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북청회의의 거대한 생활력을 계속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과수업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계속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북청회의는 주체적인 과수업발전의 근본방향과 과업, 그 수행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력사적인 회의였다. 북청회의에서 제시한 방침들은 철두철미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과수업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북청회의에서 제시한 우리 당의 과수업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과수업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과일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북청회의에서 제시한 방침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왔기때문에 과수원 건설과 관리, 수종과 품종의 배합을 비롯하여 과수업발전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있었다.

그러므로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의 과수업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여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또한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것은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대중은 과수업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주인이다. 대중이 사상적으로 발동되여야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과수업발전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발양시키자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북청회의에서는 산을 일구어 과수원을 늘이는 방대한 규모의 대자연개조사업을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전개할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당의 조치에 따라 광범한 대중을 공산주의사상,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전체 로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들이 과수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선조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하지 못한 방대한 규모의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 불멸의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이것은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또한 나라의 국토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한다.

부침땅면적이 적은 반면에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을 잘 리용하는것은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북청회의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를 구현하여 산경사지들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북변의 두만강기슭으로부터 남쪽의 분계연선 마을에 이르는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청춘과원이 펼쳐지게 된 자랑찬 현실은 산을 리용하여 과수원을 조성할데 대한 북청회의결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계속 높이 발양시킬 때 우리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과수업발전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을 더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이미 마련해놓은 과수원들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 관리하여 과일생산을 높이는것이다.

북청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가 마련해놓은 수많은 과수원들은 커다란 생산능력을 가지고있다. 우리가 이미 마련해놓은 과수원들을 잘 가꾸어 과일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다면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과일생산을 부쩍 올릴수 있다.

국영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과일나무들에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특히 과수원 정보당 2마리이상의 집짐승을 길러 과일나무들에 많은 자급비료를 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강우기관수를 비롯하여 관수대책을 철저히 세워 가물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과일나무 모양만들기와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잘 하는것이 중요하다. 병충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확성이 높은 과수원을 꾸리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면서 과수면적을 더 늘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수확성이 낮은 과일나무들을 수확성이 높은 과일나무들로 바꾸는것은 과수원조성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수확성이 높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지출을 적게 하면서도 주어진 면적의 토지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수 있다.

과수부문에서는 수확성이 낮은 과일나무들을 수확성이 높은 키낮은 과일나

무로 갱신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농약과 로력이 적게 들고 일찍 먹을수 있는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집집마다 많은 과일나무를 심는 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사이그루과일나무를 더 심어 지금 있는 과수원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술혁명을 다그쳐 과수업을 기계화, 화학화, 현대화하는것이다.

과수업을 기계화, 화학화, 현대화하여야 비탈진 과일밭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관리할수 있으며 과일생산원가를 낮출수 있다.

과수부문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이 지장없이 다닐수 있게 포전정리를 잘하고 길을 닦으며 도처에 양수장과 물탕크, 시약탕크 등 생산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일나무심기로부터 거름을 주고 약을 치며 물동을 운반하는 등 중요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련관된 부문들에서 과수작업의 특성에 맞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 중요하다.

과일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과일 보관과 가공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과수업발전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과일 보관과 가공 대책을 철저히 세울수록 생산한 과일의 허실을 없애고 인민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과 그 가공품들을 넉넉히 공급할수 있으며 과수농장들의 수익성도 훨씬 높일수 있다.

국영과수농장과 협동농장들에서는 과일을 보관하고 가공할수 있는 시설들을 잘 건설하여 생산한 과일을 하나도 버리는것이 없이 다 인민들이 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일포장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모든 농장들에서 생산한 과일을 다 가공하며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과수부문의 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당조직들이 과수부문 사업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옳게 이끌어야 과수업을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과일생산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과수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며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한그루의 과일나무도 알뜰히 다루고 가꾸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자기의 직책상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옳게 이끌어주고 떠밀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행정경제일군들이 우리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과수작업반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앞세우고 자재보장, 로력관리를 비롯한 기업관리전반을 실속있게 짜고들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이 밝혀준 주체적인 당사업방법의 요구를 확고히 구현하여 언제나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력사적인 북청회의 30돐을 맞으며 북청회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과수업발전에서 다시한번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한 수 길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경제부문들이 매우 다양하여진 우리 나라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35페지)

대외무역은 나라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교환을 말한다. 매개 나라들은 대외무역을 통하여 자기에게 있는 상품을 팔며 자기 나라에 없거나 부족되는 원료, 연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상품이 생산되고 국가가 발생한 때로부터 생겨나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온 무역은 본질에 있어서 상품화폐관계에 기초한 대외적인 경제관계이다.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상품생산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도 대외무역을 발전시켜야만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갈수 있다. 그것은 매개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과 소여단계에서의 생산력발전수준, 과학기술발전정도가 서로 다르고 나라마다 경제구조와 생산되는 제품의 품종과 량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게 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이러한 차이는 매개 나라들로 하여금 경제건설에서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요구되는 제품들은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도 없거나 부족되는것들은 대외무역을 통하여 해결할것을 요구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킬수록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생산력발전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는 오늘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현시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대적인 중공업,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놓았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 인민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 목표들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주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면서 인민경제의 현대

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그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커지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미 건설해놓은 공장, 기업소들만 만부하로 돌려도 짧은 기간에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는 원료, 연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더욱 현대화됨에 따라 원료, 연료,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지며 그 종류는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원료, 연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자면 자체의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대외무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원료, 연료, 자재를 제때에 해결하여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최대한 은을 내게 할수 있다.

현시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생산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인민경제의 생산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로동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고 원가를 낮출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게 된다. 현대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과 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대외무역을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대외무역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보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생산에 도입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대외무역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의 산물인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제때에 들여오면 오래된 기술장비들을 새롭게 갱신하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칠수 있다.

현시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특히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자본주의길로 되돌려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 경제적간섭과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면서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더우기 국제무대에서 변화되는 정치정세가 대외무역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있는 조건에서 이에 맞게 대외무역을 주동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갈때만이 대외시장을 넓히고 무역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대외무역을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록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에 기초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주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당의 주체적인 대외무역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계 5대륙의 많은 나라들과 경제적연계를 더욱 강화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현시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 한다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많은 나라들과 직접 무역거래를 진행하며 수출입상품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벌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외무역은 어디까지나 장사인것만큼 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자면 판로를 개척하고 대외시장을 넓혀야 한다. 만일 대외무역에서 무역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상품을 팔아달라고 하는 나라에만 준다면 무역을 활발히 벌려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많은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맺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벌려나가야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은 외화를 얻을수 있으며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제때에 사들여올수 있다.

무역을 다각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외시장을 넓혀 세계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아세아나라들과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아세아나라들은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며 이 나라들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러므로 아세아나라들과의 무역협조에 큰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이 나라들과의 수출입가지수를 늘이고 무역액을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남남협조를 적극 실현하고 무역을 폭넓게 진행함으로써 이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며 변강무역, 지방무역에도 큰 힘을 넣어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한다.

무역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역거래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무역기관들에서는 우리 나라 무역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세계무역발전의 추세에 맞게 되거리무역, 가공무역, 맞바꿈무역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능란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외화수입을 훨씬 높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을 널리 진행하여 대외시장에 내놓을수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질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수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수출을 높이는것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수출은 대외무역의 첫 공정이다. 수출을 적극 늘여야 수입원천을 높이고 대외지불능력을 높여 우리에게 필요한것들을 마음대로 사올수 있으며 수출과 수입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할수 있다.

수출을 높이는데서 가공제품의 비중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가공품, 완제품의 수출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가공공업기지가 마련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원료, 반제품의 수출로부터 기계설비를 포함한 완제품의 수출비중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대외무역발전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생산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현대적인 공작기계들과

중량화차, 선박, 전기기계, 농기계, 전자일용품 등 여러가지 제품의 수출을 늘이며 경공업제품에 대한 수출비중도 훨씬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시장에 그대로 내보내던 유색금속, 마그네샤크링카도 앞으로는 그 가공품의 수출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수출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대외시장의 수요와 세계적인 생산 및 과학기술 발전의 추세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는 수출품생산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려나가야 한다. 특히 수출품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 직장을 더 많이 꾸리는 한편 수출품생산설비들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수출품생산을 맡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수출품생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수출품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시장에서 인기있고 값비싼 수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며 나라의 국제적권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품을 실어나르기 위한 배수송, 철도수송, 항공운수를 발전시켜 수출품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신용은 무역의 생명이다. 무역에서 신용을 잃으면 생산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수도 없고 필요한 물건을 제때에 사올수도 없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무역대상국을 계속 넓혀 무역활동을 활발히 벌릴수 있으며 나라의 대외적권위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얻자면 계약상 의무를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주기로 한 수출품들을 계약에 예견된대로 어김없이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납입계약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수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신용을 지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수출품생산자들이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 기풍을 세우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여러가지 포장재를 많이 만들어 수출품포장을 수요자들의 기호에 맞게 견고하면서도 멋있게 하여야 한다.

무역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무슨 일에서든지 성과여부는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쥔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대외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진 조건에서 무역부문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대외무역을 변화된 정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무역부문의 일군들은 우리 당의 대외무역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무역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변화된 무역조건에 맞게 무역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언제나 세계경제형편과 대외시장동태를 환히 꿰뚫고 그에 대처하여 사업을 진공적으로 능란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무역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무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련합기업소체계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성과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월한 기업관리체계

박 영 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한 우리 식의 새로운 련합기업소들이 널리 조직되여 광범히 운영되고있다.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조직된 련합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되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자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련합기업소의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이 창조한 우리 식의 련합기업소체계의 우월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경제 지도와 관리를 더욱 짜고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련합기업소체계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성과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좋은 기업관리체계입니다.》

련합기업소를 기본단위로 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하는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는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성적요구와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기업관리체계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련합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성에 맞는 좋은 기업관리체계라는데 있다.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성적요구이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목적지향성있게 튼튼히 쌓을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단위들이 늘어나며 생산물의 품종과 수량이 많아지는 조건에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계획화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계획화사업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하여 그것을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완성시켜나갈 대신에 자본주의적인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면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획화사업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인민경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혁명적립장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

을 자연발생성에 내맡기려는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소조직형태를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기업소조직형태를 올 제때에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는 기업소조직형태를 사회주의계획화사업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식의 기업관리체계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에서는 무엇보다 계획화체계를 새롭게 개선함으로써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가 조직되면서 새롭게 세워진 계획화체계에서는 련합기업소를 계획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국가계획기관과 생산단위, 계획세포들사이의 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게 되였다. 그것은 련합기업소가 계획단위로 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이 그 어떤 중간환절도 없이 계획의 집행자인 생산단위를 직접 대상하여 계획화사업을 하게 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여러 계획화의 환절들을 거쳐 계획을 세우던 종래의 체계와는 달리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가 직접 계획을 세우게 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요구가 생산자단위 계획세포까지 거침없이 내려가 그것이 제때에 관철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계획기관들은 중간다리를 거침이 없이 국가계획에 련합기업소들의 구체적인 실정과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가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계획의 유일성을 훌륭히 보장하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기업관리체계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에서는 또한 계획지표 분담과 맞물림절차를 개선하고 계획작성 및 시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지표들을 다 맡아 계획화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계획지표들을 그 의의와 중요성에 따라 국가계획기관지표와 련합기업소지표로 나누며 해당한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맞물리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련합기업소는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화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며 비준된 국가계획을 아래단위들에 시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 련합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국가계획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분할하여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시달하며 자체로 세우게 된 련합기업소지표들을 세분화대하여 아래단위들에 내려보내게 된다. 련합기업소는 자체로 맞물릴수 있는 지표들은 련합기업소안에서 맞물리며 자체로 할수 없는것은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자기 도안의 다른 련합기업소들과 맞물리거나 전국적범위에서 제때에 맞물리게 된다.

새로운 계획지표 분담과 맞물림절차는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련합기업소로 하여금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 국가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련합기업소가 조직됨에 따라 세워진 새로운 계획화체계는 련합기업소가 국가의 지도밑에 자체로 계획을 세우면서도 계획화사업에서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세부적맞물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는 계획을 작성하고 지표를 분담하여 시달하는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게 할뿐아니라 세워진 계획을 실행하게 하는데서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나라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옳게 세우는 것과 함께 세워진 계획을 무조건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에서는 련합기업소들이 생산단위, 집행단위로 되고있다. 매개 련합기업소들은 생산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원료와 연료, 자재를 비롯한 생산기술적 조건을 자체로 갖추며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생산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게 된다.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자체로 모든 조건을 갖추면서 국가계획집행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바로 련합기업소앞에 맡겨져있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들은 국가의 지도밑에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게 됨으로써 국가계획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며 모든 련합기업소들이 국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활력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기업관리체계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의 중요한 우월성의 다른 하나는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좋은 기업관리체계라는데 있다.

사회주의공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으며 전사회적규모에서 밀접히 련관된 통일적인 생산유기체를 이루고있는 대규모공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생산력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맞게 대규모의 사회주의공업을 옳게 관리운영해야 물질적부의 생산을 적극 다그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대규모사회주의공업을 관리운영하는데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은 사회주의적원칙, 집단주의적원칙을 옳게 구현하는것이다. 공업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이 발전할수록 공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옳바로 풀어나가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형태를 개선하는데서도 집단주의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만약 사회주의공업을 관리운영하는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국가소유의 공업기업소를 개인소유로 전환시키거나 대규모공업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관리운영하며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원칙, 집단주의원칙을 포기하는것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공업을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련합기업소들을 시험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데서 얻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식의 새로운 련합기업소체계를 마련하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기업소조직형태를 개선하는 문제를 가장 옳바로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는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기업관리체계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에서는 우선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맞게 협동생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게 된다.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분업이 세분화되고 생산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조건에서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련합기업소들이 광범히 조직됨으로써 지난날 개별적기업소들사이에 이루어지던 생산적련계가 기업소내부단위들사이의 생산적련계로 전환되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들에서는 아래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협동생산을 진행하여 필요한 협동생산품들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한다. 련합기업소의 생산계획은 주제품을 생산하는 모체기업소의 계획과제로 될뿐아니라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공동과제로 된다.

련합기업소참모부는 련합기업소적인 범위에서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로력, 설비, 자재 보장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시초원료생산으로부터 모체공장의 주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생산요소들을 정확히 결합해나가게 된다. 련합기업소참모부는 또한 련합기업소가 자재상사와 운수기관들을 가지고있는 유리한 조건과 기업소안에서 일부 자재를 조절할수 있는 권한 등을 리용하여 아래단위에 필요한 생산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며 여러가지 보장사업을 통일적으로 밀고나가게 된다. 생산에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참모회의를 열고 필요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취함으로써 협동생산이 련합기업소적인 범위에서 원활히 추진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련합기업소체계가 지난날 매개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진행되던 협동생산을 대규모공업기업소의 내부협동생산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협동생산을 더 잘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에서는 또한 대규모기업소의 기술경제적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업기업소는 기술경제적으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대규모기업소는 최신과학기술의 산물인 현대적인 기술수단과 기술공정을 쉽게 받아들여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기술수단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 자동화하자면 높은 생산능력과 많은 생산면적, 큰 기술집단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많은 경우 협업의 규모가 큰 대규모기업소들일수록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게 된다. 대규모기업소들은 또한 힘있는 기술집단과 숙련로동자의 대부대를 가지고있으므로 앞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매우 유리하다.

기업소조직형태를 개선하는 경우에도 대규모기업소의 이러한 기술경제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식의 새로운 련합기업소체계를 마련하심으로써 현대적인 대규모공업기업소의 이 기술경제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련합기업소들에서는 기사장의 통일적지휘밑에 모든 과학 및 기술 력량을 조직동원하여 련합기업소적인 범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며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일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와 그 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기술공정과 방법을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에서는 또한 대규모의 공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련합기업소와 그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다같이 실시하게 됨으로써 기업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 한편 2중독립채산제의 경제적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들을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은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들이 경영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련합기업소들 2중독립채

산제로 운영하게 한것은 경제규모가 커진 현실적조건에 맞게 독립채산제 단위와 방법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여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보다 합리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체계가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협동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기술혁명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2중독립채산제에 의하여 기업관리를 보다 합리화해나가는 우월한 기업관리체계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경제 지도와 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련합기업소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킴으로써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1991년, 단행본, 7페지)

련합기업소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선차적인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이다. 련합기업소의 경영활동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련합기업소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전반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밀고나가며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감으로써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의거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련합기업소들에서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하자면 생산지도기능과 경영활동기능을 수행하는 련합기업소의 특성에 맞게 계획화사업과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며 수송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련합기업소들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는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련합기업소들에서는 자재공급사업을 계약제도에 따라 정확히 하며 설비관리를 개선하고 수송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련합기업소를 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련합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우리 나라의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옳바로 실시해야 한다.

련합기업소들을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성과 현대적인 대규모공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관리운영하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경제지도일군들에게 련합기업소와 같은 대규모의 기업체들을 관리운영해나갈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보답할 높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설계하고 조직지휘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계획수행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제때에 풀어주며 변화되는 조건에 맞게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하여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식의 련합기업소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주체문학예술

강 능 수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줄기차게 반영하면서 빛나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

오늘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90년대의 총진군운동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신심과 랑만을 주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다.

시대를 반영하고 생활을 선도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명이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을 시대의 높이에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을 전진하는 시대에로 지향시키며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그 어떤 문학예술도 시대와 혁명을 떠나서는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고 삶의 진리를 밝혀내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될수 없다. 시대의 지향에 비추어 인간과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낸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리상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신심과 뜨거운 열정을 안겨줄수 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대와 함께 힘있게 전진하였다. 70년대에 마련된 일대 전성기를 계속 꽃피워온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훌륭히 반영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년대와 년대를 거쳐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시대를 반영하고 생활을 선도하는 우리의 문학예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면모를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시대와 함께 줄기차게 전진하는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자랑스러운 면모는 무엇보다도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한 시대정신을 투철하게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시대정신은 문학예술의 넋이며 생명이다.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에 정확한 해명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문학예술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면서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시대정신은 문학예술이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시대가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수 있게 한다. 이것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가 문학예술의 근본문제, 사명 및 역할과 관련된 관건적문제라는것을 말해준다.

인류의 문학예술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품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생활내용, 작가의 개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커다란 생명력과 견인력을 가지는것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시대를 안고있으며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데 있다.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며 《위세》를 떨치던 문학예술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망각속에 묻혀버리며 한때 시대와 함께 나가던 작가, 예술인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서 뒤떨어짐으로써 그가 창조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것은 모두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데 근본요인이 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은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여야만 강한 예술적견인력과 감화력,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항일혁명투쟁을 비롯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물론 지난 력사적시기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에서도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미학적요구를 옳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민족적긍지와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것을 생명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시대정신이 투철한 문학예술로 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이 시대정신을 가장 투철하게 재현할수 있은것은 그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어느 한 정책도 력사발전의 객관적법칙과 혁명투쟁의 원리,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것이란 없다.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생활을 반영하고 제기한 문제를 예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시대와 사회생활의 기본지향을 정확히 구현할수 있었다.

문학예술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는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문제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시대와 문학예술의 관계는 현실생활에 대한 반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시대의 기본지향도 현실생활속에 있으며 사람들이 절박하게 해결을 바라는 인간문제도 현실생활속에 있기때문이다. 작품에 취급되고있는 생활이 현실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주는 감화력이 크다.

우리 문학예술이 시대정신을 투철하게 구현하고있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구현되고있는 현실속에서 시대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현실생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년에 나온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중편소설 《향토》,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 《보증》, 《평범한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성과작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현실주제의 문학예술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리상을 안겨주며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문학예술의 혁명적사명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고있는 시대정신의 구현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시대의 앞장에서 사람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더욱 개화발전되였다.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의 자랑스러운 면모는 또한 주인공문제를 빛나게 해결한데 있다.

문학예술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미학적목적을 실현한다. 어떠한 주인공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사명과 관련된 문제이며 주인공의 형상에 따라서 문학예술의 성격과 특징이 규정된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인공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 문학예술이 내세우는 주인공은 시대의 리상을 체현한 긍정적주인공이다.

시대의 리상의 체현자란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새형의 공산주의자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시대적특징을 체현하고있는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참다운 인간의 생활과 가장 보람있는 삶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으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문학예술은 항일의 영웅들로부터 전국의 영웅들, 전투영웅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의 영웅들, 숨은 영웅들에 이르기까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배출된 수많은 시대의 영웅들을 빛나게 형상하여 긍정적주인공의 군상을 더욱 풍부히 마련하였다.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인공들은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고 새것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의 참다운 전형들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주인공형상의 가장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

주체형의 인간이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정치사상적측면에서나 정신도덕적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현한 우리 시대의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이 비할바없이 벅차고 그들의 내면세계 역시 더없이 고상하고 풍부하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들의 성격적특질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형의 인간들이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의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혈연적인 관계속에서 예술적으로 해명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체형의 인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진심으로 받들어 모시는것을 혁명전사의 마땅한 본분으로, 참된 도리로 여기고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술적전형으로 되였다.

그들은 당과 수령을 삶의 어버이, 생명의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불타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으로 당과 수령이 주는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전형들이다. 장편소설들인 《너당원》과 《빈터우에서》의 주용녀, 《철의 신념》의 로장섭, 《생명수》의 박대성 그리고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의 어머니, 예술영화 《생의 흔적》의 서진주 등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인공들의 빛나는 형상들이 이를 잘 말하여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충성과 효성을 다해가는 주체형의 인간형상을 빛나게 창조한것은 주체문학예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것은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신념과 의리, 충성과 효성을 간직한 주체형의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인간의 참다운 본보기이며 문학예술이 창조한 인간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하고 매혹적인 예술적전형이기때문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이 가장 보람있게 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간직되고 표현되여야 하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충성심을 깊이있게 심어주고 수천수만의 충성의 대오를 키워내게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고상한 성격적특징과 비상한 감화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충실성을 성격의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주체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적전형의 최고경지를 개척한것은 우리의 주체문학예술만이 지닐수 있는 자랑이며 영예이며 긍지이다.

경험은 시대가 배출하는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하는 여기에 문학예술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가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게 다채롭게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예술의 사상예술적기초인 문학을 비롯하여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모든 부문에서 시대정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미학적정서를 안겨주는 참다운 예술로 되였다.

참으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우리 혁명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오면서 높은 사상성과 심오한 철학성, 고상한 예술성에 의하여 그 사상예술적풍격이 강화된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였다.

우리 문학예술이 우리 시대의 도도한 흐름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문예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많은 력사적문헌들을 발표하시여 우리의 문학예술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힘있게 전진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당이 밝혀준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사상리론을 비롯하여 종자론, 개성론 등 가장 올바른 사상리론적 및 창작실천적 지침을 가짐으로써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현실을 어떠한 사상적관점에서 보며 어떤 인간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어떤 사회적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창작가들이 높은 정치적안목과 함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평가할수 있는 사상미학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창작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을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세심하게 지도하였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창작에서 사상론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것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시대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갖는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창작가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여기도록 교양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로 준비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그들이 창작적기량과 예술적자질을 끊임없이

련마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체험을 강화하도록 한것이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로서 현실체험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생활을 체험하고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밝혀준바와 같이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생활도 열정도 재능도 다 안겨주는 비옥한 토양이며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가르친대로 현실속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침식도 같이하고 들끓는 생활을 체험하며 생산현장에서 작품을 창작하는것을 생활화함으로써 시대정신이 뜨겁게 굽이치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되였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시대정신—자주시대의 기본지향을 옳게 구현하며 승승장구할수 있은 근본비결이 있다.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비범한 예지와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몸소 창작사업을 이끌어주신것은 주체문학예술이 우리 시대의 요구를 투철히 반영한 혁명적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할수 있게 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작품창작에서 부닥치게 되는 창작실천적문제들을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 문예방침을 자로 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구체적인 창작지도로 혁명적대작들을 련이어 만들어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문학예술이 내놓은 기념비적대작들은 그 어느 하나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지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심으로써 사상예술적미숙성으로 하여 빛을 볼수 없었던 작품들까지도 마침내 성과작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체혁명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주고 끝없는 창작적열정과 활력으로 시대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원동력이다.

이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령도밑에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걸어오면서 체득한 귀중한 신조이며 신념이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부문앞에는 수령, 당, 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일심단결된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예술적으로 더욱 힘있게 확인하고 90년대의 새로운 현실이 배출하는 주인공들을 빛나게 형상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하여도 끄떡없이 주체문학예술건설에 대한 신념과 확신으로 가슴불태우며 오직 당을 따라 끝까지 충성다하는 당사상전선의 믿음직한 초병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을 밀착시켜나간 구역당위원회의 사업경험

안 필 흡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을 밀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당사업의 목적은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데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자는데 있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에 있어서 당사업은 중요하게 경제건설을 옳게 령도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킨다는것은 당사업을 경제사업의 성과적수행에 복종시키며 경제사업을 당사업으로 튼튼히 안받침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평천구역당위원회는 지난 시기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우리 평천구역은 평양시의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구역에는 전력공업, 기계제작공업, 전자, 자동화 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복무하는 백수십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있으며 그가운데서 큰 공장, 기업소만 하여도 수십개나 된다. 평천구역의 공업생산액은 평양시 공업생산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상품수출액은 평양시상품수출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대산업구역의 정치적참모부인 우리 구역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다.

평천구역당위원회는 지난 시기 당사업을 언제나 구역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과업인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여 공업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

였다.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을 밀착시키는데서 구역당위원회가 얻은 경험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이다.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우리 구역에서는 초기에 증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수많은 내부예비를 찾아내고 생산을 부쩍 늘였다. 그러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증산절약투쟁의 열의가 식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 원인을 알아본데 의하면 공장, 기업소 당책임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한다고 하면서 행정대행을 하고 당사업을 행정식으로 한데 있었다.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함으로써 전원회의결정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없었고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마비시켜 그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증산절약투쟁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없었다. 당일군들의 행정대행은 결국 당의 령도적권위를 약화시키고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저해하는 엄중한 후과를 미쳤다. 당일군들속에서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을 제대로 관철할수 없었으며 1990년대의 첫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수도 없었다.

우리는 구역당확대집행위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 관철정형을 중간총화하고 증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고 자기의 본분과 직능에 맞게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웠다. 구역당집행위원회결정에 따라 당일군들이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하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당일군들이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으로 일하는 현상들을 종합하여 통보하고 사상투쟁을 하였다. 이와 함께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구역당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섰다.

4월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여 구역적으로 비판된 도금공장에 나간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들어가 공장에서 월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원인부터 알아보았다. 그들은 수입자재인 광택시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월계획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료해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원인이 다른 나라의 자재에만 의존하면서 기술자들이 창안한 국내산 원료로 광택시약을 생산할데 대한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장책임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결국 이 공장에서 증산과 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국내산 원료를 가지고 광택시약을 생산할데 대한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는데 있었다. 이와 같은 료해사업에 기초하여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자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자재에만 의존하려고 한 공장책임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비판하고 6월말까지 국내산 원료로 광택시약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제작과 조립을 끝내며 7월부터는 자체로 생산한 광택시약을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을 국내산 원료를 가지고 광택시약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

직동원하였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광택시약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였다.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에 대한 태도는 당과 수령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이 당과 수령이 요구하는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자체로 만들어내여 당과 수령을 보위하고 받들어나간것처럼 우리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광택시약을 생산하여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하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광태시약을 생산하는 사업을 얼마나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었다. 우리는 행정경제일군들이 광택시약생산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이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명심하고 광택시약생산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꾸준히 일깨워주는 한편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생활을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광태시약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당생활지도를 짜고들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은 광택시약을 생산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다. 도금공장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은 공장당위원회의결정대로 6월말까지 국내산 원료로 광택시약을 생산하는 설비 제작과 조립을 끝냈고 7월초부터는 자체로 생산한 광택시약을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이와 같은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당일군들이 행정대행, 행정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자 구역에서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 3월26일공장, 평양제사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을 밀착시키는데서 구역당위원회가 얻은 경험은 또한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이다.

우리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을 밀착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라는것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 대한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 평천구역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당의 령도밑에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구역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구역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평천구역당위원회는 우리 구역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본보기로 꾸려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몇해전 구역당확대집행위원회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때 있은 일이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더 많이 꾸리는것이 중요하

였다. 구역당확대집행위원회에 앞서 열린 집행위원들의 협의회의에서 우리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하여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한개이상의 생산기지를 새로 꾸릴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일부 집행위원들은 소비품생산이 높은 수준에 이른 우리 구역에 그런 예비가 어디에 있겠는가고 하면서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생산의 예비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집행위원들이 모여앉아 토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혜를 발동하는것이 더욱 중요하였다. 우리는 확대집행위원회를 여는것을 서두르지 않고 집행위원들에게 분공을 주어 그들이 공장, 기업소와 동, 인민반들에 내려가 대중과 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하였다.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활동원칙, 사업원칙이다.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간 집행위원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영예로운 사업이라는것을 해설해주면서 그들과 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 생산자들속에서는 지난날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창발적인 의견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우리는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대담한 목표를 담은 결정서초안을 확대집행위원회에 내놓았다. 구역당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2급이상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2개이상의 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며 그 아래 공장, 기업소들과 동들에서는 한개이상의 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기로 결정하였다. 확대집행위원회이후 우리 구역에서는 군중적운동으로 재봉기, 종이, 비누 생산기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생산기지를 새로 꾸림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기지는 종전의 200여개로부터 470여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구역당위원회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투쟁하였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구역당전원회의에서 발전하는 현실과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8월3일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며 가격을 국가가격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전원회의는 구역에 비상설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동들에는 인민소비품생산을 맡아보는 겸직상무를 두어 8월3일인민소비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계획시달, 기술지도, 제품합평, 가격합의, 상품수요연구, 협동생산조직, 상품주문생산, 판매조직과 같은 사업을 맡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역으로부터 공장, 기업소와 동에 이르기까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지도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운것은 우리 구역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오늘 우리 구역에서는 백수십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200여개의 동가내반들에서 월 평균 380만원의 8월3일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있다. 이것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발단되던 1984년에 비하여 그 생산액이 무려 190배나 장성한것으로 된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구역의 얼굴인 평천구역직매점은 하나의 백화점과 같은 큰 종합상점으로 발전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근로자백화점》으로 불리우고있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우리 구역당위원회가 얻은 경험은 다음으로 정치사업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할 때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을 더 잘 밀착시킬수 있다는것이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구역당위원회는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

히 앞세우면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특히 통일거리 건설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우리는 통일거리 건설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는데서 언제나 통일거리 건설을 적극 다그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침투시키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앞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통일거리 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과업들과 풀어야 할 걸린 문제를 정치사업의 목표로 정하고 거기에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통일거리 살림집건설의 첫 시기 기초굴착공사에서 우리 구역련대는 다른 구역련대들보다 뒤떨어졌었다. 우리는 건설장에 나가 련대지휘관들과 살림집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다. 협의회를 통하여 우리는 기초굴착공사에서 뒤떨어진 원인이 결코 지휘관들이 말한것처럼 다른 련대들보다 기중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이 적은데 있는것이 아니라 건설자들에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부족한데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기계설비를 보충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건설자들의 사상문제를 푸는것이였다. 사상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기계설비가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은을 낼수 없으며 건설속도도 높일수 없었다.

구역당위원회는 이와 같은 진단에 기초하여 건설자들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정치사업의 목표로 정하고 그들속에서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지녔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구역당위원회는 이와 같이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건설자들이 힘껏 일할수 있는 기술경제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조직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여기에 옳게 결합시켜나갔다.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와 공장, 기업소들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건설현장에 나가 건설정형을 료해하고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었다. 우리는 구역련대에 야외부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건설에 요구되는 부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골조조립을 다그치면서 미장작업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벌린 정치사업은 통일거리 살림집건설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구역련대는 조립계획을 앞당겨 지난해 11월 19일 18층 314세대 살림집조립공사를 끝냈으며 11월말에는 시적으로 맨 선참으로 외부미장공사를 끝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정치사업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며 그것은 정치사업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될 때 경제건설을 얼마나 힘있게 추동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을 밀착시켜 경제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겠다. 우리 구역당위원회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더욱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겠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류 호 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현 시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민족대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되여있는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선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고 시대의 흐름과 세계인민들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의 원칙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두개 조선〉을 반대하고 진실로 조국통일을 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18~19페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한다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단체와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굳게 뭉쳐 강력한 민족주체적인 력량을 마련한다는것을 말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이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여 민족주체적인 력량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오랜 력사적기간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피줄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민족문화를 창조하며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조국이 분렬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렬정책에 있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거의 반세기동안이나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위업이며 그것은 민족자주력량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이다. 우리 인민이 이 투쟁에서 승리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의 주체인 민족자주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을 절박하게 요구하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조국통일위업을 담당수행하여야 할 주인도 바로 우리 민족이며 통일된 강토에서 살 사람도 다름아

넌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은 남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은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 대결하는 민족은 외세의 침략앞에서 무력할수밖에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날수 없다. 하나로 굳게 단결된 민족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민족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가 하는것은 얼마나 폭넓은 단결을 실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온 민족을 굳게 묶어세워 민족의 힘을 비할바없이 위력하게 한다.

조국통일은 전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업이며 전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다.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이 당하고있는 민족적 고통과 재난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여있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들모두가 겪고있는 민족적 불행이다. 그러므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는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 정당이나 단체의 리익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민족성원전체의 리해관계와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 때 가장 광범하고 강력한 민족주체적인 통일력량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으며 그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참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현실적으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에 대한 민족자주력량, 분렬주의세력에 대한 통일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여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뚫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이처럼 온 민족의 대단결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여 민족주체적인 통일력량을 튼튼히 마련하게 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민족의 대단결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하게 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민족해방문제인 동시에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원래 하나의 단일민족으로 한 강토우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립이 조성되게 된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정책의 결과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내부를 리간시키고 서로 대립시켜 손쉽게 저들의 지배하에 넣으려는데 있다. 우리 나라가 미제에 의하여 분렬된후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다. 또한 북과 남사이에는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끊임없이 격화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에는 불신과 대립의 장벽이 높이 쌓이게 되였으며 서로가 적대국이상으로 팽팽히 맞서 격폐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의 재결합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의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의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민족은 피줄과 언어, 문화생활과 지역 등의 공통성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이러한 공통성은 민족의 동질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계급은 민족과는 달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의 차이에 의하여 갈라지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그것은 민족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민족을 떠난 계급과 계층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민족적리익을 떠난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과 리념도 그것을 구현한 사회제도도 다 민족안에 있다.

나라가 분렬되여 거의 반세기동안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여왔고 정치군사적대결이 격화되였으나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 예나 지금이나 민족적공통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도 여전히 동질적인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을 위한것이며 따라서 개별적 계급과 계층의 리익은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민족이 계급적차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이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다.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을 구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있을수 없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민족대단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족의 단결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실현할수 없다.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 존재하여온 두 제도와 두 정부의 차이는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동질성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로 될것이 없으며 결코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다. 력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한다면 두 제도, 두 정부는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다.

련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는 문제는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힘만으로는 해결될수 없으며 어느 지역이나 일방의 노력만으로써도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오직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떨쳐나설 때만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조선동포들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련방제통일방안실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 련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할수 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의 민족주체적인 력량으로 굳게 결속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민족주체의 힘을 튼튼히 꾸려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를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온 겨레가 거족적통일운동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민족대단결의 방침에는 민족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제거하고 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확고한 민족자주정신과 철석같은 통일의지가 깃들어있다. 또한 이 방침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모두 한품에 안아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내세워주시고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끝까지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위대한 포옹력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우리 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모두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의무를 지니고있다.

민족공동의 의무는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조선동포들은 자기의 숭고한 민족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여온 고귀한 전통과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바라는 모든 애국력량을 반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민족의 단결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해방후에도 계속되여왔다.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이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조작하고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령도밑에 북과 남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진행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였으며 단결된 힘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였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 위력은 최근년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특히 지난해에 력사적인 범민족대회가 진행되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발족하였으며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정계와 사회계 인사들과 체육인, 예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통일축제를 벌린것은 우리 민족의 단결과 통일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커다란 경사였

다. 이 민족단합의 기운은 민족내부에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여온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대결정책이 파산되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족적단합의 고귀한 전통과 귀중한 경험을 적극 살려나간다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의 성패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계급적차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서로 뜻과 힘을 합쳐나가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각 당, 각 파의 정치세력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련대, 련합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여당과 야당, 재야를 가리지 말고 다수와 소수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정견의 차이와 과거의 허물도 묻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편견도 버려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며 신뢰를 두터이하는것이다.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민족앞에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다. 오늘 북남당국자들사이에도 대화가 진행되고 각계각층의 민간인들속에서도 서로 만나 대화할데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전도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담을 쌓고 앉아있는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정치인들은 조국해방 46돐이 되는 올해 8월 15일을 계기로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가지며 북남정당대표들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가질데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할것이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국사이의 회담과 함께 각계각층 민간인들의 대화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국사이의 회담이 결코 북남대화의 유일한 창구가 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협애하고 독선적인 대화태도를 버리고 북을 적대시하는 각종 반통일악법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우리와 만나 통일문제를 론의하였다고 하여 체포투옥한 각계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북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대화할수 있는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리념으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해내외 모든 정당과 단체들, 조직들, 개별적인사들과 협력하고 련합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도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면서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의 단결과 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속에서도 민족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제국주의는 세계 평화와 안전의 흉악한 원쑤

안 명 혁

오늘 국제정세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책동으로 하여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최근시기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계기로 하여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려 하고있다.

세계의 평화가 교란되고 안전이 파괴되는 근본원인은 의연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전쟁 정책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난관과 혼란을 조성하고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제국주의라는것을 현실은 보여주고있습니다.》
(《신년사》, 1991년, 단행본, 21폐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리념이다. 진보적인류는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침략과 전쟁은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지만 평화와 안전은 인류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전제로 된다. 때문에 진보적인류는 언제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한결같이 념원하고있으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있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려는 인류의 념원에 도전하여나서는 가장 반동적인 세력은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류혈적인 참화와 막대한 재난을 강요하는 인류의 흉악한 원쑤이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세계 평화와 안전의 흉악한 원쑤로 된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침략과 략탈, 전쟁이다. 침략과 략탈, 전쟁이 제국주의의 본성으로 되는것은 제국주의가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의 가장 주되는 특징은 바로 독점이 나라의 경제생활과 정치생활 전반을 지배하며 좌지우지한다는데 있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은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을 획득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제국주의독점들은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수 없으며 독점적지위를 확대공고화할수 없다.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기 위한 독점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독점은 비대해지면 필연적으로 해외팽창, 침략과 략탈의 길로 나가게 된다. 독점이 해외 침략과 략탈의 길로 나가는 목적은 보다 유리한 자본투하지와 원료원천지, 잉여상품판매시장을 획득하여 저들의 독점적지위를 국제적범위에까지 확대하고 더 많은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려는데 있다.

제국주의독점들의 침략과 략탈의 가장 로골적인 수단은 제국주의국가에 의하여 감행되는 전쟁이다.

독점재벌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틀어쥐고있는것만큼 제국주의국가의 정책은 곧 독점의 정책이며 독점의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이다. 제국주의국가는 철두철미 독점재벌의 리익을 대변하며 독점의 팽창주의적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달리게 된다.

독점의 끝없는 탐욕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검은 손길이 뻗치는곳마다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며 강도적략탈이 감행되게 된다.

독점적고률리윤을 추구하는 독점이 지배하는 한 제국주의는 반드시 침략과 략탈, 전쟁의 길로 나가기마련이다. 침략과 략탈, 전쟁을 떠나서 제국주의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다. 승냥이의 야수적본성이 변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이처럼 제국주의는 침략과 략탈, 전쟁을 본성으로, 자기의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착취제도,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가장 횡포한 억압제도이며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인류의 흉악한 원쑤이다.

제국주의는 생겨난 첫날부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흉악한 원쑤로서의 악명을 떨쳐왔다.

제국주의가 걸어온 력사는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으로 이어진 피비린내나는 력사이며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학살과 략탈로 살쪄온 저주로운 력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거대한 재부는 결코 허공에서 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그 나라 인민들의 피와 땀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제국주의는 그 이전시기인 산업자본주의시기부터 침략과 략탈, 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이 나라들에서 헤아릴수 없는 많은 재부를 략탈해갔다. 특히 독점자본주의에로 이행하던 19세기말 20세기초에 이르러서는 아세아의 대부분과 아프리카의 거의전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렬강들에 의한 세계의 령토분할, 식민지분할이 완료되게 되였다.

식민지분할이 끝나게 되자 필연적으로 그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였다.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력사상 최초의 제국주의전쟁은 1898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미국—에스빠냐전쟁이였다. 이 전쟁에서 미제는 뿌에르또 리꼬와 괌섬 및 필리핀을 강탈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꾸바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준비하고 도발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인류의 흉악한 원쑤라는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식민지재분할과 시장쟁탈을 위하여 제국주의렬강들이 일으킨 제1차 세계대전에는 38개의 나라가 참가하였으며 이 전쟁에서는 약 1,000만명이상의 전사자와 2,400만명의 부상자가 났다.

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도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는 61개 나라(세계인구의 80%)가 참가하였으며 40개 나라 령토가 전쟁마당으로 전변되였다. 이 전쟁에 동원된 병력은 1억 1,000만명이였으며 전사자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만 하여도 무려 5,50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이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에 근 100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전쟁에 말려들어갔으며 수억의 인구가 생명을 잃었거나 불구가 되고 생활지반을 파괴당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 투자된 자금은 약 3,599억딸라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 지출된 군사비와 전쟁손실액은 4조딸라라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에 국가재산을 거의 탕진하고도 부족하여 인민들의 재산까지 무자비하게 략탈함으로써 사실상 나라전체를 황폐화시키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 몰아넣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제국주의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들씌운 희생과 재난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재난을 들씌우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죄행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도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는 40여년동안에 170여차의 크고작은 전쟁들이 있었다. 이 전쟁들도 대부분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직접 일으켰거나 그들의 사촉과 간섭에 의하여 일어난것이였다.

제국주의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한세기동안 지구상에서는 어느 한 시기, 한순간에도 전쟁의 총포소리와 화약냄새가 멎은적이 없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야말로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원흉이며 침략과 략탈, 전쟁으로 인류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씌우는 세계인민들의 철천지원쑤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는 오늘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인류의 흉악한 원쑤이다.

지난 시기 인류에게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제국주의파쑈분자들은 세계인민들의 저주와 규탄 속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오늘에 와서도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죄악에 찬 수치스러운 력사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선행파쑈분자들의 전철을 밟으면서 더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를 위한 저들의 전략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정세를 완화시켜놓고는 《평화》와 《군축》의 막뒤에서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 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계속 위협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안전에 역행하여 군비경쟁과 핵무기증강 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랭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강력한 미국의 건설》과 《세계에 대한 지도력의 회복》을 운운하면서 군비확장과 핵무기현대화에 광분하고있다. 체계적으로 군비를 확장해온 미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현회계년도에 근 3,000억딸라의 군사비를 지출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방대하게 늘어난 군사예산의 많은 몫을 새로운 살인무기의 연구와 개발에 돌리고있다. 미제가 1951년 1월 27일 네바다핵시험장에서 첫 핵시험을 감행한이래 지난 40년동안에 감행한 핵시험은 무려 707차례나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시험들에 기초하여 각종 핵무기들을 대량 생산하고있다. 미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핵탄두만 하여도 600여개나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군비확장, 핵무기증강 책동과 함께 혁명적으로 나아가는 사회주의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을 전면적으로 포위봉쇄하기 위하여 세계도처에 침략적군사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배치해놓고있으며 많은 침략군대를 주둔시키고있다. 현재 미국본토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곳에 널려있는 미제의 5,700여개의 군사기지들과 시설물들에는 2만여개의 핵탄두와 수천개의 핵운반수단들이 배치되여있으며 1,500여개의 해외군사기지들에는 50여만명의 침략무력이 전개되여있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침략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도처에서 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침략적군사동맹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침략적군사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평화와 안전은 보장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군사동맹을 해체할데 대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나토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있

으며 동북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체계를 조작하고 중근동지역에서도 나토형의 군사동맹을 내오려고 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벌리고있는 전쟁연습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21세기는 태평양시대》로 될것이며 미국의 《힘》의 전략적중심이 《대서양으로부터 아세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있다고 떠벌이면서 이 지역에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 《림팩》, 《파멕스》와 같은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으며 중미주지역에서도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빈번히 감행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전쟁책동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은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을뿐아니라 직접적인 군사행동으로 평화를 교란하고 안전을 파괴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공개적인 무력간섭과 무력침공 책동은 반제자주력량이 승리를 거두거나 저들이 길러낸 주구나 괴뢰들이 위기에 처할 때, 개별적나라들에서 정세가 급변하여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불리하게 될 때 더욱더 발악적성격을 띠고 감행된다. 그러한 실례들은 미제가 합법적인 주권국가인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한데서도 여실히 찾아볼수있다. 빠나마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은 본질에 있어서 빠나마운하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틀어쥐고 이 일대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강도적인 침략이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평화》가 얼마나 큰 기만인가 하는것은 그들이 만지역에서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새로운 더 큰 침략전쟁을 감행한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만지역은 《세계의 원유창고》, 《석유보물고》로 불리우는 세계최대의 원유산지이다. 이 지역에는 세계원유매장량의 65%에 해당하는 6,517억바렐의 원유가 매장되여있으며 최근년간 세계원유총생산량의 약 4분의 1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였다. 만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약 50%는 서방세계에 수출되고있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의 원유에 경제의 중요한 명줄을 걸고있다.

미제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지역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감행한 목적은 결코 그 누구의 침략을 반대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석유독점체들의 리권을 보호하며 만지역의 풍부한 원유매장지를 저들의 통제밑에 두려는데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궤변을 늘어놓아도 중근동지역에 대한 저들의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려는 본색을 가리울수 없다.

제국주의가 세계 평화와 안전의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더 잘 말해주고있다.

일찌기 《샤만호》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 침략의 검은 손길을 뻗쳐온 미제는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1950년에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오늘도 미제는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는 지금 4만여명의 미군과 1,000여개의 핵무기가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끌어들인 핵무기의 배치밀도는 나토지역의 핵무기배치밀도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 미제는 이것으로도 모자라 신형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조선반도 주변의 침략무력까지 동원하여 매해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미제가 만전쟁에 방대한 무력과 전쟁수단들을 동원한 조건에서도 올해에 또다시 《팀 스피리트 91》합동군사연습을 벌린것은 그들이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제의 무모한 전쟁책동으로 하여 사실상 오늘 세계적으로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 지역은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삽시간에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이처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이며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날로 긴장해지고있다.

제반 사실은 제국주의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인류의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최근시기 국제무대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것을 계기로 하여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그 무슨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국제관계질서를 제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있으며 거만하게도 세계의 제왕처럼 행사하려 하고있다. 지어 그들은 여러 국제기구들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제국주의와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있는 한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바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침략수법의 변화를 제국주의본성의 변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군비확장과 무력증강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다른 나라들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와 침략무력의 철수, 침략적군사동맹의 해체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단호히 폭로규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고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91년 제4호(루계 588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91년 4월 1일 발 행 • 1991년 4월 3일

ㄱ-1548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9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제5호(58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자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집중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과 같은 복잡한 정세속에서 우리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령도적정치조직이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이 진행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수행된다. 당이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활동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방식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그 근본요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이다.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나 행정실무사업을 하는 행정경제기관이 아니라 정치적교양자이며 조직자이다. 당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며 당의 임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이다. 만일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지 않고 권력에 의거하거나 행정경제사업에 매달리면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으로,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며 당사업과 당활동은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령도적정치조직인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여야 자기 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 불패의 대오로 꾸릴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광범한 대중을 자기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심중한 문제로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은 당이 권력기관화되고 행정경제기관화되여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낯을 돌리지 않으면 생기와 활력을 잃은 맥빠진 존재로, 광범한 군중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공중루각과 같은 존재로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당이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움직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줄기차게 밀고나가는데 어떤 엄혹한 시련과 난국도 주동적으로 뚫고 주체적혁명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는 활동방식이다.

당사업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당 건설과 활동과정은 사람과의 사업을 첫 공정으로 내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을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였으며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해온 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당창건을 준비하는 첫 시작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의 골간을 꾸리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해방후 그처럼 착잡한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창건될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온 누리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치는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며 그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열쇠를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는데서 찾았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혁명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우리 당은 집권당에서 나타날수 있는 당사업을 행정실무화하는 경향을 엄격히 경계하였으며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각급 당조직들이 강화되고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지난 기간 당과 혁명앞에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을 주동적으로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 비결이 바로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여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운데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필승의 신념과 포부, 청춘의 활기에 넘쳐 사회주의의 숭고한 리념을 고수하고 그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대담하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전진하는것은 우리 당이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여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철통같이 굳게 묶어세우고있기때문이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앞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무거운 과업이 나설수록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주변의 정세가 매우 긴장하고 복잡하며 우리앞에 비상히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으며 인민들의 사회주의위업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

면서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더욱더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고있으며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에 매달려 사회주의나라들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침투하여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길로 되돌려세우려 하고 있다. 놈들은 혁명의 배신자, 반사회주의분자들을 부추겨 당의 령도적역할을 마비시키고 사회적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허물고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고 갖은 음흉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특히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처럼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여 자체의 힘으로 이 땅우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와 전진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비약과 새로운 전환의 년대인 1990년대의 두번째 해에 들어서 전진의 발걸음을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1990년대에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하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고 인민생활에서 질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나라의 정치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명력을 과시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는 1990년대의 휘황한 투쟁목표를 점령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세우고 높이 떨치며 인민들에게 더욱 값높고 풍부하고 유족한 사회주의생활을 보장해주려는 당과 수령의 숭고한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위기》에 대해 떠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짓눌러놓아야 한다.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우리 인민의 이 무거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여 혁명의 주체를 꾸리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자기의 본분과 직능에 맞게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고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당을 약화시키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세할 때 인민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와해되게 되며 투쟁 목표와 방향을 잃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여 결국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당이 강하고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면 막아서는 절벽도 헤가르고 승리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실패를 면할수 없다. 기름진 룡마도 타기에 달렸다는 속담이 있다. 문제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을 근기있고

실속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모든 당열군들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요구와 의도를 심장에 깊이 새기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을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어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지극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지극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과업이다.

간부는 당의 골간이며 당원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력량이다. 당의 조직적단결과 전투력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역할에 의하여 담보된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할 때 당은 하나의 공고한 조직적통일체로 되며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에서 기본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누구나 다 높아야 하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며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간부들이 더 높아야 한다. 간부의 심장은 언제나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충성과 효성으로 불타야 하며 오직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철석같은 신념과 각오로 높뛰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이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따르며 끝까지 충성과 효성을 다할 때 우리 당은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을 승리에로 확고히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높은 일군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을 세워 일상적으로 잘해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과 효성은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더욱 굳게 다져진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게 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다운 충신이 되게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을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은 어떤 사나운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대오로, 향도자로 될수 있지만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무맥하며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각계각층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총적방향이다.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의 총적방향에 기초하여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틀어쥐고나가면서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기본군중과의 사업에서는 핵심군중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가정주위환경이나 사회정치생활경위보다 본인의 현재 사업과 생활을 기본으로 볼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군중과의 사업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계속 실속있

게 벌려나감으로써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이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군중과의 사업에서 인테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은 인테리들을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으로,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보고 그들과의 사업을 일관하게 중시하여왔으며 오늘 거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리 나라 인테리들은 다 당에 충실하다. 다른 나라들에서 인테리들이 당을 반대하여 반혁명의 길로 나가고있는 때에 우리의 인테리들은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고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있다. 우리 인테리들은 당의 사상과 방침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고있다. 그들은 오직 당을 위한 하나의 심장만을 가지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숭고한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꽃피우려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이러한 믿음직한 인테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긍지이며 자랑이다.

당조직들은 인테리들속에서 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에게 보내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회답서한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훌륭히 꽃피워나가도록 적극 밀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람은 청년시기에 어떤 교양을 받는가에 따라 혁명가로 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이 잘 진행되여왔기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위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부흥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진선에서 자기의 지혜와 힘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우리 청년들의 건전한 정치사상적풍모와 선봉적역할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있지만 결코 그에 자만하여서는 안되며 계속 그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쇠덩이도 밖에 버려두면 녹이 쓸고 부식된다. 사람도 끊임없이 교양을 받지 않으면 의식속에 공백이 생겨 부르죠아사상이 침습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혁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청년들이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것은 현시기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면서 우리 나라에 희귀적인 부르죠아사상과 생활양식을 퍼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들도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을 들이밀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청년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틀어쥐고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이 발붙일수 있는 자그마한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과의 사업을 그들의 심리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잘 짜고들어 진행하며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불굴의 혁명투사로, 쓸모있는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조직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어

머니다운 심정에서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주체적관점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한다. 당과 대중사이의 관계는 령도하고 령도를 받는 관계인 동시에 생명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이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왔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어머니당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으며 당사업전반이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적인간의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하고있다. 사회적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문제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하며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이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돌보아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할 각오를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며 소박하고 겸손하며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인민적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적, 정치적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집권당으로서 권력을 쥐고있지만 권력에 의거하는 방법으로는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정치를 실시할수 없다. 권력에 의거하는 방법은 당이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매우 유해로우며 결코 허용될수 없다. 당이 이러한 사업방법을 허용하면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며 자기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당이 인민대중에게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은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계속 강화하면서 당적지도를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방식에 맞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함으로써 관료주의적, 행정식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사업방법, 당적, 정치적 방법을 확립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대중이 당의 의도를 신념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설복과 교양을 꾸준하고 실속있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에서 자기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그 어떤 세찬 광풍도 이겨내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안 동 윤

사상교양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주체를 반석같이 다지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사상교양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으로부터 이 사업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우리 당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시련의 언덕을 수없이 넘어야 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과 탈선도 없이 오직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한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로정과 그 길우에서 이룩된 세기적 변혁과 사변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전략적인 구호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혁명운동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 운동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혁명운동의 이 근본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때, 다시말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 사소한 곡절과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

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운동을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되는 주되는 리유가 있는것이다.

어떤 사상이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되자면 그것이 당의 근본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상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에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근본요구인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게 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될 때 가장 순결한 사상적전일체로 될수 있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될수 있다. 만일 혁명의 주체를 이루고있는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이색적인 사상에 물젖게 되면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혁명의 주체는 자기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체의 위력, 주체의 생명력이란 다름아닌 하나의 사상, 자주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결속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위력이다.

혁명의 주체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강화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지니게 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하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확고히 간직하게 할수 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게 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당과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되게 하는 혁명적방침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인민들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게 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주견과 결심에 따라 처리해나가게 한다. 이와 함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확고히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게 한다. 이리하여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게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립장을 확

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사람들에게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게 하며 창조적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하게 한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성의 혁명리론과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대하게 한다. 이리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해결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창조적인 투쟁으로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게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참으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해나가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있게 하는 방침이다.

우리 시대 세계혁명운동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형성되는 민족부대들의 투쟁을 통하여 전진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며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참으로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방침은 지난 기간 우리 당의 령도밑에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 당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을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왔다.

전인미답의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위대한 사변, 경이적인 변혁을 이룩해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은 우리 당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감으로써 승리한 력사로 빛나고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본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첫 시기부터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공미굴종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당시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동화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가 뿌리깊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 공미굴종사상이 퍼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리시여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민족적자존심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새 조국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시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개변하여 그들을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고 새 조국 건설에로 추동한 일대 사상개조운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발기하시고 조직령도하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속에서 일제의 낡은 사상 잔재와 숭미사대주의사상이 극복되

고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의식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여 자주의 기치아래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5년에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것이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1955년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자기의것을 덮어놓고 깔보고 남의 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현상이 없어지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더욱더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혁명발전의 일정에 오른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며 혁명대오를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순결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반사회주의적소동이 강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복잡한 내부형편과 관련하여 주체를 세우는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나섰던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혁명적구호에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지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이 총화되여있으며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한결같은 지향이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이며 혁명적기상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사고와 실천의 기초로 삼고 한가지를 생각해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한가지 일을 하여도 당의 의도에 맞게 하며 순간을 살고 한생을 살아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만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고 그에 의거하였기때문에 우리 당은 기성의 리론과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당건설과 정권건설도 우리 식으로 할수 있었고 경제문화건설도 우리식으로 할수 있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이

독특한 인민대중의 주체적인 사상관점의 확립,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 여기에 바로 지난날 력사의 후진대렬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가 자주, 자립, 자위의 막강한 힘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되고 그 어떤 엄혹한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직 주체의 궤도를 따라서만 전진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가 건설될수 있게 한 정치사상적위력의 원천이 있다.

참으로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식대로 살아온데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게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확고한 결의를 더욱 가다듬게 하고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이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은 우리 식과 자본주의식, 수정주의식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사회주의건설을 언제나 우리 식대로 할수 있으며 수정주의, 현대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사상요소를 정확히 가려보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데 대한 방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은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수많이 내놓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이 내놓은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 혁명의 휘황한 전망이 있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는것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의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며 당과 수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져야 남에 대한 우상화를 없애고 남을 본따며 하지 않으며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앞으로도 계속 당건설과 정권건설, 군대건설과 경제문화건설을 다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고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잘해나가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이나 현대사회민주주의바람을 불어넣을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조선에서는 인민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모든것을 자기 식으로

해나가고있기때문에 부르죠아자유화바
람이나 현대사회민주주의바람도 들이밀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
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이기 위
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
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
들이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
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음으로 하여 자기 운명을 자
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민족
으로 될수 있었으며 온갖 풍파속에서도
우여곡절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걸
어올수 있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
자들에게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켜 그들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
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
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
으로 하여왔기때문에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있는 긍
지와 자부심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
로자들에게 위대한 주체사상을 원리적
으로 깊이있게 체득시켜 그들이 주체사
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혁명과 건
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이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기초로 하고있
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다
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끝
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
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
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
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 빛내
여나가게 하자는데 있다. 우리는 당원
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
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사회주의조
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
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대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는것이다. 사대주의, 수
정주의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데서
해독적인 작용을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대주의, 수정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바로 인식시켜 그들이 사회주의를 좀
먹는 사소한 요소도 제때에 가려보고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
양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
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에게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구
호를 내놓은 우리 당의 의도가 무엇인
가 하는것을 최근 국제정세와 결부하여
깊이 인식시키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
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현실과 결부시켜 잘 해설해주어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
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당선전일군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크며 이 사업에서의
성과는 선전일군들이 당사상사업을 어
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
다. 우리 모든 당선전일군들은 우리 식
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력사
적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
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
에 힘있게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의 종
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김 국 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고유한 투쟁기풍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없애버리고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멀고도 험난한 혁명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여기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요구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도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하려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다. 이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를 구현하고있는 고상한 투쟁정신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혁명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다. 다른 나라 인민들이 혁명투쟁을 도와줄수는 있지만 그 나라 혁명을 대신해줄수는 없는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혁명실천이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혁명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관점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제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혁명하는 인민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정신이다.

원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자기자신의 힘에 의하여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존재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매우 방대한 사업이며 온갖 낡은것과의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을 통해서만 수행될수

있는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인민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완강한 투쟁정신을 발양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이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주의건설이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자신의 주인다운 자각과 온갖 난관을 극복하는 완강한 투쟁정신이 없이는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앙양과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완강한 투쟁정신은 아무때나 저절로 높이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완강한 투쟁정신은 그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닐 때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활동에서 높이 발휘되게 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우선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게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은 사람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질때 더욱 확고히 지니게 되며 높이 발양되게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은 사람일수록 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제 힘을 믿고 제 힘으로 혁명을 하려는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업에 피동적으로 참가하며 신념이 없이 남을 쳐다보면서 행동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공장을 하나 일떠세우는 문제가 제기되면 제 힘으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것을 바라보면서 설비나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조건타발을 하며 창조적사색을 하지 않는다.

물론 어렵고 방대한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다른 나라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과 협조는 부차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인적, 물적 력량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결정적요인인 그 나라 자체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게 한다. 우리의 현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깊이 간직하여야만 당의 의도에 맞게 자체의 설비와 자재, 기술로 공장을 일떠세우고 온갖 내부예비와 생산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여줄뿐만아니라 그들이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수행하는 완강한 투쟁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사회

주의건설과정에는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며 예견하지 않았던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 부닥칠 때도 있게 된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완강한 투쟁정신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들의 지칠줄 모르는 패기와 정열, 완강한 투쟁정신은 그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닐 때 높이 발양되게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할뿐아니라 그들의 투쟁력, 의지를 규제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낳게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깊이 간직하여야만 왕성한 투지와 기백에 넘쳐 모든 일을 활력있게 전개해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완강한 투쟁정신을 지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적립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 대하는 립장과 태도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그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편향을 범하지 않고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지 위하여서는 혁명적립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더우기 오늘 혁명의 배신자들이 혁명적립장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말아먹고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오늘의 현실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혁명적립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하지 못할 때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는 가장 혁명적인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매개 나라의 구체적환경은 똑같지 않다.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모든 나라들은 저마다 다른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일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할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철저히 지키자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로 하여금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도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끝까지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려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확고히 지키게 하는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사상적으로 그 누구에게 얽매이는 일이 없이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 인민과 혁명의 리익에 맞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또한 자기의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것을 덮어놓고 본따고 통채로 삼키는 교조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참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들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혁명투쟁의 승리와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루어지고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에서 높이 발휘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혁명적자각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끊임없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여왔다.

혈전만리 불바다를 헤치면서 전개하여야 하였던 항일혁명투쟁과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괴수로 하는 15개 추종국가 침략군대를 물리쳐야 하였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빈터우에서 맨주먹으로 달라붙어 수행하여야 하였던 전후복구건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이 걸어온 길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낡고 반동적인것을 짓부시고 새것, 진보적인것을 창조하는 혁명이 어렵지 않을수 없지만 실로 우리 혁명은 력사상 가장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굴함없이 투쟁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되찾고 민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그 정신으로 강대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고수할수 있었다. 안팎의 원쑤들이 악랄하게 준동하고 경제적난관이 겹쳐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대고조의 발단을 열어놓을수 있었던것도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나감으로써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었으며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을 때에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최근년간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살림집건설장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는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민은 어렵고 방대한 경제건설을 튼튼한 밑천이 있거나 누가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하나하나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실로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싸워 승리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그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 점령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당면하게는 인민경제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농업과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러한 방대한 투쟁과업을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반동주의자들이 사회주의경제를 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추켜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원쑤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영웅적조선인민의 영예와 존엄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경제과업은 매우 아름차고 방대하다. 그 누구도 이 아름차고 방대한 과업을 대신하여 수행해줄수는 없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빈터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요구하는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자체로 만들어낸것처럼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을 동원하여 수행하겠다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 의존심을 철저히 버려야 하며 난관앞에 굴복하여 투쟁을 포기하거나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것과 같은 온갖 소극적인 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는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있다.

생산의 예비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있다. 예비를 찾고 증산하고 절약하는 사업을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대중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하여 이 사업이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또한 당일군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기세와 각오는 대단히 높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지 않으면 그것이 더욱 높이 발양될수 없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현시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본질과 의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침투시켜 그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고 그 어디에서나 자력갱생의 원칙과 어긋나는 자그마한 요소도 배겨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투쟁목표를 전투적으로 내세우고 그 수행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높이 발양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투쟁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한 목표를 점령한 다음에는 련이어 새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을 점령하는데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함으로써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계속 높이 발양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과업

김 려 현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여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리념이 꽃피는 우리의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놓은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기본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생활기풍과 건전한 생활양식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이 차념치게 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는 집단과 개인의 호상관계에 기초하고있는 공산주의원칙이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는 수령, 당, 대중과 개별적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인민대중이 집단이라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집단의 중심으로서의 수령과 집단의 중추로서의 당도 다 집단을 대표한다.

집단은 집단안의 매개 성원들의 유기적인 통일체로 존재하며 매개 성원들은 집단을 떠나서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다. 개인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집단생활을 통해서만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집단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개인의 운명은 집단의 운명에 의하여 제약되게 된다. 그리고 집단의 공동의 요구는 개인들의 요구와 통일되여있는것만큼 집단의 요구와 개인들의 요구는 일치하게 되며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리익도 들어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것은 곧 자기자신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된다.

여기로부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원칙이 나오게 된다.

한편 개인을 떠난 집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은 개인의 집합체이다. 사회는 수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인것만큼 집단은 개인들의 존재와 발전을 위하여 집단의 모든 성원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며 개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준다.

여기로부터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이 나오게 된다.

집단과 개인의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람의 집단주의적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게 한다.

사회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그것이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얼마나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되고 규정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커다란 우월성과 생명력은 사람의 집단주의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은 사회적집단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살려는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하고있다.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출현하면서 비로소 그의 계급적사상으로 전환되였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배적인 사상으로, 고유한 리념으로 되였다. 사상적리념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집단주의를 떠나서 사회주의의 존재와 공고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그 우월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집단주의적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공고발전하며 그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집단주의는 평균주의나 이른바 《전체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현실은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라고 헐뜯고 반대하면서 부르죠아개인주의를 조장시키면 사회를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자기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극단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부패타락한 사회로 전락시키게 된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집단주의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으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정치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보람차고 값있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집단생활과 공동행동, 단결과 협력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장 훌륭히 실현되고 있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뿐아니라 개인의 리익도 존중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집단의 발전과 번영속에서 매 개인들이 발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나간다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특성과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사람의 집단주의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원칙의 본질은 《하나는 전체

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집단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있다. 공산주의원칙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게 하고 생활과 활동이 집단적이고 자각적인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성격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또한 이 공산주의원칙은 모든 사회생활과 사회관계가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집단주의적요구를 더 잘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사람의 집단주의적요구를 원만히 실현시켜주고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구현하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일심단결되여있는 가장 공고하고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과 충실한 인민이 혈연적으로 굳게 결합되여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움직이고있다.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이 사랑과 충성으로 련결되여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일심단결을 실현하였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는것만큼 정치사상적면에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가 기본적으로 이룩되였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식 사회주의가 정치사상적면에서 가장 공고하고 우월한 사회주의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집단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그것이 유지되고 강화발전되려면 개별적사람들사이에 공고한 결합을 담보하는 관계가 형성되여야 하며 활동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치적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사람들사이에 진정한 결합과 공고한 단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것이 바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으며 공산주의원칙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발현된다. 이러한 공산주의원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과정을 통하여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는 한길에서 생사를 함께 할수 있다는 믿음을 깊이 간직하게 된다. 공산주의원칙은 온 사회에 동지적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참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게 하며 그에 기초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은 사회성원들속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높이 발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것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게 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게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고르롭고 안정된 물질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따라서 해당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고르롭고 안정된 물질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며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건전하고 평등한 사회주의물질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무상이나 헐값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온갖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여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적시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그것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그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해서만 끊임없이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그 담당자인 인민대중이 집단적힘, 단결과 협력의 위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단결과 협력은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이 발휘하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원천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람들은 오직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떠밀어나가는 인민대중의 집단적인 힘은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을 통일시키고 단결과 협력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는 공산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높이 발휘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에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이 공산주의원칙은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게 하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게 하며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 공산주의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물질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투쟁해나가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바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

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는 사람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67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적생명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차적과업이다.

집단주의적생명관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생명관이다. 집단주의적생명관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이라는데 기초하고있다.

집단주의적생명관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집단을 개인의 생명의 모체로 보는데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게 한다.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는것만큼 삶의 가치는 그가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한 생활일수록 그만큼 값높은 생활로 된다. 만일 사회와 집단과 떨어져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그의 한생은 무의미한것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것인가 아니면 자기개인만을 위하여 무의미하게 한생을 보낼것인가 하는것은 삶에 대한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두 립장으로 된다. 집단주의적생명관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생명관이며 공산주의적리념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는 생명관이다. 사람들이 집단주의적생명관을 가져야 집단주의적생활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에 따라 생활하며 활동할수 있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개인주의적생명관에 비한 집단주의적생명관의 참다운 우월성을 원리적으로뿐아니라 실지 체험을 통하여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집단주의적생명관을 본성적요구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없애는것이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집단주의정신을 마비시키고 공산주의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말건 오직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남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자본주의적사상잔재로서 공산주의사상과 인연이 없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를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적생활원칙과 집단주의적활동방식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사상적변질의 첫걸음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은 사회주의사회에 낡은 사상 잔재로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에 발을 붙이고 사람들속에 부르죠아사상문화를 퍼뜨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는 가장 반동적인 사상문화이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다

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기형화하는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반동적본질이 있다.

우리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고 부르죠아사상문화가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인 사상문화가 지배하게 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동지적단결의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들사이에 진정한 동지적단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원칙, 혁명적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할수 있다.

원래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집단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평등한 자주적인 관계인 동시에 서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동지적사랑의 관계이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동지적단결을 이룩하자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사랑은 동지적관계의 기초로 된다. 인간에 대한 사랑, 동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동지적단합과 화목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발양될수 없다. 남을 사랑할줄 알아야 남에게서 사랑을 받을수 있고 동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라야 자기 집단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수 있으며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단결의 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우리는 동지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귀중한 전우로 믿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끌어줌으로써 진정한 동지적단결을 이룩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회정치적집단에 고유한 생명활동방식, 집단주의적활동방식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주의정신을 체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람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풍을 세우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우며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게 된다.

조직생활을 부담으로 여기거나 자유를 구속하는것으로 생각하는것은 매우 그릇된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것은 자유롭고 보람있는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저 제멋대로 살아가는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방종을 개성의 자유라고 하면 그러한 자유는 동물의 생활과 다름이 없을것이다. 사람이 조직생활을 자유를 구속하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잘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에 깊이 물젖게 되고 여러가지 과오를 범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의 락오자가 되여 정치적생명까지 잃게 된다. 오직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여야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당과 수령,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며 조직생활지도를 짜고들어 정치조직생활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화된 일상생활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교양사업은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우월한 방도

박 성 범

오늘 우리 청년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자라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우리의 새 세대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도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청년전위들의 불패의 대오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키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 *

청년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키우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사회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자못 크다. 청년들은 사회의 앞날과 혁명의 미래를 대표하는 위력한 력량이다.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단련된 청년들에 의하여 혁명위업이 전진하며 대를 이어 완성된다. 때문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혁명위업을 전진시키고 종국적으로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청년들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수 있지만 청년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여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지 못하면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청년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교양사업은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우월한 방도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그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좋은 방도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은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원리교양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의 유기적련관속에서 진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원리와 실천은 서로 다른 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혁명실천은 혁명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는것만큼 혁명원리

로 무장하는것은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전제로 되며 한편 혁명 사상과 리론은 혁명의 실천속에서 창시되고 진리성이 검증되는것만큼 혁명실천은 혁명 사상과 원리로 무장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 여기로부터 청년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은 반드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야 할 요구가 제기된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한다.

과학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는것은 청년들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의 모든 사고와 실천 활동은 그가 가지고있는 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청년들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간직해야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공산주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사람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투쟁하는데서 청년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청년시기는 육체적면에서뿐아니라 사상정신적면에서도 비상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이다. 청년시절에 어떤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람은 청년시절에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일생동안 혁명가로서 빛나게 살수 있지만 청년시절에 나쁜 사상에 물젖으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속물적인 존재로 되여 일생을 헛되게 살게 된다.

사람의 한생에서 이처럼 중요한 청년시기에 그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혁명가로 키우자면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 사상과 리론은 혁명실천의 일반화이며 혁명실천은 사상과 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검증하는 척도인것만큼 청년들이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자면 그것을 원리적으로 인식하는것과 함께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준엄한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의 정당성과 독창성을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며 그것을 자기들의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게 된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고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된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숨쉬고 행동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을 바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나게 된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또한 그들을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한다.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핵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후계자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완수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수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 혁명가로 되자면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수령과 그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해야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

을 지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으며 청춘의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청년들을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에게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자면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개척과 승리적전진, 그 종국적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가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수령과 그 후계자가 지닌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풍모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할수 있다. 그리고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또한 그들을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비롯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자질과 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출수 있게 한다.

혁명은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혁명의 길에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으며 지어 목숨도 내대야 하는 준엄한 시기도 있다.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갈수 있는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사람의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은 특히 청년시기에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청춘시절에 강의한 혁명적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녀야 사람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심을 모르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청년들을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혁명가로 키우자면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혁명가로 되게 하는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원리적으로 인식하는것과 함께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하는데서 생겨난다. 청년들은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원리적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하면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발휘할수 없다.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은 말로써 결의나 다진다고 하여 가지게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준엄한 실천투쟁속에서 지니게 된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종국적완성의 필연성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게 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드팀없는 생명관을 가지고 사소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나가는 불굴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청년들은 혁명실천과 결부된 교양사업을 통하여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지닐뿐아니라 공산주의혁명가의 자질과 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된다. 혁명실천과 결부된 교양사업을 통해서만 청년들은 조직성과 규률성,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정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키우게 되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기술지식과 건장한 체력도 소유하게 된다.

이처럼 혁명실천과 결부된 교양사업은 새 세대 청년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하게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게 하며 불굴의 투쟁정신을 비롯한 혁명가의 자질과 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출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하는 우월한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새 세대 청년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모든 청년들을 당의 청년전위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훌륭히 키워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청년들을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투사로, 혁명가로 키우시였으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해방후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을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속에서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청년들을 교양하여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치게 하시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청년들이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의 앞장에서 싸우도록 하시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시켜 투쟁속에서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청년들은 건국초기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동요없이 당을 따라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떨쳐나섰으며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바쳐 둘도 없는 조국을 지켜냈다. 전후시기에도 우리 청년들은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탄광을 개발하고 발전소를 일떠세우며 철길을 건설하고 살림집을 짓는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투쟁속에서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더욱 힘차게 조직전개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청년대오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사로청의 총적업무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것을 청년운동의 근본사명으로 규정하시고 모든 청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청년대오를 주체사상화하고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 당은 특히 청년교양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주체의 혁명원리로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는 동시에 청년들의 대중적혁신운동인 청년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피끓는 청년들을 로동과 국방을 위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시켜 투쟁속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청년들은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일심단결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조선혁명의 새벽이 열리던 시기 열혈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온것처럼 우리 당의 두리에 하나의 생명으로 일심단결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자라나고있다.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초소에

서 집단주의적인생관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있는데서 발현되고 있다.

지난 기간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운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자기의 청춘시절을 빛내이고있다. 함흥시의 19명의 처녀들을 비롯한 수많은 남녀청춘들은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선행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당의 청년전위로 살며 투쟁하고있으며 김광철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혁명동지를 위하여 피끓는 청춘을 바치고 영생하는 삶을 빛내이고 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모든 청년들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자라나고있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더욱 튼튼히 키워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선행부문에 적극 진출시켜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도록 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청년영웅으로 자라날것을 바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전투장은 우리 청년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끓는 청춘을 바쳐야 할 성스러운 전투장이며 혁명가로서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게 하는 보람찬곳이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서 그들이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실천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오늘 반사회주의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새 전쟁 도발책동을 마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앞에 나선 가장 성스러운 임무이다. 우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참다운 애국자로, 반제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투사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

청년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청소년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들과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전통

윤 명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의 불길속에서 조국광복회가 창건된 때로부터 55년이 지나갔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도 조국광복회가 높이 추켜들었던 민족단합의 기치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으로 영원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여 반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었으며 그 불패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민족단합의 새 력사가 펼쳐지던 항일의 나날에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전통이 이룩되였다. 이 귀중한 전통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된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온 민족의 통일단결을 실현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 *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민족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투쟁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들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고 승리하게 된다.

더우기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에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가자면 전민족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의 무궁무진한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민족이 단합되지 못하면 망국과 예속을 면할수 없고 민족재생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것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가 말해주고있는 심각한 교훈이며 엄연한 진리이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운동과 시위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수령의 령도가 없었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지 못한탓으로 반일투쟁에서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그때마다 무참히 각개격파당하고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각 계급, 계층, 세력들을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하는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우리 혁명발전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

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1930년대초부터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1936년 5월에는 드디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16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ㅌ. ㄷ》를 결성하시면서 전민족을 항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합시킬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을 공산주의자들의 두리에 결속하여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치운동이였으며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제시하신 방침에 기초하여 1930년대 전반기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을 계급별, 계층별 대중단체들과 반제동맹과 같은 통일전선적대중조직에 적극 망라시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축성해나갔다. 이 과정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였으며 이 사업을 가일층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준비된 지도적핵심력량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1930년대 전반기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그리고 당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전민족을 하나로 조직결속할수 있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올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호두회의 방침에 따라 1936년 5월 5일 동강에서 계급별, 계층별 대중단체들과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인사들을 다같이 망라시킬수 있는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 태여난 조국광복회는 전민족을 조국광복전선에 단일한 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조직동원할수 있는 대중적인 혁명조직이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는 통일적인 당이 창건되지 못한 당시의 조건에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는 우리 혁명의 령도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수 있는 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항일혁명투쟁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 력사적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된후 그 산하조직들이 매우 짧은 기간에 혜산, 갑산, 풍산을 비롯한 북부조선과 평양을 비롯한 중부조선, 남부조선과 국외에까지 급속히 확대되여나갔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그 산하조직들이 확대됨에 따라 항일무장투쟁과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조선인민혁명군과 광범한 반일대중과의 련계를 훨씬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당창건준

비사업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었으며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항일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발전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이 영광스러운 행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민족대단결의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을 중심으로 전민족이 굳게 결속된것이다.

세상만물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운동발전하듯이 민족의 통일단결도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의 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다. 민족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뭉칠래야 단결의 중심이 없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였다.

우리 민족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인민의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탁월한 령도로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숭고한 인민적풍모와 공산주의적덕성으로 인민들과 전사들을 보살펴주시였다.

하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직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려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지니고 천신만고를 이겨내면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뿐아니라 반일투쟁에 나섰다가 령도의 중심이 없어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인사들과 반일군중들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앞을 다투어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으로 찾아왔다.

온 민족이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점으로 된것은 조국광복회의 창건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내오시면서 반일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기본요구와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몸소 작성하여 발표하시였다. 이것은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의 절실한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민족을 조국광복전선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게 한 단결의 기치로 되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받아안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조국광복회는 수령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모시려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갔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깊이 침투하고 그들을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조직들에 튼튼히 묶어세웠다. 조국

광복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민족의 일치단결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민족의 굳은 통일단결을 실현한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다. 이것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결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안에서 당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당적령도가 보장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ㄹ.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8페지)

참다운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이 운동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민족통일전선운동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진행될수 있으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승리적으로 발전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안에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 문제는 이 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먼저 《ㄹ. ㄷ》에 뿌리를 둔 첫 당조직을 무어주시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무장대오와 만주의 넓은 지역 그리고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을 내오심으로써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이 운동이 편향없이 진행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는 한편 당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당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대중단체들과 통일전선적대중조직에 묶어세운데 기초하여 그들을 다 망라할수 있는 통일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내오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리였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는 처음부터 당적령도가 철저히 보장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 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조국광복회 조직내부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그를 혁명적으로 지도하였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결과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조국광복회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반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광범히 조직되여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조직적으로 련결됨으로써 통일전선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수령의 령도, 당적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수령의 령도, 당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된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민족대단결의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극소수의 반동분자들을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계급, 계층들을 조국광복전선에 최대한으로 묶어세운것이다.

모든 계급, 계층들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우는것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의 근본목적에 맞는 중요한 요구이다. 원래 통일전선운동의

목적은 사회적처지와 계급적립장,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계급, 계층, 세력들을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널리 인입하는데 있다. 때문에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할수 있는 모든 계급, 계층, 세력들을 통일전선에 망라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만약 계급적편견에 사로잡혀 로동자, 농민만을 통일전선에 인입하고 다른 반제애국력량을 배제한다면 쟁취할수 있는 광범한 군중을 잃게 되며 그와 반면에 통일전선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통일전선안에 온갖 이색분자들이 잠입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당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군중로선과 계급로선을 옳게 결합하여 로동자, 농민뿐아니라 지식인, 종교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까지 포함하여 반일사상을 가진 모든 애국력량을 최대한으로 전취하는 동시에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등 온갖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결과 조국광복회는 극소수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전민족을 조국광복전선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하는 가장 광범한 대중적혁명조직으로 장성발전하게 되였다.

조국광복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로동자, 농민은 물론 수많은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도 조국광복전선에 망라되여 반일행동을 과감히 벌리였으며 중소기업가들과 소상인 및 수공업자들, 민족주의자들을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통일적인 반일투쟁의 흐름에 합류되여 항일혁명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특히 완고한 민족주의 무장력량인 조선독립군도 공산주의자들과의 련합을 주장하여나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의 련합작전을 진행하였으며 진보적인 천도교인들도 공산주의자들과 련합하여 조국광복전선에서 함께 싸울것을 맹세하고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전민족이 이처럼 조국광복전선에 떨쳐나서 용감히 투쟁함으로써 고난과 시련에 찬 항일혁명투쟁은 줄기차게 발전할수 있었으며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승리적으로 성취될수 있었다.

참으로 조국광복회는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행로에 민족단합의 고귀한 업적을 남기였다.

조국광복회가 이룩해놓은 민족대단결의 전통은 조선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온 민족의 대단결로 가까운 몇해안에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민족지상의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이며 그 어떤 특정한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수 없는 전민족적위업이다. 진실로 조국통일을 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민족단합의 전통을 이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고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

김 호 삼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드는것을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당의 이 방침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뜻깊은 회답서한을 받은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울데 대한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것은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원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충신과 효자란 당과 수령에게 진심으로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당원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 모시면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갈 철석같은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살며 투쟁하는 당원이 곧 당과 수령의 참다운 충신, 효자인것이다.

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과 전투력은 당원들의 충성심과 효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뭉친 당원들의 정치조직이다. 가정이 단합되고 화목하자면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받들어나가야 하듯이 당이 전전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되자면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자신에게 정치적생명을 주고 혁명가로 키워주는 수령을 잘 모시고 받드는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여야 한다. 당이 충신과 효자들의 집단으로 될 때 당대오의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단결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계속 공고발전되게 되며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된다.

우리 당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모든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데 있다. 당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야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광범한 대중이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것은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것이 당을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당세포들을 충성의 세포로 만드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생활을 통하여 충신과 효자로 키우자면 당의 기층조직 특히 당세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는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말단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기본거점입니다. 당세포는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충성의 세포로 되여야 합니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든다는것은 당세포를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다운 혁명의 전위투사들의 집단으로 꾸려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은 곧 당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높이는 투쟁이다. 당원들은 당세포생활을 통하여서만 충신과 효자로 자라날수 있다. 당세포는 당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기본거점이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충신과 효자로 키울수 있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속에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움으로써 그들을 참다운 충신, 효자로 키울수 있게 한다.

혁명적수령관은 충신과 효자의 기본징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려는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떠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원들이 혁명적수령관을 가져야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당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갈수 있으며 그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갈수 있다.

당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철저히 선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사업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해결된다. 혁명적수령관은 저절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혁명적조직생활, 당세포생활을 통하여서만 확고히 형성될수 있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당생활의 거점이다. 당원들은 당세포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와 어긋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적립장을 간직하게 되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지니게 된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과정에 당원들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수령이 내세운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이 있다는것을 체득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실천활동으로 수령에게 충성 다하여나가게 된다.

이 모든것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때 당원들속에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그들을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또한 당생활을 통하여 수령과 전사사이에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를 더욱 두터이하게 함으로써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울수 있게 한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수령과 전사사이의 관계는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이다. 당원들은 혁명의 주체의 중추를 이루는 당의 한 성원으로서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혈연적으로 결합되며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랑과 믿음을 배풀어주는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 바치면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게 된다.

수령과 전사사이에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자면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이도록 이끌어주는것을 자기의 사명과 임무로 하고있다. 당원들을 직접 대상하고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조직하며 지도하는 단위는 당세포이다.

그러므로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당원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당이 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게 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높이고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신념과 각오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당세포의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은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만 참다운 삶의 가치와 존엄이 있으며 그 사랑, 그 믿음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는데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 당원들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중심인 수령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게 되며 수령과 전사사이의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

이처럼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드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서고 언제나 변함없이 당과 수령만을 따르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워냄으로써 당세포가 당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기본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워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도 된다.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사업은 당원대중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당적인 사업이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강화발전되자면 모든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충신과 효자로 준비되여야 전당이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필승불패의 강철의 당으로 될수 있다.

모든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사업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꾸리는 사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당세포는 당원들이 있는곳이라면 그 어디에도 다 조직되여있다. 당원들은 입당선서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일정한 당세포에 소속되며 당세포의 지도를 받으며 당생활을 한다. 당세포와 떨어진 당원은 당원이라고 말할수 없다. 따라서 당세포를 충성과 효성이 높은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면 세포를 이루는 모든 당원대중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신과 효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모든 당원들이 자신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준비해나갈 때 세포가 강화되게 되며 당세포가 강화되면 결국은 전당이 강화되게 된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당의 운명과 관련된다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이 확증하여준 력사적교훈이다. 모든 당세포들을 충성의 세포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높은 당세포의 본보기는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이다.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속에는 진갑이 가까운 로당원이 있는가 하면 40대, 30대의 젊은 당원들도 있으며 그들이 지나온 생활경위나 준비정도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세포의 15명의 당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인테리당원으로 키워주시고 통신보도사업의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1분 1초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45돐을 앞두고 온 나라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던 때에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은 위대한 당과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행복과 영원히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할 철석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주체위업

의 완성을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옵기를 바라는 조선로동당원들의 진정을 담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평범한 당세포의 15명 당원들이 올린 편지를 받으시고 몸소 력사적인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2세포 당원동지들에게

동지들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나는 동지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편지를 받은 나는 힘을 더 내여 당원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할것을 확언하는바입니다.

동지적인 인사를 보내면서

김 정 일

1990. 11. 1》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끌어나가려는 혁명의 령도자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차고넘치는 이 회답서한은 15명 당원들만이 아닌 모든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가슴속에 오늘도 끓어넘치는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고있다.

5국 2세포 당원들이 신념과 의리로 일관된 충성의 편지를 올리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어린 회답서한을 보내주신것은 혁명의 령도자와 전사들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하나의 신념과 지향으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의 위대한 모범을 과시한것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이 어린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을뿐아니라 5국 2세포를 충성과 효성이 높은 당세포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전국의 당세포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며 영원히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를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충성의 당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90년대의 첫해에 우리 당대오에서 꽃펴난 충성의 귀감을 전당에 일반화하며 모든 당세포들을 충성의 세포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충성의 당세포대렬을 끊임없이 늘여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충성의 당세포대렬을 늘여나가야 한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따라배우도록 당세포가 그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잘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누가 요구하였거나 혁명이 승리한 다음 그 무엇을 바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구성으로,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이 아니다. 사실 그때는 아직 조선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준엄한 시기였다. 그렇지만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에 우리 민족의 생명의 중심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며 수령님께서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느끼였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한목숨바쳐 높이 모시였던것이다.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환경

온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오늘이 다르다. 그러나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간다는 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당세포들은 당원들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사업하고 생활해나가도록 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어떤 곤난이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혁명정신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한 그들의 투철한 자세와 립장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세포가 당원들의 당생활의 전과정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높이는것으로 일관시키며 이 사업을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당세포가 충성의 세포로 되자면 당생활의 전과정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높이는데로 지향시키고 귀착시켜야 하며 이 사업을 정확한 방법론을 가지고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생활의 모든 계기들이 충성과 효성을 높이는것으로 일관되게 하고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연구하고 구현해나가야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워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이 사업에서 응당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당세포는 분공을 하나 조직하고 당생활총화를 한번 하여도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충성과 효성을 높이는 사업의 한 고리로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원들의 수준과 년령, 심리적특성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맞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당세포비서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당세포비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말단기층조직의 책임자이며 우리 당의 초급정치일군이다. 당세포비서들이 높은 정책적안목과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당원들과의 사업, 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능숙하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세포비서들을 핵심으로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어 세포비서들이 당생활에서 모범을 보일뿐아니라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요구성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세포비서들이 높은 영예감을 가지고 당의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세포사업을 깐지게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각급 당위원회들이 당세포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당세포들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것은 각급 당위원회들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세포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실정에 맞게 지도대책을 세우며 실질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책임일군들이 세포에 내려가는것을 정상화하고 세포비서들을 배워주고 그들의 사업을 뒤받침해주며 당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당회의에도 참가하면서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은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워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충신과 효자의 집단으로 꾸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중요한 요구

리 주 철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되려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인민대중은 당의 생명의 뿌리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군중을 떠난 로동계급의 당이란 있을수 없으며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당이 군중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잘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좌절과 진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군중으로부터 리탈되여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켜나가려면 이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지하투쟁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면서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창조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0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준엄한 환경속에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과 방법들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주체의 군중공작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에는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계급별, 계층별 특성에 맞게 할데 대한 원칙이 명시되여있으며 군중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구체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관에 기초한 주체의 군중공작방법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군중공작방법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며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이 군중공작방법은 군중과의 사업을 언제나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한다는것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수준과 심리, 맡고있는 혁명임무와 처하여있는 환경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군중과의 사업의 특성과 복잡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원래 군중과의 사업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 사상의식수준과 생활처지,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복잡한 사업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성격, 취미는 같은 계급, 지어 같은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 같지 않다. 이러한 군중과의 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 할수 없다. 같은 병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고칠수 있는것처럼 군중과의 사업도 그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야 하는것은 매 사람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가 다르고 그것을 수행하는 환경과 조건도 같지 않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사람들이 수행하는 혁명임무의 내용은 서로 같지 않으며 그것이 수행되는 환경도 다르다. 이러한 조건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사람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와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맞게 하여야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낼수 있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은 바로 군중과의 사업의 이러한 복잡성을 반영하여 그것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것은 또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갈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은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높여 제기된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가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것이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하여야 그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를 깊이 심어줄수 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며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온갖 창의창발성을 내여 투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하여야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임무의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할수 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하는것은 또한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대오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군중과의 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혁명대오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혁명대오로 굳게 묶어세우려면 주관주

외,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

주관주의, 관료주의는 당과 대중을 갈라놓으며 혁명대오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유해로운 독소이다. 당일군들이 주관주의에 빠져 군중의 심리와 동향도 모르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거나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당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수 있다. 당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자면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여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혁명적군중공작방법의 전통을 빛나게 구현하여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해방후 새 조국 건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전후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극복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올수 있은것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기때문이다.

군중과의 사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통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화발전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최고강령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는 주체의 군중공작방법을 적극 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히 기본군중과의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짜고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이끈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어주고 아량있게 포섭하여주는 넓은 포용력으로 하여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할수 있게 하였다. 당을 떠나서는 살수도 행복할수도 없다는 인민의 신념과 인민을 떠나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는 당의 확고한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대중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뭉치였다.

우리 당이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한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군중과의 사업이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되여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실현됨으로써 무엇보다 당의 계급적지반, 군중적지반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당의 계급적, 군중적 지반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은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된다. 광범한 군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이다. 당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아야 군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을수 있으며 튼튼한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우에서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발전할수 있다.

우리 당이 군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옴으

로써 로동계급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들의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이 높아졌으며 로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또한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다그쳐지고 농촌진지가 강화되였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인테리들은 우리 당에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오늘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인테리들을 로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으로,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한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실현됨으로써 또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과 대중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우월성의 근본원천이다.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여야 사회주의의 생명인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온갖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위업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온갖 시련과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과시할수 있었다.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들이 그처럼 두려워하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는 인민대중의 힘이다. 우리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철통같이 뭉쳐있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악랄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와 경제적봉쇄도 짓부실수 있었으며 어렵고 방대한 사회주의건설과업들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고있는것이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반사회주의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그 예봉을 당으로부터 인민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주의의 정치경제적기초를 허물어버리는데 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썩어빠진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요란스럽게 설교하고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는것도 구경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와해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편승하여 남조선괴뢰들도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킬수 있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자면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주체의 군중공작방

법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는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문제가 원리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여있으며 각이한 계층의 군중을 어떻게 교양하고 발동시키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문제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학습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하여 주체의 군중공작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군중공작경험자료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군중공작방법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려면 그들을 정확히 료해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군중을 정확히 료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있다. 일군들이 군중과 허물없이 한데 어울리며 그들의 마음속 생각과 가슴속의 사연까지 다 알아내야 군중속에 깊이 들어갔다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은 각이한 대상의 군중을 료해파악하는데서 현상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나타난 현상과 여러가지 요인들을 밀접히 련관시켜 사람들의 사상상 본질을 꿰뚫어볼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한데 기초하여 그들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일군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정치공작원들처럼 인민들속에 들어가 일도 같이하고 침식도 같이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관료주의를 하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군중공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려면 주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것처럼 똑같은 군중교양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는 교양방법, 다시 말하여 사람당, 전당으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일군들은 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 군중과의 사업에서 옳은 방법론을 세워야 하며 왕성한 탐구력을 가지고 진지하게 연구하여 정확한 방법론을 찾아서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대자연개조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끈 위대한 령도

윤 문 영

우리 당과 인민의 자연개조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이 있은 때로부터 45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 나오시여 우리 인민을 격려하시고 친히 력사적인 첫 삽을 뜨심으로써 광복된 조국땅우에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올리신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봉화는 지난 45년동안 료원의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져 우리의 조국산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개조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원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자랑찬 결실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생활력의 고귀한 발현이다.

자연을 개조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자연개조사업은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며 국토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매우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64페지)

자연을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자연을 개조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살기 좋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줄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은 옳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진행될 때만이 참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추진될수 있으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보람찬 사업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을 개조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자연개조사업이 명실공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한다는것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국토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며 그들에게 자주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생활환경을 마련해준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토지와 자원, 자연과 생활 환경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보호관리하며 자연을 쓸모있게 개조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무엇보다 자연의 구속에서부터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함으로써 그들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그들이 온갖 사회정치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갈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자연을 정복하여 물질적부를 풍부히 창조해야 하며 아름답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개조를 다그쳐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국토를 락원으로 꾸려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 자연개조사업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힘있게 벌려나갈 때 토지와 자원, 강하천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그들의 리익에 맞게 잘 보호관리하고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에게 풍족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보장할수 있게 된다. 특히 자연개조사업을 잘할수록 산림과 강하천, 연안과 령해를 잘 관리하여 큰물과 사태, 태풍을 비롯한 자연피해들을 미리 막고 인민들에게 유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보장할수 있게 된다.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아름다운 조국강토와 풍부한 자원을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아름답고 번영하는 조국강토를 후대들에게 물려주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대뿐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와 자연을 개조변혁해나간다.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수많은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것도 다 후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것이다.

전 세대들이 이룩하여놓은 물질문화적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히 해야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사회적인간의 본성에 맞게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 부강하고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일떠세우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록 민족의 무궁한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자연개조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우리 당과 인민을 대자연개조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자연개조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도처에서 토지건설, 관개건설, 치산치수, 도시와 농촌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자랑찬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자연개조사업은 토지자원, 물자원, 산림자원, 생물자원, 지하자원과 같은 여러가지 자원을 보호관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인것만큼 옳은 방향과 방도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만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이며 혁명

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이 뚜렷한 투쟁목표와 신심을 가지고 자연개조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아무런 편향이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된다.

우리 당은 자연개조사업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식으로 자연을 개조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자연개조사업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진행한다는것은 자연개조사업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과 특성, 우리 인민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조국강토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으로 전망성있게 꾸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토지가 제한되여있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으며 산과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토지정리와 새 땅 찾기, 산림조성과 산의 종합적리용, 강하천정리와 물자원의 합리적리용, 간석지건설, 도시와 마을, 도로 건설을 우리 식으로 해야 조국강토를 인민의 념원이 꽃핀 살기 좋고 아름다운 락원으로 꾸릴수 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자연개조방침은 철두철미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자연을 개조하려는 혁명적원칙이 관통되여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자연개조투쟁의 앞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와 유지림 20만정보, 섬유제지림 30만정보를 조성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1959년 12월전원회의, 모든 야산을 과수원으로 꾸릴데 대한 1961년 4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복청확대회의,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밝힌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 4대건설과업을 밝힌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밝힌 대자연개조방침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전략과 전술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방침들에는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국토건설계획을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방도들을 밝히심으로써 국가의 지도밑에 자연개조사업을 전망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자연개조사업을 10년, 20년, 30년, 50년의 전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토지와 산림, 강하천과 연안, 령해의 리용, 철도와 도로의 건설, 도시와 마을, 공장, 기업소의 배치, 자연부원의 개발 등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벌리도록 가르치시였다.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자연요소들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당은 대자연개조사업을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진행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현대 과학과 기술로 안받침할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대자연개조사업을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가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게 되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자연개조사업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또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은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자연개조사업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높이 내걸고 통이 크게 설계하며 일단 설정된 목표는 대담하게 판을 벌리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 자연개조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서해갑문 건설과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심으로써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게 하시였다.

우리 당은 대자연개조사업의 하나인 세계굴지의 서해갑문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해안일대의 관개용수, 공업용수, 음료수 문제를 풀고 대동강의 풍치를 돋구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큰 전망을 열어놓게 될 서해갑문 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서해갑문을 세계적인 갑문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서해갑문 건설공사를 전당, 전민, 전군을 총동원하여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도록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벌리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서해갑문 건설을 위한 강력한 건설력량과 과학기술집단이 꾸려지게 되였으며 대기계화군단이 마련되고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들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였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몇십년이 걸려야 한다는 방대한 서해갑문 건설공사를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대자연개조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기간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대계도간석지 건설, 우리 식의 수력자원개발방식에 의한 태천발전소 건설, 2천리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의 거창한 과업들이 빛나게 완성되여 나라의 면모가 새롭게 되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면서 대자연개조의 거창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자연개조사업을 이끄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군중의 힘을 믿고 군중에 의거하여 대중적운동으로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자연개조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다.

대자연개조사업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들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 동원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할 때만이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더우기 자연개조사업은 그 대상과 규모가 방대하고 시기성과

장기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광범한 군중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전군중적운동으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찾아내고 제기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용감히 뚫고나가면서 짧은 기간안에 조국강토를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대자연개조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그들이 대자연개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자연개조사업의 자랑찬 로정은 군중의 힘을 믿고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켜 천지개벽의 위대한 전변을 가져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짧은 기간안에 100만정보의 논밭관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 이후 벌방지대에서나 산간지대에서나 할것없이 대중소규모의 관개공사가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졌으며 불과 6개월동안에 총연장 2만 8천여리에 달하는 수로와 9,900여개소의 저수지, 양수장들이 완공되여 37만 7천여정보에 물을 대줄수 있는 관개시설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그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수리화의 과업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산을 떠옮기고 바다를 막으며 강을 다스리는 대자연개조의 력사적인 나날에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인 군로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자연개조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실생활을 통하여 당이 가리키는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반드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당이 내놓은 대자연개조방침을 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산악같이 일떠선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다락밭건설과 치산치수사업, 식수조림사업, 사방야계공사를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을 널리 진행하여 조국산천을 살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금수강산으로, 나라의 모든 산을 《황금산》, 《과일산》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날새들도 깃을 펴기 저어하던 백무고원의 드넓은 벌이 해마다 만풍년을 안아오는 풍년대지로 전변되고 밀썰물만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던 일망무제한 간석지가 옥토로 개간되였으며 온 나라가 조밀한 관개망으로 뒤덮여 가는 곳마다 사랑의 생명수 넘쳐흐르는 이 자랑찬 전변의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한 력사가 빛나게 수놓아져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령도는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조국강토를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자연개조사업에서는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났으며 조국의 면모는 새롭게 일신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부침땅과 산

림, 리로운 동식물과 수산자원이 늘어나고 강하천과 도로, 연안이 규모있고 아름답게 꾸려져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습니다.》(《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2~3페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대률환식관개체계가 완전히 수립되였다. 이름높은 연풍호, 서흥호, 만풍호, 은파호를 비롯한 큰 규모의 저수지들과 양수장들이 건설된데 이어 1990년대에 서해갑문—장수호역수물길, 예성강—연백물길,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 물길, 서해갑문—평남도 간석지 2계단물길, 황해북도 남강—미루벌 물길, 태천발전소로부터 평북도 철산반도 간석지로 빠지는 물길이 새롭게 건설되여 서해지구의 관개체계가 새롭게 일신되게 되였다. 지난날 자그마한 자연호밖에 없던 우리 나라에 1,700여개의 크고작은 저수지와 2만 5,210여개의 양수장이 일떠섰으며 관개수로의 총 연장길이는 4만키로메터 이상에 달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해나가며 물에 대한 농업생산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큰물과 가물 피해를 극복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관개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토지자원을 늘이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간석지개간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신도와 무명평 그리고 장도와 마안도가 하나의 제방으로 이어짐으로써 수천정보의 땅이 비단섬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은률군 금산포로부터 과일군 월사리사이를 제방으로 막아 3,200정보의 새 땅을 얻어낸 은률간석지, 옹진군 장송리와 강령군 식여리사이의 날바다를 막은 5,200정보의 강령간석지를 비롯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여 나라의 지도가 달라지고 새로운 간석지논, 소금밭, 양식양어장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북부의 개마고원, 백무고원 일대의 고산지대들이 안전한 수확을 거두는 농산기지로, 축산물과 파실, 고치 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나라의 산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되게 되였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보호관리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용재림, 섬유제지림, 유지림 등 수십만정보의 경제림이 조성되였으며 산들이 종합적으로 리용되게 되였다. 고산지대와 덕지대들에 뽕밭들이 수많이 생겨나고 밤나무밭, 과수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욱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북부내륙지대에 동서부를 련결하는 북부철길공사가 완공되고 평양—원산사이의 고속도도로, 평양—희천, 평양—개성 사이의 고속도도로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도로가 쭉쭉 뻗어나갔으며 도시와 농촌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건설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연개조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것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더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꾸려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요구가 높아지는데 맞게 자연개조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때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높이 과시되고 우리 나라는 더욱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게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향도따라 자연개조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검덕지구에 힘을 넣는것은 유색금속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

김 필 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채취공업을 앞세워 석탄과 흑색 및 유색 금속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사회적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석탄과 철광석 생산을 늘이는 한편 유색금속광물생산을 추켜세워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유색금속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대줄수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을 개조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유색금속 원료와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끊임없이 늘일 때 우리는 기계공업, 전자, 자동화 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칠수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일수록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고 무역을 발전시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인민생활도 빨리 높일수 있다.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품위가 높고 매장량이 많으며 채굴조건이 유리한 대규모의 광산에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이것은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으로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유색금속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대규모의 광산들과 중소규모의 광산들을 다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중소규모의 광산들에 힘을 넣으면서도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규모의 광산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왔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유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가 더욱더 높아가는데 맞게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선차적인것은 검덕지구에 힘을 넣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연, 아연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검덕지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검덕지구에 힘을 넣는것은 짧은 기간에 유색금속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유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검덕지구는 품위높은 유색금속광물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우리 나라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이다. 검덕지구에 힘을 넣게 되면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광물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이것은 기계공업과 전력공업, 전자, 자동화 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유색금속을 원만히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검덕지구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할수록 당의 농사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방침을 성

과적으로 관철하고 따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유용한 광물자원이 많이 매장되여있는 검덕지구에 힘을 넣어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당은 일찌기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는데서 검덕지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이 지대를 대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땅속에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다 캐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검덕지구에 힘을 넣어 유색금속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여기에 언제나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그리하여 이미 있던 갱들이 더욱 현대화되고 심부채굴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새로운 지대들이 개발되여 검덕지구에서의 광물생산은 날을 따라 높아지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검덕지구에는 1,000만톤처리능력의 제3선광장과 1,000만톤의 수송능력을 가진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건설되고 채굴계통과 운반계통, 처리계통이 현대적으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더우기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 이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지금 있는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광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되고 검덕의 광물생산은 보다 늘어나게 되였다.

품위높고 매장량이 많으며 채굴조건이 유리할뿐아니라 갱과 운광계통, 처리계통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검덕지구에 힘을 넣는것은 늘어나는 유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의 채취공업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검덕지구에서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더욱 높일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광물생산성과로 보답하려는 검덕로동계급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1990년대의 두번째해에 들어서면서 검덕의 로동계급은 이미 도달한 최고실적년도에 비해 높이 세운 1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2월에 들어와서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1월보다 110%로 장성한 2월계획을 합유량적으로 넘쳐수행한것을 비롯하여 굴진, 채광, 운광, 선광처리 등 지표별 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당이 제시한 올해의 높은 유색금속광물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돌파구를 확고히 열어놓은 빛나는 성과이다.

검덕지구에서 일어나고있는 혁신적성과들은 검덕지구를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곧바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 채취공업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검덕지구에 힘을 넣어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높임으로써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광물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

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광업에 힘을 넣어 그것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전국이 광업을 지원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검덕지구에 힘을 넣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지도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검덕지구에 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는것이다.

검덕지구에 힘을 넣어 유색금속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안에 더욱 높이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 당이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시하고있는 검덕지구에 힘을 넣어 유색금속생산을 늘일 때 우리는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므로 검덕지구에 힘을 넣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마땅한 본분으로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검덕지구에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현실에 내려가 실태를 깊이 료해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맡고있는 과업을 제때에 질, 량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듦으로써 당의 주체적인 광업정책을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이 유색금속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부속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유색금속광물생산은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자연과 투쟁하면서 쇠돌을 캐내는 어렵고 힘든 작업을 동반한다. 더우기 생산이 진척될수록 심부채굴을 하게 되며 먼거리로 많은 물동을 움직이게 되므로 현대적인 채굴설비와 운반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와 자재, 부속품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광물생산량을 늘여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지금 진행하고있는 수직갱을 비롯한 갱건설과 기계설비보수정비사업, 광산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시켜 유색금속광물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다. 당면한 생산을 보장하면서 여러가지 건설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있는 검덕에 필요한것은 더 많은 자재와 부속품, 기계설비들이다.

유색금속광물생산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것만큼 채굴설비와 자재, 부속품을 제때에 어김없이 생산보장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 부문에서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공기압축기와 펌프, 전차, 광차, 착암기, 각종 벨트콘베아설비, 베아링, 부속품 그리고 쇠바줄과 규격철판, 각종 철강재,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해주어야 채굴작업을 현대화하고 갱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침전지건설, 갱보수정비, 살림집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검덕지구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최우선권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이 지구의 현행생산과 생산능력확장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부속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자들을 제때에 보내줄 때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검덕지구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우리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이 지구의 광물생산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유색금속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는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맡아 수행하는 직접적담당자이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광물생산목표를 달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게 좌우되게 된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조직정치사업과 경제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 때 광물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늘 갱막장에 들어가 광부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당이 제시한 유색금속광물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찾아내며 그 실현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모두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대중적영웅주의와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광물생산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치게 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검덕지구에서 품위높은 쇠돌을 많이 캐는가 못캐는가 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검덕지구의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은 방대한 로력과 채취기계설비, 운반수단들이 동원리용되고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는 방대한 사업인것만큼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와 생산지도를 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생산규률을 강화하고 설비, 자재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특히 설비보수정비체계를 바로세우고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철저히 보장하며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할수 있도록 채굴설비와 운반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관리를 잘하여 빈화률을 낮추고 선광거둠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품위높은 유색금속광물을 더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지휘를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높이 세운 광물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검덕지구 로동계급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주는것은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후방공급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광부들의 열의는 물질적보장사업이 안받침될 때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검덕의 로동계급과 지원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그 어떤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은 지도일군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지도일군들은 검덕의 로동계급과 지원자들에게 우리 당이 베풀어주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더 잘 가닿도록 일상적으로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줌으로써 그들이 모든 지혜와 정열을 광물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다 바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검덕지구에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이 내세운 유색금속광물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과업

리 길 두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되는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정치생활과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며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적극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인것은 농업생산을 늘여 모든 사람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는것과 함께 우리 당이 내놓은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경공업혁명방침은 경공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룩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이미 있는 경공업공장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입니다.》(《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단행본, 35페지)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린다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 가내생산협동조합과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 여러가지 형태와 규모의 생산단위들을 많이 꾸리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발전시켜 갖가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내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1958년 6월전원회의에서 중앙경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경공업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만가동시켜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며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을 많이 내오고 도시와 로동자구, 협동농장들에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널리 조직하여 일용잡화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많은 력사적문헌들에서 경공업혁명의 본질과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도처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식의 폭넓은 대중운동인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발기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중앙경공업제품견본관에 8,300여종에 2만 5,600여점의 견본품을 보내주시였으며 대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올리신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군중적으로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이다.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지방들에서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인민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특히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경공업혁명수행에서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발단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전국적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액이 3.4배이상 장성하였으며 기본품종수는 4,500여종, 확대품종수는 1만여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 있은 인민소비품전시회장에 출품된 《8월3일인민소비품》품종수만 하여도 1만 7천여종이나 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평양시의 평천구역과 선교구역, 대동강구역, 함흥시의 성천강구역을 비롯한 많은 군, 구역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모범군(시, 구역)칭호를 쟁취하게 되였으며 그 대렬이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의 거대한 생활력의 고귀한 발현이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은 지금 있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린다는것은 곧 도처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내부예비를 찾아내여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데서 거둔 성과들은 군중적운동으로 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록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현시기 내세우고있는 인민생활을 짧은 기간에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내부예비동원사업을 더욱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릴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원래 인민소비품생산은 생산조직과 기술적요구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비와 자재, 로력이 얼마 들지 않으므로 간단한 경리형태와 기술을 가지고도 능히 생산을 조직할수 있다.

더우기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나오는 공업생산부산물과 지방의 자연, 재배 원료, 수매과정에 들어오는 여러가지 유휴자재들이 많은 조건에서 잘만 짜고든다면 인민소비품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인민소비품생산의 이러한 특성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과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갖가지 소비품을 많이 생산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투자를 늘여 현대적인 대규모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어데나 흔한 원료로 인기있는 소비품을 많이 생산해내고있는 황주군 가내생산협동조합의 경험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부인들을 비롯한 부양가족들로 무어진 황주군 가내생산협동조합에서는 강냉이오사리, 천연돌을 원료로 300여가지의 소비품을 생산하여 군내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다른 시, 군 상점들에 보낼뿐아니라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의 10여개 나라에 수출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가내생산협동조합에서 만든 여러가지 제품이 대외시장에서 《인기상품》으로 환영받고있다는것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뿐아니라 국가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면 더 많은 자금을 경공업공장들을 확장하고 기술장비를 개선하는데 돌릴수 있으며 대규모중앙경공업공장들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은 또한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오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경공업부문앞에는 인민들의 기호와 민족적정서에 맞으면서도 시대적미감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소비품의 종류와 형태를 적극 개발하며 그것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로 다종다양한 인민소비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품가운데는 대규모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보장해야 할 대량적인 소비제품이 있는 반면에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이나 생산협동조합에서도 전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 이 모든 제품들을 몇개의 전문공장들에서만 생산해가지고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없다. 세소상품은 오히려 가내생산협동조합이나 가내반 같은 작은 규모의 생산단위들에서 생산을 짜고든다면 근로자들

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진행하면 원료원천지와 생산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최대한으로 접근시키게 됨으로써 많은 사회적로동을 절약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보장할수 있게 된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소비품생산을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인민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신발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평양신발기계공장에서 꾸린 자그마한 작업반에서는 수지쟈크생산을 늘여 평양시 인구 한사람당 한해에 50센치메터씩 차례지게 하고있으며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에 새로 꾸린 사출신발생산공정에서만도 년간 인구 한사람당 세켤레이상씩 차례지게 될 방대한 량의 신발을 생산할수 있게 된다.

도처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벌릴수록 지역별, 년령별, 성별, 계층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기되는 소비상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수입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소비품생산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위들에서도 조직사업을 짜고들면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도 한사람당 생산액을 훨씬 높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 가두인민반들에서 여유로력과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기폐설물을 가지고 군중적운동으로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면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줄뿐아니라 사람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그들의 수입도 높이게 된다.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단위들의 실례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고있는 양덕군에서 군의 지방예산수입액에서 지방공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에 이르고있으며 중구역에서는 구역의 공업총생산액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4%, 지방공업총생산액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몫은 45%에 이르고있다.

지금 평양시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 년간류통액이 수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수도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다.

경험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할 때 국가의 재정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예산수입과 근로자들의 화폐수입을 높이며 그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것이 우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대중소비품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량과 가지수를 늘일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졌다.

소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데서 해결해야 할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앙경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지난 기간 전국

도처에서 소비품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매개 군들에는 2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꾸려졌으며 그것이 더욱 현대화되여가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기하신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공장, 기업소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 가내생산협동조합과 가내작업반들이 수많이 꾸려졌으며 날이 감에 따라 그 수가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평양시의 구역, 군들에서만 하여도 군중적운동으로 근 400여개의 소비품생산기지를 새로 꾸렸으며 새 품종가지수도 2,000여종이나 늘이였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소비품생산기지들의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위력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해줄수 있는 경제적토대가 또한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면 원료, 자재를 떨구지 않고 충분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군중적운동으로 소비품생산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원료, 자재로는 공장, 기업소의 기본생산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폐설물들, 유휴자재들이 널리 쓰인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공업건설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에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자원에 의거하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그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특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주되는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기본제품과 함께 부산물들도 많이 나오고있다. 이것은 인민소비품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원료, 자재를 보장할수 있는 원천이 더욱더 확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뿐아니라 재배원료생산도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재배원료기지를 군들에서는 200정보이상, 식료공장들에서는 50정보이상 조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지방들에는 원료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수매사업이 또한 활발히 벌어져 더 많은 유휴자재, 지방 원료, 자재들이 동원리용되고있다. 이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데 필요한 원료와 자재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소비품생산자대렬이 늘어나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높아지고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만 하여도 이 운동이 벌어진 6년이 남짓한 기간에 거의 모든 군들에서 수천명으로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에 이르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리용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린다면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짧은 기간에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생

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6페지)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중적인 소비품생산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면 지도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며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로력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으며 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조직과 기술지도, 설비자재보장, 가격제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군중적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벌리자면 근로자들속에서 내부예비동원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대중적인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내부예비를 찾아내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만들기 위한 혁신운동이다.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낼수록 인민소비품생산이 활기있게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 가두인민반을 비롯한 모든곳에서 내부예비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생산부문에 보내주어야 한다.

내부예비는 생산자대중의 심장속에 있다. 광범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공업부산물과 농토산물, 자연원료, 재배원료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해내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면 생산단위들과 생산자대렬을 더욱 확대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유휴로력으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널리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수록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부양가족들과 늙은이, 허약자들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조직운영해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유휴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생활필수품 직장, 작업반을 더 늘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것이다.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필요한 자재와 기재설비들, 부속품들과 계기류들, 공구류를 적극 대주며 수송부문에서 원자재를 제때에 실어다준다면 대중적인 소비품생산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힘있게 벌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경공업을 지원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요구대로 인민소비품생산부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비품생산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빛내이는 불멸의 문화적재보

류 만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활짝 꽃펴나고있다.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으로 누리에 자랑떨치는 우리 문학예술에서 찬란히 빛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비범한 예지가 깃들어있는 기념비적작품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어린 시절부터 문학예술에 대한 남다른 조예와 뛰여난 천품을 지니시고 그 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몸소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과 극문학작품의 줄거리, 들려주신 동화, 이야기들과 친히 쓰신 작문, 일기, 편지들로 묶은 작품집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그이의 정력적인 문예창조활동의 고귀한 결실로서 여기에 실려있는 모든 작품들은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장식하는 불멸의 문화적재보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작하신 혁명적작품들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시대정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적시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빛내이는 불멸의 문화적재보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합니다.》

시대정신을 훌륭히 구현하는것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시문학창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하는 시대정신은 혁명적시문학의 사상정서적 심오성을 보장하는데서 기본담보로 된다. 혁명적시문학은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여야만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부르는 진군나팔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시대정신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써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를 이어 충성다할 때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신념과 의지로, 가장 숭고한 의리로 되고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에 기초하고 숭고한 의리로 다져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오늘의 시대정신의 정수를 이루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품위있게 노래하는 여기에 시대정신을

훌륭히 구현한 혁명적시문학의 참다운 면모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고귀한 체험, 심오한 사색이 빛나게 체현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고이 간직된 불타는 충성심을 폭넓고 깊이있게 일반화함으로써 시대정신의 정수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혁명적시문학의 높은 경지를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에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 다함없는 흠모와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이 심원하게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 다함없는 흠모와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불같은 심정은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해오는 오랜 력사적기간에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결같은 념원이며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가렬처절한 불비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겹쌓인 전후복구건설의 준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을 안고 우리 인민의 이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을 《축복의 노래》,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에 담아 웅심깊게 노래하시였다.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이시였으며 오늘은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준엄한 전선길》을 헤쳐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수령님, 《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 락원을 펼치실 아버지장군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의 이러한 구절들에는 준엄하고도 영광에 찬 우리 민족의 과거와 오늘, 찬란한 미래를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과 밀접히 결부시켜 생각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이 집약적으로 노래되여있다.

명작의 사상정서적바탕에 놓여있는 수령과 인민의 떼래야 뗄수 없는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혈연적인 관계, 위대한 수령님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자기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체험세계와 열렬한 충성심이 끝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기원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승화되여 표현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사상감정은 불후의 명작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에서도 감동적으로 노래되여있다.

명작에서 강조되고있는바와 같이 《하루는 스물네시간》,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시간의 흐름이며 어길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어길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을 중심에 놓고 명작에서는 그 시간의 빠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노래되고있다.

어제는 포연자욱한 전선고지로, 오늘은 복구건설장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고 또 밤에는 밤대로 바쁘신 집무로 한순간의 휴식도 모르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은 수령님의 휴식과 안녕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과 잇닿아있으며 그것은 마침내 무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조차 그 무엇에 쫓기우는듯하여 얄밉게 느껴지고 한초한초의 흐름이 가슴을 저며내는듯 안타깝게만 느껴지는데 이르는것이다. 그리하여 명작에서는 그 안타까움을 더는 세길 길어없어 무정한 시계인줄 알면서도 시계를 두고 《너라도 좀 더디게 가》달라고, 《아버님 쉬실 때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라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는 한

초가 한시간이 되여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 이것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우리 인민의 심정이며 여기에 이 명작이 이룩한 사상적심오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 명작은 평범한 시간의 흐름을 두고도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노래한 시적일반화의 높이와 섬세하고 부드럽고 절절한 정서를 통하여 인민적감정을 생동하게 시화한 심원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절대적인 신뢰와 열렬한 충성의 감정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린 시절에 창작하신 작품들과 함께 특히 1970년을 전후한 시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시던 력사의 나날에 몸소 창작하신 《충성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되여있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내 조국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들은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하네
…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가사 《충성의 노래》중에서)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곳은 그 어데일가
…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기어이 기어이 찾아가리라

(가사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중에서)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명가사의 서정세계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활감정에 바탕을 두고있음에도 두 명작은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뜨거운 충성의 열정으로 하여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의 정화를 펼치고있는것이다. 가사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에서는 그 흠모와 충성의 열정이 간고한 적후에서도 자나깨나 잊은적없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으로 노래되였다면 가사 《충성의 노래》에서는 그 흠모와 충성의 열정이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고와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가슴뜨거운 생각과 열렬한 칭송 그리고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모시고 충성다해나가리라는 숭고한 감정으로 폭넓게 노래되였다.

두 명작의 이러한 사상감정의 바탕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자애로운 어버이로,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대를 이어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지, 혁명적신념이 뜨겁게 굽이쳐흐르고있는것이다.

이밖에도 《우리 교실》, 《우리의 수령》, 《초상화》 등 명작들에서 때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때로는 꿈속에서도 잊을수 없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안겨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감정이 토로됨으로써 수령님을 모시고 받드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감동적으로 노래되였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에 담겨진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 수령님의 안녕과 만년장수를 바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빛내이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에는

또한 주체의 혁명위업 계승에 관한 심오하고도 의의있는 사회정치적문제가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노래되여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되는 장기적인 어렵고도 복잡한 위업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위업계승문제는 언제나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로 나선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을 전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따라배우며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일층 강화되면서 주체의 혁명위업 계승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의 이러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자신께서 몸소 체험하신 사실에 기초하여 《조선아 너를 빛내리》,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심으로써 의의있는 사회정치적문제를 시형상으로 훌륭히 실현하시였다.

그가운데서도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주체혁명위업 계승문제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웅건하게 노래한 작품으로서 혁명적시문학의 화원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과학의 전당으로 혁명활동의 거룩한 자욱을 올기시면서 몸소 오르신 룡남산, 여기에서 시야에 안겨오는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는 느낌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조국강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만은 아니였다. 그보다 앞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걸어오시였으며 또 그 한길을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가실 숭고한 자각과 사명감이였다. 그리하여 심장의 용암은 마침내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지향과 불타는 열망, 확신의 목소리를 타고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며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나아가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라는 불타는 맹세로, 장엄한 선언으로 누리에 울려퍼진다.

지구상의 그 어느 다른데도 아닌 바로 조선에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혁명과 민족의 운명,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미래까지도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이 불같은 맹세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원대한 포부와 투철한 주체적립장, 열렬한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이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되여있다. 이것으로 하여 이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며 영원히 그 길에서 충성다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의 정수로 강렬한 여운을 준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창작으로 우리 시문학에서는 시대와 혁명이 제기한 주체의 혁명위업계승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실현되였으며 우리 시문학의 사상적 및 철학적 심오성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은 이렇듯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시대정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는 시형상으로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혁명적시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귀중한 문화적재보로 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빛나는 예지가 깃들어있는 혁명적작품들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혁명적인 동화, 극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들이다. 이 혁명적작품들은 다양한 문학예술형태의 발전을 위한 참다운 본보기로 되는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빛내이는 문화적재보로 되고있다.

다양한 형태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시대와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문학예술이 여러 형태를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발전하여야 날로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어린 시절부터 여러가지 형태에 걸치는 문학예술 활동과 창조사업을 적극 벌리시여 혁명적시가문학뿐아니라 동화와 연극 등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시였다.

혁명적동화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린 시절에 즐겨 창작하시고 들려주신 의의있는 아동문학의 한 형태이다.

동화는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고유한 문학형태로서 생활을 환상적인 형식으로 반영하는것을 특성으로 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의인화의 수법으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동화를 교양적이고 흥미있게 만들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은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동화적내용을 혁명적이며 계급적인것으로 꾸리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인간의 사상감정과 행동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의 사물현상을 사람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것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재현하는 의인화의 수법도 역시 동심에 맞게 혁명적이며 계급적인 내용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따라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하고 의인화의 수법으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혁명적동화문학의 본질적특성으로, 그 창작에서 나서는 근본요구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려주신 혁명적인 동화들은 그 내용에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적극 구현하고 비유적이며 환상적인 수법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혁명적동화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적경지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그러한 작품들가운데는 비록 힘은 약할지라도 강자앞에 겁을 먹거나 굴복하지 말고 지혜를 짜내고 힘을 합쳐 그와 맞서 싸우면 능히 이길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까치와 여우》,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도적을 쳐부신 소년》, 《호끼와 사자》 등 동화들도 있으며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만 바라며 남만 본따다가는 망하기가 일쑤이며 반면에 부지런하게 일하고 노력하며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부모와 이웃들을 위하고 사랑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내용을 담은 《원숭이형제》, 《산삼꽃》, 《곰봉어가 물어온 무우씨》 등 동화들도 있다. 또한 거기에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는것이 많아도 그것을 써먹을줄 모르면 머저리구실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징검다리가 된 돌부처》와 공다리연필도 아껴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필의 소원》도 있으며 공화국북반부와 남반부의 판이한 두 현실을 대비적수법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준 《담나라 만리경》

을 비롯한 동화들도 있다.

이 동화들은 그 소재와 사상적지향이 각이함에도 한결같이 그 바탕에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생활의 진리를 교훈적으로 훌륭히 밝히였다. 이 동화들은 또한 동화적형상에서도 의인화의 수법과 환상적수법을 자유분방하게 구사하였다. 이 동화들에는 의인화된 콜라새, 까치 등 날짐승들과 토끼, 원숭이, 곰, 사슴, 여우, 승냥이 등 각종 길짐승들 그리고 소년과 소녀, 어른, 늙은이 등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환상적으로 창조된 형상으로서 동화의 교훈적인 내용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해명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지있고 흥미있게 꾸려진 사건들과 다양한 구성수법을 활용한것 등은 동화적형상의 품위를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려주신 동화작품들은 이처럼 주체적동화창작리론을 실천적으로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혁명적동화문학의 본보기로서 우리 시대 동화창작의 귀중한 모범으로 되고 있다.

혁명적동화와 함께 혁명적극작품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창조과정에 쌓아올리신 귀중한 창조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예술소조활동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는 과정에 《보천보의 홰불》을 비롯하여 《우리 분단에서 있은 일》, 《〈북진〉처방》 등 극작품들을 창작하시여 공연하도록 하시였다. 이러한 극작품들의 창작은 당시의 현실적요구와 생활에 대한 민감하고 적극적인 반영으로 특징지어진다.

《보천보의 홰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있던 전후시기 혁명전통주제의 첫 작품으로서 그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던 시기에 창작된 《패천장군의 말로》와 전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북진》소동이 강화되고 있던 때에 창작된 《〈북진〉처방》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기개와 불패의 위력에 질겁한 놈들의 패망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한 작품으로서 극작품에서 풍자희극적양상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동화와 극작품을 비롯하여 영화문학, 이야기, 작문, 일기, 편지 등은 그 모두가 10대의 어린 시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예지와 예술적천품을 보여주는것으로서 그것은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비범한 예지, 예술적천품으로 빛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시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혁명적작품들은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빛내이는 불멸의 문화적재보로,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적재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영예를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작하신 혁명적작품들을 본보기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체육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

박 명 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문헌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5돐이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체육사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력사적문헌은 나라의 체육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문헌은 혁명과 건설에서 체육사업이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로 하여금 체육사업을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2페지)

체육사업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담보하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규제되며 그것은 건장한 체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은 건장한 체력을 가지지 못하면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을 지녔다 하여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원만히 해나갈수 없다. 사람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함께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능력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건장한 체력과 강의한 의지, 용감성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도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인민들이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없다. 따라서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력사적문헌은 이처럼 혁명과 건설에서 체육사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체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사상적기초를 마련해주었다.

문헌은 또한 나라의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체육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체육사업을 강화발

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이다.

체육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체육이 하나의 유흥거리로, 돈벌이 수단으로 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것이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체육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으로 되자면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다.

문헌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천명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혔다. 문헌에는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체육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가정들에서도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을 널리 할데 대한 문제, 체육월간사업과 모범체육군창조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여기에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문헌에서 밝혀진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은 나라의 체육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또한 체육발전에서 체육기술이 노는 중요성을 천명하시고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체육기술은 체육사업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체육기술을 발전시켜야 체육을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울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나라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와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문헌에는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고 과악이 있는 종목들의 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모든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들이 제시되였다.

문헌에 밝혀진 체육기술발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요구들은 현시기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체육기술의 발전방향의 뚜렷한 명시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또한 선수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체육일군양성사업과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며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체육발전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문헌은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에 담겨진 사상과 방침들은 그 과학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지난 기간 우리 나라의 체육사업발전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그것은 우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각급 학교들에서 학교체육사업이 강화되고 도시와 농촌, 공장과 협동농장의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아침체조, 사이체조, 집단달리기가 생활화되고있으며 해마다 인민체력검정사업이 체계

적으로 실시되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여러가지 체육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종목별, 부문별 체육경기대회도 널리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는 군중체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전체 인민들이 체육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전국의 수많은 군들과 학교들이 모범체육군, 모범체육학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육체적으로뿐아니라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고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여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생활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문헌에서 제시된 사상과 방침의 생활력은 또한 우리 나라의 체육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세계적수준에 오르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는 우리 식의 독특한 체육훈련방법이 도입되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가 마련되였다.

체육인들의 열의와 훈련강도가 높아지고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당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였으며 체육과학연구사업이 강화되고있다. 그리하여 체육훈련과 경기가 과학적리치에 맞게 진행되고있으며 전반적인 체육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체육기술은 일부 종목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걸쳐 세계적수준에 올라섰다. 우리 나라의 탁구는 세계선수권대회때마다 기둥팀으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태권도, 력기, 레스링, 사격, 권투, 륙상, 예술체조, 유술 등 많은 종목에서 세계패권을 잡거나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대회들에서 순위권에 당당히 들어서고있다. 지난해 3월 쏘련에서 진행된 《세계강자—90》국제체조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나어린 녀자선수는 세계체조강자들이 모여 승부를 다투는 경기에 출전하여 고저평행봉종목에서 단연 1등을 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우리 나라의 력기선수는 《와르나 90》국제력기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끌어올리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운데 뒤이어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1등의 영예를 쟁취함으로써 조선의 력기기술을 세계적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웠다.

우리 태권도선수들은 5대륙의 태권도강자들이 참가한 제7차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무려 28번이나 하늘높이 휘날림으로써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또한 우리 나라 선수들은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종목에서 높은 체육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당창건 45돐을 맞으며 창작공연된 대집단체조 《일심단결》을 비롯한 수많은 집단체조들은 그 내용과 형식, 체육기교와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문헌이 발표된후 나라의 체육발전을 담보하는 물질적보장사업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5월1일경기장과 청춘거리의 체육촌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경기장, 체육관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체육활동을 원만히 벌릴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또한 체육사업에 대한 정연한 국가적인 지도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체육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가 강화되고 군중체육사업과 체육기술발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게 되였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조국통일에 대한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와 북남통일축구경기에 출전한 우리 체육인들은 경기마다에서 조국도 하나, 민족도 하나라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이에 뒤이어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주요국제경기들에 유일팀으로 출전하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체육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문헌에서 제시된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우리는 지난 기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하고 체육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체육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로 가지는것이다.

전체 인민이 체육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 옳은 관점을 가져야 나라의 체육사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특히 지도일군들이 체육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실천적경험은 지도일군들이 체육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곳에서는 례외없이 군중체육이 활발히 벌어지며 그 토대우에서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체육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군중체육사업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군중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높이기 위한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군중체육을 발전시켜야 사람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모두가 체육활동을 벌려나가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그 터전우에서 체육기술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며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기초로 되는 체육종목을 적극 장려하며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특히 인민체력검정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국방체육을 강화하는것은 군중체육발전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국방체육은 사람들에게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강의한 의지와 완강한 저항력, 민활성을 키워주어 그들이 국방에 튼튼히 준비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대중국방체육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체육소조활동을 강화하는것은 군중체육을 발전시키며 체육기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체육소조활동을 강화하여야 체육종목들에 대한 전문화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체육기술수준을 높여 그들이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게 할수 있다. 학교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는 체육소조를 널리 조직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여기에 망라시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모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키크기운동을 기본으로 하여 과외체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계절적특성을 옳게 리용하여 등산, 행군, 수영과 스케트, 스키 타기를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체조와 체육무용을 비롯한 집단적인 체육종목들을 많이 선택하고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체육기술을 빨리 높이는것이다. 세계적으로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체

육종목들의 기록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는 현시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은 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나라마다 사람들의 체질도 다르고 체육발전의 력사와 전통도 같지 않은것만큼 체육기술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체육기술을 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체질적요구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며 앞선 체육기술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이런 원칙에서 받아들이며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 식의 체육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이 우리 인민과 우리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체육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고 파악이 있는 체육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훈련을 강화하는것은 체육기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체육훈련을 우리 식으로, 과학적으로 하고 훈련강도를 높이며 국내경기와 국제경기를 많이 조직진행하여 선수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육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체육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과학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체육종목별 기술을 발전시키며 특히 상징적인 체육종목들인 축구와 마라손을 비롯하여 파악있고 전망성있는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체육일군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체육부문과 교육부문에서는 능력있는 체육지도원과 체육교원들을 많이 키워내며 이와 함께 현직체육일군들에 대한 재교육사업도 잘해야 한다. 또한 체육부문 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한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수 있으며 체육선수들의 긍지와 영예감을 높일수 있고 체육기술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함께 체육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체육은 일정한 기구와 설비를 리용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는 육체적활동인것만큼 물질적조건보장사업을 필수적전제로 한다. 우리는 체육 시설과 기구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건설하고 마련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체육부문앞에 나선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옳게 하여야 체육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려면 국가체육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체육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국가체육위원회에서는 당의 체육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체육부문 기관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며 체육사업과 련관이 있는 다른 기관들과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동작전을 잘하여야 한다. 도, 시, 군 체육위원회의 일군들은 해당 지역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련합기업소관리운영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박 만 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행정경제사업에서의 성과는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면서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시고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 당의 령도와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여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한다는것은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처리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위원회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일군들과 생산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경제과업을 수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여야 기업관리운영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옳게 움직여나갈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듦으로써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를 관리운영하는 본보기를 창조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우리 련합기업소가 당의 구상에 따라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대규모의 견재생산기지로 건설되여 조업을 개시한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 련합기업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현대화된 기업소의 특성에 맞는 정연한 생산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작성, 설비관리, 재정관리, 로력관리, 자재 계약 및 공급 등 기업관리전반을 전자계산기화된 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있다. 모든 종업원들이 높은 수준의 생산문화가 보장된 일터에서 최신기계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고있으며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에서 충분한 후방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 기간 우리 련합기업소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우리 나라 원료, 연료 조건에 맞는 소성법을 새로 연구완성하고 내화물과 축로의 질을 높여 소성로의 가동률을 5배로 높였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전반을 정규화, 규범화, 과학화하였다. 생산지도와 기술관리로부터 후방경리사업에 이르는 기업소의 전반적관리운영사업이 끊임없이 개선됨에 따라 세멘트생산은 해마다 체계적으로 장성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우리 련합기업소는 국가계획을 공업총생산액은 116.3%로, 세멘트생산은 100.2%로, 국가예산납부계획은 114%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력 4천 336만키로와트시, 석탄 6,800여톤, 석고 8,000여톤 등 막대한 연료, 동력, 원료, 자재를 절약하면서 그 전해보다 수십만톤의 세멘트를 더 생산함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기여하였다.

우리 련합기업소가 이처럼 조업초기부터 생산과 경영 활동의 모든 면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사업 전반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련합기업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십차례에 걸쳐 기업소관리운영과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고도로 자동화, 원격조종화되여있는 기업소의 특성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업관리운영에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도록 경제관리전문가들로 무어진 강력한 지도방조성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였으며 늘 우리 련합기업소의 설비와 전력, 원료, 자재의 보장으로부터 세멘트 생산과 공급에 이르는 전반적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현대적산업건설의 본보기, 현대화, 자동화의 표준공장으로 일떠선 련합기업소가 기업관리운영과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수 있게 떠미는 결정적요인으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를 박고 기업소관리운영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집체적협의를 실속있게 하여 그것이 기업소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커다란 은을 내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독불장군이라고 혼자서는 그 어떤 일도 잘할수 없다. 집체적협의를 잘하여야 당위원회가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전반사업을 똑똑히 료해장악하고 당의 방침 관철과 기업소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련합기업소가 창설되여 일을 시작할 때에만 하여도 당위원회는 기업소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기업관리경험도 풍부하고 기술실무적으로 밝은 몇몇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의거하려는 편향을 없애지 못하고있었다. 사업을 점차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그것이 대중의 창발성을 발양시키고 기업소의 옳바른 관리운영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며 집체적령도기관으로서의 당위원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유해로운것이라는것을 포착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는 모든 당위원회들이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엄격히 경계하면서 위원들, 특히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창발적의견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기업소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풀어나가는 강한 규률을 세우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하였다. 그리고 당

조직들에서 장악과 총화, 재포치 사업을 대상별, 내용별 특성에 맞게 늘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하여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것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하였다. 집체적협의를 잘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소성로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정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련합기업소가 생산을 시작한 초기에 부닥친 난관의 하나는 세멘트공장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소성로가 자주 멎는것이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바로 찾고 옳바른 대책을 세우는것은 금방 생산을 시작한데 불과한 련합기업소를 관리운영해나가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볼것을 계획하고 그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짜고드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는 기사장, 부기사장들을 비롯한 기술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현장에 내려가 부문별로 기술자협의회를 가지고 소성로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게 하였다. 이와 함께 당위원회는 직접 기술발표회, 기술혁신현상모집을 발기하고 모든 기술자, 로동자들이 소성로장기가동을 위한 창발적인 안들을 적극 내놓도록 하였다. 당위원회는 광범한 군중속에서 제기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종합하여 널리 소개하는 한편 위원들을 발동하여 집체적협의때에 누구나 자기의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소성로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안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면밀한 준비에 기초하여 진행한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는 확실히 능률적이고 효과가 컸다. 소성로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발언하고 한가지이상의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물론 제기된 의견들가운데는 과학기술적으로 미숙한것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소성로가 자주 멎는 진짜원인을 찾게 되였고 그것을 해결하자면 현대적인 소성공정의 특성에 맞는 조종법을 새롭게 연구완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는 한번을 해도 사전준비를 잘 짜고들어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여야 그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집체적토의를 통하여 소성로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대책안을 세우게 된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고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우리는 소성로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참모부서들과 보장부서, 당위원회 부서들이 해야 할 몫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한편 기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돌격조를 무어 조종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조종사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도 하고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과정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과 우리식의 조작법들을 새로 창안완성하고 소성로원료투입공정을 실정에 맞게 개조하였으며 소성로의 월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의 창조적지혜를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백수십여종에 이르는 각종 분쇄기내부마모판과 려과기들, 전동기술을 비롯한 수입부속들을 국내산으로 대용하는 문제도 원료밀, 세멘트밀과 같은 중요설비들의 능력을 더욱 높이고 소성로의 보수주기를 늘이는 문제도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경험은 당위원회가 언제나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것을 집체적지도의 첫공정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면밀한 준

비밀에 실속있게 하여야 기업소를 잘 관리운영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또한 조직부와 선전부를 비롯한 당위원회 부서들사이의 배합작전을 실속있게 짜고들기 위하여 적극 힘썼다.

당위원회의 여러 부서들은 독자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각기 자기의 직능에 따라 일하지만 모두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는 공동의 사업을 한다. 해당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과업들은 결코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당위원회의 부서들, 특히 당내부사업을 하는 조직부와 선전부가 배합작전을 잘해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자기 단위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기업소관리운영사업에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부와 선전부가 자기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직부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떠밀어주었으며 선전부는 모든 선전선동 력량과 수단들을 통하여 경제선전,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통하여 대중을 새로운 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조직부, 선전부가 자기의 직능에 맞게 일하면서도 배합작전을 잘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배치된지 불과 몇달밖에 안되는 수백명의 제대군인청년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그들을 핵심적인 력량으로 키울수 있었으며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모여온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 모두가 단합되여 국가의 계획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할수 있었다. 우리는 올해에도 당위원회의 조직부와 선전부가 사업을 짜고들어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군중적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슬라크와 석분, 크링카 등 여러가지 부가물을 수집리용하여 계획외에 많은 량의 세멘트를 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이 과정에 행정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부와 선전부의 배합작전을 잘하자면 매 부서들의 사업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부서들사이의 긴밀한 련계와 통일적인 보조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2호소성로에 대한 대보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사업과정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소성로대보수기일을 앞당기는데서 긴급한 과제로 나선것은 보장사업을 맡은 공무직장에서 보수용부속품생산을 선행시키는것이였다. 그런데 소성로보수에 절실히 요구되는 몇가지 부속품들만은 공구가 걸려 일정대로 보장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일부 일군들은 당위원회에서 보수용부속품생산을 언제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식으로 당결정을 채택하고 자재공급부문과 공무부문의 일군들에게 분공을 주어 집행하게 하자고 하였으며 어떤 일군들은 자기 부서가 담당한 단위가 아니라는데로부터 그 사업에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경제사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위원회의 부서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하여 강건너 불보듯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난 편향을 일깨워준 다음 조직부와 선전부가 보수용부속품생산을 맡은 당원들과 생산자들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두 부서의 배합작전으로 밀고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위원회는 조직부로 하여금 공무직장 가공작업반세포를 담당하여 당생활지도를 하면서 당세포의 전투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선전부는 해설담화, 방송, 직관선전, 영화실효모임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조직부와 선전부의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하루사업정형을 통보하며 두 부서사이의 공동보조를 맞추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것을 정상화하였다.

조직부와 선전부가 힘을 합쳐 보수용부속품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당적으로 밀어준 결과 공무직장 가공작업반에서는 2호소성로대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의 힘으로 불과 몇주일사이에 생산보장할수 있는 예비를 찾게 되였으며 계획했던 대보수를 앞당겨 끝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또한 기업소관리운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서로 합심하여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련합기업소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3위일체가 되여 기업관리를 잘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련합기업소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3위일체가 되여 기업관리를 잘해나갈것을 일관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은 해당 공장, 기업소의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 생산기술지도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휘성원들이며 당위원회의 핵심력량이다. 기업소의 당위원회사업과 기업소관리운영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는가 못거두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서로 합심하고 보조를 맞추어 일하는가 일하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의 요구대로 기업소관리운영사업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늘 협의하여 견해의 일치를 본 다음 풀어나가는것을 제도화,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당위원회는 물론 행정간부회의나 참모회의들도 그 안건을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사전에 합의한 기초우에서 진행하며 생산지도와 설비관리, 자재보장으로부터 조그마한 기계설비의 부속품을 해결하는 문제에 이르는 모든것을 사무실과 공장구내, 생산현장에서 세사람이 아무런 격식도 없이 늘 토론하여 대책을 세우는 기풍을 세웠다. 이것은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제기된 문제를 기동적으로 처리할뿐아니라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서로 합심하고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는데 좋은 작용을 하였다.

3위일체를 보장하는데서 우리는 당비서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면서도 언제나 어깨를 낮추고 행정경제일군들과의 사업을 로숙하게 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당비서는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무거운 임무를 맡고있는 기업소의 정치위원이다. 그런것만큼 당비서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주는 영향은 자못 크다. 당비서들이 언제나 원만한 작풍을 소유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행정경제일군들과의 사업을 로숙하고 단수가 높게 하여야 3위일체를 옳게 실현할수 있으며 기업소를 잘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배인을 기업관리를 책임진 사령관으로, 기사장을 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참모장으로 존엄있게 대하고 적극 내세워주며

행정적으로 포치된 문제들이 말단단위에까지 거침없이 내려가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비서들이 행정경제일군들이 찾아올것만 기다리지 말고 의도적으로 행정간부회의나 참모회의를 비롯한 중요한 행정기술회의에 자주 들어가 토의되는 내용을 직접 료해하고 제기되는 의견들을 듣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비서들이 행정경제일군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제기하는 의견들은 그 성격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그들스스로 교훈을 찾을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는 당일군들이 당적분공을 주고 요구하며 받아내는데 서두를것이 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의 사업에서 생긴 빈구석들을 앞질러 포착하여 미리 알려주어 그들자신이 바로잡아나가게 하는것을 철칙으로 삼도록 하였다.

지난해에 세멘트직장의 벨트콘베아를 보수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뜻밖의 일로 벨트콘베아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은 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일군들의 경제조직사업, 설비관리와 기술관리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빈틈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때 책임일군은 아래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실태료해자료를 가지고 당위원회를 소집하기에 앞서 책임적인 행정경제기술일군들과 마주앉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이 경우에 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경제조직사업과 설비관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제기되였거나 자신이 직접 포착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내놓고 토의하였으며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들스스로가 부족점을 찾고 바로잡을수 있게 하였다. 결과 모임에서는 벨트콘베아에 대한 보수에 력량을 집중해야 한다는것과 그러자면 준비사업을 짜고드는 동시에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제기되는 기술경제적조건들을 일군들이 솔선 발벗고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아무런 의견이 없이 합의하게 되였다.

협의회가 있은 다음 행정경제일군은 곧추 해당 직장에 내려가 보수문제를 가지고 아래일군들과 허심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방도를 찾았으며 기술일군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멀리 떨어진 순천에까지 밤길을 왕복하여 벨트콘베아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여 가지고왔다. 뒤이어 우리는 당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벨트콘베아보수를 이틀동안에 와닥닥 해제끼기로 합의하였으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빛나게 실행하였다.

우리는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서로 마음을 맞추고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기본생산공정을 담당한 직장들의 초급지휘성원들을 기술적으로 준비된 젊은 대학졸업생들로 꾸리는 문제와 현대화된 기업소의 특성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규범과 직능을 작성하고 기업관리를 과학화, 규범화하는 문제, 직장별, 직종별로 기술기능학습반과 개별기능자습조를 뭇고 소성직장을 비롯한 8개의 직장들에 기능공학교를 내오는 문제 등 기업소를 당의 의도에 맞게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을 옳게 합의하고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었다.

지난 기간에 우리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기본핵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심장으로 체득하였으며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 기업소를 옳게 관리운영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련합기업소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의도대로 련합기업소를 전국의 본보기공장으로 더욱 훌륭히 관리운영해나갈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기 위한 구역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리 태 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이 직접 발기하고 지도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혁명적본질은 이 운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전인민적대중운동이라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며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그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다.

우리 나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 운동의 력사적발단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빨리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6년 11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마련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를 보내주시여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리정표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미 수많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으며 3대혁명기수대렬도 빨리 늘어났다. 온 사회에 세차게 타번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달라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혁명과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순안구역에서도 이미 수십개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으며 근 1,000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대혁명기수로 자라났다. 특히 이가운데서 3분의 2이상의 단위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접수한 이후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간 결과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지난 기간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나가는 과정에 순안구역당위원회는 일정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광범한 군중이 신심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운동의 성과와 생활력은 거기에 군중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

대중운동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추동력으로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려면 광범한 군중이 거기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대중운동이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광범한 군중을 발동하는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내세우고있는 높은 목표와 과업들은 모두 광범한 군중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원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광범한 군중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대중이 사상적으로 발동되고 신심에 넘쳐 투쟁할 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대중이 신심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구역당위원회는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였으며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는 당회의는 물론 행정회의와 근로단체회의를 조직진행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제기된 문제토의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수행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이끌어나갔으며 일군들이 군중속에 늘 깊이 들어가 대중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이 운동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보기로 튼튼히 꾸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단위에도 힘을 넣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도록 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이 신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여기에서 택암협동농장 농산1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수 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든 과정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이 작업반은 객관적인 조건도 별로 유리하지 못하고 작업반원들의 준비정도도 높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그들은 자기들로서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단위를 추켜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리당위원회 일군들과 작업반 당세포비서, 작업반장을 발동하여 작업반을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움직이는 힘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으며 작업반집단전체가 발동되여 농업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도 철저히 세우도록 이끌어나갔다. 구역당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일군을 파견하여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 때까지 작업반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도록 하였으며 이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였을 때에는 현지에서 방식상학과 경험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건이 불리하였던 이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자 광범한 군중은 자기들도 노력만 한다면 능히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을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더욱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당초급일군들과 행정초급일군들부터 신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가면서 군중의 앞장에 서서 투쟁하도록 하는데 있다. 군중속에서 살며 일하는 초급일군들부터 신심을 가져야 대중도 신심을 가지게 되며 그들이 합심하여 앞장에 서야 군중도 하나로 뭉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우리는 당세포비서와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부터 발동하기 위하여 방식상학과 실무강습을 통이 크게 벌리였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참고자료도 보장해주고 모범적인 초급일군들의 경험도 널리 일반화해나갔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수여식을 진행할 때에는 련관부문의 초급일군들을 모두 참가시켜 자극을 받고 분발해나서도록 이끌어주었다. 구역당위원회가 이처럼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켜 초급일군들을 발동한 결과 우리 구역에서는 광범한 대중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온 구역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들끓게 되였다.

대중이 신심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을 정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우리 구역안의 일부 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바쁜 농사철에는 이 운동에 거의나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으며 예상수확고를 판정해보고 그것이 높으면 한두달사이에 깜빠니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는 거리가 먼 심중한 결함이였다.

우리는 이러한 편향과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를 발동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조직화하여 정상적으로 벌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우리는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긴장한 모내기철 같은 때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수행과 결부하여 모내기, 써레질 같은 영농작업을 잘할데 대한 분공을 주도록 하였으며 농사일을 깐지게 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것이 곧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이라고 차근차근 일깨워주도록 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로청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영예의 모범초급단체》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었으며 3대혁명소조원들이 3대혁명의 전위답게 해당 단위의 사업을 늘 책임적으로 도와주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광범한 군중이 신심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줄수 있었으며 대중의 높은 열의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실정에 맞게 조직지도사업을 심화시켜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걸린 고리를 찾아내여 적극 풀어주며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을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벌려나가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것만큼 일반적인 강조나 지시를 하여가지고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이 운동을 심화시켜나갈수 없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려면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선후차를 가려가면서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제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할 때였다. 자료적으로 분석하여보니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지만 우리 구역에서는 선후차를 가려가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확신성있게 전개하지 못하고있었으며 겨우 5개 단위만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데 불과하였다. 지어 시범단위를 아직 명백히 선정하지 못한 부문도 있었으며 선정된 시범단위들의 수준도 높지 못하였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는 구역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고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데 있었다.

우리는 구역안의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들과 지방산업공장 작업반들에 내려가 며칠씩 품을 들여가면서 실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사업부터 조직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매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모두 장악할수 있었으며 실정에 맞는 방법론도 세워나갈수 있었다.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시범단위들도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새롭게 선정하고 여기에서 모범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농업부문에서는 대양협동농장 농산3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꾸리고 지방산업부문에서는 량정사업소 기름작업반을 본보기로 꾸리는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원래 이 작업반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한지는 오래지만 성과가 별로 크지 못하였으며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 자체가 할수 있는것은 다한것처럼 생각하면서 자만도취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지 못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그릇된 관점에 있었다. 우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내세우고있는 높은 목표에 비추어볼 때 자만도취할 근거가 없다는것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일깨워주었으며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현지에서 그들과 함께 결의목표수행정형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알심있게 사업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작업반원들모두가 발동되여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대양협동농장 농산3작업반에서는 전문기관과 토의하여 표준설계를 하고 집단전체가 달라붙어 작업반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과 생산건물을 새로 짓도록 하였으며 작업반원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량정사업소 기름작업반에서도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생산을 더욱 높이면서도 생산문화를 확립하고 다같이 악기를 다루면서 문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 과정에 작업반원들속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내세운 높은 목표들이 성과적으로 달성되였다.

우리는 개별적인 작업반에서뿐아니라 구역적인 범위에서 걸린 고리를 풀어나감에 있어서도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방법론을 세워가면서 조직지도사업을 심화시키였다.

최근년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한 단위들에서 기사, 준기사 양성 결의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갈 때 있은 일이다. 농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 내려가 결의목표실현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우리는 농산부문의 기사, 준기사들은 일정하게 양성되고있지만 농기계, 잠업,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사, 준기사들을 양성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순안고등농업전문학교에 나가 알아보니 이미 있는 학과들을 높이거나 새로 학과를 내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수 없었다. 이 문제를 푸는것은 농기계작업소와 협동농장 축산작업반, 잠업작업반 같은데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였다.

실태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해당 부문의 중앙기관과 토의하여 순안고등농업전문학교에 통신으로 농기계과, 잠업과, 축산과를 새로 내오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전문기술을 소유하도록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구역에서는 생산자의 30%가 기사, 준기사로 자라났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 모든것은 구역당위원회가 일반적인 지시나 하고 평가나 하며 독촉만 할것이 아니라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실정에 맞게 조직지도사업을 하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우리가 틀어쥐고나간 중요한 문제는 이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당위원회에서 직접 설계하고 작전하며 모든 부서들을 조직발동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다른 모든 대중운동들과는 달리 우리 당이 직접 발기하고 지도하는 혁명적대중운동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위원회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틀어쥐고 이 운동이 제기한 과업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며 당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도 이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구역당위원회안의 모든 부서들과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와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부서들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결부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매 부서들의 직능에 맞게 이 사업을 조직전개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조직부일군들에게는 당원들의 당생활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부되여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할데 대한 분공을 주었으며 선전부일군들에게는 사상혁명결의목표실현을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이 운동을 대중적으로 활발히 벌리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 근로단체사업부에는 다른 모든 대중운동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여기에 복종시켜 진행할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부서들이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사업과정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주관부서에 집중시키도록 하였으며 당위원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모든 부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작전하고 긴밀하게 협동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놓았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

취운동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지휘관이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아래일군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책임일군들이 직접 틀어쥐고 작전하고 포치하였으며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나갔다. 재경협동농장 농산1작업반에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도록 도와준 과정은 책임일군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었다.

재경협동농장 농산1작업반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한 다음 여러해가 지나도록 3대혁명, 특히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수행에서 별로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초급당비서와 세포비서, 관리위원장과 작업반장을 만날 때마다 강조도 하고 일군들을 파견하여 도와주도록 하기도 하였지만 성과는 크지 못하였다. 현실은 아래일군들에게만 맡겨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높은 목표를 달성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우리는 주관부서일군을 직접 데리고 현지에 나가 초급당위원회 이동집행위원회를 열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교양사업도 하고 그들과 함께 생산건물과 살림집들을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우리는 또한 구역당 선전부에서 미술원과 군중문화지도원들을 데리고나와 직관선전사업도 도와주고 농장원들에게 악기다루는 법도 배워주며 군중문화사업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세워나갔다. 계속하여 우리는 작업반에서의 3대혁명수행정형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미흡한 점들을 하나하나 퇴치하도록 깨우쳐주면서 판정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책임일군들자신이 이처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품을 들여가면서 노력한 결과 이 작업반은 드디여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였으며 오늘은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구역당 책임일군들뿐아니라 초급당 책임일군들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그리하여 우리 구역에서는 룡복리당비서와 같이 사상, 기술혁명수행에 앞장설뿐아니라 자신이 직접 학급반장이 되여 농장원들을 데리고 통신등교를 하면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관철해나가는 좋은 모범도 창조되고있다.

주관부서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주관부서의 역할을 높여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계획밑에 적극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구역당위원회의 주관부서를 당에 충실하고 전개력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로 하여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장악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오늘 우리 구역당위원회 주관부서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한 단위들에 나가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합심하여 그것을 바로잡아나가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있으며 구역적인 범위에서 전망적인 계획과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이 운동을 심화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성과와 경험은 당의 높은 기대에 비하여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켜 가까운 앞날에 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제도통일론》의 분렬주의적본질

리 문 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은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먼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는 오늘 북과 남은 하루빨리 조국통일방도를 합의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실천적으로는 북과 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보조를 같이할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대화의 첫 실마리도 풀수 없다. 지난해부터 열리고있는 북남고위급회담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도 결국은 북과 남이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상반되고있는데 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주장하고있는데 남측은 여기에 대치하여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들고 나오고있다.

우리의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오는 《제도통일론》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현실성이 없는것이며 그것은 영구분렬론이고 반통일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도통일론〉은 본질에 있어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여 〈두개 조선〉을 만들자는것입니다.》(《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단행본, 23~24페지)

남조선당국자들이 주장하는 《제도통일론》은 다른 나라의 통일방식을 본따서 일방의 사회제도를 다른 일방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제도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제도만이 있을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것은 나라의 분렬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이다.

《제도통일론》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의 제도상의 차이를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내세우고있는데 그 분렬주의적본질이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질화》되여있는 북과 남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하며 제도가 단일화되기전에는 두개 국가로 갈라져있을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도적통일》밖에는 통일의 길이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제도통일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민족이질화의 요인》이 된다는 궤변을 늘고나오고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40여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여왔으며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상당한 정도로 굳어지고 고착되였다. 그러나 북과 남사이의 제도와 사상에서의 차이는 결코 수천년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에 와서 둘로 갈라져야 할 내적필연성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의 그 어떤 계급적모순이나 사상,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위업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의 통일문제는 사상, 제도상의 요구를 앞세우는 립장에서가 아니라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족적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계급과 계층은 민족안에 있는 사회적집단으로서 민족의 한 부분을 이룬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여나간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민족은 사상과 리념, 제도에 앞서 존재하며 민족을 떠나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가 무의미한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을 그 어떤 사상과 리념, 제도와 결부시키거나 그에 종속시켜서는 안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민족을 구별하고 특징짓는 요인으로 된다면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영원히 한 민족이 될수 없고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도 같은 민족이 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민족내부에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도 있고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도 있다는것은 엄연한 객관적현실이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력사를 놓고보더라도 한 민족안에 서로 다른 사상이 함께 존재하였으며 사회제도도 끊임없이 교체되여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상의 존재가 결코 그 민족을 분렬시키지 않았고 사회제도의 교체는 민족적 공통성, 동질성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40여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각각 존재하여왔지만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민족적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인것이다. 민족을 특징짓는 주되는 징표를 놓고보더라도 북과 남은 조선민족으로서의 피줄도 같고 언어도 같다.

북과 남사이에 서로 다른것이 있다면 지난 40여년동안 존재하여온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인데 그것은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동질성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로 될것이 없다. 지금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다. 수천년동안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동질성을 차요시하고 40여년동안 존재하여온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을 절대화하면서 《동질성》회복이라는 구실밑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고 나라의 분렬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것이며 저들의 분렬주의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제도통일론》의 분렬주의적본질은 또한 조국통일문제를 전국적범위에서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로 보고 복잡한 《단계》를 설정하면서 그 전도를 료원시하고있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에 이루어진 불신과 대결,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고 하면서 통일에 앞서 남북간 《개방》, 《교류》, 《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도모》하고 《민족국가로 통합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며 그 다음 통일국가수립을 위해서 《남북련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조국통일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과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서로 련관된 하나의 과정이며 이 량자사이에는 그 어떤 과도적단계가 필요없다.

나라의 분렬을 반세기이상 끌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것은 더는 막을수 없는 민족의 절절한 념원으로, 꺾을수 없는 확고한 의지로 되고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통일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이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는 조국통일문제를 전국적범위에서 하나의 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로 보고 복잡한 《단계》를 설정하는것은 사실상 분렬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것이며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외면하는것이다.

《제도통일론》의 분렬주의적본질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련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물론 나라의 통일은 단번에 할수도 있고 점차적인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북남사이의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마스고 단결과 합작을 촉진하며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재결합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단일제도에 의한 통일을 예견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하면 통일의 《중간단계》라고 하는 《남북련합》단계에서 련합기구로 《최고결정기구》인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를 두고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며 남북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며 거기에서 《통일헌법》을 만든다는것이다. 그리고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지원과 합의사항시행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를 파견하게 되여있다.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단계》의 《과도적통일체》라고 하는 《련합기구》들이 명실공히 남북을 련합하기 위한 기구로 되자면 어디까지나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 군사, 대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이 내놓은 《련합기구》안에서 남과 북은 외교, 국방 권을 비롯하여 쌍방이 지니고있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이러한 기구들은 남북사이의 《교류》문제나 다룰수 있게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와 같이 《련합기구》에서 남과 북이 지니고있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련합기구》의 권능을 극히 제한하고있는것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시켜 두개 국가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여 나라를 영구분렬시키자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설정한 《중간단계》가 통일에로의 접근단계가 아니라 남과 북을 두개 국가로 분렬시키는 단계라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제도통일론》이란 《제도통일》이라는 간판밑에 인위적으로 복잡한 《단계》를 설정하여 통일문제해결을 끝없이 지속시키고 《중간단계》라는 명목밑에 남과 북의 관계를 두개 국가간의 관계로 합법화하려는 영구분렬방안이다.

《제도통일론》의 분렬주의적본질은 또한 그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현실성이 없는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다는데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단일제도의 《통일헌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단일제도에 기초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헌법》을 운운하지만 복잡한 북남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과 남의 두 제도가운데서 어느 한 제도를 없애버릴것을 예견하는 단일제도의 《통일헌법》은 합의할수도 없고 만들수도 없는것이다. 남조선의 현 체제를 부정하는 《통일헌법》을 만든다고 하면 남조선당국자들자신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것이며 우리도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통일헌법》을 만든다면 그것을 절대로 찬성할수 없다.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것이 객관적현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단일제도의 《통일헌법》을 만든다는것은 어느때 가서나 가능하게 되겠는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유로운 총선거》를 운운하지만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 포악한 반공파쑈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을 만들고 《총선거》를 실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북과 남의 일방이 타방을 먹거나 타방에게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북과 남의 상반되는 두 제도가운데서 어느 한 제도를 없애버릴것을 예견하는 단일제도의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단일제도에 기초한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것은 어느 일방이 타방을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한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제도통일론》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는것만큼 어느측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며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까지 빚어내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이 더없이 귀중하지만 우리 민족은 이러한 방도를 택할수 없으며 또 택하여도 안된다.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연장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한것은 그들의 분렬주의적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이다.

우리 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때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실증되였다.

해방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무력으로 삼켜보려고 덤벼들었지만 차례진것이란 쓰디쓴 참패뿐이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건설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사상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제도통일론》은 결국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을 한정없이 끌면서 현 분렬상태를 그대로 고착시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분렬지속론이며 반통일론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무러한 현실성도 없고 도대체 실현불가능한 《제도통일론》을 들고 휘두르는것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내외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막으며 저들의 분렬주의적정체를 가리우고 인민들로부터 고립을 모면해보려는것이며 나아가서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다.

분렬과 매국으로 명줄을 이어가는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조국통일에로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적지 않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만일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이 허용된다면 민족의 분렬은 고정화되고 남조선은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더욱 커질것이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강토우에서 한가지 말과 글자를 가지고 같은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예로부터 하나였던 국토가 동강나고 민족의 혈맥이 영영 끊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가장 합리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도로서 이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우리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리익을 침해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숙망을 실현하게 될것이며 통일민족의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실현될수 없는 《승공통일》을 꿈꾸거나 《적화통일》의 유령으로 인민들을 우롱할것이 아니라 《승공》과 《적화》도 북침과 《남침》도 다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이고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것은 력사적필연성이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온 민족의 억센 통일의지를 꺾을수 없고 조국통일에로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1990년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는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

김 수 용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계속 꿈꾸면서 힘의 정책에 의연히 매달리는 한편 국제경제관계분야에서 독점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원조》와 《협조》의 간판을 들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그 나라들을 또다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인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조〉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고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정치체제와 경제제도를 고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신년사》, 1991년, 단행본, 21폐지)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변함없는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여 살쪄왔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침략적, 략탈적 본성으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번영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원조》와 《협조》의 미명아래 어떻게 하나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제마음대로 지배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원조》와 《협조》는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미제가 처음으로 들고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차지하게 된 저들의 독점적지위와 교전국들이 약화된 틈을 리용하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미제는 전후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체계로 강화발전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세차게 벌어짐에 따라 종전의 구식민주의지배수법을 그대로 적용할수 없었다.

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독점자본가들앞에는 전쟁기간에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잉여자본을 처리하는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지배와 예속, 침략과 략탈의 수법을 고안해내게 되였으며 거액의 잉여물자에 《원조》라는 딱지를 붙여 해외에 내보내기 시작하였다.

《원조》를 통한 미제의 예속화정책의 첫 대상은 서구라파나라들이였다. 미제는 1948년에 이른바 《마샬안》(《구라파부흥계획》)을 조작하고 서구라파나라들에 170억딸라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미제의 이른바 《마샬안》은 《원조》라는 미명밑에 전후 약화된 구라파의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한 미국독점자본의 지배를 실현하며 이 나라들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되살려 저들의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려는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였다. 교활한 《마샬안》은 서구라파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군사경제적지배체계를 확립하는데서뿐아니라 이 나라들이 가지고있던 방대한 식민지들에 미국독점자본의 자유로운 침투의 길을 닦아놓는데서 주요한 역할을 놀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한편 악명높은 《트루맨 4항계획》에 의한 《후진국개발원조》의 간판밑에 식민지예속국가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 대한 이른바 《원조》정책을 실시하였다. 미제가 표방한 《후진국개발원조》는 서구라파제국주

의자들의 지배밑에 있던 식민지들에서 그 《주인》들을 내몰고 제놈들이 대신 침투하려는 교활한 책동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또한 저들의 잉여상품을 실현하며 이 나라들에서 값눅은 원료원천과 판매시장을 독점하며 나아가서 정치군사적예속을 강화하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억압말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예속화수법을 고안해내고 그에 의거하여 신식민주의적인 지배와 예속, 착취와 략탈을 일삼아왔으며 《원조자》의 탈을 쓰고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으로 군림하였다.

그후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다른 제국주의나라들도 미제국주의의 뒤를 따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략탈을 《원조》와 《협조》의 외피로 가리우고 《원조》와 《협조》를 발전도상나라들을 식민지쇠사슬에 다시 얽어매기 위한 보편적인 수단으로 리용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이 이른바 《원조》와 《협조》가 발전도상나라들의 새 사회 건설에 그 무슨 《기여》를 하고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지만 그들의 《원조》와 《협조》는 철저히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원조》와 《협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억제하고 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킨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성의 시대에 맞게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독립에 이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제적자립은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이 남겨놓은 락후와 빈궁, 기아와 병마에서 인민들을 해방하고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고수할수 있으며 민족해방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고 민족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던 발전도상나라들은 새 사회 건설과정에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을 겪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하여 《원조》와 《협조》의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억제하고 이 나라들을 다시금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억제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서 기본은 그 나라들의 주요경제명맥을 장악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경제의 명맥이다. 나라의 경제명맥을 남에게 장악당하게 되면 기필코 경제적자립은 억제되고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명맥을 장악하기 위하여 《원조》의 간판을 들고 국가자본을 먼저 들이민다. 그리고는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 저들의 사자본침투를 허용할뿐아니라 그 리윤을 철저히 보장해주도록 《투자보장협정》을 강요한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에 저들의 독점자본이 자유롭게 침투할수 있는 넓은 길을 닦아놓는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원조》의 보자기로 감싼 국가자본과 함께 사자본을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산업부문은 물론 금융과 운수, 상업, 대외무역에 이르기까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명맥을 장악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억제하는 길로 나간다. 특히 제국주의다국적기업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원채취부문만아니라 점차적으로 가공공업부문에 적극 침투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완전히 틀어쥐게 된다.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의 다국적기업의 새끼회사들은 전체 발전도상나라 공업생산의 40%를 거머쥐고있다. 미국의 주요《원조》대상지역인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미국독점체들이 주요공업부문들의 60%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쥔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의 경제발전을 극력 억제하고 저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에 유리하게 경제구조의 기형성과 편파성, 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경제에 의거하여서만 경제순환이 이루어지는 예속적인 경제체질이 형성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의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명맥을 장악할뿐아니라 이 나라들을 잉여상품 판매시장으로 전변시키고 심한 부등가교환을 강요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주는《원조》는 대부분이 저들의 잉여상품 강매를 전제로 하는 예속적인 《원조》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차관과 《보조금》을 일부 제공하고는 그 부대조건으로 저들의 상품을 강매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시장을 틀어쥐고 이미 판로가 막힌 낡은 설비와 체화상품을 팔아먹고있다.미국의《원조》에 의한 잉여상품수출가격은 세계시장가격보다 평균 20～30%이상 높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한두가지의 원료, 연료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세계시장에서 공업완제품을 수입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있다. 이것을 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수출하는 공업제품의 가격은 끌어올리며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하는 1차산품의 가격은 계속 떨구는 가격롱간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의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채무적예속과 금융적수탈도 강화하고있다.

자금이 부족한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겪고있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겪고있는 자금난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 《원조》를 미끼로 엄청난 빚을 지워놓고 금융적수탈을 강화하고있다.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원조》와 《협조》의 간판을 단 제국주의나라들의 차관을 받아쓰는 과정에 만성적인 채무국으로 전락되였다.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방대한 빚을 지워놓고는 리자률인상과 환자시세변동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금융적수탈을 강화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가 결코 발전도상나라들에 경제적번영을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억제하고 나아가서 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를 통하여 또한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자주성을 유린하고 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상실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자주성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그러한 나라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의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의 내정에까지 란폭하게

간섭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정치적자주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의 주요한 사명의 하나는 바로 《원조》와 《협조》를 받는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는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위한 도구로 리용되여왔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원조》와 《협조》의 간판을 들고 서구라파나라들에 저들의 의사를 강요했으며 오늘은 이 나라들과 함께 발전도상나라들의 정치적자주성을 유린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쥔데 기초하여 그 나라들로 하여금 저들의 정치적립장을 받아들이고 저들에게 정치적으로 순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를 미끼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분야에는 물론 정치분야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국가기관들과 정부를 장악통제하려 하면서 이 나라들의 정치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으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원조》와 《협조》의 미명아래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한 제국주의다국적회사들과 《평화군》은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의 정부를 전복하는 음모까지 조작하고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이 나라들로 하여금 저들의 리익에 맞는 반동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의 표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를 조건으로 발전도상나라들에 정치적 공갈과 압력도 강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를 받는 나라들로 하여금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의사에 추종할것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정당한 자주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는 비렬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최근에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가 유엔에서 토의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저들이 원하지 않는 찬성투표를 《감히》 하였다 하여 이 나라에 주기로 한 《원조》를 절반이나 줄였으며 만전쟁과 관련하여 자기의 자주적인 립장을 표명한 요르단에 대하여 《원조》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의사에 순종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원조》를 늘이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원조》와 《협조》를 삭감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렬, 리간 책동을 감행하고있으며 이 나라들로 하여금 저들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반제투쟁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꾀하고있다.

《원조》와 《협조》를 통한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책동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하여 더욱 집요하고 횡포하게 감행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횡포한 간섭책동은 《원조》와 《협조》에 온갖 정치적부대조건을 붙이고있는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원래 나라들사이의 호상 원조와 협조는 평등과 호혜, 선린 관계에 기초하여야 하며 성의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원조와 협조에 그 어떤 부대조건도 붙여서는 안되며 원조와 협조를 구실로 그 어떤 특전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부대조건이 붙거나 특전을 요구하는 《원조》, 《협조》는 사실상 그것을 리용하여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고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의 부대조건으로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다당제》와 경제의 《자유화》를 받아들이며 이미 세워놓은 진보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고칠것을 강요하고있다. 최근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하여 《다당제》와 《민주화》를 구실로 《원조》를 주는것

을 거절하고 기술봉쇄를 실시하며 이 나라들의 완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 《다당제》를 실시하면 《원조》를 줄것이라고 설교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가 얼마나 굴욕적이며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얼마나 파렴치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를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다시금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에 얽어매고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는데서 노는 주요한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보다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원조》와 《협조》 정책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정책에서 특징은 종전의 《증여》형식의 《원조》를 대폭 줄이고 차관형식의 《원조》를 늘인것이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침략적, 략탈적 성격을 가리우고 《원조》를 받는 나라 인민들의 환심을 사며 추종국가들을 《반공》돌격대로 키우려는 목적밑에 《증여》형식의 《원조》를 적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시기에 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차관을 《원조》의 기본형태로 리용하고있다.

《원조》의 미명으로 제공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차관은 대부자본의 수출로서 원금과 높은 리자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보다 악랄하고 교활한 경제적예속화수단이다.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차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에 더 많은 경제적부담을 주고 채무적예속을 강화하게 된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의 특징은 또한 《다각적원조》가 확대되고있는것이다.

《다각적원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첨예화된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고안해낸 보다 교활한 《원조》형식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재정위기의 첨예화로 하여 《원조》를 통한 지배체계가 위기에 처한 조건에서 저들이 통제하고 있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미주개발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원조》체계를 창설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다각적원조》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다각적》인 금융원천에 의거함으로써 《원조》로 인한 저들의 재정적《부담》을 경감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집단적인 원조》의 가면을 쓰고 《원조》의 침략적, 략탈적 본질을 은폐하면서 신식민주의적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있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의 주되는 특징의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적극 리용되고있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최근시기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계기로 하여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고있다. 지난 시기 그들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하여 《원조》로 유혹하거나 그것을 휘둘러 압력을 가하는것과 같은 행동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일련의 나라들에 얼마간의 《원조》를 제공하고 이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에 매달리고있다. 지어는 이 나라들이 저들의 의사를 무조건 따르도록 《원조》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병주고 약주는 식의 마약이며 침략과 략탈의 검은 마수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침략과 략탈을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본업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가 진심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원조하고 협조할수 없다는것은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교훈이다.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원조》와 《협조》에 자그마한 환상과 기대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발전도상나라들이 계속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에 의거한다면 현재의 정치경제적난관들을 제대로 풀수 없을뿐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에 더 깊숙이 걸려들게 될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이 발전된 나라들의 원조와 협조를 받을수는 있다. 그러나 발전도상나라들은 발전된 나라들의 원조와 협조를 받는데서 절대로 그것을 통한 부대조건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원조》와 《협조》를 통한 지배와 예속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현 경제적난관들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결정적요인은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자신에게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에 의거하지 않고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남남협조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남남협조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끝장내고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자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하여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경제적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간다면 매개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에 대한 의존심도 없앨수 있다. 생활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부대조건있는 《원조》보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부대조건없는 협조가 몇배나 낫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착실히 실현하여 경제적난관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서방의 《원조》와 차관, 《기술협조》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오만하게 떠벌이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궤변을 철저히 분쇄할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를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미끼로 리용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국제경제관계에서 사심없는 참된 원조와 협조 질서를 세우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자주력량의 공통된 지향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발전된 나라들에만 유리하게 되여있는 현 국제질서들을 없애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조》책동은 파탄을 면하지 못할것이다.

근로자 1991년 제5호(루계 589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91년 5월 1일 발 행•1991년 5월 8일

ㄱ—1565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70전

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호

평 양 근로자사 1991

근로자

제6호(59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김 정 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입니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으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웠습니다. 사회주의는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사회로서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벌리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것만큼 전진도상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겪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온 수십년의 력사에서 한번도 정치적 불안정과 동요가 있은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들의 비렬한 공격과 비방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의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사회에서 끝없는 행

복과 참다운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1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새롭게 밝혔으며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변화발전에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로 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내세웁니다. 사회적운동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발전합니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일어날수 없으며 사회력사발전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에서 주체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기때문입니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력사의 창조자로 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아닙니다. 착취사회에서는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것이 아니라 무위도식하는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지위가 전도된 사회를 끝장내고 인민대중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회가 사회주의사회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회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입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체의 핵심부대로 내세웁니다. 로동계급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는 계급입니다. 로동계급의 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되

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것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자산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관계로 로동계급이 비록 많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주성과 혁명성이 가장 강한 선진계급으로서 혁명의 핵심력량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부터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계급적요구를 민족적요구와 함께 혁명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이르는 모든 혁명이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성과적으로 수행되여왔습니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 그 역할이 더욱 높아져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의 전반적면모는 점차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여 로동계급화된 사회, 무계급사회로 완성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로동계급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사회라는것은 결코 로동계급만을 위한 사회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로동계급의 요구는 사회적진보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일치하며 로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요구에도 맞는 사회입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할것을 요구합니다.

농민은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체의 기본구성부분을 이루며 혁명의 동력으로 됩니다. 지난날 농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농민의 리익을 옳게 실현하는것은 혁명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요구뿐아니라 농민의 념원에도 맞게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개혁도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의 세기적념원에 맞게 실시하고 전후 사회주의혁명도 농민의 념원을 반영하여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창적인 길을 따라 자원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농민의 념원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농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농민을 적극 도와주어 그들의 념원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그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첫 시기부터 인테리를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중요한 혁명력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의 인테리들이 식민지나라 인테리로서 반제자주정신과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었으며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인테리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인테리대군을 마련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인테리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착취계급은 사회적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력사의 반동이며 혁명의 대상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착취계급을 혁명의 대상으로 본다는것은 결코 혁명과 반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를 사회계급적토대만을 가지고 규정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계급적처지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사상의식을 통하여 미치게 됩니다. 사회계급적토대가 나쁜 사람도 혁명적영향을 받으면 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며 사회적진보와 혁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계급적토대를 따지지 않고 그를 혁명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것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기본계급뿐아니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을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웠으며 사회주의혁명에서도 부농과 자본주의적상공업자를 청산한것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된 사람들은 지난날 어떤 계급과 계층에 속하였건 관계하지 않고 그들모두를 일시적인 동반자로가 아니라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믿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구현하여 극소수 적대세력의 반혁명적책동을 제때에 저지파탄시킨것과 함께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가장 공고하고 폭넓은 사회계급적지반우에 올려세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리익에는 집단의 리익과 함께 개인의 리익이 있습니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대립되고 집단의 리익우에 개인의 리익을 올려놓는 개인주의가 지배합니다.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사이의 대립관계를 가져옵니다. 개인주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배치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며 사람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한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집단주의의 기본요구는 집단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리익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나가는것입니다. 집단주의에 배치되는것은 개인의 리익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의 리익만 추구하는 개인주의입니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이 철저히 옹호되는 기초우에서 매 개인의 리익도 존중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혜택과 배려가 돌려지고있으며 온 사회에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활짝 꽃펴나고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여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내세웁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언제나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주, 자립, 자위의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오늘 더욱더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며 혁명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잇닿아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지배와 예속, 불평등을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국제적친선과 협조를 필수적요구로 합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민족과 작은 민족 할것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과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해나가는것은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줍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국제적인 반제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책동을 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교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면서도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물심량면의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주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는 자주시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요구와 각계각층 군중의 요구,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다같이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한 위업이며 사회주의와 인민대중의 리익은 결코 분리시킬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자면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자면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모든 사회현상의 진리성을 가르는 기준이며 혁명실천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당면리익을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수 있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옳은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실생활에 바로 구현할수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체적립장, 다시말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입니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지위를 지키기 위한 립장이며 그 기본요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입니다. 자주적립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인민대중이 자주적권리를 행사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주적권리는 그 누가 보장해주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옹호하자면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립장이며 그 기본요구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창조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입니다. 사회적운동은 창조적운동이며 그것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과정입니다.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의하여 력사가 전진하고 혁명이 추동됩니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키우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언제나 구체적인 주객관적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창조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준비정도도 나라마다 다르며 창조적활동이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도 나라에 따라 각이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이 처한 사회력사적조건은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혁명을 시작하였으며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실정에 맞는 처방은 그 어디에도 밝혀진것이 없었습니다. 더우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건설의 생소한 길을 기성리론을 가지고서는 개척해나갈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리론을 독창적으로 내놓고 체계화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창시하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입니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앞길을 밝혀주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밀고나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이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제국주의강적과 첨예하게 대치되여 있고 낡은 사회와 선행시대로부터 락후와 빈궁, 파괴된 경제밖에 물려받은것이 없는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은 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 혁명과 건설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

온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체의 힘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길을 빛나게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기때문에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드팀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해올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성된 복잡한 정세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면서 혁명적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당의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변함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창조적힘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2

우리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습니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자면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이 자기의 의사에 맞게 정권을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맞게 세운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입니다. 원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리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계급적성격을 띠게 되며 독재와 결부되여 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그것을 침해하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있는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저들의 범죄적책동에 길을 열어놓으라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반대하여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계급적원쑤들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은 응당한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남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 착취계급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반인민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죠아의회제와 부르죠아다당제를 그 무슨 《민주주의》로 표방하고있지만 부르죠아의회제와 부르죠아다당제의 배후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형식적인 의회제나 다당제마저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로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력사적사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인민적성격과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성격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것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헐뜯고있지만 진짜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강압적으로 인민을 다스리는 부르죠아법무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주주의적인 법무생활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이며 사회의 높은 조직성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정연한 사회질서속에서 사람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됩니다. 법이 반동적지배계급의 반인민적통치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집행됩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받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제와 결부되여있습니다. 중앙집권제가 없이 사람들이 제가끔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한다면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정치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개개인의 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르죠아국가는 사람들이 굶어죽건말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국가의 기능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사회주의국가가 중앙집권적지도기능을 수행하는것은 단순한 권력기능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주의정권도 자기의 특성에 맞는 권력기능을 수행하지만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정권이 권력을 만능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권력만능은 인민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착취계급의 정권에 고유한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권은 단순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입니다.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회주의국가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중앙집권적지도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줄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 무정부상태가 조성되여 사회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민의 원쑤들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반대하는 목적은 바로 사회주의를 말살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적준법기풍과 민주주의적인 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적군중로선을 옳게 구현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권을 통하여 정치생활에 참가할뿐아니라 정당, 단체를 통하여서도 정치생활을 합니다. 인민대중이 참다운 정치의 주인이 되자면 정권의 주인이 될뿐아니라 정당, 단체의 정치생활에도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정

당, 단체에서의 정치생활의 의의와 역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더욱 높아집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는 사회라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여야 수령과의 혈연적뉴대속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것을 값높은 생활로 여기고 거기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 안에서의 조직생활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입니다. 정치조직생활에서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등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을 통하여 제기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이 철저히 관철됩니다.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단련하는 학교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조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랑식으로 섭취하고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밑에 자신을 단련해나갑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것은 혁명적인 정치조직생활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마치 자유에 대한 《구속》인것처럼 헐뜯으면서 반대하는것은 바로 정치조직생활에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사상적위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서 올바른 정치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없을뿐아니라 그릇된 길에 굴러떨어져 사회정치적생명을 더럽힐수 있으며 지어 반혁명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반동들의 리용물로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하여야 당과 국가의 정책 실현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연한 정치조직생활체계를 공고발전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각적인 정치조직생활기풍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분야입니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인것만큼 경제생활에서도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낡은 착취사회에서도 사회적부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이 그 주인이 되지 못하는것은 생산수단을 소수 착취계급에게 빼앗기고있기때문입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념원은 무엇보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이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빛나게 실

현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소유를 포기하고 사적소유를 되살릴것을 강요하고있지만 사적소유제도의 반동성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확증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짖는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것입니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오직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적소유만이 자기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준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사회적소유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우리는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는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그 관리도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가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를 마련하시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가장 과학적인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군중로선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보장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며 정치적방법으로 대중을 경제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우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지도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이며 그것은 행정대행, 행정식방법을 배제합니다.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고 행정기술일군들은 경제기술사업을 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보장됨으로써 모든 경제사업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고 경제관리에서 군중의 의사가 옳게 반영되게 되였으며 경제과업수행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가 높이 발휘되게 되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경제생활에서 창조적로동생활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로동을 통하여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며 그 과정에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웁니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며 로동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실업자라는 말도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잉여가치생산자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실업을 로동강도를 높이고 로동력을 더 헐값으로 착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있을뿐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창조적로동생활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보람있는 생활로 되게 하자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어야 합니다.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면 보다 훌륭한 로동조건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많이 의존됩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마저 해방하는 력사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어렵고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생활을 더욱 보람차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은 사회주의경제생활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인민대중의 평등하고 유족한 생활은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해서만 보장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온갖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여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당과 국가가 따뜻이 돌봐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과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은 사회주의사회의 인민적시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복지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것입니다. 설사 《복지정책》이 실시된다 하여도 그것은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부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가 실시되고 가격과 같은 경제적공간이 리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고르롭게 높이는 원칙에서 생활비와 가격을 정하고있으며 생활비차이를 적게 두고 그 차이를 더욱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상품의 값도 대중소비품값은 낮게 정하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필수품값은 더 낮게 정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속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고르롭게 잘 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것이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물질생활면모입니다. 우리는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보살펴주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을 계속 실시할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물질적담보는 나라의 생산력발전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줍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이며 예속경제가 아니라 자립경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시장경제나 외국독점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예속경제는 인민대중의 리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될뿐아니라 발전속도에서도 계획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를 따를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물질적번영》이 그 무슨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이룩된것처럼 떠벌이고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속일수 없는 궤변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일찍부터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나 사회주의나라들은 지난날 경제발전수준이 뒤떨어진 나라들이거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제3세계나라들에 대한 식민주의적략탈을 통하여 《물질적번영》을 이룩하였지만 사회주의나라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일부 뒤떨어진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사회주의나라들과 대결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인 《물질적번영》을 조작할수 있으나 그러한 예속경제는 아무리 발전하여도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진정한 복리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자립적인 토대우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쌓으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향상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에 자본주의적시장경제를 강요하고 경제적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사

회주의경제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봉쇄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켜나가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침투책동은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분야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상문화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인민대중이 정신문화적재부의 창조자일뿐아니라 그 향유자로 되여 고상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린다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인것만큼 인민들의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조건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도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사상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람의 품격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상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대결의 기초에는 언제나 사상분야에서의 대결이 놓이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상생활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이며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은 로동계급의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상생활은 계급적성격을 띱니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계급적 리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합니다. 력사상 어느 한 계급도 사회에 대한 자기 사상의 지배를 요구하지 않은 계급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가들은 사회에 썩어빠진 부르죠아반동사상을 강요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리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계급과 계층으로 분렬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수 없으며 따라서 각이한 사상과 사조가 존재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이고있습니다. 자본의 권력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독점자본가들은 금권을 가지고 출판물, 라지오, 텔레비죤을 비롯한 선전수단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저들의 반동사상을 강요하며 저들에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사상에 대하여서는 공공연한 탄압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떠들어대는 사상의 《자유》인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주체사상이 보급되는것을 총칼로 탄압하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가 없다고 떠벌이고있습니다. 원래 사상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없앨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은 더욱 확대되여가고있습니다. 사상을 탄압하는것은 우월한 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반인민적사상을 강요하는자들이 하는짓입니다. 우리 인민은 사람중심의 우월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활적인 요구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그 본성으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인 지배를 요구합니다.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기초가 청산되고 계급적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는것이 합법칙적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감행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지배가 쉽게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은 사회경제적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새로운 사회경제제도가 선다고 하여 사람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변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아니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침투를 감행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사회주의나라에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당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누리는 참다운 사상생활모습이며 혁명적인 사상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넘치고있는 여기에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령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세워놓은 사상교양 체계와 내용 및 방법을 고수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 그들의 문화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화생활제도는 사람들의 문화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우월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창조적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고등교육이 발전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훌륭한 민족간부로, 사회주의건설자로 육성되고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어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창조적재능을 키워가고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정연한 학습체계가 서고 학습조건이 마련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있습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화가 개화발전되여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로 이름떨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공산주의도덕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은 가장 값높고 보람찬 문화생활입니다. 우리는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의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인민의 건전하고 고상한 문화생활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3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사회를 떠밀어나가는 주체는 인민대중이지만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단결되여야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인것만큼 결코 자연발생적으로는 자기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옳은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각과 조직성이 높아질

때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나갈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에게 옳은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당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의 중심입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닌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입니다.

지난날 민족적수난속에서 앞길을 찾지 못하고 갖은 풍파를 다 겪어온 우리 인민은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애타게 갈망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 념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심으로 하여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새 력사를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의 우월한 사회주의가 건설된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리론과 정책은 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선생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서재에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주체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의 원리를 정식화하시였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경험을 총화하여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헤아리시고 그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도 몸소 수많은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내놓으신것입니다. 대중령도에 관한 공산주의적 지도사상, 지도방법인 유명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도 수령님께서 청산리농민들속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하시면서 그들의 념원과 의사를 집대성하여 내놓으신것입니다. 수령님께서 걸으신 수억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은 바로 인민대중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로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며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시켜주시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어버이로 끝없이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입니다.

수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당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전위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유일한 향도적력량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권력기능을 수행하는 정권기관과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그 성격으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을 대신할수 없을뿐아니라 그 령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과도적사회로서 로동계급의 당과 함께 다른 정당들이 존재할수는 있지만 일정한 정치세력과 계층만을 대표하는 당은 결코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령도권을 로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다른 정당들은 로동계급의 당과 집권경쟁을 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온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친선적으로 협조하는 정치조직이여야 합니다. 이것은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은 물론,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되여나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무시하고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세한다면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향도적중심을 잃은 비조직군중으로 전락되고 사분오렬되게 되며 그대신 반혁명분자들이 민심을 오도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낼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인 조선로동당만을 자기의 유일한 향도적력량으로 여기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령도를 충실하게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공고성은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인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과 그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는것을 투쟁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여기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근본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되였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은 정책을 세워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반영하여 세웁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전환되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당의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자면 당자체가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합니다. 비록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당자체가 튼튼히 꾸려져있지 못하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위력의 원천은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단결되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그 불패성의 담보로 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 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승발전되여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결국 당의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전진도상에는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수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전행정에서 선행시기의 업적과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합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준엄한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에 혁명과 건설에서 영원히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전통이 이룩되며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이 마련됩니다. 우리 당은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였을뿐아니라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드팀없이 전진시켜나가고있습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로동계급의 당이 무정형적인 집단으로 되여서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하고 당원들속에서 유일적인 당생활규범에 기초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불패의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

다.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주체는 사람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다시말하여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간부사업체계, 당생활지도체계, 군중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당과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계속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정치조직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는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자면 일군들이 올바른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당정책이 정당하여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나쁘면 그것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철저히 관철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워야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할수 있으며 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업 방법과 작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직권을 악용하여 권세를 부리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입니다.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인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권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원래 세도와 관료주의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것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반동적지배계급의 통치방법이며 이런 방법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것은 주로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것과 관련됩니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고유한 사업 방법과 작풍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입니다. 우리는 새 사회 건설의 첫날부터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 문제를 당과 국가 활동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간부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일군들의 비중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세우는 문제를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자면 모

든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점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점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하는 사업입니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의 소유자입니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주관과 독단을 부리지 말고 언제나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야 합니다.

일군들은 군중우에 선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나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심부름군입니다. 일군들은 인민의 복무자로서 언제나 자기의 리익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군중의 요구와 아픔을 자신의 요구와 아픔으로 여기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높은 인간성과 인정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이 대하여야 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정치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사람들을 차별없이 대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대중과 조금도 간격을 두지 말고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야 합니다. 일군들은 틀을 차리거나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사리를 추구하거나 특전, 특혜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국가의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자면 사업체계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군중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고 군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업할수 없으며 군중을 조직동원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습니다.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이 습성화되고있으며 이 과정에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극복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갈뿐아니라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정치적방법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

업을 앞세우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당정책을 해설해주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자면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며 그것은 뿌리깊은것입니다.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리지 않고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 리론과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는 한편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나타나는 공부정자료를 가지고 제때에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극복되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확고히 서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인민대중을 이끌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지금으로부터 41년전 미제침략자들은 전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강도적인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들의 륙해공군의 기본력량과 15개 추종국가 군대, 남조선괴뢰군을 포괄한 방대한 무력과 막대한 현대적인 살인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삼켜보려고 하였다.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미제침략자들은 야수적인 맹폭격과 포격으로 우리의 평화적인 도시들과 농촌들을 재더미로 만들고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함으로써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어보려 하였다. 미제의 강도성, 야수성은 이른바 미국의 《문명》과 《인도주의》의 피비린내나는 본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 속에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야만적인 전쟁 방법과 책동으로써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일떠선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마침내 쓰디쓴 참패를 면할수 없었다.

가렬처절한 전쟁의 나날 우리 인민과 영웅적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적들에게 결정적인 참패를 안기고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으로서의 영예를 온 세계에 높이 떨치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고 반제반미투쟁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후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건설을 다그쳐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웠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계속 대결과 전쟁로선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켜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로선과 대결책동으로 하여 지난 기간 조선반도에서는 어느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으며 우리 인민은 극도의 긴장속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반발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으며 민족이 영구분렬될 위험에 직면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그저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조국과 민족, 혁명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하루빨리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　　*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사고 공

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공동의 력사적과제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전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종일관 여러가지 합리적인 평화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는 최근년간에만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제안과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군사당국자회담제안,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이며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할것을 예견한 포괄적인 평화방안,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우리는 지난해에만도 북남고위급회담을 마련하고 3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정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당면한 현안문제로서 남조선측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거듭 촉구하였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평화적 발기와 제안들에 호응해나서고 그것이 실현되였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이미 긴장한 정세가 해소되고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을것이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평화적 발기와 제안들을 외면하면서 대결과 전쟁로선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자아내는 긴장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지속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저들의 침략적핵군사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을뿐아니라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쿠바신문 〈그란마〉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페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삼는다. 제국주의는 살지고 배가 부를수록 더욱더 횡포해지고 탐욕스러워진다. 제국주의의 력사는 끊임없는 침략으로 이어진 피비린내나는 죄악의 력사이다.

전조선을 침략하고 아세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에 불타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미국전략의 제1선》, 《사활적인 전략지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반공대결의 기본지탱점으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오늘 남조선에는 최신살륙무기로 장비한 근 5만명의 미제침략군과 미국식으로 무장한 100만이 훨씬 넘는 남조선괴뢰군이 항시적으로 출동태세에 있으며 미제가 아세아지역에 끌어들인 핵무기 가운데서 절반이상이 되는 1,000여개의 핵탄두와 그 운반수단들 그리고 최신형군사장비들이 배비되여있다. 또한 핵무기로 장비한 미제7함대의 전략배치중심과 작전수역이 조선동해로 옮겨지고 이 지역에서 위험한 핵전쟁연습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이 얼마나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은 놈들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벌리고있는데서 똑똑히 알수 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는데

필요한 군사행동의 형식과 방법, 규모와 내용 등 모든 군사적요소들을 다 갖추고있는 종합적인 전쟁연습이며 위험한 불장난이다. 이 전쟁연습에는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이 투입되고있다. 거기에는 특히 핵무기를 적재한 미 제7함대의 핵항공모함전단과 수많은 핵무기,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처럼 방대한 병력과 무장장비들을 동원하여 상륙작전, 공중타격작전, 도하작전, 특공대작전 등 공격작전훈련을 벌리고있다.

미제는 세계의 면전에서는 랭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지만 조선반도에서는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북침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고있으며 그 불길을 주변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의 변화로 더욱더 오만무례해진 미제국주의자들은 미합동본부의 《년례군사력평가보고서》라는데서 《만지역에 이어 국지전이 일어날 위험성이 가장 큰 지역은 조선반도》라고 하면서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어도 120일이상의 치렬한 전투가 불가피할것》이며 미국은 20만명이상의 《증원군》을 투입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 호전적인 망발은 북남관계를 인위적으로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한층 격화시키며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려는 계획적이며 위험한 전쟁폭언이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말로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 《대화》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발전도상의 자주적인 나라들,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팔을 비틀고 목조리를 하며 군사적간섭과 침략도 서슴지 않는것은 미제의 상투적수법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약 미제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불집이 터진다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뿐아니라 주변지역 인민들과 세계인민들도 핵참화를 입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동북아세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 전쟁, 핵전쟁 위험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으며 그것을 한결같이 규탄하고있다.

미제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으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으면서도 마치도 그것이 《북으로부터의 침략》, 《남침위협》때문인듯이 꾸며대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 하고있다.

《북으로부터의 침략》, 《남침위협》이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작해낸 있지도 않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는 《남침위협》이란 없으며 오직 북침위협만이 있을뿐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남침위협》이라는 이름밑에 남조선에서 새 전쟁, 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정세를 더욱더 격화시키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 성명하지 않았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도 조선반도에는 《남침위협》의 징조가 없다는것을 다 인정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드는것은 그 목적이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 전쟁위험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저들의 무력증강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과 조국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북남의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6페지)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 무모한 전쟁정책을 버려야 한다. 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을것이다. 힘의 정책, 전쟁의 방법으로 우리 인민을 놀래우고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꺾으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은 망상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돌이킬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수치스러운 침략야망에 사로잡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것보다도 더 심대한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굽히고 남의 가치관에 현혹되여 파국의 길을 걷는 그런 인민이 아니며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침략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있게 지켜나갈수 있는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 힘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의 위력,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백전백승의 자위적국방력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말그대로 필승불패이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야망에 사로잡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의 불집을 터친다면 우리 인민의 호된 주먹에 얻어맞아 머리가 쪼개지고 척추가 부러져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야말것이다.

전쟁의 방법으로는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조선문제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시적인 정전협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미국이 조선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조미협상에 응해나서며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것만큼 우리의 진지한 평화노력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 열망을 똑바로 보고 힘의 립장에 선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며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기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민족은 그자신도 자유로울수 없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의 그릇된 정책은 미국인민의 커다란 수치로 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의 침략정책은 미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막대한 부담으로 될뿐아니라 파국적인 재난의 근원으로 된다. 미국지배층들은 조선반도에서의 침략정책, 전쟁정책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평화협정체결에 응해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지배층들은 우리가 내놓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의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군사적대결상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평화방안을 내놓았으며 군사적대결상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이 성의있는 노력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있으며 도리여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평화》요, 《랭전종식》이요 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평화보장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도 취하려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류우선론》에 매달리고있다. 인도적인 래왕이나 교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여도 우선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군사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전쟁이 현실적위험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교류만을 고집하는것은 사실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래왕과 교류 자체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뢰조성우선》이라는것은 불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불가침선언은 결코 신뢰조성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최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정치의 규제적인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적 협력과 교류에 선차성을 부여하고있으나 남조선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비정치적 협력과 교류도 병행하여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것을 밝혔다. 이것은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를 분렬이 아니라 통일에 리롭게,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나가려는 우리의 아량있는 립장과 자세를 반영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불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북과 남사이의 실속있는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쌍방이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질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북남대화는 어디까지나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대화의 마당을 통일을 갈망하는 전민족의 의사를 배반하고 외세에 추종하여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용하려 하는것은 결코 허용될수 없다. 북남대화에서 통일의 근본문제해결을 회피하고 부차적인 문제를 전면에 들고나오는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시간을 끌어 통일을 방해하려는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으로서 응당 배격되고 규탄되여야 한다.

북남대화는 당국자들이나 개별적당파의 독점물이 되여서는 안되며 전민족의 요구와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창구일원화》를 주장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처형하고있는것은 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의지를 외면하고 조

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것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분렬주의적립장을 버리고 우리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 누구의 구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련방정부를 세우는 문제, 《유엔가입》문제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는 문제, 민간급 통일대화의 길을 여는 문제 등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협의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의 진지한 대화와 협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에 열을 올리며 저들의 내부체제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돌리면서 통일애국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책동에 더욱더 로골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태발전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 남겨놓으려 한다면 이제라도 민족적립장에 돌아서서 긍정적인 전환적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상의 대결문제로 보거나 누가 누구를 먹는 문제로 보고 《승공통일》, 《흡수통일》의 망상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놀음을 그만두어야 하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길로 나가야 한다.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도 련방제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것이 가장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전조선민족의 통일념원에 역행하여 저들의 《유엔단독가입》을 완전히 정책화하고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기화로 이를 일방적으로 실현할 목적밑에 이와 관련한 《정부비망록》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정식 제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동은 유엔무대를 통하여 하나의 조선을 둘로 갈라놓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로 된다.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통일도상에 새롭게 조성된 난국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막을수 없는 통일열망에 의하여 반드시 극복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력량의 강화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은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타승하고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해나갈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철통같이 굳게 뭉치며 자신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켜나가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

김 국 태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독특한 사회주의이다. 원래 사회주의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청산된 사회로서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선진적인 사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는 그 특징과 우월성이 꼭같지 않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근본특징과 우월성이 지도사상의 과학성과 혁명성, 현실성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을 통하여 발전완성되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남이 선사하였거나 남의 본을 따서 건설한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되여있다. 때문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순간의 정지나 우여곡절을 모르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완성되여나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진 가장 독특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는 그 발전완성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켜나가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입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발전완성시켜나가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옳바른 강령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목표와 방향, 방도에 의거하여 전인미답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헤쳐나갈수 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옳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강령을 가지지 못하면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악랄해지고 혁명앞에 시련이 닥쳐오면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고 좌왕우왕하게 되며 나중에는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나아가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자면 반드시 옳바른 공산주의강령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이라고 뚜렷이 밝혔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당이 밝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 목표와 방향이 명시되여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침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높이 들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아무리 악랄하고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여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목표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고지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으며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그 전략적목표가 뚜렷이 밝혀져야 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전략적목표가 뚜렷이 밝혀져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정확한 목적과 방향에 따라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전략적목표는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적목표가 명시되여있다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에 대한 해명이 주어지고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목표가 밝혀졌다는것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를 뚜렷이 밝히는것은 그 전략적목표를 옳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기되는 근본문제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해명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적목표를 옳게 세우고 투쟁해나갈수 있다.

만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가 옳바로 밝혀지지 못하면 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목표에 대한 해명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토대우에서 전면적으로 주어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으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사회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히고있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사람과 사회와 자연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되여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고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회,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참답게 향유하는 발전된 사회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며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 사회이다.

주체사상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에 대한 이러한 해명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전략적목표를 뚜렷이 밝혔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략적목표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는것이며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온갖 계급적차이를 소멸하고 계급이 페절된 사회,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략적목표에 따라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여 계급페절의 과업을 실현하면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되게 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온갖 계급적차이가 소멸되는것만큼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 가지고 있던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경제적처지에서의 상대적락후성은 극복되고 그들이 모든 면에서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되면 계급이 페절되고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곧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자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목표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가 어떤 사회이며 그 종국적완성을 위한 투쟁목표가 무엇인가 하는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완벽한 해명과 그 완성을 위한 투쟁목적을 밝히는 문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완전하게 해명해주고있으며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공산주의사회의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이며 따라서 그 완성을 위한 전략적목표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 있다는것이 뚜렷이 해명되였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전모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목표를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사소한 곡절과 편향도 없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으로 되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는 또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과 전술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을 위한 목표가 정확히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점령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옳바른 투쟁 전략과 전술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위업도 수행할수 없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 정확히 제시되여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옳바른 투쟁방도를 가지고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계급을 폐절하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옳게 밝히는 문제는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였지만 지난 시기에는 사회발전을 주로 생산방식의 교체의 력사로 보았던 관계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옳바른 전략적로선을 내놓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정확한 투쟁방도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키지 못하였으며 결국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를마저 말아먹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전략과 전술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뚜렷이 밝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적로선을 밝혔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발전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다. 3대혁명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의 근원인 농민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차이를 낳는 실제적기초들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근본방도로 되며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적 기치로 된다.

사회주의에 대한 지도관리방법을 옳바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정확한 지도관리방법이 확립되고 구현되여야 사회주의를 그 본성적요구대로 발전완성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의 태내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모든 착취계급사회는 낡은 사회의 태내에서 발생하고 자라나지만 사회주의는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이기때문에 자본주의의 태내에서 자라날수 없으며 그것을 매장해버린 토대우에서 새롭게 출현하여 발전한다. 여기로부터 모든 착취사회는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방법에서 본질적차이를 가지지 않지만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적관리운영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자기의 고유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되여야 한다. 만일 사회주의에 대한 지도관리를 자본주의적방법으로 한다면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결국 자본주의복귀의 위험을 면할수 없게 된다.

지도관리문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해결할데 대한 문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주체의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과 새로운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창시됨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새로운 공산주의적대중령도사상과 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조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끊임없이 공고발전하고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혁명적군중로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주체의 령도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만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무기로 된다.

이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뚜렷이 밝히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으로 된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집대성되여있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틀어쥐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290페지)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과업을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였다.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한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3대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3대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자라나고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대가정으로 굳게 결속되여있다. 그리고 주체의 자립경제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적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는 3대혁명로선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다그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은 우리 식 사회주의에 맞는 독특한 관리운영방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왔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이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와 군중로선이 밀접히 결합되고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함으로써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한 생명선이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 높은 단계를 실현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한편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철저히 보장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 위대한 현실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틀어쥐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되고 찬란한 공산주의현실이 펼쳐지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령도밑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개조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능력을 높여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도 사람이며 사회적관계를 개선하는것도 사람인것만큼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완성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인간개조사업이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사상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주체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한편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사회개조사업을 다그쳐 사회관계를 공산주의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정치생활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사회주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적사회관계로 부단히 완성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자연개조사업을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대중의 사회주의물질생활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는것만큼 정치사상적면에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가 기본적으로 이룩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제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이면 물질적면에서도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구현해나가고있는 한 가장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어떤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좌절되지 않을것이며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완성되여나갈것이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높이 들고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의 기본

양 태 용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전력사적과정에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수령은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인민대중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될수 있으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결속된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 사이의 관계는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수령, 당, 대중이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루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가장 공고하게 실현할수 있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에서 기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에서 기본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입니다.》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한다는것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며 당과 수령을 정치적생명의 은인으로, 어버이로 생각하면서 당과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편단심 자기 수령, 자기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가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풍모와 자질에서 기본을 이룬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에서 기본을 이룬다는것은 충성과 효성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며 그것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바탕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상정신상태로 표현되는 여러가지 풍모를 지니게 되며 정치실무적인 능력이나 수완으로 나타나는 자질을 체현하게 된다.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여러가지 풍모와 자질 가운데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투쟁과 생활, 사업과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여의 풍모와 자질의 형성과 발양을 규제하는 풍모와 자질이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에서 핵을 이루며 그 형성발전에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떠나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풍모와 자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간부들과 당원들이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이 종합적으로 체현되여있으며 집중적

으로 반영되여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의 형성발전과 발양의 기본방향과 높이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풍모와 자질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무엇보다도 간부들과 당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정치사상적풍모를 지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사람들의 품격의 높이를 가늠하는 척도로 되며 정치사상적풍모를 규제하는 기초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지닌 사람이라야 완성된 품격을 갖춘 참다운 혁명가,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근본바탕으로 하여 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인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형성되며 불굴의 혁명정신이 발휘된다.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끝없는 헌신성과 희생성,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도 충성과 효성에 기초하고있으며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나가는 철석같은 신념도 충성과 효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또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비롯한 공산주의적도덕풍모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기초할 때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높은 자질을 지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 높은 문화적소양과 풍부한 정서,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자질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이러한 자질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근본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고 발양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올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과 당의 령도예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구현하게 된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실력있는 일군이 되려는 각오와 결심도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겠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생겨나고 실현된다. 혁명적전개력과 능숙한 조직적수완, 높은 문화적소양과 풍부한 정서를 비롯한 자질들도 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기초할 때 더 잘 체득되고 형성될수 있으며 높이 발양될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모든 풍모와 자질의 형성과 공고발전에서 규제적 역할을 하는 기본핵으로 되며 그것을 높이 발양시켜주는 기초로, 근본바탕으로 된다.

이 모든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지녀야 열렬한 혁명가가 될수 있고 실력있는 일군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의 기본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여야 자기 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옹호보위할수 있으며 자기자신을 지켜낼수 있다.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것은 곧 혁명을 보위하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지키며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사수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력사적으로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기여들었던 배신자, 음모가들은 당과 혁명의 령도권을 탈취하려는 야심으로부터 수령과 그 후계자의 결정적역할을 거부하고 그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자기의 수령을 옹호보위하지 못하여 곡절과 시련을 겪고 가슴아픈 희생과 좌절을 당한 실례가 적지 않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오늘의 실태는 당과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옹호보위하는 사업이야말로 혁명을 보위하기 위한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는것을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 온갖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당과 수령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추호의 타협이나 사소한 양보도 모르는 견결한 투사가 되는 여기에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지 못하면 당과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게 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잃어버리게 된다. 당과 수령의 혁명업적에 대한 태도는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척도로 된다.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수령, 자기 당이 이룩하여놓은 업적을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충신이며 지극한 효자이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과 고귀한 령도업적을 고수하는것을 당과 혁명을 보위하기 위한 중대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의 하나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 말은 적게 해도 언제나 깨끗한 당적량심과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수령이 의도하고 당이 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사람이라야 사상적으로 순결한 일군이라고 볼수 있으며 충신과 효자로서의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체질화한 참다운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은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의 마땅한 도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진정으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보장하여드리자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어드려야 한다.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당이 결심하는 문제를 제때에 실현하여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과 효성의 집중적인 발현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수령의 구상과 당의 결심을 철저히 실현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 여기에 진짜배기충신의 숭고한 풍모가 있으며 지극한 효자의 참다운 영예와 보람이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기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길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데 있다. 당과 수령이 맡겨준 사업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수준이나 능력에 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립장과 태도에 관한 문제로 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높이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높은 일군들에게서는 조건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되는대로 적당히 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충성심이 높고 효성이 지극한 일군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당의 의도대로 잘해나가기 위하여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고 뛰고 또 뛰면서 아글타글 애쓰게 되며 무슨 일이든지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해나가게 된다. 대담한 구상과 기발한 착상을 하고 왕성한 사업의욕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투신하면서 자기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일군들은 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무런 창발성도 없이 시키는 일이나 마지 못해하며 웃사람들의 눈치와 아래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리지킴이나 하고 현상유지나 하려는 그릇된 사업태도를 가지고서는 당과 수령께 진정으로 충성과 효성을 다할수 없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언제나 자만과 만족을 몰라야 하며 무슨 일이나 다하지 못한것으로 여기고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 것이며 당적량심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와 집단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일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하며 자기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　　*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이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혁명적의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의 심장은 언제나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충성과 효성으로 불타야 하며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생사운명을 같이할 철석같은 신념과 각오로 높뛰여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지로 간직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신을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일반적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도와 효성의 높이는 신념의 확고성과 의리의 숭고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혁명가의 고유한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로 체질화되자면 신념으로 간직되고 의리로

체현되여야 한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각오와 결심이다.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인것만큼 혁명적신념은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설 때 가지게 된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충성과 효성만이 신념화된 충실성, 의지적인 충성과 효성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그들이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신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적신념으로 되는 동시에 도덕적의리로 되여야 진실하고 열렬한것으로 될수 있다. 도덕적의리는 량심에 기초하여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깨끗한 마음이다.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대중 사이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충성의 의리가 있을뿐이다.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는것이 자식들의 마땅한 도리인것처럼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은인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우러러 받들며 영원히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고 받든다는것은 자그마한 허식과 가식도 없이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한다는것을 말한다.

원래 충성과 효성의 높이와 숭고성은 그 진실성과 공고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당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자면 충성과 효성이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공고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따르는 우리의 충성심은 결코 추종심이 아니다.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지니고있는 사회정치적생명의 근본요구로부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 중심인 수령을 스스로 따르는 충성과 효성은 강요로 쫓아가는 추종심과 같을수는 도저히 없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을 모시는데서는 그 어떤 명예나 공명을 바라거나 사심이 있어서는 안되며 언제나 정직하고 량심적이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드는가 하는것은 충신과 간신, 효자와 불효자를 가르는 기준이다. 충신의 입은 그의 마음에 있고 간신의 마음은 그의 입에 있다. 충신과 효자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어나간다. 그러나 간신과 불효자는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탄할 때에는 당과 수령을 따라나서지만 형세가 불리할 때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다. 당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 충성과 효성의 마음은 언제나 순결하고 진실하여야 하며 변심을 모르는 영원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기 위한 사업은 혁명의 령도자의 신변안전과 만년장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

자기 수령, 자기 지도자의 만수무강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최고의 념원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자기 수령, 자기 지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데 바로 충신의 행복이 있고 효자의 기쁨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무강하셔야 우리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번

영,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수령의 신변안전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며 령도자의 건강과 장수에 가장 유익한 조건과 최상의 편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당을 받들고 수령을 모시는 사업에서는 자그마한 빈틈이나 실수도 있을수 없으며 모든것이 철저하고 완전무결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신을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준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인생관화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인생관으로 되여야 더욱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투쟁의 보람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였으며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바로 여기에 인생관의 근본핵도 있으며 삶의 참된 가치도, 행복의 척도도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른다고 해서 삶인것도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걷는다고 해서 삶인것도 아니다. 심장은 멎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뜻에 살고 피는 식어도 당의 영원한 기억속에 사는것이 참된 삶이다. 백년을 살고 천년을 산다고 영생하는 삶이 아니라 순간을 살아도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며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오래 사는것이야말로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인것이다.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길에 사회정치적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는 보람찬 삶이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인생관을 튼튼히 세움으로써 그들이 자나깨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먼저 당과 수령을 생각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으로 이어나가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신을 참다운 충신, 효자로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당과 인민, 수령과 전사들 사이의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은 우리 혁명을 떠밀어나가는 위력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충실성의 전통과 모범이 창조되고 계승되여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의 전형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혈전의 길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셔야 혁명이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어버이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뜨거운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였으며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과 효성을 다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이 간직하였던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충실성이란 어떤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발휘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빛나는 모범이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창조되고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높이 발휘된 충성과 효성의 빛나는 모범은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나날 영웅적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불타는 고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맹세문을 올리고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사수한 영웅전사들과 불비속을 헤치고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로동계급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전후복구건설은 념려마시라고 절절히 말씀올리고 그날의 맹세를 지켜싸운 락원의 10명 당원들도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였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섰던 어려운 시기에 강철증산으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한 강선의 로동계급과 위대한 수령님

만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당과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옹호보위한 충직한 우리 인민이 또한 그러하였다.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모두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드는 하나의 흐름에 충성의 마음을 합치고있다. 그리하여 항일혁명의 로투사들도,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전사들도 다같이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옹호보위하고 받드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있으며 로동당시대에 태여난 새 세대들도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자기 령도자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있다.

참으로 그것은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과의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참다운 관계를 보여준 빛나는 모범이였으며 혁명승리의 사상정신적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증한 자랑찬 력사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믿음을 의리로 받들고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고있으며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혁명하려는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과 온갖 원쑤들의 반혁명적모략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오늘과 같은 환경속에서도 한민족의 운명, 혁명의 승패는 전적으로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기고 영원히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로 나아갈 신념을 굳게 다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의 한 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올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마음으로 일관되여있는 편지에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전사들, 인민들이 발휘하였으며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움으로써 모두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에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워나가자면 당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당생활은 당원들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의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생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단련되며 혁명적으로 교양된다.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는 당생활을 통하여 더욱 굳게 다져지게 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도 당생활을 통하여 키워지고 공고화된다. 그러므로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조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수양하여야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가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워야 한다.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고 철석같은 신념이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가 됨으로써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긍정감화교양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방법

박 수 영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속에서는 지금 당과 수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숭고한 긍정적모범과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사회의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인테리들, 청년학생들과 인민군군인들 할것없이 각계각층 근로자들속에서 긍정적모범과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그처럼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공산주의적인간개조를 위한 사상교양사업, 특히 긍정적모범으로 부정을 감화시키는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온데 있다.

긍정감화교양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조된것으로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독특한 교양방법이다.

현실은 긍정감화교양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방법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교양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에 맞게 긍정감화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어떻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원칙적문제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와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바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에 쉽게 물들게 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롱락되여 반사회주의적책동에 깊이 말려들어가게 된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바로잡으며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의 내용, 형식과 함께 그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사상교양방법은 대중교양사업의 위력을 발휘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며 따라서 그 방법이 어떤것으로 되는가에 따라 대중교양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긍정감화교양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방법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긍정적모범으로 부정을 감화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대중교양의 기본방법입니다. 긍정은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으며 그자체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되기때문에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위력한 방법으로 됩니다.》

긍정감화교양이란 군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정적인것을 극복해나가도록 하는 위력한 방법이다.

긍정감화교양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방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상의식개조에서 긍정적모범이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인간개조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데서는 긍정감화교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은 그 어떤 강요나 행정적방법으로는 개조할수 없다. 강제적이고 행정적인 방법은 오히려 사상개조에서 역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다. 사상적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교양방법에 의해서만 사람들의 사상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인간개조사업을 그 어떤 강제적방법이나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사상정신적풍모형성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상한 공산주의적 사상의식과 풍모를 그들자신의 자각적인 노력과 의지에 기초하여 점차적으로 체득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법이다.

긍정적모범은 그자체가 부정적인것, 낡은 사상병집과 그릇된 행동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비판으로 된다. 긍정적모범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릇되고 저렬한 사상감정과 활동방식을 새것, 공산주의적인것과 대비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저주와 환멸을 느끼게 하며 그것을 고쳐나가려는 강렬한 지향심을 간직하게 한다.

긍정적인 모범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될뿐아니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를 가르쳐준다.

고상한 공산주의적행동, 긍정적모범은 새것, 진보적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적모범을 가르쳐주며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방도를 제시해주는것으로 된다. 긍정적모범을 거울로 삼고 그것을 따라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상정신생활과 풍모, 활동방식을 점차적으로 고상하고 혁명적인것으로 개조해나가게 된다.

이 모든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에서 긍정적모범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긍정감화교양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긍정적인것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방법이라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긍정을 지향하고있으며 부정을 없애고 긍정을 창조할수 있

는 힘을 가지고있다.

인류력사에서 모든 새롭고 진보적이며 긍정적인것은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제기되고 창조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사회의 진보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착취사회에서 새롭고 긍정적인것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그것을 창조할수 있는 인민대중의 능력은 착취계급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며 따라서 그것은 제대로 발양되지 못한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에 의하여 조작되고 옹호되는 반동적이며 부정적인것이 지배하게 된다. 온갖 부정의가 정당화되고 추악한것이 찬미되며 반동적인것이 판을 치는것이 자본주의사회를 비롯한 모든 착취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부정적인것이 지배하는 착취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는 긍정적인것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새롭고 진보적인것, 아름답고 고상한것, 긍정적인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적요구가 꽃펴나고 지배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속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된다. 그리고 사람들속에서 발양되는 긍정적모범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것으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게 된다.

대중속에서 새롭고 긍정적인것이 창조되고 일반화되며 그것에 의하여 부정적인것이 극복되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긍정감화교양은 긍정적인것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대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인 모범을 내세우고 일반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으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긍정감화교양은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대중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긍정감화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한 점에서 전형을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세련된 령도방법으로 긍정적모범의 새싹들을 키우고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도록 이끌어왔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긍정적모범을 따라배우는 대중운동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왔으며 이 과정에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은 넓은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긍정감화교양사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우는것을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내세우고 그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전당적, 전사회적 범위에서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긍정감화교양의 위력은 그것이 내세우고있는 긍정적모범이 어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긍정감화교양방법은 그가 내세우고있는 모범이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하여 사

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따라배우도록 자극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자면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그 전형적모범으로 감화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배출된 숨은 영웅들을 전형적인 모범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그들의 높이에로 끌어올리도록 하시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 혁명의 령도자를 견결히 옹호보위한 불굴의 전사의 귀감이며 오늘의 숨은 영웅들은 혁명선렬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시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러한 참다운 혁명가들을 따라배우도록 하신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준엄한 역경속에서나 순탄한 환경속에서도 사소한 흔들림이 없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아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혁명적구호들을 제시하고 항일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고결한 정신세계와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당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참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사업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조직화되고 적극화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긍정감화교양방침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적선전선동수단들을 활용하여 긍정적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치사상적수준과 예술성이 높은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보급하며 특히 영화실효투쟁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전개하도록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영화의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배워 자신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긍정감화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긍정이 긍정을 낳고 영웅이 영웅을 낳으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기풍이 차넘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있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일편단심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는데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지침이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설계도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의 사상의지가 자신들의 행복과 혁명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절대적진리이고 유일한 지침이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복

잡한 환경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은 지금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혁명적의지는 정세와 환경이 변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억센 신념으로 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지만 끄떡하지 않고 오직 당과 숨결을 같이하며 혁명적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는것은 당의 의도를 받드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의 숭고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느 초소에서 어떤 임무를 맡아 수행하든지 개인의 출세나 명예,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나가는 숨은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미풍과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 용약 떨쳐나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이 부르면 물과 불속이라도 뚫고나가는 뜨거운 열정과 용맹을 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든 대건설장, 수천척 지하막장에 진출하고있다.

함흥성천강피복공장 1직장 7작업반의 19명의 처녀들과 조선인민군 김봉현동무소속부대 20명의 새 세대 녀성당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새로운 규모로 거창하게 일떠서는 대흥광업종합기업소에 자진하여 집단진출하고 남포혁명학원 졸업학년 115명의 학생전원과 5명의 교원들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통일거리 건설장에 집단진출한데 이어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검덕에 달려가 청춘의 리상을 꽃피우고있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또한 혁명적동지애, 고상한 인간애를 지니고 혁명동지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모범이 창조되고 널리 일반화되고있다.

혁명동지를 당의 구상을 받드는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귀중한 전우로, 친근한 형제로 여기며 동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미풍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디에서나 자기보다 혁명동지를 먼저 생각하고 동지를 위해서는 자기의 피와 살도 나누며 귀중한 생명까지 바치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소행들이 련이어 꽃펴나고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소대전사들을 죽음의 위험속에서 구원하고 최후를 마친 공화국영웅 김광철소대장과 위험에 처한 자기의 지휘관인 소대장을 한몸바쳐 구원하고 꽃다운 청춘을 마친 조선인민군 상등병 리정철동무, 영예군인의 두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보살펴주고있는 안변군의 김명숙동무와 청진시의 박기천동무를 비롯하여 우리의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영웅적소행은 당과 수령에게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의 의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가려는 하나의 뜻으로 동지적으로 결합되여있는 우리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긍정적인 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

계조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긍정감화교양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긍정감화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과 의도를 똑똑히 알고 대중속에서 긍정감화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긍정감화교양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여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것이다.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여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긍정감화교양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이다. 긍정감화교양사업은 대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그것은 긍정적모범이 대중속에서 끊임없이 창조되면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긍정적인 모범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창조되며 사람들은 자기의 아름다운 소행을 잘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긍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모범이라고 하더라도 파묻히게 된다. 긍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고 평가해주며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제때에 따라배울수 있으며 사람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숨은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 난관앞에 두려움을 모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혁신자들, 나라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 애국자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적극 일반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야 하며 생산현장에 내려가 긍정적모범을 찾아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긍정적모범을 찾아낼뿐아니라 긍정적모범을 창조하는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하며 대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적극 선전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당 단위의 실정과 준비정도에 맞게 잘 짜고들어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또한 긍정감화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본받게 하는 중요한 목적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하려는데 있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과 공로자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몸 단단히 하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긍정감화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일군들의 혁명적본분이며 기본임무

김 경 준

사람과의 사업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당을 강화하고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 시기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시종일관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 당은 최근에 또다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모든 당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한층더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자기의 혁명적본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 *

사람과의 사업은 당일군의 본분이며 기본임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은 정치적령도자인것만큼 철두철미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당일군의 본분이며 기본임무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이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이다.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명실공히 당일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이 당일군의 본분이며 기본임무로 되는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당일군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정치활동가이다. 당일군은 사람을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한다.

당일군의 사업대상은 설비나 자재가 아니라 사람이며 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그들의 정치활동의 기본내용으로 된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고 묶어세우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을 떠나서 당일군의 역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일군에게 지워진 직분이며 그들이 맡아 수행하여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당일군은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당사업에 구현해나가는 직접적담당자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물질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이다.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의 근본원리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이다.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이 근본원리에 기초함으로써 당사업을 철저

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의 이러한 요구는 당일군들에 의하여 관철된다. 당일군들은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관철해나가는 우리 당의 핵심들이다. 당일군들의 당사업실천을 떠나서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이 관철될수 없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발휘될수 없다. 당일군들이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의 요구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갈 때라야만 그것은 당사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은 당일군에게 있어서 당사업이란 다름아닌 사람과의 사업이며 그것을 떠난 당일군의 본분과 임무를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사람과의 사업이 당일군의 본분이며 기본임무로 되는것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와 관련된다.

당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이다.

당의 정치적령도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때 빛나게 실현된다. 당의 정치적령도의 본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있다. 정치적령도자인 당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떠나서 당사업자체가 이루어질수 없고 당활동이 진행될수 없다. 그런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은 정치적령도자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이러한 본성적요구는 당일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구현된다. 다시말하여 당일군들의 당사업실천을 통하여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성격이 고수되고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가 실현된다. 당일군들이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대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고 행정을 대행하거나 경제실무사업에 매달리게 되면 당자체의 본성과 어긋나게 당사업이 전개될수 있고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의 기능과 역할이 마비될수 있다. 당일군이 참말로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수미일관하게 벌려나가야 로동계급의 당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에 맞게 활동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을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것을 자기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삼는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이러한 방식은 당일군들에 의하여 구현된다. 참다운 정치일군이며 대중의 교양자인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의식화한다. 당일군들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의식화할뿐아니라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때라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 혁명대오를 수령과 인민, 당과 대중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게 할수 있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때 당의 정치실현의 사회계급적지반이 공고화되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다시말하여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일군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은 참으로 그의 사회적지위로 보나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로 보나 혁명적본분으로 되며 기본임무로 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자기의 본분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당사업실천에 구현하시여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규정하시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히시고 모든 당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비롯한 모든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과 사상적각오가 비상히 높아진 현실적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와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당일군들로 하여금 사람과의 사업에서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모든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과 임무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람과의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올바로 진행됨으로써 온 사회는 인민들의 활기와 희망으로 넘치게 되고 우리 나라는 당과 수령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르며 흠모하는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람과의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것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인민대중의 의식성과 자각성은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인민대중의 의식성과 자각성이 높아질수록 그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은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의하여 담보되며 따라서 그것은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과 임무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일을 홀시하고 행정경제사업에만 매여달린다면 당사업은 자연히 행정화, 관료화되게 되여 군중을 당으로부터 리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당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수 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특히 오늘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과 함께 정치사상생활에서 표현된다. 인민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칠 때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과시되고 그 위력은 막강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우리 당일군들은 자기의 본분과 임무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사람, 군중에 대한 주체적관점을 가지는것이다.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며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관점이다.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은 사람, 군중을 대하는 당일군들의 립장과 태도를 규정한다. 당일군들이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을 확고히 가질 때라야만 군중을 선생으로 보고 존경하게 되며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게 된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사람,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체적관점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가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당일군들이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아래에 내려가 사람들을 정확히 료해하고 그에 맞게 사업하는것이다.

사람에 대한 료해는 사람과의 사업의 출발점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을 알고 그들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들을 정확히 료해하기 위한 좋은 방도는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접촉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사람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성격, 취미가 어떠하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힌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그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해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말려들지 말고 모든 사업을 철저히 정치사업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것은 당사업의 기본이다. 정치사업을 잘해야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정치사업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를 받고 결정서나 내려보내며 자재나 나누어주는것과 같은 행정식사업방법에 매달리게 되면 당사업도 잘 안되고 행정경제사업도 제대로 될수 없다. 당일군들이 정치사업방법으로 당사업을 벌려나가야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있다. 삼석구역안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사업실태는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구역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인 장수원협동농장과 평양시피복총국 삼석옷공장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방침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여기에 복종시켜나감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맡겨진 경제과업을 언제나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방법에서 로숙하고 작풍에서 소탈하고 겸손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당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당일군들은 우선 방법에서 로숙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기된 문제 처리에서 로숙성과 신중성을 기해야 하는것은 특히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당일군들이 사업에서 신중성이 없이 제기된 문제를 즉흥적으로 처리해버리게 되면 당일군의 권위를 세울수 없고 일을 망칠수 있다.

당일군은 사업에서 언제나 신중할뿐아니라 작풍에서 또한 원만하여야 한다. 당일군이 작풍에서 원만하지 못하고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고 까다로우면 사람들이 당일군을 멀리하고 곁을 주지 않게 된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으로 군중을 대하며 사람들의 가슴에 품고있는 남모를 고충과 말 못할 사연도 남먼저 헤아려보고 풀어주는 다심한 어머니의 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려면 자기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이 얼마나 실속있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맡아하는 일군들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인 사업 방법과 작풍, 수완과 능력 등은 당일군들의 준비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한다. 머리에 든것이 없고 정치사상적수준이 낮게 되면 사업 방법과 작풍이 거칠어질수 있고 사람과의 사업에서 묘술과 방법론을 찾아낼수 없다. 당일군들이 준비정도가 어리면 사람과의 사업을 로숙하고 수완있게 해나가지 못하고 직위나 간판을 가지고 하려는 그릇된 경향이 나올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일군들은 자기의 정치사상적수준과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당일군들에게 지워진 책임은 무거우며 우리 당일군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크다. 모든 당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들이 제기된 혁명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당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요구

로　배　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고 나라가 분렬되여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는것은 중요하게는 우리 당이 각계각층 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왔기때문이다.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집요한 반항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낡은 착취제도를 혁명적으로 청산하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치렬한 계급투쟁과 심각한 사회적변혁, 거창한 창조를 동반하는 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담보는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준비하는데 있다.

혁명의 주체는 사회주의를 위한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힘있는 추동력이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의 주체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것은 다름아닌 혁명의 주체이다.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해나갈수도 없으며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하지만 주되는 힘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넣어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그것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튼튼히 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려면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은 당사업에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만 우리는 불패의 힘을 가질수 있으며 어떠한 원쑤도 능히 타승하고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운다는것은 당이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 사업을 심화시켜 당과 인민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각계각층 군중은 오직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룸으로써만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된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 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은 다름아닌 각계각층의 군중으로 이루어져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각계각층 군중은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계급과 계층들로 이루어져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실현에 직접 이바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로 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등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들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혁명의 주체에 망라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각계각층 군중이 저절로 혁명의 주체를 이루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집단이다.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려면 그들을 철저히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한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는것은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각계각층의 군중이다.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군중만이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주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군중은 개별적사람들의 힘을 산수적으로 합친것과는 대비도 할수 없이 질적으로 구별되는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 각계각층 군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준비시키는 사업은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은 그들을 고도로 의식화하는 과정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혁명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나가는 과정이다. 하나의 혁명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한 군중은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칠수 없다. 광범한 군중은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치는 과정에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확고히 무장하게 되며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되게 된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은 그들을 의식화할뿐아니라 고도로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지 못한 군중은 혁명의 주체가 될수 없으며 사회력사발전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 광범한 군중은 당의 두리에 뭉치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게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곧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이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중추를 이룬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떠나서

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려면 그 중추를 이루고있는 당부터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당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있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은 당을 튼튼한 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은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다. 군중을 떠난 로동계급의 당이란 있을수 없으며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군중은 당의 생명의 뿌리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군중을 굳게 묶어세워야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고나갈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로동계급의 당이 각계각층 군중을 자기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지 못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심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이 이처럼 중요하기때문에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당의 지반을 튼튼히 다지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확고히 보장해야 하는것이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당대렬을 확대하고 그 질적구성을 개선하여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당대렬을 량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공고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강화된다.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그 질적공고화를 떠나서는 당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대렬을 확대하고 그 질적구성을 개선하려면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군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조직적으로 단련시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 혁명적핵심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낼수 있다. 당은 바로 이렇게 키워진 혁명의 정수분자들을 받아들여 자기 대렬을 량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공고화해나간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은 이처럼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군중을 자기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언제나 커다란 힘을 넣음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조국의 분렬 그리고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된 조건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진두에 서시여 우리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에 의거하여 두 단계의 사회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도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것을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총적방향으로 규정하시고 군중과의 사업을 계급계층별 특성에 맞게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높은 요구에 맞게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각계각층의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써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뿐아니라 인테리, 청년학생 등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기에 오늘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와 반공화국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문천군당위원회에서도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혁명대오를 강화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문천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군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문천군에 현대적인 공업이 집중적으로 일떠서고 교통망이 매우 발달되였으며 발전된 농촌경리와 수산업도 갖추어져있다. 군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도 빨리 늘어났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 각계각층의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매우 의의가 크고 책임적인 사업으로 나섰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군안의 주민구성이 복잡하고 그들의 준비정도도 서로 다른것을 고려하여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면서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왔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에게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분공을 구체적으로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장악지도하는 사업을 심화시키였다.

인간개조사업은 뒤떨어진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박힌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 어려운 사업인것만큼 한두번 만나서 강조하는것으로써는 결코 해결될수 없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자면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품을 많이 들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에게 개별교양분공을 줄 때마다 분공수행에 필요한 자

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비롯한 회의들을 진행할 때에는 일군들로부터 개별교양정형을 먼저 보고받고 기본문제를 토의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교양대상자가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교양을 맡은 일군들도 당적으로 책임지게 하였으며 일군들이 개별교양분공을 수행하였다고 할 때에는 해당 단위의 당비서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조직사업과 장악지도사업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행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각계각층의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이 군적인 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졌으며 실천에서 그 은이 점차 나타나게 되였다.

당의 의도에 맞게 군중교양사업을 심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당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데 있다. 당책임일군들이 이신작칙하여야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을 군중교양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복잡한 군중에게 보다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우리 군에서는 군당책임일군들이 언제나 교양개조하기 가장 힘든 대상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을 뜨거운 인간애로 대해주면서 맺혀있는 문제들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풀어주도록 하였다. 우리는 믿음은 충신을 낳는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곡절많은 한 인테리의 정치적생명과 관련한 심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니기도 하고 그에게 어려운 과업도 맡기여 나중에는 조선로동당원으로, 숨은 공로자로 키워낼수 있었다. 당책임일군들은 본인의 현재의 사업과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여 복잡한 군중에게도 기술과 소질에 따라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었으며 그들이 공로를 세웠을 때에는 적극 내세워주었다. 우리는 청년들과 학생들 속에서는 개별교양과 집체교양을 결합시키고 긍정적모범으로 감화교양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아무리 교양개조하기 힘든 대상이라도 품을 들이면 반드시 그를 어끌고나갈수 있는 묘술과 방법론을 찾을수 있고 그것을 지혜대로 삼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어김없이 큰 은을 내게 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체득하였으며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일군에게 교양개조하지 못할 대상이란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확신할수 있었다.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이 심화된 결과 오늘 우리 군에서는 로동자, 농민들은 물론 인테리들과 청년학생들도 다같이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한마음을 안고 맡은 혁명과업 수행에 전심전력하고있으며 복잡한 군중들도 교양개조되여 로력혁신자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일군으로 자라나고있다. 인간개조사업에서 이처럼 성과가 이룩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경제문화건설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우리 군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군중사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되며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뭉친 우리 사회의 자랑찬 면모에 대한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고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총적방향에 기초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로동계급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농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특히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모두가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며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복잡한 군중은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동력이며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사회까지 같이 가야 할 혁명동지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깜빠니야적으로가 아니라 꾸준하고 실속있게 하여야 하며 방법론을 옳게 세워가면서 그들모두를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근로단체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근로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우리 당은 근로단체조직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로청, 직맹, 농근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당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당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을 가지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선생으로 여기고 그들을 존엄있게 대하는 관점을 가지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군중과의 사업을 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혁명적군중관과 주체의 군중공작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그 요구대로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교양함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당세포비서,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도 다 어머니심정으로 군중을 따뜻이 대해주면서 실속있게 교양하도록 이끌고나가야 한다.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기에 오늘 우리 혁명의 주체는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김 경 완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경제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일떠세운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을 담보하는 물질적기초로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킬 때 그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오늘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자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이며 인민경제를 현대화한다는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민경제를 과학화한다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다는것을 말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방도로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다면성과 종합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이다.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경제구조의 다면성과 종합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다면적이며 종합적인 부문구조를 보장해야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를 건설할수 있다. 경제구조의 다면성과 종합성은 생산력이 빨리 발전하고 공업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는데 따라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한다.

경제의 다면성과 종합성을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적 다면성과 종합성을 자체로 보장하지 않고 그 어떤 경제적통합과 같은 경제기구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경제건설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통합과 같은 경제기구에 의탁한 결과 어떠한 진통을 겪게 되는가 하는것은 오늘 일련의 나라들에서 겪고있는 경제적 파산과 혼란이 뚜렷이 실증해준다.

인민경제의 다면성과 종합성을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는 방도는 바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나라의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끊임없이 늘어나는 자기 나라의 물질적수요를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게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해야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맞게 사회적분업을 심화시키며 자연부원의 리용범위를 더욱 넓힐수 있게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 때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많이 창설하고 이미 마련해놓은 부문구조를 더욱 정비보강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적범위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다면적인 경제구조를 갖출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칠수록 경제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그 다면성과 종합성의 수준을 보다 높여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모든 생산단계들을 훌륭히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순환을 한 나라의 범위에서 완결하는 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내생산을 중심으로 대외적인 경제적련계를 긴밀하게 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기술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민족경제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해야 나라의 경제적자립, 기술적자립을 실현하고 인민생활을 높여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아무리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경제구조와 풍부한 원료, 연료 기지를 마련하여놓았다 하더라도 그 현대화수준이 높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기술적자립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체의 힘,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것이다. 물론 나라들사이에 기술교류를 실현하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술교류를 진행하는 한편 주체적립장에서 기술적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적극 다그칠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일련의 장애를 조성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의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조건에서 자체의 힘에 확고히 의거할 때만이 기술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다. 자체의 힘에 의거할 대신에 제국주의자들의 《기술협조》에 의거하여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려 하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자기 나라 인민의 힘,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기술을 끊임없

이 혁신하고 현대과학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게 한다. 우선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며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하고 그 기술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또한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규모 사회주의경제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 자립적경제체계와 현대화된 물질기술적수단들이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다음으로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려 민족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주체적인 경제이다. 원료와 연료는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요소의 하나인것만큼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원료와 연료를 자체로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제의 자립성, 안정성, 전망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원료와 연료, 동력을 남에게 의존하는것은 결국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다. 오늘 원료, 연료, 동력을 남에게 의존하던 여러 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꾸리고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려면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공업을 처음부터 자기 나라의 원료와 연료, 동력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공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원료와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려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통하여 더욱 원만히 실현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나라의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전면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수입원료와 연료를 쓰는 부문들을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쓰는 부문으로 점차 개편할수 있게 함으로써 원료, 연료 보장의 안전성을 담보해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될수록 경제의 자립성을 담보하는 물질적조건인 원료, 연료, 자재, 동력 문제를 국내원천으로 해결하여 가장 공고한 토대우에서 경제를 안전하고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이 민족경제를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위력한 경제로,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 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로 되게 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게 하는 중요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있던 탄광, 광산들이 개건확장되고 새로운 탄광, 광산들이 대대적으로 개발되였으며 대규모발전소들과 중소규모발전소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공업을 건설하는 원칙에서 공업부문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

설함으로써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문구조도 보다 완비되였다. 특히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근년간 수많은 중요대상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날을 따라 공고화되고있으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생활력은 높이 발양되고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화학공업과 건재공업을 비롯한 기간적공업부문들과 건설, 운수, 체신 부문들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을 보다 능률적인 생산공정, 생산방법으로 개조하고 기업관리에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받아들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처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부문구조의 자립성과 다면성에 있어서나 원료, 연료의 자급률에 있어서 그리고 기술장비수준에 있어서 더욱 위력한 경제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경제로 전변되게 되였다.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경제적락후성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이야말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문제를 자체의 결심에 따라 전망성있게 풀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나갈 때라야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응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불피코 남에게 의존하게 되며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지 못할 때 사회경제생활에 얼마나 큰 파국적후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것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는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를 건설할 대신에 남의 도움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필연코 경제적인 파동과 경제적예속을 가져오게 된다. 지어 몇푼의 딸라에 현혹되여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도 다 줴버리고 제국주의자들이 던져주는 《경제적원조》나 《차관》에 매달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간다면 사회주의경제를 자본주의경제로 전락시키고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롱락당하게 하는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마약과 같은것이며 정치적예속의 발판이다. 지금 어느 나라도 남을 도와주려 하지 않고 또 도와줄 형편이 못되는 조건에서 제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남의 《원조》에 매달린다면 나라와 민족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직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만 누구에게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며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인민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세계적인 원료난, 연료난이 들이닥쳐도 끄떡없이 경

제를 안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현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이 로선을 관철하는 길에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되는것만큼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계속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마련되여있는 조건과 가능성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부문부터 그리고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현대화하면서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야 하며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경영활동을 적극 과학화, 합리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공학을 빨리 발전시키고 농업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초과학부문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인민경제에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며 계량계측제도를 바로세우고 경제계산을 정확히 하며 기업관리에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달라붙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절대적인 신념,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방대한 과업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에서 보장해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식으로 대한다면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에 서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은 일군들이다. 일군들이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을 어렵게만 생각하면서 혁명적으로 달라붙지 않으면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다른 누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관철해야 한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며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적극 이끌어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경제기술적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하며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자신의 정치실무수준과 경제관리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오늘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올바른 민족간부육성방침에 의하여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한 146만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있다. 이 위력한 력량이 자기 능력을 높이 발휘한다면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어떠한 과학기술적문제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우리 나라의 자원과 기술로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특히 항공 및 인공위성에 의한 탐사방법을 비롯한 현대적인 탐사방법들을 개발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채광, 채탄, 선광 기술을 발전시키며 성능높은 채취설비, 동력자원 개발방식을 널리 받아들여 원료와 연료, 동력 생산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없거나 적은 원료, 연료를 대용하여 쓰며 품위낮은 광석과 저열탄을 모조리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생산자들속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기술발명, 기술혁신의 싹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완성시켜 생산에서 은을 낼수 있도록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하며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더 많은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

우리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교육의 질, 특히 기술교육의 질을 높여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해내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할것이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발전의 절실한 요구

김 재 률

올해 우리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필수적요구로 나서지만 거창한 규모에서 대건설전투가 힘있게 진행되고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면 무엇보다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진 지도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경제관리지식을 습득하여 객관적경제법칙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단행본, 14페지)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적로동과정, 사람들의 경제활동과정을 조직지휘하는 능력이다. 다시말하여 경제관리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의 총체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은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을 경제관리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세워주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세워져있고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이 밝혀져있는 조건에서 경제관리에서의 성과여부는 지도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지도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이 높아야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것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는것과 관련하여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원래 사회주의경제는 전사회적규모에서 밀접히 련관되여 움직이는 대규모의 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부터 통일적으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부문들이 끊임없이 창설되고 고정재산이 갱신되며 새로운 지역들이 개발됨으로써 나라의 경제규

모는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규모가 방대하고 높은 장성속도로 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올바로 관리운영하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 지역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며 수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일군들이 높은 경제관리능력을 소유하여야 경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 전자계산기화, 로보트화가 실현되고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전반적생산공정들에서 생산속도가 비상히 높아짐으로써 원료, 연료, 동력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제품의 생산량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이르는 재생산순환의 모든 단계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협동생산과 수송사업을 개선하며 늘어나는 원료, 자재에 대한 사회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더우기 오늘 사회적분업과 협업이 발전함으로써 고도로 정밀한 현대적인 기계제품을 생산하는데 더욱더 많은 생산단위들이 참가하여 협동생산을 진행하게 된다. 이 모든 생산단위들과 고리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협동품을 생산보장해야만 주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갈수 있다. 이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전사회적범위에서나 공장, 기업소적 범위에서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하며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할것을 요구한다.

일군들이 현대과학기술을 깊이 소유할뿐아니라 경제관리지식을 널리 체득하여 계획화사업을 짜고들고 계약을 합리적으로 맺으며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 생산지도를 개선할수록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된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 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다.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증산하고 절약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은을 내게 하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자면 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여야 한다. 물론 내부예비동원의 혁명적방법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는데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투자를 옳게 하고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며 기업관리에서 최량방안을 선택하는것도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을수록 원료, 연료, 동력과 로력, 자금, 자재를 효과있게 리용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야 역수송, 반복수송을 없애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앰으로써 제품의 원가를 저하하고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일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인민경제의 선행

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여야 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의 의도대로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때 전반적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과 10월9일강철종합공장 건설, 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을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생활을 짧은 기간에 한계단 더 높이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을 늘이는 한편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며 특히 평양시에서 통일거리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생산지휘를 짜고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더욱 높일 때만이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일군들이 아무리 열성이 높다 하더라도 경제관리운영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경제를 관리하게 되며 경영활동을 잘못하여 본의아니게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첫 시기부터 경제지도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것을 옳바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주체의 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지도와 기업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4페지)

지도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식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 우리 식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인 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이며 사회주의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가장 혁명적인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식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여야 당과 혁명의 요구, 객관적 경제법칙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며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온갖 낡은 경제관리잔재를 극복하고 경제관리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

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하며 비할바없이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우리 당이 창조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 체계와 방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자기것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할 때 남의것을 넘겨다보게 된다. 오늘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는 우리 당이 창조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 체계와 방법외에 다른것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식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론을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딪치게 되는 경제적 현상과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경제적 현상과 과정을 옳게 처리하자면 일군들이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론을 소유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계획을 틀어쥐고 계산과 분석을 잘하며 타산을 바로 하는것이다.

계획, 계산, 분석에서는 설비와 자재, 로력, 자금과 같은 재생산요소들의 현실태와 그 발전전망을 옳게 타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가지 기술경제적 대책과 방안들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것을 채택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 계산, 분석에 대한 옳은 립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단 세운 계획은 끝까지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기초하여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며 계획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특히 경제활동과정에 생길수 있는 불균형지표들을 없애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워 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시초계산을 비롯한 모든 계산을 깐지게 하여 경영활동의 결과와 그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해부학적으로 고찰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활동분석을 잘하여 경영활동결과에 따라 생기는 손익을 옳게 밝히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줄수 있도록 기업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계획을 바로세우고 계산과 분석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일군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영활동에서 경제적공간을 능숙하게 리용할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 있게 되는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수익성, 로동보수제와 같은 경제범주들을 사회주의경제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옳게 리용하는것은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해야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 지도를 실현하여 관리운영을 과학화, 합리화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고 낡은 사상 잔재를 빨리 없애도록 자극하고 통제함으로써 경제관리를 개선할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함으로써 경제관리를 짜고들수 있게 한다.

경제적공간을 리용하는 사업은 경제

법칙과 경제범주들을 경제관리실천에 구현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일군들이 자질과 능력이 높아야 원가와 가격을 낮추고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이며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적용하는것과 같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제때에 옳바로 수행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하려고 하여도 정치리론수준과 경제실무능력이 낮으면 그것을 옳게 적용할수 없으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바로세워나갈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거창한 규모로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 일군들이 경제적공간들의 리용수준을 높일수록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물형태와 함께 가치형태에 의한 원료, 자재 및 로력 지출에 대한 엄격한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여 생산요소들을 절약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관리운영수준을 더욱 높여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고 원료, 자재, 로력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생산의 요소별 원가계산과 같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지금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잘 알고 그것을 옳바로 실천에 옮기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는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과정을 조직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적은 지출로 보다 큰 경제적성과를 이룩하며 같은 밑천으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도록 사람들을 조직지휘하는것이 경제관리인것이다. 그런것만큼 경제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묘술과 방법을 찾아내며 그것을 생산실천에 옳게 구현해나갈때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지출과 그 결과에 얻어진 생산물의 량적관계를 옳게 따지고 평가하는것이다. 계획보다 생산을 많이 한 경우에도 원료, 연료, 자재, 로력을 더 쓰면서 생산한것인지 아니면 지출을 적게 하면서 더 많이 생산한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에 대한 총화평가사업을 옳바로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튼튼히 축성되고 그 생산잠재력이 비할바없이 큰 조건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묘술과 방법을 옳게 찾아내고 그것을 제때에 실천해나간다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다.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해나가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해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를 찾아내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지난 기간 우리 림업부문에서는 일군들속에서 경제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림업부적으로 매달, 매 분기 국가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경험은 일군들이 경제실무수준이 높을 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도를 더욱 개선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학습을 꾸준히 하는것이다.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경제실무적자질은 피타는 노력과 탐구의 결과에 얻어지는 고귀한 열매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정치실무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과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능숙히 해나갈수 있다.

학습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학습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학습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하여 그에 완전히 정통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을 고수하며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실무학습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여기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책임일군들자신이 당정책과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며 높은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 능력을 소유할뿐아니라 아래일군들을 잘 이끌어주는것이다. 웃단위일군들과 책임일군들은 아래일군에게 깊은 리론적지식, 과학기술지식을 배워주는것과 함께 실무능력, 당면한 생산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 묘술과 방법을 가르쳐주어 그들이 어떤 정황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문, 단위별로 방식상학, 실무학습, 기술강습, 기술기능전습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아래단위일군들의 경제실무적자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직능에 맞게 책임적으로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직능을 잘 만들고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방침이며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매개 단위와 부서, 직제에 따르는 직능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모든 일군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게 된다.

직능의 요구대로 일하자면 일군들이 현실을 깊이 료해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할뿐아니라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머리를 쓰면서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그러므로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직능을 잘 만들며 그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업하며 총화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단위, 모든 일군들이 자기 맡은 과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일상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생산자대중은 생산과 기술의 주인일뿐아니라 관리의 주인이다. 생산과정과 그 발전전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것은 생산자대중이다.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합심하며 그들을 옳게 계발시킬때 책상머리에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합리적인 경제관리방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경제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해야 할것이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박 운 헌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로동법령 발포 4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6년 6월 24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8시간로동제와 정확한 임금제도 및 사회보험제를 규제한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을 발포하시여 로동생활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로동법령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적강제로동에서 해방되여 나라와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성실한 로동을 민주국가건설에 마음껏 바칠수 있었으며 인류가 오랜 세월을 두고 념원하여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새 시대를 힘있게 앞당겨나갈수 있었다.

로동법령이 실시되여 로동생활의 민주화가 실현된 때로부터 력사는 멀리 전진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하고있으며 로동과 학습과 휴식을 배합하면서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하고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요구에 맞는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빛나는 시대를 맞이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커다란 행복이며 영예이다. 하기에 지금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보람을 안겨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는것이다.

*　　*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은 사람이 자기의 생활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는 자연개조활동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해나가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고있는 사회적존재이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벌리게 된다. 정치생활, 물질생활, 문화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를 이루는 로동생활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요구를 구현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원만히 보장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은 전체 인민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며 누구나 다 일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일하면 다 같은 대우와 생활조건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8권, 141페지)

로동생활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누구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가 하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로동생활을 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로동생활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을 유린당하면서 마지 못해 하게 되는 고역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으로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와 다른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게 한다.

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로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이다. 로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여야 근로자들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능력껏 일할수 있으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로동에 대한 권리가 없이는 도대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할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는 공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법적으로 규제되여있으며 그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과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으며 로동능력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며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하고있는것은 어느 사회제도에서도 생각할수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으로 된다.

지금 《만민복지사회》라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로동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여기저기 헤매이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5.9%에 이르러 실업자수는 710만명을 넘었으며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고당한 로동자수는 무려 90만명에 달한다.

지금 경제협조개발기구에 들어있는 24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실업자총수는 2,500만여명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부

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문화적재부를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림으로써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게 한다.

로동의 결과를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의 결과를 옳게 분배하여야 근로자들이 소모된 로동력을 충분히 보상하고 자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어느 사회에서나 물질적부의 창조자로 되지만 생산물의 분배가 어느때나 그들의 리해관계에 맞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생산물의 분배는 언제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가 자본가들의 치부와 향락에 돌려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로동력을 상품으로 판 대가로 임금을 받지만 물가와 료금이 끊임없이 오르고 세금수탈이 강화되는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실질임금은 끊임없이 떨어지는것이 합법칙적이다. 그리하여 몇몇 안되는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재부를 틀어쥐고 사치하고 향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지만 광범한 근로대중은 빈궁선이하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된다.

오늘 미국에서 로동자들의 1시간당 평균실질임금은 10여년전인 1980년에 비해 9.3%로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고액소득자들의 수입은 74%나 늘어났다. 결과 인구의 200만분의 1도 못되는 부유계층들이 국민소득의 60~70%를 거머쥐고 100만딸라짜리의 호화주택과 별장에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다 누리고 있다. 반면에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근로자들이 빈궁선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로동의 결과가 자본의 증식과 자본가들의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리용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결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생산물을 근로자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분배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고려하여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보수를 받을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성실성과 자각적태도를 키우고 생산의욕을 높이며 높은 기술기능을 가지고 생산력발전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이 무상에 가까운 식량공급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의 실시, 국가 및 사회적 비용에 의한 유치원, 탁아소의 운영,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의 적용과 같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아안게 되는 혜택은 그들의 물질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실로 큰 몫을 담당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분배원칙과 공산주의싹으로서의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근로자들이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질적부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며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로동보호사업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에게 휴

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한다.

로동보호사업을 잘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보호사업을 개선할 때에만 근로자들이 사소한 불편과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할수 있다.

생산수단이 착취계급의 수중에 있고 생산이 그들의 치부와 향락을 위하여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공해로 오염된 로동환경과 로동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가혹한 로동조건에서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그리하여 로동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사망하거나 로동능력을 잃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보통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은 초보적인 로동보호시설과 안전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은 작업장에서 하루 보통 12시간씩 일에 내몰리고있다. 그리하여 로동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1980년대말에는 로동재해로 한해에 1,900여명이 죽고 14만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남조선은 로동자 100명당 로동재해발생률이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해 2~4배 높다. 남조선에서는 로동현장이 말그대로 《생명단축장》이며 《살인장》으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와 같은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철저히 보장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보호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되여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는데 커다란 국가적힘을 넣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을 건설하고 기계설비들을 만드는데서 언제나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도록 하며 해마다 거액의 자금을 들여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로동보호안전시설들을 끊임없이 신설, 정비, 확장하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이 보장된 일터에서 온갖 정열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흥겹게 일할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를 원만히 보장해주며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주는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우리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근로자들을 식민지적, 봉

전적 착취에서 해방하고 민주주의적로동질서를 세우도록 하신데 이어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끊임없이 강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인민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사회주의로동법을 마련하심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의도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로동선전을 힘있게 벌리며 로동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로동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심으로써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기 위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줌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기 우리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속에 주체의 로동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에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 주체의 로동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입니다.》

주체의 로동관은 로동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로동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이다. 주체의 로동관을 세운다는것은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적인간의 생명은 사회정치적집단에 의하여 유지되는 생명이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언제나 사회정치적집단과 혈연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사람들의 로동은 반드시 사회와 집단의 강화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로동으로 되여야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것으로 될수 있다.

사회와 집단은 어떻게 되든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로동은 결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으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동물의 생존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의 로동관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하는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영예로 여기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로동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로동의 목적과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자기 직무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며 높은 충실성과 집단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에서 헌신성과 성실성을 발양하도록 하는것이다. 특히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자라난 새 세대 청년들이 로동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이 요

구하는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로동은 사회적범위에서 조직되는 집단로동이므로 일정한 규범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여야 한다. 로동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로동생활에서 낡은 습성을 없애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우리는 로동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적으로 제정된 480분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로동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한편 로동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로동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데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하여 남보다 일을 더 많이, 더 열성적으로 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로동과 학습과 휴식을 옳게 배합하는것은 로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힘을 키워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되게 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우리는 로동과 학습과 휴식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고 학습을 생활화하며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이다.

로동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근로자들이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 창발성을 다 내여 일할수 있으며 그들의 로동생활을 안전하고 더 문명하게 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근로자들이 힘껏 일할수 있도록 원료,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금 쓰고있는 시설물과 기계설비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능률적으로,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 영양제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공급하며 로동안전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 로동재해와 사고를 미리 막도록 하는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후방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근로자들에게 후방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더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근로자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살림집과 합숙을 잘 꾸리고 부식물공급사업을 개선하며 탁아소, 유치원과 밥공장, 리발소,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더욱 원만히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적극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공장관리운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리 종 보

공장관리운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이다.

공장관리운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당위원회는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과 공장관리운영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당위원회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적지도와 행정경제적,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모든 사업이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작전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기간 박천견직공장 초급당위원회는 공장관리운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후 지난 30년간 우리 공장의 공업총생산액은 5.9배로, 직물생산량은 6.1배로, 제품의 가지수는 19배로 각각 늘어났으며 공장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업기풍, 일본새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과정에 우리 박천견직공장은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재관근위공장으로, 2중26호모범기대공장, 모범기술혁신공장으로 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가장 우월하고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게 되였으며 공장관리운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당위원회가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그것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공장관리운영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옳게 실현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당정책적요구와 공장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세울수 있고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박천견직공장 초급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되거나 새로운 경제과업이 나설 때마다 그 해결방도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찾고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왔다.

1984년초 우리 공장에서 《마안산》모포를 처음으로 생산할 때 있은 일이였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께서 애용하시던 모포를 중앙의 한 일군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견본으로 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모포를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방직공업부문에 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는 모포를 전문생산하는 공장들에서도 주저한 이 과업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그런데 정작 생산을 시작하자고보니 생소한 제품이여서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만들겠는지 좀처럼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합심하면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을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모포를 생산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배인, 기사장과 진지하게 토론하여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지배인, 기사장, 당비서가 공장해당 단위에 내려가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초급당위원회 확대회의에 제기할 대책안을 세우기로 하였다. 분공에 따라 로동과와 자재과에 내려갔던 지배인은 자재예비와 로력예비를 탐구하였으며 생산과와 기술과, 계획과에 내려갔던 기사장은 모포생산에서 걸리고있는 설비기술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찾아내였다. 공무동력직장에 내려갔던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수행하려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이 어려운 과업을 얼마든지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렇게 실태를 료해하고 대중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운 대책안을 놓고 초급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위원들속에서는 여러가지 건설적인 의견들과 좋은 발기들이 제기되였지만 우리 식의 새로운 모포를 생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당위원회는 공장적으로 설비개조조, 직물조직창안조를 조직하여 모포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초급당위원들을 현장에 내려보내여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이 문제를 풀기로 하였다.

대중은 무궁무진한 지혜의 소유자이며 훌륭한 선생이다. 현장에 내려간 초급당위원들이 우리 식의 새로운 모포를 생산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대중에게 알려주면서 그들과 그 수행방도를 협의하자 대중속에서는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과 합리적인 제안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들을 종합하여 직물조직창안조에서는 량면에 털이 돋게 직물조직을 설계할데 대한 안을 내놓았고 설비개조조에서는 비로도직기를 량면털돋이천을 짤수 있게 개조할데 대한 안을 제기하였다. 충분한 준비에 기초하여 다시 열린 초급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토의결정하였다.

새로운 우리 식의 모포를 생산하는것은 지금까지 없던 새 제품을 만드는 어려운 과업이였다. 그런것만큼 그 생산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였다. 그때마다 우리는 집행위원회에서 토의할것은 집행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지배인과 기사장, 당비서가 협의할

것은 지배인과 기사장, 당비서가 틸의하여 그것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감으로써 복잡한 생산공정을 단 20일동안에 완성하고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새로운 량면털모포를 생산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모포를 친히 보아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 이름을 《마안산》모포라고 달아주시였으며 박천견직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주시였다.

우리는 《마안산》모포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야말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이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할 때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바로 세울수 있으며 그 집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공장관리운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그것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는것이다.

공장관리운영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생산의 참다운 주인은 생산자대중이며 생산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것도 생산자대중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공장관리운영을 잘할수 있고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박천견직공장 초급당위원회는 공장관리운영에서 언제나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그것을 당면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갔다.

어느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면서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 공장종업원들의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선물을 올리기로 토의하고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창발적인 제안들을 제기하게 하였다. 그러자 대중속에서는 한두사람의 머리로써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훌륭한 제안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그가운데서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후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록수크 및 털조직직물에 립체적인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할데 대한 제안이 종업원들의 지지속에 채택되였다.

록수조직천에 립체적으로 예술적대화폭을 형상한다는것은 우리 나라 방직공업력사에서 전례없는 일로서 그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사업이였다. 혁명과업수행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립체식대형벽걸이천을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을 올리는가 못올리는가 하는것은 결국 기술자, 로동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었다.

우리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찾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이 발양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거듭되는 실패에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는 기술자들속에 들어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과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충실성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고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강의한 루지를 낳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낮에 밤을 이어 치렬한 전투를 벌려 마침내 록수직기를 만들어내였다. 그리하여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결의한대로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림제식대형벽걸이천을 선물로 삼가 올릴수 있었다.

공장당위원회는 또한 경제과업수행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면서 200일전투가 한창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을 때 우리 공장에서는 생산이 빨리 늘어남에 따라 일부 원료의 긴장성이 조성된 일이 있었다. 긴장해지는 원료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것은 공장앞에 나선 전투과제를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인 고리로 나섰다. 이렇게 되자 일부 일군들과 로동자들 속에서는 원료에 걸려서 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없게 되였다고 주저앉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였다. 공장계획수행에서 난관이 조성된 원인은 전적으로 행정경제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부족한데로부터 혁명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은데 있었다.

당위원회는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당원들의 사상문제부터 풀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그들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이신작칙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이다.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백마디의 말보다 실천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것이 더 큰 은을 낸다. 행정일군들과 간접부문의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 들어간 우리는 그들에게 창고에 원료를 쌓아놓고도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전투계획을 미달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로동계급의 혁명정신, 혁명적인 일본새가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하였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월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하자고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걸린 원료문제를 해결하는데 발벗고나섰다.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을 불러일으킬 때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필수 있고 혁명과업수행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당일군들의 뒤를 따라 행정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이 모두 떨쳐나섬으로써 단 며칠사이에 그처럼 많은 비규격솜을 잘라서 원료문제를 해결하여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는 이 과정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공장관리운영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그것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간다면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경제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공장 당 및 행정 책임일군들이 전문일군들과 함께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이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야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옳은 지도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공장관리를 실속있게 할수 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와 행정 책임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아가지고 늘 생산현장에 들어가 로동자들과 생활도 같이하고 일도 같이하면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생산자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들어있는 1직포직장을 담당한 우리가 어느날 새벽에 현장에 나가보니 문직기 10호기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기대공에게 물어보니 준비직장에서 도투마리를 미처 감지 못하여 그렇게 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준비직장에 도투마리를 당장 보장해주라고 말하고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방법으로는 도투마리

를 그 즉시에는 보장할수 있어도 생산을 정상화하는 문제를 풀수 없었다.

원래 경제사업은 마땅히 그 직접적담당자인 행정경제일군들이 주인이 되여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행정경제일군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 이튿날 우리는 행정경제일군들속에 들어가 1직포직장에 대한 도투마리보장정형을 놓고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다. 협의회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은 지난 기간 자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일을 하지 못하여 1직포직장에 도투마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못하였다고 자기비판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내놓았다. 협의회가 있은 다음 행정경제일군들은 자기들이 결의한대로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날음기를 더 많이 만들어 준비직장에 설치함으로써 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문제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일데 대한 과업이 긴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여러가지 형태의 특수직물조직을 설계하고 특수직기를 제작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이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복잡한 생산공정에 대한 지도를 지난날과 같이 책임일군들의 힘만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해낼수 없었다.

당위원회는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기 위하여 공장 당 및 행정 책임일군이 생산과 관리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현장에 내려갈 때에는 생산, 기술, 계획, 자재, 후방사업 등에 대하여 잘 아는 전문일군들과 함께 내려가도록 하였다.

책임일군들이 전문일군들과 함께 현장에 내려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지난날 책임일군들이 혼자서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것보다 훨씬 우월하였다. 책임일군들이 전문일군들과 함께 현장에 내려가니 로동자들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줄수 있었으며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수 있었다.

최근년간에 우리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십수백가지의 특제품을 개발하여 짧은 기간에 인조털천과 《마안산》모포를 비롯한 100여가지의 기본품종과 950여가지의 확대품종을 생산할수 있게 된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공장의 당 및 행정, 경제, 기술 일군들이 직장과 작업반에 내려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준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지난날 인견천 한가지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공장이 오늘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고급직물도 다 생산해내면서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는 힘있고 능력있는 공장으로 자라났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며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보다 더 우월하고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는 없으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간다면 우리앞에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경제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를 가지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옹호고수하며 더욱 빛내여나감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 실현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 강요책동과 그 후과

박 동 근

최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경제협의회》와 《무역실무회담》, 《통신회담》, 《금융회담》과 같은 여러가지 명색의 회담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이와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남조선괴뢰들을 끌어들여 이른바 《다자간협상》이란 형식을 빌어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횡포한 시장개방강요책동에는 미국대통령이 직접 앞장에 서고있다. 지난해 12월중순 상전의 계속되는 시장개방압력에 시달린 로태우역도가 이른바 《특사》를 워싱톤에 보내여 시간을 좀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부쉬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괴뢰들에게 시장개방을 불같이 독촉하였다.

남조선시장을 조속히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개방할데 대한 부쉬의 지령이 시달된 이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압력책동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시장개방압력은 제국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리용하고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략탈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시장개방압력이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자기 나라 독점자본의 해외시장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구축되여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이동을 보장하도록 대상 나라 또는 지역에 가하는 온갖 압력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시장개방압력을 더욱 교활하고 파렴치한 침략과 략탈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자본주의세계경제를 통제하며 다른 나라와 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략탈을 감행함에 있어서 특히 시장개방강요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그 전형으로 된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포괄범위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그 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면적인것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지금 남조선의 상품시장뿐아니라 봉사시장과 자본시장까지를 포괄한 시장전반의 완전개방을 강요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종전에는 주로 개별적인 상품시장, 부분적인 자본시장을 열어놓는데 집중되였다. 그러나 최근시기에 와서 미제는 공업상품은 물론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상품시장과 상품의 생산과 류통, 소비에 복무하는 각종 봉사수요와 관련된 봉사시장도 전면개방하며 지어 자본주의의 경제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본시장의 완전개방까지도 강요해나서고있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괴뢰들에게 상품시장의 완전개방을 빨리 실행할것을 강요하고있다.

상품시장은 자본주의시장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며 창조된 잉여가치가 리윤으로 실현되는데서 특별히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무엇보다 먼저 상품시장을 개방하는데 돌려지게 된다.

미제는 지금까지 남조선괴뢰들에게

시장개방압력을 가하여 남조선의 상품시장을 폭넓게 열어제꼈다. 여기에 기초하여 미제는 가까운 앞날에 나머지 공업상품을 모두 수입자유화할것을 강요하고있으며 특히 일정하게 수입제한이 인정되여오던 농산물까지도 전부 수입개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농산물시장개방강요책동은 절정에 달하고있다.

원래 농산물로서의 상품은 공업생산물로서의 상품과는 구별되는 원칙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농업생산물도 상품이라는 의미에서는 상품으로서의 공업생산물과 같은것이지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은 물질적향리품의 생산과 소득을 창조하는 기능밖에도 나라의 식량자급과 전반적인 취업보장, 나라의 균형적발전 및 환경보호와 같은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농업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매개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농업생산기반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수입을 다른 상품과 같이 완전자유화하는것을 삼가해왔으며 미국자체도 지난 시기에는 농산물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해왔던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미제는 파렴치하게도 종전의 저들의 립장을 바꾸어 농업생산물을 공업상품과 같이 완전히 수입자유화할것을 주장해나서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에게 농업생산물에 대한 현행관세를 더 낮추고 그 수입제한을 페지하며 농산물수출보조금과 농업보조금을 모두 없애고 수입농산물에 적용하고있는 식료품위생에 대한 안전규정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농업생산물도 공업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며 남조선의 농산물시장을 완전개방하라는 미제의 강도적인 요구이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이 아직도 개방하지 않고있는 547개 품목중 농산물 237개와 공업상품 36개 품목을 1991년까지 수입자유화하며 나머지 274개 가운데서 그 절반은 오는 1992년—1994년까지, 그 나머지는 1997년까지 수입자유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농산물시장을 모두 개방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제의 시장개방압력에 의하여 현재 94.7%에 달하고있는 남조선의 수입자유화률은 올해에 97.3%에 이르게 된다. 그가운데서 공업상품의 수입자유화률은 1991년에 99.9%에 이르게 되고 농업생산물의 수입자유화률은 84.9%에 이르게 된다.

앞으로 1997년에 가서는 공업상품과 함께 농산물의 수입도 자유화률이 100%에 이르러 남조선의 상품시장은 완전개방되게 된다. 미제는 이와 같은 일정을 짜놓고 그에 따라 남조선의 상품시장을 짧은 기간에 단계적으로 모두 개방할것을 강요해나서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의 엄중성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괴뢰들에게 봉사시장의 완전개방을 강요해나서고있다.

주로 상품시장 그것도 공업상품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돌렸던 종전과는 달리 지금 미제는 남조선의 상품시장과 함께 금융, 통신, 광고, 관광 등 봉사시장도 개방할것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미제는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다그치기 위하여 금융제도를 개방이 불가능한 몇개 부문만 내놓고는 나머지 부문은 모두 자동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체제》로 넘어가며 미국의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 사무소, 현지법인의 설립 및 기존기관의 인수 등 모든 금융기관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할것을 촉구하고있다. 그리고 설립된 미국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우를 높이고 금융봉사를 미국의 현지설립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할수 있게 하며 저들의 금융봉사거래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남조선금융시장의 전면개방을 의미하며 자본력이 크고 오랜 경영력사를 가지고있는 미국금융독점체들에게 남조선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내말기라

는 강도적인 요구이다.

미제는 금융시장과 함께 지금까지는 거의나 개방되지 않은채 있던 남조선의 통신정보시장을 될수록 빨리 전면개방하며 동시에 광고시장, 관광시장도 완전개방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봉사시장개방강요책동은 저들의 봉사독점체들로 하여금 남조선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남조선의 봉사부문을 완전히 장악통제하게 하려는 악랄한 책동이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괴뢰들에게 외국인투자자유화의 폭을 대폭 넓혀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제는 외국인투자에 붙어다니던 지난날의 투자제한을 없애고 투자허가제를 전반적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하며 괴뢰들이 《국산품장려》를 위해 제정하였다고 하는 《약사법》과 《기술개방촉진법》마저 비관세장벽제거란 명목밑에 개정하고 나아가서 투자제한업종을 없애버릴것을 남조선괴뢰들에게 촉구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수 없는 극히 강압적인것이다.

미제는 다른 나라들에는 시장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에 견딜수 없다고 인정되는 산업부문들에 대하여 파렴치하게도 보호무역주의적조치를 취하고있다. 미제는 《미통상법》 301조와 같은 저들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수입개방을 거절하는 나라와 지역들을 제 마음대로 《보복대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명해놓고 이 나라들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며 그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적자립을 로골적으로 부인, 말살하는 미제의 강도적인 수법의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미제는 지금 이러한 강압적수법을 남조선괴뢰들에게 꺼리낌없이 들이대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재무성, 상무성, 국무성은 물론 경제단체들과 금융기관들, 사회계, 언론계를 총동원하고 남조선의 현지지배기구들과 남조선에 침투한 미국다국적기업체들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각 방면으로 들이대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저들의 손아래 동맹자, 추종자들과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란 다자간무역협상을 벌려면서 세계 자본주의나라시장의 자유화를 일괄해결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시장을 전면개방시키려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현시기 미제가 남조선에 강요하고있는 시장개방강요책동이 그 내용에서뿐아니라 형식과 방법에서도 전례없이 파렴치하고 교활한 경제침략책동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현시기 미제가 실시하고있는 세계경제전략의 일환으로서 그것은 미국경제위기의 직접적산물이다.

미국은 원래 보호무역주의의 제창자이며 지난 기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실시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찌기 1930년대에 자기 나라 농산물을 다른 나라 농산물과의 시장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경제에서 패권을 쥔 기회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자유무역을 강요하다가 저들의 경제형편이 악화되자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정치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1968년이후 오늘까지 적자가 계속되고있다. 특히 1985년이후 무역수지적자는 년 1천5백여억딸라를 오르내리고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재정적자도 해마다 2천5백억딸라에 이르고있다.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부터 최대의 채무국으로 굴러떨어진 미국의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방대한 《쌍둥이적자》는 미독점자본주의의 숨통을 량손으로 조이고있는것이나 다름없다. 이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경제제패를 재현해보려는 야망밑에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세계경제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고있다.

미제는 이미 경쟁력이 떨어져 세계시장에서 열세에 몰리고있는 저들의 일부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아직도 우위에 놓여있다고 보는 농업,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과 금융, 보험, 통신 등 봉사업 그리고 지적소유권령역에서는 다른 나라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시장개방강요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나라 또는 지역 시장을 미국주도하의 세계단일시장에 편입하고 대상나라 또는 지역경제를 영원히 미국경제에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세계경제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정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있는 로태우괴뢰정권의 친미사대적이며 매국배족적인 경제정책과도 주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서 경제적으로뿐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도 미제에게 철저히 예속되여있다. 남조선의 로태우《정권》은 민족적자주권을 송두리채 미제상전에게 섬겨바치고 있는 철두철미 친미괴뢰정권이다.

로태우《정권》의 친미괴뢰적성격은 그들이 최근에 련이어 발표한 농산물, 봉사, 자본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할데 대한 용의를 확인한데서와 미국으로부터 상품, 기술, 자본, 지적소유권 수입을 증대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의 대미무역흑자를 시장개방압력의 유일한 구실로 삼고있다. 그러나 무역수지동태는 무역쌍방의 경제구조와 거래상품의 시장경쟁력여하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것은 경제보복의 리유로 될수 없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지난해만도 60억딸라를 넘는 막대한 적자를 내였으나 보복과 압력은 고사하고 불만이나 항의조차 한번 표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들의 대미무역흑자를 구실로 시장의 완전개방을 강요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구조를 다시한번 전면조정하며 나아가서 남조선의 생산과 류통, 분배와 소비의 전과정을 미국경제에 철저하게 종속시켜 남조선경제를 미국경제에 구조적으로 완전히 통합시키는 과정을 실현시키려고 하고있다.

로태우괴뢰도당은 미제의 요구대로 남조선시장을 완전개방함으로써 친미사대매국노로서의《충성》을 과시하는 대가로 미국상전의 버림을 면하고 식민지주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몇푼의 돈을 벌어 개인의 영달과 향락을 계속 누리며 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남조선경제와 인민생활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0권, 44페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의 대외무역에 치명적타격을 주고있다.

미국을 첫째가는 무역상대국으로 삼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남조선의 무역수지를 한층 악화시키고있으며 무역적자의 전례없는 루적현상을 빚어내고있다.

무역적자는 식민지가공무역으로 출발, 팽창해온 남조선무역의 대외적예속성과 내적취약성에 의하여 규정지어지고있는 만성적현상으로서 8.15후 오늘까지 계속되여왔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시기 나타나고있는 남조선의 무역적자는 결코 새로운것이 못된다. 그러나 1990년부터 나타나고있는 무역결손은

지난날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보다 엄중한 경제적파국을 증시해주고있다.

지난해초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한 남조선무역은 상반년에 이어 하반년에도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남조선은 47억 3천만딸라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였다. 무역수지형편은 올해에 들어와 더욱 나빠지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 1월에는 17억 1천 5백만딸라, 2월에는 16억 1백만딸라 그리고 3월에도 12억딸라에 달하는 무역결손을 내였다. 올해 1.4분기동안에만도 남조선은 45억 1천 6백만딸라의 무역적자를 내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조선무역사상 전례없는 일로서 말그대로 남조선무역에 일대 위기가 들이닥치고있다는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재계, 사회계에서 남조선무역이 이대로 나가면 올해 무역수지적자가 백억딸라선을 넘어서게 될것이라고 아우성을 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남조선의 무역수지적자는 미제의 신보호무역주의와 남조선에 대한 시장개방강요책동과 관련되여있다. 남조선의 첫째가는 임가공 및 임조립 수출상품의 납입시장으로 되고있는 미국은 남조선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각 방면으로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상품의 대남조선수출을 증대시키고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유지되여온 남조선의 대미무역흑자는 드디여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적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화되고있는 시장개방강요책동은 무역뿐아니라 경제운영전반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시장개방압력이 드세지고 무역수지가 극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남조선괴뢰들은 차관도입을 늘이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이것은 남조선의 대외채무를 다시금 증대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90년 10월말 현재 남조선의 《대외채무》는 3백 4억 2천만딸라, 30대재벌의 《현지금융》액은 81억 8백만딸라였다. 이것은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대외채무》는 10억 5천만딸라, 《현지금융》은 31억딸라가 더 늘어났다는것을 의미한다. 결과 남조선이 다른 나라에 지고있는 빚의 총규모는 지난 한해사이에 무려 40억딸라나 더 늘어났다. 이것은 년간 외채증가폭으로서 역시 전례없는 일이다. 이밖에도 남조선에 침투한 미일독점은행들로부터 꿔쓴 《외화대부》표시로 된 빚이 또한 증가하였다. 이 모든것은 지금 남조선괴뢰들과 매판재벌들이 더욱더 무거운 외국빚보따리를 걸머지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남조선경제에 대한 외래독점자본의 지배, 남조선경제의 예속화가 가속도적으로 심화되고있음을 증시하여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화되고있는 시장개방압력으로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이 체계적으로 증대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1980년에 10억딸라 안팎이였던 남조선의 농산물수입은 1985년에 25억딸라, 1988년에 43억딸라, 1990년에는 70억딸라로 급격히 늘어났다.

대량수입되는 미국잉여농산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생산된 농산물값은 생산비도 안되게 떨어졌다. 오늘 남조선농업의 생산기반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있으며 농촌은 빈집, 빈땅으로 덮인 황무지로 변해가고있다.

공업에 미치고있는 시장개방압력의 후과도 적지 않다.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압력으로 남조선의 수출품이 부두와 창고에 쌓인채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많은 기업들이 생산흐름선을 죽이고 조업을 단축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시장개방압력에 따라 남조선의 경제구조자체를 미국의 요구에 더욱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종속시킬 목적을 가진 《농업구조개선》및 《산업구조조정》을 실시

할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시장개방전략에 맞게 남조선의 생산구조, 경제구조 전반을 뜯어고침으로써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기형성과 미국경제의 부속물로서의 남조선경제의 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으로 된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화되고있는 시장개방압력은 또한 농민, 로동자, 소시민 등 인민대중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리고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들의 치부를 증대시켜 《부익부, 빈익빈》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있다.

증대되는 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남조선농산물가격의 폭락은 농민들의 농업수입을 격감시켜 농가수지적자와 농가부채의 체계적인 증대를 가져오고있으며 해마다 50만명의 리농민을 낳고있다. 정체된 수출산업을 살리기 위한 매판자본가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증대되는 재정, 금융적 지원과 통화증발은 물가상승의 직접적요인으로 작용하고있으며 임금인상의 억제와 결합되여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고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소시민과 여러 사회계층의 사람들의 생활에도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

이와 반면에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들은 《정경유착》과 농산물과 사치성소비품 수입, 판매에서 생기는 폭리로 하여 그리고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땅값, 집값 상승과 부동산투기로 막대하게 횡재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강요책동은 남조선경제를 새로운 파국적위기에로 몰아넣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압력이 빚어내고있는 엄중한 경제적파국과 인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남조선의 농민, 로동자,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미제의 악랄한 시장개방강요책동과 로태우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인 수입화시책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추동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자기들의 전지역적조직인 《전국농민회총련맹》의 지도밑에 미제의 농산물수입개방압력을 반대하는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미국과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선포하였다.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거듭 벌리면서 남조선미국상공회의소 등에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을 반대하는 항의편지를 들이대였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애국적종교인들도 미국의 수입개방강요책동을 한결같이 반대배격하고있다. 미제의 수입개방강요책동에 대한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는 민중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들과 지어는 집권층안의 일부 계층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경제가 새로운 엄중한 파국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남조선경제를 이러한 파국에로 이끈 주범은 다름아닌 미제와 로태우괴뢰도당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경제를 파국에서 건져내고 민생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제의 시장개방압력과 로태우괴뢰도당의 매국적경제시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경제합작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밖으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을 떳떳이 물리치고 경제적자주권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민족경제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제의 교활한 신식민주의적통치와 로태우괴뢰도당의 반인민적시책을 반대배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과업

주 홍 태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서고있다.

불공평한 낡은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고있으며 전반적인 국제정세는 더욱 격화되고있다.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칫부시고 세계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32페지)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공동의 숭고한 위업이다.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다같이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 자주화된 새 세계를 갈망하고있다.

인류가 지향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특권과 전횡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호상 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국제관계에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장 공정하게 제정하여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며 서로 참다운 친선과 협조를 보장해나갈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다시말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제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행사하며 공정한 리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질서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저지시키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의 실현을 다그치게 한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주의, 식민주의가 청산되고 국제무대에서 개별적인 나

라들의 전횡이 없는 세계이다.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존재하고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나라들의 전횡이 허용되는 한 온 세계의 자주화는 실현될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전횡을 부리는데 리용하고있는 주요한 수단은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인 낡은 국제질서이다.

현존하는 낡은 국제질서는 국제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지난 시기 소수의 제국주의렬강들이 국제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만 리롭게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게 만들어놓은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낡은 질서에 의거하여 오래동안 세계정치무대에서 저들만이 발언권과 결정권을 독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면서 국가 및 민족들사이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유지하였으며 약소국가, 약소민족들의 지향과 요구를 무시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 낡은 질서에 의거하여 국제경제생활의 모든 분야를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들과 뒤떨어진 나라들의 중요경제명맥들을 좌지우지하였으며 강도적인 요구들을 들이대면서 이 나라들의 풍부한 자원을 략탈하고 값싼 로동력을 착취하여 막대한 치부를 하여왔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도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질서를 공간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전횡을 부리고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일부 제국주의자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틀어쥐고있는 거부권을 리용하여 세계 평화와 안전과 관련한 문제토의에서 저들과 동맹국들에게 불리한 그 어떤 결의도 통과되지 못하게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경제기구들에서도 출자몫에 따라 표결권을 부여한 기구운영질서를 리용하여 의연히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저들만이 특권을 차지하고 전횡을 부리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성원국 140여개중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가 전체 표결수의 40%를 차지하고있으며 국제개발은행에서는 성원국 140여개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전체 표결수의 43%이상을, 국제금융통화기구에서는 성원국 120여개중 5개 나라가 전체 표결수의 근 50%를 차지하고있다.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표결규정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단순한 절차상 문제같은것을 토의하는 경우에도 미제가 혼자 반대하면 결정이 채택되지 못하게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경제관계에서도 낡은 질서에 의하여 지탱되는 불공평한 분업체계, 부등가교환에 기초한 무역제도, 딸라본위의 금융통화제도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의 수단으로 리용하면서 전횡을 부리고있다. 1987년 2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발전도상나라들이 부등가교환에 의하여 입은 손실과 《원조》에 의하여 걸머지고있는 대외채무는 무려 1조 800억딸라에 달한다. 1차산품가격의 저하로 인하여 아프리카나라들이 걸머진 대외채무만 하여도 현재 4,000억딸라이며 2,000년에 가서는 6,000억딸라로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제반 사실은 국제무대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이 얼마나 횡포무도하며 그것이 초래하는 후과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국제무대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끝장내고 평등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특권적인

지위와 리익을 허용하지 않고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공정한 원칙에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크기나 발전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에 동등한 권리를 주고 공정한 리익을 보장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지배와 예속, 불평등의 기초를 없애버리게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특히 지난날과는 달리 제국주의자들에게 강한 구속력을 행사할수 있게 함으로써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국제무대에서 함부로 전횡을 부리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날치지 못하게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관계를 가질 때, 지배주의, 식민주의가 맥을 추지 못하게 될 때 온 세계의 자주화는 더 빨리 실현되게 될것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또한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자주적발전을 보장함으로써 온 세계 자주화의 실현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나라의 인구수, 령토의 크기, 경제문화의 발전수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같이 국제사회의 한 성원을 이루고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자면 그것을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 자주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질서, 국제무대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지켜야 할 국제적인 규범, 질서가 있어야만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자주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질서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는 주되는 요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질서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여 자주권을 유린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있다. 그들은 일련의 국제기구들에서 차지하고있는 특권적지위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저들의 의사에 순종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비렬한 정치적압력과 위협공갈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지어는 발전된 저들의 경제력에 의거한 《원조》와 《협조》를 구실로 발전도상나라들의 정치제도까지 고칠것을 강요하고있으며 불공평한 국제경제질서를 리용하여 이 나라들이 자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과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으로 발전하자면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형태의 압력이나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기의 신념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철저히 행사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만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만일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부압력에 눌리워 다른 나라에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세울수 없으며 그 관철에서도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게 된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자주성을 고수하고 실현할 국가의 권리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할 국가의 의무에 기초하여 나라들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모

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보장할수 있게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을 매개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기본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은 낡은 국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의 지위를 높여주며 그들의 자주적발전에 넓은 길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면 국제문제해결에서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행사하여 대외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 나아가서 세계자주세력의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할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경제관계에서 낡은 질서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연부원을 보호하고 그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면 국제공보분야에서도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공보수단의 독점과 전횡, 공보내용의 외곡 및 편중을 없애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을수 있으며 민족문화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나라들의 자주권이 보장되고 자주적발전이 담보될 때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될것이다.

이처럼 불공평한 현존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면 지배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권이 보장되는 새 세계, 자주화된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현시기 국제관계분야에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된다.

현시기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의 자주력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련합된 세력으로 낡은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강대국들에게만 유리하게 발언권과 결정권이 부여되고 저들에게만 리익을 주게 되여있는 낡은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를 주종관계,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로 계속 이끌어가려하고있다.

낡은 국제질서를 더욱 유지강화하고 개악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최근년간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기화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최근 미국반동지배층이 《오래동안 바라오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기회》가 왔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미국이 《세계를 이끌 지도적책임》이 있다고 제창하고있는것은 그 집중적인 표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새로운 세계질서》란 자본주의나라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저들의 지배를 받는 질서를 의미하며 미국의 《지도적책임》이란 이러한 《세계질서》가 미국의 《책임》과 《역할》에 의하여 수립되고 유지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제의 《새로운 세계질서》수립의 궁극적목적은 자주와 사회주의 길로 전진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예속시키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지배의 질서를 확립하려는것이다.

미제는 저들의 《새로운 세계질서》수립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민족국가와 자립적민족경제, 민족문화를 부정하고 《세계국가》와 《세계적인 경제》, 《국적없는 문화》를 제창하는 반동적인 사상조류인 세계주의를 광범히 류포시키

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정부》로 되여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를 수립하려는 미제국주의의 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서 미제가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는가를 보여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은 낡은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불평등하고 모순에 찬 세계질서를 마사버릴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세울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23~24페지)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이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는 결코 스스로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버리려 하지 않는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과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새 국제질서 수립에 응해나오게 될 때에만 세울수 있다.

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자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변장술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변장술에 속아넘어가 그들을 《동료》로 여기면서 무원칙하게 타협하는것은 반제자주력량의 지향과 요구에 등을 돌려대는 배신행위로,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대한 로골적인 포기로 된다. 실천은 사회주의를 비롯한 자주력량과 제국주의세력사이에는 그 어떤 《동반자관계》도, 《동료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또 이루어질수도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가질수 있으며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킬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제국주의자들과 원칙적문제를 가지고 흥정하여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근본리익을 팔아먹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하여 반제적립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주체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자주력량사이의 심각한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은 자주력량의 불패의 힘의 원천

이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자주력량의 단결은 이 력량을 분렬, 리간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게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자기의 자주성을 견지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지배세력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때 낡은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대외관계에서 자주, 평화, 친선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은 온 세계 자주화의 요구에 맞게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견지하여야 할 활동원칙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성을 척도로 하여 평가하고 처리하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온갖 현상들을 반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간섭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온 세계 자주화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 나라와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과 도전을 물리치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실현된 새 세계를 빨리 건설해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91년 제6호(루계 590호)

편 집 위 원 회

편꿋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91년 6월 1일 발 행 • 1991년 6월 3일

ㄱ—1580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